

생태로 ^더 행복한 도시, 지속가능한 순천

순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 2021 순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수정 보고서 -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Suncheon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목 차

■ ‘순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비전	9
■ 지표 작성 위원	10
■ ‘순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요약	13
■ ‘순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분야별 지표	19
제1절. 도시·환경 분야	21
1.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순천만	23
2. 깨끗한 공기와 물의 순환도시	44
3. 안전하고 모두가 편리한 저탄소 녹색교통	55
4. 시민이 함께 만드는 자원순환 도시	64
제2절. 교육 분야	69
5.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71
6. 지역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교육 보장	86
제3절. 복지 분야	93
7. 차별 없는 복지 더 행복한 순천	95
제4절. 자치 분야	113
8. 주민 주권이 구현되는 도시	115
9.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는 도시	125

목 차

제5절. 경제·산업 분야	129
10.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131
11.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체감 행복도시 구현	136
제6절. 문화·관광 분야	149
12. 머물고 싶은 생태·문화·관광도시	151
제7절. 농업 분야	171
13. 지역 순환형 공동체 농업	173
14. 지역민과 공생하는 공동체	182
15.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192
■ 첨부자료	209
1. 순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S-SDGs) 세부목표 및 지표목록	211
2. K-SDGs 목표별 세부목표 및 지표목록	223
3. UN SDGs 글로벌 지표 리스트	243
4.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을 위한 순천시민 의식조사	263
5. 남북협력지표 개발을 위한 순천시민 통일의식 설문조사	293

표 목 차

<표 1-1> 도시공원 및 녹지대 현황	24
<표 1-2> 2017년 시민 1인당 도시공원녹지 조성 면적	24
<표 1-3> 2017년도 순천시 조림현황(Reforestation)	27
<표 1-4> 2017년도 순천시 임상별 산림면적(Forest Land)	27
<표 1-5> 관련 조례에 근거한 연도별 사업 건수 및 예산집행 현황(2015~2017)	29
<표 1-6> 순천시 순천만 습지 보전 관리 및 지원사업 제 7조(사업시행)	30
<표 1-7> 신축 녹색건축물 현황	37
<표 1-8> 그린 리모델링 녹색건축물 현황	40
<표 1-9> 옥상녹화 녹색건축물 현황	40
<표 2-1> 전남 순천시 도시대기측정망 정보(2017년 기준)	52
<표 7-1> 지역별 합계 출산율	103
<표 7-2> 전국 장애인 및 비장애인 체육시설 현황	110
<표 8-1> 국·내외 참여 분야 측정 목표와 관련지표	117
<표 8-2> ‘숙의’제도 유형(2018. 자치분권종합계획)	118
<표 10-1> 순천시 도시가스 보급률(%) : 도시가스 수요가구수/공급권역 총가구수	131
<표 10-2> 순천시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전체 전력판매량	133
<표 11-1> 우리나라 벤처기업인증 기업수(개)	137
<표 11-2> 순천시 지역내총생산액(십억원)	138
<표 11-3> 순천시 벤처기업인증 수	139
<표 11-4> 순천시 지역총생산액 증가율(%)	140
<표 11-5> 순천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수(2019.10월 기준)	141
<표 11-6> 사회적경제 조직 공공구매실적 및 계획	142
<표 11-7> 순천시 전통시장 현황	143
<표 11-8> 2018 하반기 전라남도 도시별 고용률 및 실업률(%)	146
<표 12-1> 관광 전반적 만족도	154
<표 12-2> 순천 관광객의 재방문 의사와 추천의향	155
<표 12-3> 내일러의 방문 의사 및 추천의향	156
<표 12-4> 순천시 문화기반시설 현황	157
<표 12-5> 아고라 순천 연도별 참여 현황	160
<표 12-6> 순천시 원도심 지역 공예공방과 문화공간 현황	161
<표 12-7> 순천시 지역 생활문화시설 현황	163
<표 12-8> 순천시 전체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비율	165
<표 13-1> 농가 및 농가인구 추이	174
<표 13-2> 연령별 농가인구 추이	174

<표 13-3> 친환경농산물 출하 현황 추이	176
<표 14-1> 순천시 농촌지역의 마을 구성	183
<표 14-2> 농어업인의 농어촌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 평균	186
<표 14-3> 농어업인의 현 거주지에서 5년 이내 이주 의사층(9.5%)의 사유	186
<표 15-1> 순천시의 2015년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194
<표 15-2> 2017년 농업인의 경제규모별 농업의존도, 가계비충족도, 농업소득율	195

그림 목차

[그림 1-1] 순천시 지원 녹색건축물 위치 현황	41
[그림 2-1] 전남 순천시 도시대기측정망 위치(2017년 기준)	52
[그림 7-1] 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 흐름도	96
[그림 7-2] 기초수급자 1인 가구수	97
[그림 7-3] 연도별,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100
[그림 7-4] 연도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100
[그림 7-5] 노령화 지수	103
[그림 7-6] 65세이상 치매환자수와 치매 유병률	104
[그림 7-7] 치매 전국 유병률 및 지역별 TOP5	104
[그림 7-8]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현황	111
[그림 11-1] 지역별 벤처기업인증 기업 수(2020,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138
[그림 11-2] 순천시 지역내총생산액 변동(2015년 기준)	139
[그림 13-1] 도심텃밭 조성 현황	179

‘순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비전



『생태로 더 행복한 도시, 지속가능한 순천』은 ‘순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이 제시하는 비전이다. 생태환경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풍요로운 경제를 실현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이 지속되는 순천을 구현해 나아간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생태로 더 행복한 도시’는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우리시의 지향과 일치하며, 생태를 바탕으로 경제와 교육, 공동체 영역에서 생태적 원리와 가치 실현으로 자연생태 환경 안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도시로서 정책적인 목표를 표현하고 있다. 행복한 삶의 미래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도시환경 기반 속에서 열린다.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개념인 지속가능성은 공동체를 따뜻하게 한다. 기후위기와 저성장, 양극화, 미세먼지, 고령화 등 이 시대를 정의하는 어려움들은 사람살이의 근간인 공동체 문화의 회복을 통해 헤쳐 나갈 수 있다. 가족과 이웃, 일터, 도시와 농촌이 따뜻하게 어우러진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이끌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념이다.

지 표 작 성 위 원

분 과	성 명	소 속	비 고
도시 · 환경	안삼영 정정조 김영대 장채열 송상기 정경석 조계중 김현우 조병록 박상숙 박성훈 김효승 박병열 이 정 김인철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온누리동물병원 원장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포럼위원장 순천제일대학 기계자동차과 교수 청암대학교 건축디자인과 교수 순천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순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순천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패시브하우스 전남포럼 대표, 건축사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소장	15명
교육	김소라 김우영 김혜숙 홍승용 오승우 임경환 손승남 전영국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청암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순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상무이사 책방 심다 대표 사회적기업 에듀펀플러스 사무국장 순천폴뿌리교육자치지원센터 센터장 순천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순천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8명
복지	김현나 이숙경 형근혜 문성윤 강현승 정한나 신성의 박애리 김철호 강희순 이정근	청암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순천제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더드림 실버타운 이사장 SOS 어린이마을 원장 순천제일대학교 재활과 교수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前)순천YWCA 사무총장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순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순천시지회 회장	11명

분 과	성 명	소 속	비 고
자치	김대용 김 석 이복남 안병훈 오영희 최창민 하정봉 임승관 임서영 신광래 이항기	(사)전남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 순천 YMCA 사무총장 순천시의회 의원 코레일 전남본부 한울타리봉사단 팀장 에코그린 대표 전남 CBS 보도제작부 취재기자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회 대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 前) 순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前) 덕연동 주민자치회 회장	11명
경제 · 산업	박철우 김상일 박노춘 김문정 오양현 최태원 서평원 서호기 김유빈 김종효	순천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순천KYC 대표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안전관리과 교수 해피락 본부장 순천제일대학교 학사운영처 처장 유에너지 대표 순천농협 경제상무 순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엘시스 이사 새벽을 여는 사람들 대표	10명
문화 · 관광	정희선 정종민 양숙향 박정현 김영화 오기훈 송 춘 장안순 모세환 최경필 박화영 김현진	(재)범민문화재단 이사장 명인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문화공유 프로젝트 우리 대표 순천제일대학교 국제통상과 교수 청암대학교 호텔항공서비스과 교수 순천무용협회 고문 한국화가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대표 순천문화재단 이사 순천문화원 이사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학술연구 교수	12명

분 과	성 명	소 속	비 고
농업	강대구 최수임 송경환 박의찬 배창휴 남창우 조영식 천지연 이상석 송은주 김난이	순천대학교 농업교육과 교수 순천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덕동원 대표 순천대학교 웰빙자원학과 교수 순천로컬푸드(주) 본부장 한솔영농조합법인 대표 순천대학교 식품공학전공 교수 순천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교수 순천아이쿱생협 이사 순천YMCA 아이쿱생협 이사장	11명

‘순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지표 요약

○ 도시·환경 분야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SDGs			UN SDGs
정책목표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1.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순천만	1.1. 세계 수준의 공원·녹지 조성 면적의 확보	1.1.1. 1인당 공원녹지 조성 면적	11. 지속 가능한 도시
	1.2. 시민의 참여로 가꾸가는 숲의 도시	1.2.1. 생활 속 생태문화 시민 운동 천만그루 나무심기 달성률	13. 기후변화대응 15. 육상 생태계 보호
	1.3. 순천만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	1.3.1. 순천만 보전·관리 예산	14. 해양 생태계 보존
		1.3.2. 두루미 개체수	
	1.4. 적정수준의 수산자원 관리로 지속 가능한 어업실현	1.4.1. 흑부리오리 개체수 비율	
	1.5. 탄소중립 시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1.5.1. 녹색건축물 건수와 면적	11. 지속 가능한 도시
2. 깨끗한 공기와 물의 순환도시	2.1. 시민 모두가 누리는 깨끗한 하천과 물 순환 도시 조성	2.1.1. 동천과 이사천의 BOD 농도	6. 깨끗한 물과 위생
		2.1.2. 순천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2.1.3. 수돗물 수질 만족도	
		2.1.4.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2.2. 공기가 깨끗한 도시 실현	2.2.1. 연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	3. 건강과 웰빙 11. 지속 가능한 도시 13. 기후변화대응
		2.2.2. 8시간 평균 오존 농도	
3. 안전하고 모두가 편리한 저탄소 녹색교통	3.1.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자를 줄여 최상의 교통문화지수로 선진교통문화 확립	3.1.1. 교통사고 사망자	3. 건강과 웰빙
		3.1.2. 교통사고 상해자	
		3.1.3. 교통문화지수	
	3.2.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	3.2.1. 대중교통 만족도	11. 지속 가능한 도시
	3.3. 녹색교통 수송 부담률의 증가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3.3.1. 친환경자동차 보급 대수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SDGs			UN SDGs
정책목표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4. 시민이 함께 만드는 자원순환 도시	4.1. 폐기물 원천예방과 발생 감소	4.1.1.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12.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4.1.2. 1인당 폐기물 발생량	11. 지속 가능한 도시 12.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 교육 분야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SDGs			UN SDGs
정책목표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5.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5.1. 시민 환경교육의 활성화	5.1.1. 시민환경교육 실시 횟수	4. 양질의 교육 13. 기후변화대응
		5.1.2. 시민환경교육 참여자수	
	5.2. 직업훈련 기회 증진	5.2.1. 직업교육 참여자수	4. 양질의 교육 8.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5.2.2. 직업교육에 대한 만족도	
	5.3. 양성평등 의식 향상	5.3.1.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비율	4. 양질의 교육 5. 성 평등 10. 불평등 해소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5.3.2.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만족도	
	5.4. 인권보호 의식 향상	5.4.1. 인권 및 다양성 이해 교육 프로그램수	
		5.4.2. 인권 및 다양성 이해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5.5. 장애인 평생학습 환경조성	5.5.1.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수	
		5.5.2.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	
6. 지역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교육 보장	6.1.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교육거버넌스 운영	6.1.1. 교육민회(정담회) 참여자수	10. 불평등 해소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6.1.2. 마을교육공동체 개수	
		6.1.3. 지역화 교육과정 개발 논의 횟수	
	6.2. 주민이 주인이 되는 평생학습	6.2.1. 지역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수	
	6.3. 지역대학과 상생하는 도시	6.3.1. 지역대학 협력 연계 사업수	

○ 복지 분야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SDGs			UN SDGs
정책목표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7. 차별 없는 복지, 더 행복한 순천	7.1. 사회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수급자 자녀의 수급 대물림 차단	7.1.1. 수급 대물림 차단 비율	1. 빈곤 종식
	7.2.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	7.2.1.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1. 빈곤 종식 3. 건강과 웰빙
		7.2.2.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7.3. 저출산 극복 및 고령화 대비 아이와 노인이 함께 살기 좋은 행복한 복지 프로그램 확대	7.3.1. 순천시 합계출산율	3. 건강과 웰빙
		7.3.2. 노인의 치매유병률	
		7.3.3. 영유아 및 노인 복지 체감도	
	7.4. 순천시민의 성평등 의식 확립으로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실현	7.4.1. 여성친화도시 시민만족 체감도	5. 성 평등
	7.5.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보장과 복지향상	7.5.1.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율	5. 성 평등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자치 분야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SDGs			UN SDGs
정책목표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8. 주민 주권이 구현되는 도시	8.1.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도시	8.1.1.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10. 불평등 해소
		8.1.2. 숙의기반 주민참여 플랫폼(광장 토론, 공론 조사, 합의 회의, 시민 회의, 주민 배심 등) 참여자수	
	8.2. 주민 자치가 실현되는 도시	8.2.1.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	11. 지속가능한 도시
		8.2.2. 마을계획 수립 현황	
		8.2.3. 주민자치 사업예산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SDGs			UN SDGs
정책목표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8.3. 주민 결정권이 강화되는 도시	8.3.1. 주민참여 예산 제안 참여자수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8.3.2. 24개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여부	
		8.3.3. 년 도별 주민참여 예산	
9.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는 도시	9.1.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교류 협력	9.1.1. 남북교류촉진을 위한 시민운동 참여자수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9.1.2. 남북교류촉진 민·관 협력 예산	17. 지구촌 협력

○ 경제·산업 분야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SDGs			UN SDGs
정책목표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10.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10.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10.1.1. 도시가스 보급률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10.2.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 확대	10.2.1.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11.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체감 행복도시 구현	11.1. 신산업, 순천다움을 위한 산업육성	11.1.1. 벤처기업인증 기업수	9. 산업, 혁신과 인프라
		11.1.2. 순천시 지역총생산액 증가율	
	11.2. 사회적경제 조직, 전통 시장 육성을 통한 포용적 경제성장	11.2.1.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
		11.2.2. 사회적경제 조직 공공구매율	
		11.2.3. 온누리·순천사랑 상품권 회수액	
	11.3. 순천형 좋은 일자리 창출	11.3.1. 고용률	
		11.3.2. 청년고용률	

○ 문화·관광 분야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SDGs			UN SDGs
정책목표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12. 머물고 싶은 생태·문화·관광도시	12.1. 10년 뒤에도 아름다운 생태관광 도시	12.1.1. 관광만족도	11. 지속가능한 도시
	12.2. 순천의 역사와 문화, 예술이 축적 되고 향유되는 인프라 구축	12.2.1. 역사, 문화, 예술 분야 기관(또는 공간) 수(인구천명당 문화기관시설수)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
		12.2.2. 기준연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비율	
	12.3. 생태예술, 문화산업의 아이디어들이 실험되고 개발 구현되는 도시	12.3.1. 자체 기획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건수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
		12.3.2. 인근 지자체와 화합해서 하는 공연문화예술 건수	

○ 농업 분야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SDGs			UN SDGs
정책목표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13. 지역 순환형 공동체 농업	13.1.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전문 후계 농업인 육성	13.1.1. 청년후계농 선발 육성	2. 기아종식 및 지속 가능한 농업 4. 양질의 교육
	13.2. 유기농·무농약 기법을 활용한 안전한 농산물 공급 확대	13.2.1.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	2. 기아종식 및 지속 가능한 농업
	13.3. 도농 교류 확대를 통한 도농상생 기반 구축	13.3.1. 도시농업 텃밭분양 구좌수	11. 지속 가능한 도시
		13.3.2. 농촌지역 행사에 참여한 도시 지역 인원수(함께 개최한 행사수)	
14. 지역민과 공생하는 공동체	14.1. 농·산·어촌 지역주민에 의한 마을 개발 활성화	14.1.1. 마을개발 활성화 사업수	2. 기아종식 및 지속 가능한 농업
		14.1.2. 권역 지역주민 참여수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SDGs			UN SDGs
정책목표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14.2. 농·어촌 주민의 교육·복지·의료 확대	14.2.1. 농·어촌 주민의 복지 수혜 인원수	3. 건강과 복지 4. 양질의 교육
		14.2.2. 농·어촌 지역 의료인수	
		14.2.3.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수혜 인원 증가율	
	14.3. 로컬푸드를 통한 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	14.3.1. 로컬푸드 참여 농가당 연간 판매액	2. 기아종식 및 지속 가능한 농업
		14.3.2. 로컬푸드 참여 농가수	
		14.3.3. 지역 농산물 가공 품목수	
15.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15.1.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	15.1.1. 소농직불금 수혜 농가수	1. 빈곤퇴치 2. 기아종식 및 지속 가능한 농업
		15.1.2. 도시근로자 가구당 농가평균 소득액 비율	
	15.2.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15.2.1. 농촌관광종사자별 평균 매출액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5.2.2. 농촌관광지별 지출대비 수익률	
	15.3. 농·산촌 자연경관 보전	15.3.1. 자연경관 관리비 지출액	6. 깨끗한 물과 위생 15. 육상 생태계 보호
		15.3.2. 자연경관보전 투자비용	
	15.4. 전통종묘 유지와 보급	15.4.1. 전통종자 유지수	2. 기아종식 및 지속 가능한 농업
		15.4.2. 매년 채종되는 종자 품목수	

‘순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분야별 지표

제1절. 도시·환경 분야

제2절. 교육 분야

제3절. 복지 분야

제4절. 자치 분야

제5절. 경제·산업 분야

제6절. 문화·관광 분야

제7절. 농업 분야

제1절. 도시·환경 분야

1.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순천만
2. 깨끗한 공기와 물의 순환도시
3. 안전하고 모두가 편리한 저탄소 녹색교통
4. 시민이 함께 만드는 자원순환도시

1.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순천만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지표		UN SDGs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1.1. 세계 수준의 공원·녹지 조성면적의 확보	1.1.1. 1인당 공원녹지 조성 면적	11. 지속 가능한 도시
1.2. 시민의 참여로 가꿔가는 숲의 도시	1.2.1. 생활 속 생태문화 시민운동 천만그루 나무심기 달성률	13. 기후변화대응 15. 육상 생태계 보호
1.3. 순천만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	1.3.1. 순천만 보전·관리 예산	14. 해양 생태계 보존
	1.3.2. 두루미 개체수	
1.4. 적정수준의 수산자원 관리로 지속 가능한 어업실현	1.4.1. 흑부리오리 개체수 비율	14. 해양 생태계 보존
1.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15.1. 녹색건축물 건수와 면적	11. 지속 가능한 도시

1.1. 세계 수준의 공원·녹지 조성면적의 확보

1.1.1. 1인당 공원녹지 조성 면적

1) 환경분석

- 순천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친환경생태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태도시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도시의 1인당 공원·녹지면적과 도시의 녹지율이 해당됨
- 도시내 공원·녹지조성으로 인한 효과로는 시각적인 심미성, 쾌적성이외에도 먼지의 70~90% 감소, 여름철기온 3~7℃ 저감효과, 9~23%의 습도를 높이고 80%의 차량소음을 감소시키는 실질적인 기능을 제공함
- 따라서 21C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의 목표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공원, 녹지의 양적, 질적 확충 등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지율, 공원면적 등 세계수준의 공원·녹지 제공을 위한 정책이 요구됨

2) 도시공원녹지 현황

<표1-1> 도시공원 및 녹지대 현황

(단위 : m², %)

구분	전 체		조 성			미 조 성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계	293	12,844,000	213	5,707,313	44.4	80	7,136,687	55.6
도시자연	5	7,087,571		2,413,604	34.1	5	4,673,967	65.9
도시공원	288	5,756,429	213	3,293,709	57.2	75	2,462,720	42.8
근린	28	1,032,467	23	758,543	73.5	5	273,924	26.5
어린이	73	174,562	63	138,411	79.3	10	36,151	20.7
수변공원	20	304,494	4	192,052	63.1	16	112,442	36.9
소공원	44	70,360	34	57,542	81.8	10	12,818	18.2
문화공원	3	1,567,951	2	1,151,987	73.5	1	415,964	26.5
체육공원	1	17,931	1	17,931	100.0			0.0
묘지	1	187,535	1	187,535	100.0			0.0
역사공원	1	81,430				1	81,430	100
녹지	117	2,319,699	85	789,708	34.0	32	1,529,991	66.0

<표1-2> 2017년 시민 1인당 도시공원녹지 조성 면적

(단위 : m²)

인구	도시공원			1인당 계획면적 (m ²)	1인당 조성 면적(m ²)	1인당 조성율 (%)
	전체	조성	미조성			
281,176	5,756,429	3,293,709	2,462,720	20.47m ²	11.7m ²	57%

* 도시자연공원은 2005년 도시공원에서 분리되었으므로 시민1인당 공원녹지에서 제외함.

- 2017년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시민1인당 도시공원 계획면적은 20.47m²이며 시민1인당 도시공원녹지 조성면적은 11.7m²임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정책지표 \ 연도	2017	2020	2025	2030
1인당 도시공원녹지 조성 면적(m ²)	11.7	13	16	18

측정방법 :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 도시공원(근린, 어린이, 소공원, 주제공원, 수변공원, 녹지, 묘지공원) 면적 ÷ 해당년도 총인구 × 100

- 생태도시로의 지속적인 노력을 전제로 2030년 공원·녹지 조성면적 18m²/인 으로 설정하였음
- 이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12.5m²/인,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16m²/인, 2025 광양만권도시기본계획 16m²/인, 2025 순천시 도시계획 16m²/인 등을 고려한 추정 목표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2020년 7월 1일)에 의한 공원면적 감소 및 ‘2030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인한 도시의 정원화 추진 및 미조성 공원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주제공원 신설계획에 따른 공원 녹지율 확보 등 여건 반영 등을 고려하였음
- 일몰제 이후 정비(해제, 확충)를 통한 공원녹지체계 확립 및 현실적인 공원녹지 확충방안 필요함

1.2. 시민의 참여로 가꿔가는 숲의 도시

1.2.1. 생활 속 생태문화 시민운동 천만그루 나무심기 달성을

1) 환경분석

- 우리나라 국민들은 산림생태계 보전(32.3%), 치유·휴양 공간 제공(19.9%), 도시숲 제공(16.2%)에 대한 정책 기대
- 순천은 남해안권 국가산업단지 밀집으로 인해 탄소배출과 오염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산림 자립형 에너지 생산과 국민건강 휴식처 등 복합적 기능을 가진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숲의 지속 가능한 관리 필요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생태도시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도시의 1인당 공원·녹지면적과 도시의 녹지율이 해당됨
- 숲이 주는 환경적인 기능은 미세먼지 제거, 야생동물의 서식처, 휴양 및 치유, 녹색댐, 심미성, 쾌적성이외에도 먼지의 70~90% 감소, 여름철기온 3~7℃ 저감효과, 9~23%의 습도를 높이고 80%의 차량소음을 감소시키는 실질적인 기능 등 다양함
- 21C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추진을 위해 실질적인 공원, 녹지의 양적, 질적 확충 등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 생활 속 생태문화 정착,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해 시민 스스로 반려나무를 심고 가꾸기 운동 추진 정책이 요구됨

2) 순천시 조림현황

- 다음 <표1-3>은 2017년도 순천시의 조림현황임
- 순천시 조림면적은 전라남도 내에서 보성군(328ha) 다음으로 많은 310.9ha에 이르고 있으며, 산지가 많은 화순(264.4ha), 곡성(221.1ha)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1-3> 2017년도 순천시 조림현황(Reforestation)

구분	조림지			
	합계	경제수	큰나무	기타
면적(ha)	310.9	235.4	72	3.5
본수(천본)	782.3	686.2	95.7	0.4

* 자료: 전라남도 통계연보(2017)

- 아래 <표1-4>는 2017년도 순천시 임상별 산림면적을 나타낸 것으로 순천시의 산림면적은 총 62,645ha이며 2,672ha의 미입목지를 포함한 것임
- 순천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지표 달성을 위해 미입목지를 활용하여 천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음

<표1-4> 2017년도 순천시 임상별 산림면적(Forest Land)

구분	합계		입목지				미입목지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죽림	Un-stocked
면적(ha)	62,645	59,993	28,428	16,413	14,552	580	2,672

* 자료: 전라남도 통계연보(2017)

3) 지표에 대한 설명

-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 어울리는 순천시 전반에 대한 생태문화 확산과 제2의 도약을 위한 시민참여와 화합 필요
- 미세먼지, 폭염, 기온 상승, 열대야 발생 증가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순천시가 직면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임목조림은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의 중요한 정책임
- 열섬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조림과 식재림을 확대하여 '산림생태계의 보존'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을 꾀할 수 있음

- 녹지축과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 천만그루 나무심기 범시민 운동을 통하여 숲의 도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완성을 목표로 함

4)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지표 \ 연도	계	2020	2025	2030
천만그루 나무심기 수량(만주)	1,000	120	650	1,000

- 생태도시로의 지속적인 노력을 전제로 순천시의 조림계획을 1,000만주로 설정하였음
- 시는 '19년 110만주, '20년 120만주 심기 등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각각 500만주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는 숲과 나무로 사람이 숨쉬기 좋은 순천을 위한 시민과 함께 천만그루 나무심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천만주 나무심기 계획을 토대로 한 추정치임

② 천만그루 나무심기 달성률

정책지표 \ 연도	계	2020	2025	2030
천만그루 나무심기 달성률(%)	100%	12%	65%	100%

- 위 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천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지표 달성을 위해 미입목지를 활용하여 천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성공적으로 숲의 도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음

1.3. 순천만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

1.3.1. 순천만 보전·관리 예산

1) 환경분석

- 순천시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선정
- 순천만은 2006년 국내 최초 람사르 연안습지로 등록, 문화체육부 관광부 생물생태자원 최우수 관광지 지정, 관광수입으로 3천억원의 경제효과 예상
- 순천만 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에 재원 투자 (자연생태공원 기반 조성-190억원, 용산 일몰테마 공원 조성-25억원, 생태탐방로 조성-43억원)
- 순천만에 대한 산발적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갯벌의 저질환경, 식물상, 조류상, 저서생물상, 어패류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연구 사업은 적어 순천만 습지의 종합적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고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가 미흡한 상태임<표1-5>

<표1-5> 관련 조례에 근거한 연도별 사업 건수 및 예산집행 현황(2015~2017)

주요 사업	2015년		2016년		2017년	
	집행건수	집행금액(천원)	집행건수	집행금액(천원)	집행건수	집행금액(천원)
주민지원사업	9	90,000	20	268,475	17	157,000
연구조사 및 인식증진 사업	5	386,498	3	49,947	3	41,800
정화사업	2	89,845	3	138,501	3	101,442
교류사업	2	5,156	3	182,738	3	116,600
기타	—	—	1	520,048	1	613,752
총 합계	18	571,499	30	1,159,709	27	1,030,594

2) 지표에 대한 설명

- 순천시는 순천만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2014년 순천시 순천만습지 보전 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 조례에 의해 순천만 관람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 징수금액의 전전년도 수입 결정액의 10%를 <표 1-6>의 사업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표1-6> 순천시 순천만 습지 보전 관리 및 지원사업 제 7조(사업시행)

1. 순천만습지보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2. 순천만 갯벌습지의 수질, 저질, 저서생물, 염생식물, 조류 등 환경 및 생태계 생물상 조사
3. 순천만습지 영향지역의 오염원과 유입하천의 수질, 유량, 퇴적물 조사
4. 순천만 갯벌 어패류 생산성 및 어업과 영농활동 변화 및 연안주민의식 조사
5. 순천만 주변마을 주민 대상의 생태마을 가꾸기, 마을주변 정화활동, 갯벌모니터링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모사업
6. 시민·환경단체·NGO 대상의 습지보전 프로그램 공모사업
7. 순천만갯벌생태안내인 양성교육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체험교구 제작 등 대중인식증진사업
8. 순천만 갯벌생태 조사자료 백서 발간 및 정보 공개 사업
9. 순천만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및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 기술 교류 협력사업
10. 그 밖에 순천만습지 보전에 맞는 사업이나 활동

-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이 재원을 활용하여 주민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교류사업, 정화사업, 연구 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나 정작 순천만습지의 생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순천만습지의 생태환경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및 지속가능하며 현명한 이용을 위한 지표 설정이 필요함
- 순천만 습지의 생태환경을 조사하는 연구사업의 수와 예산을 지표로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습지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단위: 천원)

정책지표 \ 연도	2019	2020	2025	2030
순천만 보전 및 관리 관련 예산(건수)	50,000(2)	150,000(3)	250,000(5)	500,000(10)

1.3.2. 두루미 개체수

1) 환경분석

- 순천만 습지는 연안습지(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와 내륙습지(동천하구습지보호지역)가 통합적으로 보호·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하천의 범람원과 기수역, 염습지, 갈대밭, 갯벌 등 서식지와 경관의 다양성이 높은 곳
- 순천만 동천하구 일대는 남해안에서 보기 드문 넓은 갯벌과 농경지가 발달되어 있어 매년 겨울이면 흑두루미와 검은목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흑부리오리 등 1만여마리의 물새들이 월동하고, 봄가을에는 알락꼬리마도요와 큰뒷부리도요, 청다리도요 등 도요물떼새 등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상의 중간기착지로 이용함
- 높은 접근성과 아름다운 경관, 생태환경교육장, 생태관광자원,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서의 가치, 순천만정원과 연계 등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순천시의 핵심브랜드로 육성되고 이용되고 있음
- 미래세대들에게 온전한 순천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보전 및 관리, 인식증진(CEPA) 등의 정책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지표 항목 개발 필요
-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순천만과 연관된 지표선정과 체계적인 관리로 미래형 환경도시 순천시를 유지하는 일관된 정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2) 지표에 대한 설명

- 순천만에 도래하는 흑두루미는 1997년부터 순천시의 자연자원과 환경도시, 생태도시로 지향하는 시정책의 주요한 지표로 순천만의 자연환경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음
- 순천만의 흑두루미 개체수는 1996년 관찰 이래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1월에는 2,000여마리가 월동함. 두루미의 건강한 서식을 위한 보호지역 확대와 농경지 관리, 인식증진활동, 모니터링, 학술활동, 주민협력 등은 국내외 습지와 철새단체, 학계, 지자체 등에 모범사례로 인식되고 있어 순천시의 환경도시로서 인식제공에 기여하고 있음
-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한 순천만 흑두루미 도래지 조사연구용역에 의하면 순천만의 흑두루미 한계수용력은 최소 1,500개체로 추정되나 인간의 방해 차단과 안정적인 서식지 관리, 보호, 먹이제공 등이 이뤄진다면 최대 3,500개체까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됨
- 흑두루미의 안정적인 서식을 위해 농경지와 순천만으로 이어지는 동천과 이사천 일부지역이 동천하구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였음. 효율적인 월동 서식지 관리와 환경개선, 습지 복원, 보호지역 확대 등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흑두루미의 월동개체수는 증가될 수 있기에 순천만의 흑두루미 개체수는 순천만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환경지표로 활용가치가 유효함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정책지표 \ 연도	2017	2020	2025	2030
두루미 개체수(마리)	1,328	2,500	3,000	3,500

측정방법 : 두루미 개체수

- 순천만 습지의 제한된 공간과 자원으로 인해 지속가능하며,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흑두루미의 개체군은 환경수용력(carrying capacity) 이하로 유지로 관리되어야 함
- 흑두루미 개체군의 환경수용력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속적으로 두루미의 안정적인 서식을 유도할 수 있는 갯벌과 농경지, 하천, 습지 등에 대한 서식지의 보전과 관리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바, 서식지 개선효과와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지표가 필요함. 두루미의 개체수는 환경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환경지표종이며,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을 담보하는 우산종으로서 활용가치가 유효함
- 두루미의 개체수 변화에 대한 정책지표는 순천만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대한 평가 지표로 이용함

1.4. 적정수준의 수산자원 관리로 지속가능한 어업실현

1.4.1. 흑부리오리 개체수 비율

1) 환경분석

- 순천만 갯벌은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지역 어민의 안정적인 소득과 경쟁력의 원천으로 해양생물의 보전과 함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관리와 어업활동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함
- 어업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현재의 갯벌 이용현황과 어업활동, 수산자원별 어획량, 수산자원관리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정책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생태계 내 다른 종들과 서식지에 미치는 환경영향, 효과적인 어업관리 등에 대한 지표개발이 필요함
- 어촌계별 소규모의 맨손어업과 건간망, 어패류 양식 등 다양한 어업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확하게 순천만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의 종류별 연간 생산량과 어획량 등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총허용어획량(TAC) 개념에 기초한 적정수준의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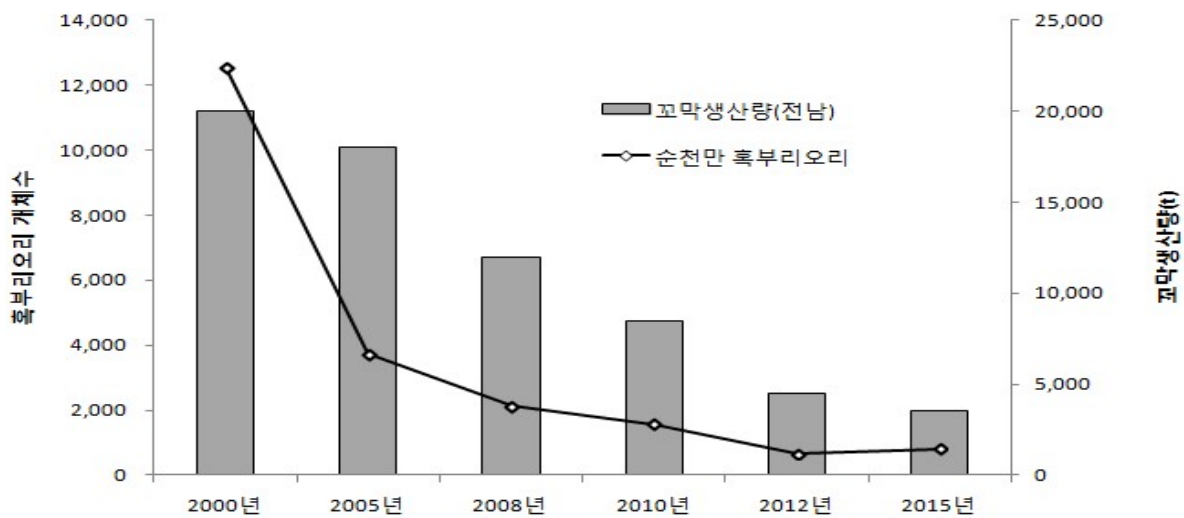
- 자발적인 어획실적 보고를 유도하여 정확한 어획량 실적관리를 추진하고, 수산 자원에 대한 조사원 배치와 정기적인 현장조사로 어획량 모니터링 강화, 불법어업 근절 등으로 과도한 어업을 지양하게 하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어업시설을 감축하여 어촌사회의 안정화 유도과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의 기초를 다져야 함

2) 지표에 대한 설명

- 수산자원에 대한 적절한 지표개발이 어려운 현재 조건에서 갯벌저서생물의 상위포식자인 조류 중 흑부리오리를 통한 간접적인 갯벌환경개선 효과를 평가하고자 함. 흑부리오리(Common Shelduck, *Tadorna tadorna*)는 연안 지역의 갯벌과 강하구에 서식하는 종으로 40cm이하의 얕은 수역과 갯벌에서 부리를 펴에 대고 훑으며 작은 조개류와 같은 연체동물이나 무척추동물, 소형어류, 식물성 먹이(조류) 등을 먹이원으로 하는 대형오리류임
- 2000년 초 순천만에서 1만마리 이상이 월동하였으나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꼬막 생산량의 감소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음
- 자연산 꼬막 종묘는 전남 보성과 고흥, 장흥, 강진 연안에서 생산되고 있고 보성 별교지역은 전남지역의 70%를 차지함. 꼬막 생산량의 부족은 꼬막 종묘의 작황 부진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자연산 종묘 생산의 부진은 전문채취업자에 의한 남획, 기후 온난화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 등을 원인으로 거론하고 있음
- 겨울철새로 도래하는 흑부리오리는 꼬막이 서식하는 갯벌의 자연환경과 어업 활동의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능성 있는 종으로 2000년초 수준의 개체군 회복수준 정도를 등급화하여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수준의 이용과 갯벌보전 및 관리의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평가지표 \ 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5년
흑부리오리 개체수	순천만갯벌	2,565	1,554	677	1,428	200	46
	여자만갯벌	10,019	2,198	1,457	144	460	770
	합계	12,584	3,752	2,134	1,572	660	816
꼬막(t, 전남)		20,000	18,000	12,000	8,500	4,500	3,500
비율(흑부리오리)*		100.0%	31.3%	17.8%	13.1%	5.5%	6.8%

* 2000년 개체수 기준, 연도별 개체수는 매년 1월 환경부 센서스 결과임



평가지표 \ 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흑부리오리 개체수	순천만갯벌	858	305	2,046	3,200	2,178
	여자만갯벌	1,062	1,165	2,480	3,879	2,247
	합계	1,920	1,470	4,526	7,079	4,425
비율(흑부리오리)*		16.0%	12.3%	37.7%	59.0%	36.9%

* 2000년 개체수 기준, 연도별 개체수는 매년 1월 환경부 센서스 결과임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흑부리오리 개체수

정책지표 \ 연도	2017	2020	2025	2030
흑부리오리 개체수(마리)	1,920	7,079	4,800	6,000

② 흑부리오리 개체수 비율

정책지표 \ 연도	2017	2020	2025	2030
흑부리오리 개체수 비율(%)	16.0	59.0	40.0	50.0

측정방법 : 당해년도 흑부리오리 개체수 / 1.2만마리 * 100

- 흑부리오리의 생태적 지위가 연안지역의 갯벌환경에 특화된 종으로 개체수의 변화는 갯벌환경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음
- 갯벌환경의 개선 여부에 따라 유입되는 흑부리오리의 개체수 변동이 예측됨
- 꼬막생산량과 흑부리오리 개체군이 유지되었던 2000년초의 순천만(순천갯벌 습지보호지역+보성별교갯벌습지보호지역) 월동개체군 크기(1만마리)를 기준으로 당해년도 흑부리오리 개체수(환경부 센서스 결과 활용)를 이용하여 개체군 회복비율을 산출하여 지표로 활용
- 2000년초 개체수의 50% 회복을 2030년 목표 값으로 산정함

1.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1.5.1. 녹색건축물 건수와 면적

1) 환경분석

- UN 산하기구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 없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여 2100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940ppm에 도달한다면(RCP8.5) 21세기말(2070-2099년)에 전 지구 평균온도가 4.8℃ 상승, 강수량은 6.0% 증가가 전망됨
- 우리나라도 파리기후협약(‘15년)가입을 통해 온실가스를 ‘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체 에너지소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상업용 포함) 부분의 냉난방에너지 집중 관리가 필요
-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식은 패시브하우스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녹색건축물의 신축,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옥상정원과 벽면녹화 방식을 통하여 도심 내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를 가져옴
-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으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시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신축, 리모델링, 옥상녹화 건축물에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음

2)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현황

<표1-7> 신축 녹색건축물 현황

년도	건수	주소	용도	연면적(m ²)		연간 난방에너지 요구량 (kWh/m ²)	1차 에너지 소요량 (kWh/m ²)
				개별	계		
2015	2	순천시 연향동	요사채	32	62	12	105
		순천시 남정동	단독주택	30		21	116

년도	건수	주소	용도	연면적(m²)		연간 난방에너지 요구량 (kWh/m²)	1차 에너지 소요량 (kWh/m²)
				개별	계		
2016	3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단독주택	153	1,273.1	42	
		순천시 조례동	주민센터	1,007.1		10	102
		순천시 생목동	단독주택	113		28	
2017	5	순천시 외서면 화전리	단독주택	87.1	545.7	46	
		순천시 월등면 망용리	단독주택	74		43	
		순천시 황전면 봉덕리	단독주택	130		29	
		순천시 낙안면 내운리	단독주택	74		43	
		순천시 지본리	단독주택	180.6		55	127
2018	24	순천시 대룡동	단독주택	98	2,806.4	27	43
		순천시 대룡동	단독주택	96		33	38
		순천시 대룡동	단독주택	130		22	35
		순천시 대룡동	단독주택	114.5		21	34
		순천시 대룡동	단독주택	113		28	35
		순천시 해룡면	단독주택	181.5		15.43	82.59
		순천시 서면 압곡리	단독주택	118.6		29.8	129.81
		순천시 서면 지본리	단독주택	154		39	4
		순천시 조곡동	단독주택	82		28.46	137.7
		순천시 연향동	단독주택	155.3		31.09	117.95
		순천시 대룡동	단독주택	131.4		12	96
		순천시 대룡동	단독주택	152		20	100
		순천시 대룡동	단독주택	88		21	118
		순천시 대룡동	단독주택	76		17	112
		순천시 대룡동	단독주택	121		17	119
		순천시 대룡동	단독주택	105		29	113
		순천시 대룡동	단독주택	137		10	82
		순천시 대룡동	단독주택	120		18	94
		순천시 대룡동	단독주택	160		13	79
		순천시 대룡동	단독주택	113		17	103
		순천시 대룡동	단독주택	91		25	117
		순천시 대룡동	단독주택	127		18	95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단독주택	82.3		61	191
		순천시 대룡동	단독주택	140		12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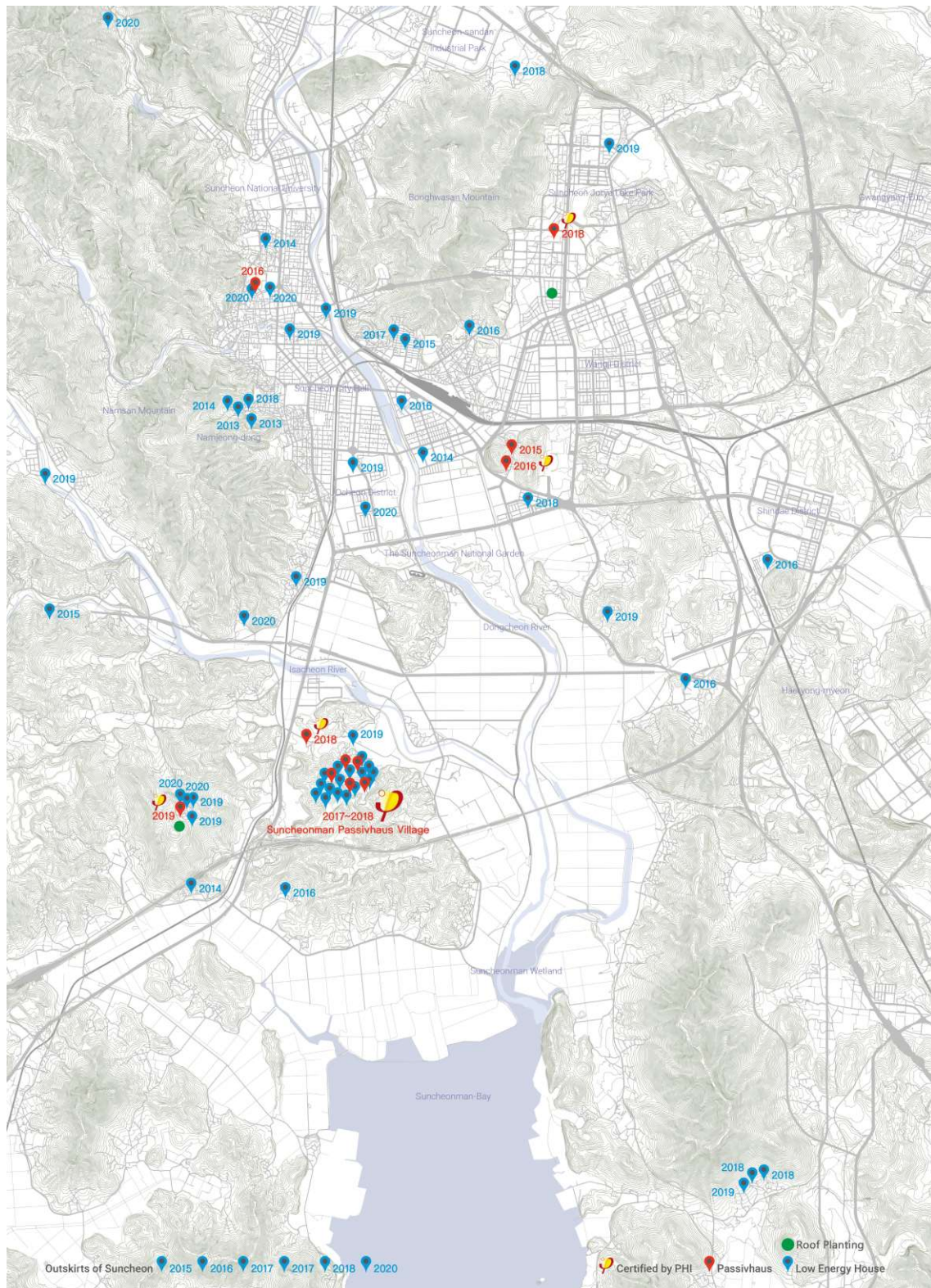
년도	건수	주소	용도	연면적(m ²)		연간 난방에너지 요구량 (kWh/m ²)	1차 에너지 소요량 (kWh/m ²)
				개별	계		
2019	14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단독주택	113	1,893.68	45	159
		순천시 대룡동	단독주택	82.3		61	191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단독주택	135.2		26	114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경로당	94.4		41	175
		순천시 상사면 오곡리	단독주택	132.3		32	121
		순천시 대룡동	단독주택	102.6		11	95
		순천시 상사면 오곡리	단독주택	142.4		14	101
		순천시 풍덕동	단독주택	207.7		35	103
		순천시 장천동	단독주택	149.5		44	145
		순천시 왕지동	단독주택	230		34	106
		순천시 대룡동	단독주택	89		24	120
		순천시 대룡동	단독주택	128		14	95
		순천시 대룡동	단독주택	140		15	105
		순천시 남정동	단독주택	124			
2020	11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단독주택	124	1,419.2	43	153
		순천시 덕월동	단독주택	155		37	128
		순천시 덕월동	단독주택	196.7		30	109
		순천시 동외동	단독주택	122.8		49	162
		순천시 석현동	단독주택	51.6		29	227
		순천시 상사면 오곡리	단독주택	104.6		14	99
		순천시 오천동	단독주택	151.3		9	91
		순천시 상사면 오곡리	단독주택	151.7		18.7	106
		순천시 금곡동	단독주택	124.4		15	111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단독주택	142.9		12	97
		순천시 행동	단독주택	94.2		14	120

<표1-8>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물 현황

년도	건물	연 면적 (m ²)	절 감 율								합계
			벽체 외단열	지붕	바닥	창호 및 출입문	공조 설비	열원 설비	조명 설비	신재생 에너지	
2020	회덕 보건진료소	146.3	2.3	1.1				11.2	5.7		20.3
	비촌 보건진료소	137.58	2.3	1.1		5.9	4.3		5.7		19.3
	월등 보건지소	340.35	2.3	1.1	0	5.9	0	11.2	5.7	0	26.2
	강청 어린이집	394.67	3.5	1.1		5.9	4.3				14.8
	연향 어린이집	496.56		1.1		5.9	4.3	9.0	6.5		26.3
	우석 어린이집	778.48	3.5	1.1		5.9	4.3	9.0			23.8
계		2,295.94									130.7

<표1-9> 옥상녹화 녹색건축물 현황

2020	구분	사업내용	조성면적(m ²)	총공사비(원)
	1	옥상녹화	84.64	43,750,000
	2	옥상녹화	104.06	40,900,000
	계		188.7	



[그림 1-1] 순천시 지원 녹색건축물 위치 현황

3) 지표에 대한 설명

- 신축 녹색건축물의 경우 국제표준의 에너지 계산 도구인 PHPP(Passive House Planning Package) 프로그램에 의해 검증된 건축물로 연간 난방에너지 성능 70kWh/m² 이하의 건축물로 규정
-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간이평가표(평가표에 따른 절감율 합산 로직)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을 산정 할 수 있음
- 건축물 외피녹화의 경우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로 나뉘며 녹화면적 30m² 이상을 조성하고 옥상녹화는 구조적 안정성이 확인된 건축물이어야 하며, 건물녹화는 조경기준 및 조경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함

4) 지표의 연도별 달성목표

① 녹색건축물 신축

정책지표 \ 연도	2017	2019	2020	2025	2030
녹색건축물 신축	1,818.8m ² (10건)	4,883.96m ² (40건)	1,419.2m ² (11건)	10,000m ² (60건)	15,000m ² (100건)

② 그린 리모델링

정책지표 \ 연도	2017	2019	2020	2025	2030
그린 리모델링	—	—	2,293.94m ² (6건)	12,000m ² (35건)	15,000m ² (40건)

③ 건축물 외피녹화

정책지표 \ 연도	2017	2019	2020	2025	2030
건축물 외피녹화	—	—	188.7m ² (2건)	1,500m ² (15건)	2,000m ² (20건)

-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2030년 까지 순천시 녹색건축물 신축은 100건, 노후 건축물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은 40건으로 설정하였음. 또한, 인공지반인 건축물 녹화 활성화를 위한 건물 녹화 사업은 20건으로 설정
- 위 지표를 달성함으로써 순천시는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나아가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탄소중립(Net-Zero) 2050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

2. 깨끗한 공기와 물의 순환도시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지표		UN SDGs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2.1. 시민 모두가 누리는 깨끗한 하천과 물 순환 도시 조성	2.1.1. 동천과 이사천의 BOD농도	6. 깨끗한 물과 위생
	2.1.2.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2.1.3. 수돗물 수질 만족도	
	2.1.4.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2.2. 공기가 깨끗한 도시 실현	2.2.1. 연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	3. 건강과 웰빙 11. 지속 가능한 도시 13. 기후변화대응
	2.2.2. 8시간 평균 오존 농도	

2.1. 시민 모두가 누리는 깨끗한 하천과 물 순환 도시 조성

2.1.1. 동천과 이사천의 BOD 농도

1) 환경분석

- 순천시에는 도시를 관통해서 흐르는 주요 하천인 동천이 있으며, 합류 하천으로는 순천경찰서 부근의 석현천과 옥천동에서 유하하는 옥천이 있음
- 순천시의 또 하나의 주요 하천으로는 상사호에서 유하하는 이사천이며, 이사천은 순천시민의 주요 식수원임
- 따라서 동천과 이사천의 BOD농도(유기물농도)를 정책지표로 설정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공공수역의 수질을 유지함과 동시에 순천시의 청정 이미지의 재고에도 기여

2) 지표에 대한 설명

- 하천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용존 산소(DO; Dissolved Oxygen)이며, 용존 산소가 결핍되면 수생생물의 서식환경이 악화될 것임

- 자연적인 조건에서 하천의 용존산소는 탈산소와 재폭기에 의해서 조절이 됨
- 그러나 외부로부터 유기물이 다량으로 유입되면 탈산소율이 높아져 수중의 용존산소가 다량으로 소모되어 빈산소 조건이나 무산소 조건이 됨
- 따라서 하천에서 유기물 농도는 매우 중요한 인자이며, 유기물 농도를 나타내는 주요 분석항목은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임
- 2017년도 환경부 측정망 관측지점에 있어서 동천의 경우는 각각 0.8, 2.8, 4.2 mg/L이었으며, 평균값은 2.6 mg/L이었음. 이사천의 경우는 0.6, 0.7 mg/L로서, 평균값은 0.7 mg/L이었음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동천의 BOD

정책지표 \ 연도	2017	2020	2025	2030
동천의 BOD(mg/L)	2.6	2.6	2.4	2.0

② 이사천의 BOD

정책지표 \ 연도	2017	2020	2025	2030
이사천의 BOD(mg/L)	0.7	0.7	0.6	0.5

- 측정방법은 각 하천의 “물환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며, 동천의 경우는 3개소, 이사천은 2개소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목표의 달성여부를 파악

측정소명		주소	조사기관
순천동천1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영산강유역환경청
순천동천2		전라남도 순천시 흥래동	영산강유역환경청
순천동천3		전라남도 순천시 교량동	영산강유역환경청
이사천1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주암역조정지댐 하류전	전라남도
이사천2		전라남도 순천시 덕월동	전라남도

2.1.2.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1) 환경분석

-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오수는 하루 약 10만톤이며, 처리 후 하천으로 방류됨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순천만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6 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은 순천만의 생태계에 커다란 잠재적 위협요소임
- 따라서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정책 지표로 설정함으로서 보다 쾌적한 공공수역의 수질을 유지함과 더불어 순천만의 생태환경의 유지에도 기여가 가능

2) 지표에 대한 설명

-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10 mg/L, COD; 40mg/L, SS; 10 mg/L, TN; 20 mg/L, TP; 2mg/L임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은 아래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음. 2017년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은 BOD; 5.0 mg/L, COD; 10.9 mg/L, SS; 5.1 mg/L, TN; 11.982 mg/L, TP; 0.423mg/L이었음

연도 \ 항목	유량 (m³/일)	BOD (mg/L)	COD (mg/L)	SS (mg/L)	T-N (mg/L)	T-P (mg/L)	총대장균군수 (개/㎖)	비 고
2014	115,131	4.5	8.0	3.2	11.393	0.800	148	
2015	110,778	6.6	8.8	5.5	12.184	0.704	266	
2016	105,009	3.9	10.6	3.9	12.222	0.606	71	
2017	103,067	5.0	10.9	5.1	11.982	0.423	48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단위 : mg/L)

정책지표 \ 연도	방류수 수질기준	2017	2020	2025	2030
BOD	10	5.0	5.0	5.0	5.0
COD	40	10.0	10.0	10.0	10.0
SS	10	5.0	5.0	5.0	5.0
T-N	20	11.982	11.000	10.000	10.000
T-P	2	0.423	0.500	0.500	0.500

- 측정방법은 순천시에서 방류수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입수하여 목표 달성여부를 파악

2.1.3. 수돗물 수질 만족도

1) 환경분석

- 순천시는 수자원이 풍부하고 원수의 수질 또한 매우 좋음. 그러나 정수처리 공정에서 소독의 목적으로 주입되는 염소의 잔류로 인해 기인되는 약품냄새 때문에 불쾌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음
- 또한 관거의 노후화로 인해 이물질이나 색도를 띄는 수돗물이 나오는 사례도 종종 있음

2) 지표에 대한 설명

- 시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왜 약품을 첨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며, 재원마련을 통한 노후 관거의 교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정책지표 \ 연도	2017	2020	2025	2030
수돗물의 수질 만족도(%)	94.2	95.0	95.0	96.0

- 측정방법은 매년 실시되는 “전라남도·순천시 사회조사”의 “상수도 수질 만족도 결과”를 이용

2.1.4.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1) 환경분석

-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후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음
- 과거에는 하수처리를 위해서 물리·화학적인 방법과 생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간단한 2차 처리까지만을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공공수역의 생태환경보전을 위해서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처리수의 수질이 많이 양호해지고 있음
-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처리된 하수의 재이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 지표에 대한 설명

-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하루 약 10만톤의 오수가 처리되고 있으며, 처리수를 수질이 불량한 하천의 희석수로 이용하는 등의 재이용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순천시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약 2.5%를 처리시설 내에서 재이용 하고 있음
- 향후 보다 다양한 재이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래의 표는 순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처리수의 재이용률을 나타낸 자료임

연도 \ 구분	처리량(㎥/년)	재이용량(㎥/년)	재이용률(%)	비 고
2014	42,890,115	949,319	2.2	장내용수
2015	41,352,126	918,242	2.2	"
2016	39,500,891	871,993	2.2	"
2017	38,281,014	959,251	2.5	"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정책지표 \ 연도	2017	2020	2025	2030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2.5	3.0	5.0	7.0

- 산정방법은 순천시의 중소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은 제외하고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만을 대상으로 재이용률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

2.2. 공기가 깨끗한 도시 실현

2.2.1. 연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

1) 환경분석

-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으며,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구매 열풍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고 있지 않음
-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30년 동안 꾸준히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의 농도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실정
- 미세먼지는 급성 영향보다는 주로 장기간의 노출에 의한 만성영향과 기대수명 단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연평균 농도가 중요한 인자이며, 특히 크기가 작을수록 위해성이 큼
- 특히 2018년부터 미세먼지(PM2.5) 농도기준이 연평균 15 $\mu\text{g}/\text{m}^3$ 로 강화되면서 기준 준수가 쉽지 않아진 상황
-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시민들의 건강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세먼지 정책지표로는 연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가 적합함

2) 지표에 대한 설명

-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입자상(액체 또는 고체상) 오염물질 중 공기역학적 직경이 10 μm 또는 2.5 μm 보다 작은 입자들의 질량농도로 표시하며 상한직경 값에 따라 미세먼지(PM10) 또는 미세먼지(PM2.5)로 표기
- 미세먼지는 주로 호흡을 통해 체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호흡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크기가 아주 작은 입자들의 경우에는 폐포를 통해 순환계나 뇌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
- 2017년도 환경부 측정망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순천의 경우 20 $\mu\text{g}/\text{m}^3$ 로 2018년부터 강화된 농도기준보다 높았으며, 주요 산업배출원이 있는 여수(20 $\mu\text{g}/\text{m}^3$), 광양(21 $\mu\text{g}/\text{m}^3$)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단위 : $\mu\text{g}/\text{m}^3$)

정책지표 \ 연도	2017	2020	2025	2030
미세먼지(PM2.5) 농도	20	19	17	15

- 측정방법은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도시대기측정소 두 곳(장천동, 연향동)의 자료를 활용하고, 차후 순천만과 호두리 측정소에 추가로 PM2.5 측정기기가 설치되면 그 데이터도 활용



[그림 2-1] 전남 순천시 도시대기측정망 위치(2017년 기준)

<표 2-1> 전남 순천시 도시대기측정망 정보(2017년 기준)

측정소코드	측정소명	주소	경도	위도
336131	장천동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청 별관 옥상	127.4891	34.9476
336132	연향동	순천시 연향번영길 54 연향도서관 옥상	127.5186	34.9471
336133	순천만	순천시 순천만길 513-25 자연생태관 옥상	127.5098	34.8855
336134	호두리	순천시 해룡면 호두길 127 호두정수장 내	127.5730	34.8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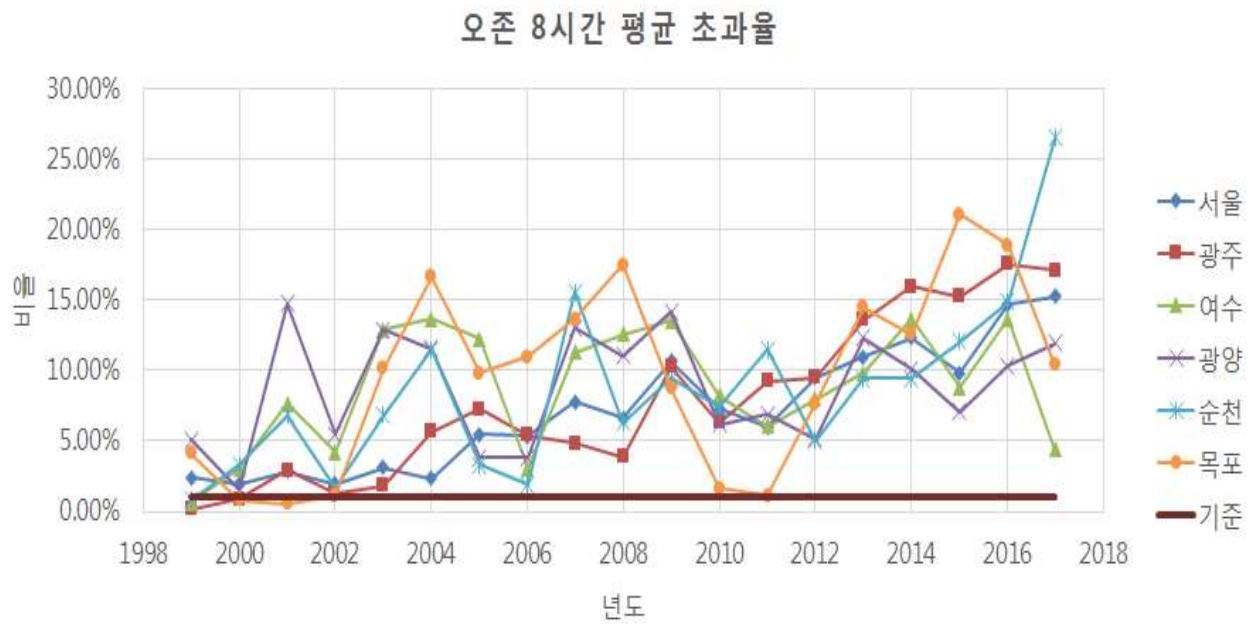
2.2.2. 8시간 평균 오존 농도

1) 환경분석

- 고온 공정(제철, 연소 등)을 가동하는 산업단지가 있는 광양만권은 오랫동안 수도권에 버금가는 높은 오존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 오존은 만성 영향보다는 호흡기에 염증을 일으키는 등의 급성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평균 농도보다는 1시간 또는 8시간 평균 농도로 규제하고 있으며, 8시간 평균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많음
- 한국의 경우 1시간 평균 농도와 8시간 평균 농도를 모두 규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시민들의 건강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존 정책지표로는 8시간 평균 농도가 적합함

2) 지표에 대한 설명

- 오존은 1차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만들어내는 2차 대기오염물질임
- 광양만권에는 인위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주요 배출원인 석유화학단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원인 고온공정(연소, 제철 등)을 포함하는 산업단지들이 위치하고 있어 고농도 오존 발생이 용이한 특성을 가짐
- 대기오염물질의 8시간 평균 농도 규제는 하루 중 8시간 평균 농도가 가장 높았던 값이 규제치를 초과했는지 여부로 시행하며, 초과한 날 수가 측정이 실시된 날 수의 1% 이하여야 함
- 순천의 8시간 평균 기준 초과 횟수는 2017년에 관측소 당 평균 97회로, 측정이 실시된 총 365일 중 26.6%를 기록하고 있어, 규제 수준인 1%를 훨씬 넘고 있다. 이는 여수(4.4%), 광양(11.9%)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었으며, 최근 5년 데이터를 살펴봐도 여수 및 광양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정책지표 \ 연도	기준	2017	2020	2025	2030
8시간 평균 오존 농도 99 th percentile 값(%)	0.06	0.094	0.08	0.07	0.06

- 지표는 측정된 오존 농도값 전체 가운데 상위 1% 농도값(99th percentile)으로 표현
- 자료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도시대기측정소 네 곳(장천동, 연향동, 순천만, 호두리)의 자료를 활용
- 측정소 위치와 상세정보는 미세먼지(PM2.5) 측정소와 같음

3. 안전하고 모두가 편리한 저탄소 녹색교통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지표		UN SDGs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3.1.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자를 줄여 최상의 교통문화지수로 선진교통문화 확립	3.1.1. 교통사고 사망자	3. 건강과 웰빙
	3.1.2. 교통사고 상해자	
	3.1.3. 교통문화지수	
3.2.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	3.2.1. 대중교통 만족도	11. 지속 가능한 도시
3.3. 녹색교통 수송 분담률의 증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3.3.1. 친환경자동차 보급 대수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3.1.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자를 줄여 최상의 교통문화지수로 선진교통문화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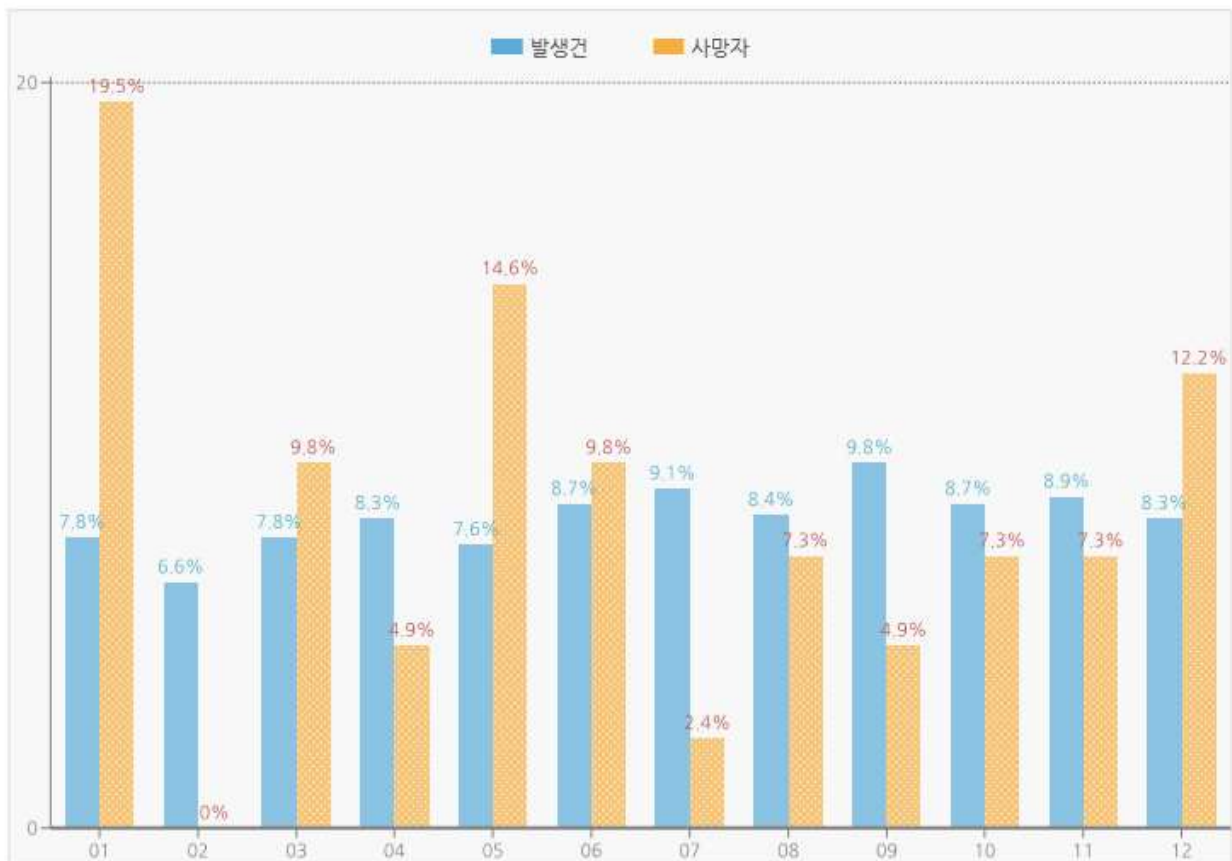
1) 환경분석

- 유럽교통안전 위원회(ETSC)는 매년 EU 28개국, 그리고 스위스, 노르웨이, 이스라엘, 키프로스 등, 총 32개국의 교통사고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2016년 한해 총 25,671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2015년 26,190명보다 2% 줄어든 결과
- 인구 백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적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노르웨이와 스위스로 26명, 반대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인구 720만 명의 불가리아로 70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구 백만 명으로 환산하면 99명이 된다. 유럽도 차이가 상당한 편이며 EU 평균은 51명으로 2010년의 63명에서 많이 감소
- 우리나라는 유럽 32개국과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2016년 기준으로 4,292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 인구 백만 명당 84명 수준

-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사망자 수를 2010년의 50% 수준까지 떨어뜨린다는 계획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최근 5년간 순천시 교통사고 상해자와 사망자를 분석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분석과 상해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매 2년마다 지표로 설정하여 선진 교통 문화 정립을 통한 안전한 순천시로 만들어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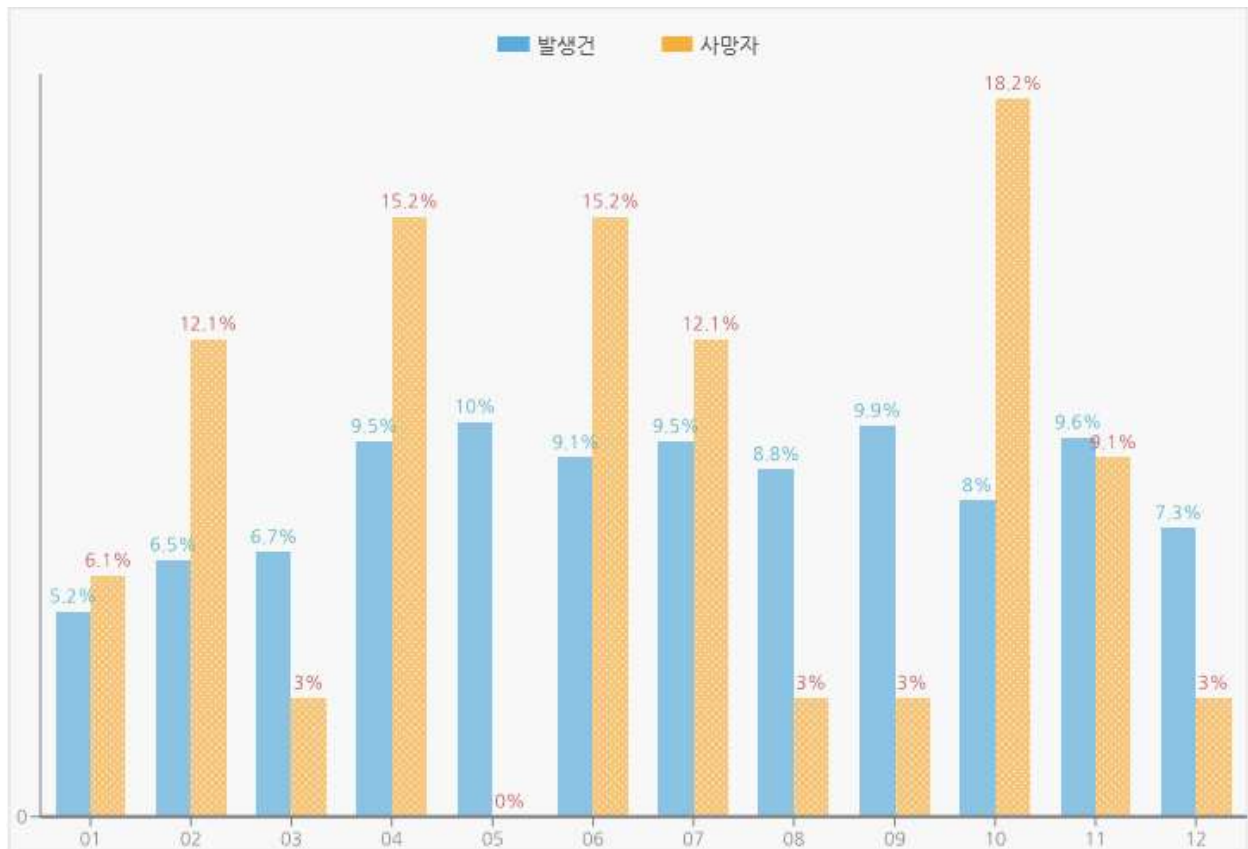
- 순천시 2015년 교통사고 상해자와 사망자 분석

월별 교통사고					(단위:건, 명, %)							
구분	발생건수				(명)	사망자수			(명)	부상자수		
	(건)	구성비(%)				(명)	구성비(%)			(명)	구성비(%)	
		순천시	전남	전국			순천시	전남			전국	순천시
합계	1,454	100.0	100.0	100.0	41	100.0	100.0	100.0	2,264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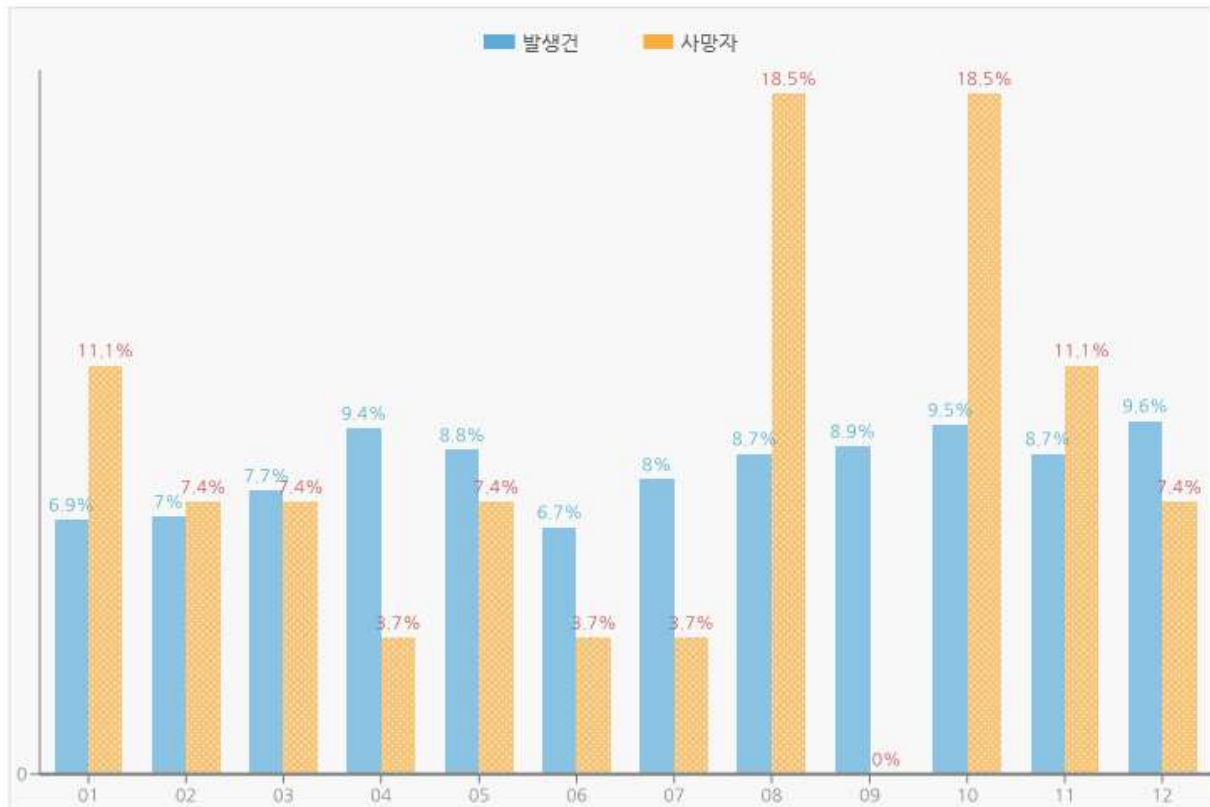
- 순천시 2016년 교통사고 상해자와 사망자 분석

월별 교통사고					(단위:건, 명, %)							
구 분	발생건수				(명)	사망자수			(명)	부상자수		
	(건)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순천시	전남	전국		순천시	전남	전국		순천시	전남	전국
합계	1,358	100.0	100.0	100.0	33	100.0	100.0	100.0	2,046	100.0	100.0	100.0



- 순천시 2017년 교통사고 상해자와 사망자 분석

월별 교통사고					(단위:건, 명, %)								
구 분	(건)	발생건수			(명)	사망자수			(명)	부상자수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순천시	전남	전국		순천시	전남	전국		순천시	전남	전국	
합계	1,349	100.0	100.0	100.0	27	100.0	100.0	100.0	2,094	100.0	100.0	100.0	



2) 지표에 대한 설명

- 교통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교통사고 상해자와 사망자를 조사하여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지표 데이터로 삼음. 또한, 교통문화지수란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및 문화수준을 조사해 지수화한 수치로 2017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 금년 평가는 시민들의 운전형태, 보행형태, 교통안전 등 3개 영역으로 지자체별 교통안전 실태와 교통사고 발생율, 교통안전노력도, 현장조사 등을 통한 11개 조사항목에서 실시하였으며 순천시 2014년 36위, 2015년 24위, 2016년 5위, 2017년 3위로 선정돼 선진 교통안전문화도시 척도인 '교통문화지수'가 지난 4년 동안 꾸준하고 점진적인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음. 순천시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과 시설개선을 통해 교통안전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결과이며 2015년부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민·관·경이 솔선수범해 교통질서 문화지키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에도 많은 도움이 됨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교통사고 사망자

정책지표 \ 연도	2017	2020	2025	2030
교통사고 사망자(명)	27	22	17	12

측정방법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원인분석

-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점차 줄여가는 것으로 함

② 교통사고 상해자

정책지표 \ 연도	2017	2020	2025	2030
교통사고 상해자(명)	2,094	1,800	1,600	1,400

측정방법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사고 상해자 원인분석

- 교통사고 상해자 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점차 줄여가는 것으로 함

③ 교통문화지수

정책지표 \ 연도	2017	2020	2025	2030
교통문화지수(순위)	3	2	2	1

측정방법 : 국토교통부의 교통문화지수를 활용

- 교통문화지수는 최근 3년간 순천시의 지수가 월등히 향상되어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3.2.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

1) 환경분석

- 교통안전공단에서 2016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7점 만점)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2014년도 4.84점에서 2015년 4.78점으로 다소 하락 했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수도권 및 대도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도시철도의 혼잡을 들 수 있음
- 서비스 요소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정보제공서비스가 4.81점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이용자가 가장 만족하는 요소로 인식하였으며, 환승서비스가 4.62점, 운영서비스가 4.56점, 이용환경서비스와 쾌적환경 서비스가 4.38점으로 나타남
- 세부항목별로는 ‘환승요금 할인제도’와 ‘대중교통 정보구축’이 각각 4.84점과 4.83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쾌적환경 서비스분야의 혼잡도는 3.8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

2) 지표에 대한 설명

- 대중교통 시책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간 우수한 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도입한 평가제도
 - 4개 부분, 19개 지표, 56개 항목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시민만족도 조사, 대중교통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마다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 순천시는 '2017년 대중교통 시책 평가'에서 전국(인구 30만 미만 지자체) 1위를 달성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이번 평가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대중교통 환경을 평가해서 순천시는 대중교통 시설확충,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주요시책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순천시는 주민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신도심 지역 버스노선 조정, 농촌지역 마중버스 운행,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노후 승강장 교체 및 시설개선, 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태양광 조명등, 버스정보 검색을 할 수 있는 와이파이 설치 등 다양한 시설을 개선

- 순천시는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정책지표 \ 연도	2017	2020	2025	2030
대중교통 만족도(점)	4.5	5.0	5.5	6.0

측정방법 :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매년 대중교통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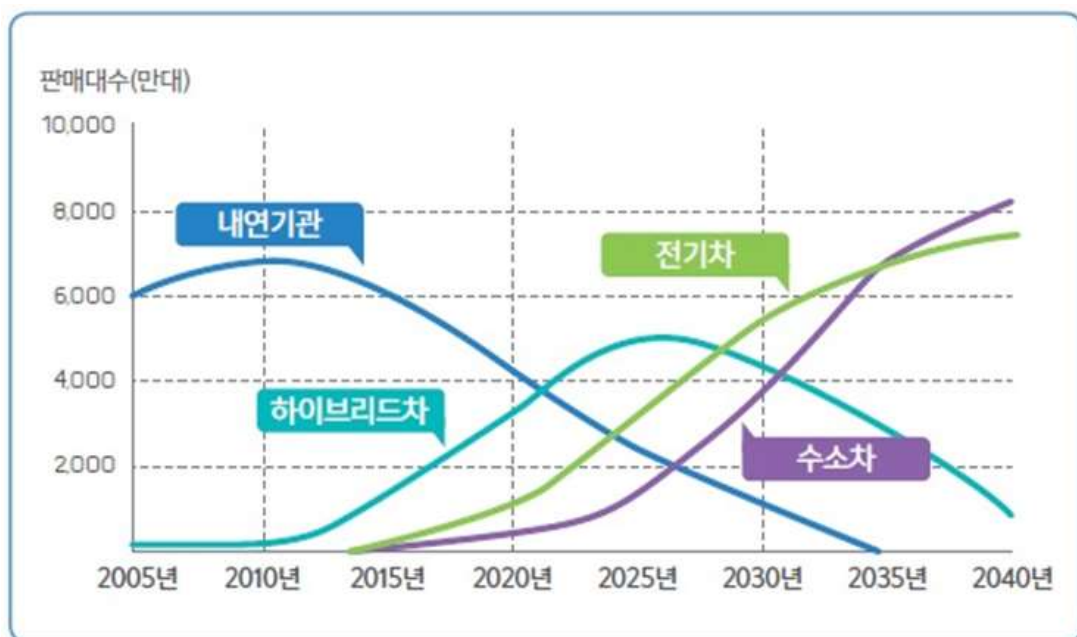
- 대중교통시설, 대중교통 서비스 부문, 대중교통행정 및 정책지원, 대중교통 이용자 평가부문을 구분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 특히 대중교통 서비스부문에 대중교통 서비스 고급화,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대중교통 종사자 교육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
-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주민 만족도 조사도 필수적으로 수행

3.3. 녹색교통 수송 분담률의 증가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1) 환경분석

- 수소연료전지에서 수소 기체는 수소 이온으로 분해되며 전자가 나오고, 이 전자가 이동하며 전기를 발생. 수소연료전지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전기모터를 발전시키고 수소차를 움직이게 만든다. 수소차는 충전이 쉽고 4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기록하기 때문에 일반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자동차 100만대 대신 수소차 100만대로 대체하면 연간 1조 5,000억원의 원유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
- 순천시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1,200대 보급을 약속,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기준 전남지역 전기차 등록현황은 601대로 전국 1만 5,869대에 비하면 초라한 실정

- 순천시는 2017년 227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지난해까지 115대의 전기차를 보급했으며 매년 전기차 보급률의 성장세가 급격히 증가
- 전국 전기차 등록대수의 50%를 차지하는 제주도와 대구광역시 등을 제외하면 전남도내에서는 순천시가 친환경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음
- 순천시는 차종과 상관없이 차량 1대당 22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차 보급에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
- 순천시는 한전과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사업 협약으로 대형마트와 공공부지를 중심으로 하는 14개소, 환경부의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사업에 따른 공영주차장 등 8개소로 연말까지 22개소로 추가 설치할 예정
- 2017년 9월 18부터 2020년 까지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단, 하이패스를 단 차량에만 적용)
-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발생의 약 30%정도가 수송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기술경쟁이 날로 심화
- 세계적인 자동차 기술발전 변화 추이는 대부분 나라에서는 2030년 35년까지 자동차 내연기관은 생산하지 않고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전기차 기술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



*출처 : 1. Automotive World Car Industry Forecast Report, Global Insight(2004년)
 2. IEA, Booz & Company analysis

2) 지표에 대한 설명

- 순천시의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227대로 보조금 규모는 차종과 상관없이 차량 1대당 2,2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계획 공고일 전날까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시민이나 법인 및 단체로 충전기 설치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2017년부터 전기차 운행의 편리를 위해 충전인프라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며, 지난해까지 순천시에 설치된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13대로, 왕지공용주차장, 순천시청 등에 설치돼 사용하고 있으며, 2017년 20대 추가 설치
- 또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까지 전기자동차 115대와 천연가스자동차 263대를 보급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정책지표 \ 연도	2017	2020	2025	2030
친환경자동차 보급 대수(대)	227	400	1,000	2,000

측정방법 : 순천시 자동차 등록대수에서 전기자동차 수량 및 등록차량 비율계산

- 탈화석연료를 위한 전기 및 수소연료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생태문화도시 완성
에 앞장섬

4. 시민이 함께 만드는 자원순환 도시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지표		UN SDGs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4.1. 폐기물 원천예방과 발생 감소	4.1.1.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12.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4.1.2. 1인당 폐기물 발생량	11. 지속 가능한 도시 12.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4.1. 폐기물 원천예방과 발생 감소

4.1.1. 1인당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1) 환경분석

-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재료와 음식물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지칭하며, 법률적 용어는 “음식물류폐기물”로 정의되어 있음
- 세계에서 매년 생산된 식품 40억톤 중 1/4~1/3은 손실되거나 폐기되고 있는데, 전체 폐기량 중에서 56%가 선진국, 나머지 44%가 개도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식품손실·폐기량은 선진국이 236~269kg이고 개도국은 125~223kg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15년 기준 15,340톤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유통과 조리과정에서 57%, 먹고 남긴 음식물 30%, 보관폐기식재료 9%, 먹지 않은 음식물 4%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가정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음식물쓰레기는 2014년 1월부터 종량제 의무화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수거 방식으로는 배출자별로 쓰레기 무게를 측정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계량방식,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구입한 뒤 수거용기에 부착해 배출하는 납부칩·스티커방식,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는 전용봉투방식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배출하는 만큼의 처리비용을 지불하는 수거방식을 통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환경부에서 2017년 12월에 발간한 제5차(2016~2017)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원단위는 368g/일/인 으로 나타났음
- 한편, 순천시에서 발생하는 가정배출 생활계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15년 30,000톤에서 2017년 31,105톤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음식물쓰레기 발생원단위는 305g/일/인 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국평균에 비해 적은 값을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지표에 대한 설명

-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 중 유통 및 조리과정에서 57%, 먹고 남은 음식물과 보관폐기식재료 및 먹지 않은 음식물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율이 약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들 중 43%에 해당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각 가정에서 그 발생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발생원단위 305g/일/인 중 43%에 해당하는 약 131g/일/인의 범위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시도가 필요함
- 따라서, 먹고 남은 음식물(30%) 매년 0.5% 줄이기, 보관폐기식재료(9%) 매년 0.25% 줄이기, 먹지 않은 음식물(4%) 매년 0.25% 줄이기를 통하여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발생원단위를 축소시킬 수 있음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정책지표 \ 연도	2017	2020	2025	2030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g/일/인) : 순천시 생활계 음식물쓰레기 원단위	305	295.9	280.6	265.4

- 음식물쓰레기 원단위의 축소는 쉽지 않기 때문에 높은 처리비용을 지불하는 수거방식을 철저히 적용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적정량의 음식물 조리 및 반찬 가지 수 줄이기 등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1.2. 1인당 폐기물 발생량

1) 환경분석

- 순천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017년 23,327ton/년으로 1인당 269kg/yr, 0.74kg/day가 배출되고 있음
- 2013년 생활쓰레기 발생량 41,371ton/yr에 비하면 최근 5년간 생활쓰레기는 43.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비교적 양호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매립지의 확보가 어렵고 다양한 재활용 방법을 통하여 쓰레기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는 바, 가장 중요한 쓰레기 배출원인 가정에서의 쓰레기 감량은 필수적임
- 한편, 순천시에서 배출되는 가정용 생활쓰레기 중 플라스틱 등 합성수지류가 5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원인으로 맞벌이, 1인 가구증가, 온라인 쇼핑, 택배 등의 증가와 같은 생활패턴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비닐봉지의 사용량은 420개(1일 평균 1.15개)이며 2016년 기준 국가별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1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 2위로 조사되고 있음
- 따라서, 생활쓰레기 발생량 중 폐플라스틱(포장재, 비닐팩, 쇼핑백, 등)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은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중 분리배출이 잘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한 난분해성 물질을 줄일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쓰레기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됨

2) 지표에 대한 설명

- 순천시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2017년 12월 기준 0.74kg/day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중 폐플라스틱(포장재, 비닐랩, 비닐팩, 비닐봉투 등)이 약 54.8%로 나타나고 있어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 0.41kg/day의 폐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들을 줄이게 될 경우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들을 대신하는 종이봉투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과대포장규제를 위한 지도, 점검 및 이를 위한 조례의 제정, 사업장별 플라스틱 봉투, 포장재 사용실적 제출 등의 관리, 감시를 통한 플라스틱 사용억제와 쇼핑백의 활용을 적극 권장, 유도하여 생활쓰레기중의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임으로서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을 원천저감시킬 수 있음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정책지표 \ 연도	2017	2020	2025	2030
1인당 폐기물 발생량(g/일/인) : 생활쓰레기 원단위	740	720	680	600

- 기존의 생활패턴을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원단위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조례 등의 제정과 함께 사업장의 적극적 홍보 및 계도, 관리, 감시 등을 통한 노력과 주민들의 쇼핑백 이용을 교육, 홍보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표의 연도별 달성목표를 이룰 수 있음
- 본 지표를 통하여 순천시의 생활쓰레기 배출량 중에 함유된 폐플라스틱의 발생량 감소시킴과 동시에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는 2중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2절. 교육 분야

- 5.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 6. 지역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교육 보장

5.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지표		UN SDGs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5.1. 시민 환경교육의 활성화	5.1.1. 시민환경교육 실시 횟수	4. 양질의 교육 13. 기후변화대응
	5.1.2. 시민환경교육 참여자수	
5.2. 직업훈련 기회 증진	5.2.1. 직업교육 참여자수	4. 양질의 교육 8.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5.2.2. 직업교육에 대한 만족도	
5.3. 양성평등 의식 향상	5.3.1.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비율	4. 양질의 교육 5. 성 평등 10. 불평등 해소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5.3.2.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만족도	
5.4. 인권보호 의식 향상	5.4.1. 인권 및 다양성 이해 교육 프로그램수	
	5.4.2. 인권 및 다양성 이해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5.5. 장애인 평생학습 환경조성	5.5.1.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수	
	5.5.2.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	

5.1. 시민환경 교육의 활성화

1) 환경분석

- 환경생태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목표에 대해 1972년 스톡홀름회의(‘인류 환경에 관한 유엔 1차 회의’) 이후 첫 정부간 환경교육회의인 1977년 구소련의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환경교육에 관한 정부간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도시와 지방 내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생태학적 상호 의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관심을 조성
 -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데 요구되는 지식, 가치, 태도, 참여, 기능을 획득할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
 - 환경에 대한 개인, 집단, 전체로서의 사회의 새로운 행동 양상을 창출
- 환경교육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 준다는 데 있는데 환경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단계 :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잠재적인 여론을 형성
 - 2단계 : 환경오염과 피해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들의 환경에 ‘관한’ 지식수준을 향상시킴
 - 3단계 : 환경오염원의 감소와 피해지역의 처리, 복구와 관계된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기술적 대안을 도입하거나 적용하게 함
 - 4단계 : 환경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실천 전략을 구상하고 조직화
 - 5단계 : 환경교육을 포함한 일련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순천시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그린순천21추진협의회)가 다양한 환경교육을 담당
- **자연해설가 양성과정**은 매년 주부, 정년퇴직자, 교사, 환경분야 종사자 등 자연환경과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지역의 숲, 습지, 곤충, 문화유적 등과 자연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하여 자연해설가를 배출하는 과정임. 배출된 자연해설가들은 학교나 동호회, 선암사 등의 문화유적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

- ‘Eco School’ 환경교육은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련의 사업을 지칭. 생태학적 또는 환경친화적(Ecological)이라는 말과 학습공간인 학교(School)의 합성어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 운영·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개념.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운영·교육하는 학교를 말하기도 함. ‘환경학교’, ‘생태교실’, ‘자원재활용프로그램’ 등의 이름으로 자연환경과 자원재활용, 에너지, 지속가능성, 생태체험 등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
- 이밖에 기후변화 시민교육, 그린리더 양성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지자체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부족, 둘째, 학계, 시민단체, 기업간의 교류와 네트워크의 불충분, 셋째, 지역사회 시민참여의 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순천시는 시민환경교육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은 물론, 교육 수강생들간에 사후 네트워크를 형성토록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각 행위자들간의 연계성 제고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지표에 대한 설명

- UN SDGs의 교육 목표에서는 환경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서 제시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Goal 6. 깨끗한 물과 위생, Goal 7. 에너지,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Goal 13. 기후변화, Goal 15. 육상생태/자원 등을 포함하여 상위목표들로 제시되어 있음. 이들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순천시는 시민환경교육 참가인원수와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참가인원수를 2018년 현재 5,992명에서 2030년 전 인구의 5%수준인 14,000명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아울러 양질의 시민환경교육 프로그램 증대를 목표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시민환경교육의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함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시민환경교육 실시 횟수

정책지표 \ 연도	2013	2015	2017	2020	2025	2030
시민환경교육 실시 횟수(차시)	96	177	164	180	200	300

측정방법 : 매년 실시되는 일반 시민 대상 환경교육 횟수

○ 시민환경교육 실시 현황 및 2020-2030년 목표

② 시민환경교육 참여자수

정책지표 \ 연도	2013	2015	2017	2020	2025	2030
시민환경교육 참여자 수(명)	2,788	4,918	5,992	6,500	8,000	14,000

측정방법 : 연간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 시민환경교육 참여자 수 현황 및 2020-2030년 목표

5.2. 직업훈련 기회 증진

1) 환경분석

- 관련 법령으로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있으며, 평생 직업 능력개발 체제 확립을 위해 중장기 비전과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제를 종합한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1차, 2007~2011, 2차 2012~2016)」을 수립 추진

-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17~2021)」에서는 신산업·신기술분야 고급 훈련을 확대하는 등 훈련분야·직종·방식 등을 재편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촉진 지원하고, 노동시장 변화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비정규직, 신중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능력을 높여 포용적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2대 목표를 설정
- 2017년 순천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순천시민의 “평생교육 희망 강화”로 「**직업 및 업무관련 교육**」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순천 시민의 1순위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은 ‘동부’는 「적극적인기업유치」 28.7%, 「직업훈련 및교육지원」이 21.0%, 「청년창업지원」이 14.1%, 「공공기관지역인재우선채용」이 10.3% 이지만 ‘읍면부’에서는 「적극적인기업유치」는 30.9%, 「직업훈련 및교육지원」이 17.3%, 「청년창업지원」이 14.7%, 「공공기관지역인재우선채용」이 11.2%로 차이를 보임
- UN SDGs의 세부 목표 4.3은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저렴하고 양질의 기술훈련, 직업훈련,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시함
 - 평생학습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을 포함
- 순천시는 2007년 이후 평생학습 참여율이 약간 하강세를 보이다가 2013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시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문해교육, 직업교육,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교육 분야에 총 756여 개가 운영되고 있음,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기관 단체와 구별되어 운영되고 있음
 - 기관단체에서도 문해교육, 직업교육,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교육분야에 약 5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직업교육 분야의 프로그램 비중이 가장 많은 편임

- 직업교육과 창업교육은 가계의 소비 및 고용과 관련된 경제활력 부문을 평가가능
 - 궁극적으로 소득과 고용 창출로 인한 소비활성화는 소매업자가 지원하는 공급측면과 소비활동의 질과 양을 개선시킬 수 있는 주민소득 향상이라는 수요측면으로 구분됨
 - 특히, 은퇴인구 증가와 청년실업난 해소차원에서 1인 기업 창업의 활성화를 노력이 필요
 - 순천시가 도농 혼합형의 중소도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과 백화점에 의한 고용과 소득창출의 기회가 적음. 따라서 소자본 창업의 격려가 보다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귀농준비자들을 위한 영농교육과 퇴직자와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형태의 국가사업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고용창출의 기회에 대한 교육 역시 중요

2) 지표에 대한 설명

- UN SDG 세부 목표 4.3(3차 교육 접근 보장)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양질의 지불가능한 기술훈련, **직업훈련**,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의 접근을 보장한다”
- UN SDGs 세부 목표 4.5(교육 성별 격차 해소) “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한 사람들이 모든 수준에서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고 제시됨
- 위의 두가지 세부 목표에 따라 **누구나 모든 수준에서의 직업교육에의 기회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두 개의 측정 지표를 선정함. 양질의 일자리,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겸비한 인력의 양성은 국내 교육체제에서 매우 취약한 부분임. 직업능력개발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훈련 참여 제고를 위한 훈련 방법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일, 시장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의 개편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직업교육 참여자수

정책지표 \ 연도	2018	2019	2020	2023	2025	2030
직업교육 참여자 수(명)	-	2,500	3,000	5,000	7,500	9,500

측정방법 : 연간 직업교육 참여자 수

○ 직업교육 참여자 수 2020-2030년 목표

② 직업교육에 대한 만족도

정책지표 \ 연도		2018	2019	2020	2023	2025	2030
직업교육에 대한 만족도	남성	2.7	2.9	3.2	3.4	3.7	4.0
	여성	3.0	3.1	3.3	3.5	3.8	4.0

측정방법 : 시민들이 지각하는 순천시 직업교육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 직업교육에 대한 만족도 현황 및 2020-2030년 목표

5.3. 양성평등 의식 향상

1) 환경분석

- 양성평등기본법에 제 3조에 따르면,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함. 유엔인권협약을 보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 성차별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유를 인식,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
- 구체적으로 성에 기반을 둔 차별(Sex Based Discrimination)로서 성별, 혼인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구성원의 처우를 다르게 하거나 그밖에 유리 혹은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를 의미함
- 흔히, 요즘은 성평등을 넘어 ‘여성 상위의 시대’가 아니냐는 오해가 존재하기도 함. 이것은 우리나라 여성의 삶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나아졌고, 그 변화를 정서적으로 ‘평등’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임
-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고용전반에서부터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차별이 존재함. 근로자의 지위, 임금 수준에서의 성별 격차는 물론 승진·평가 등에서 차별적 관행도 여전히, 가사와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역할로 머물러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에 따르면, 아직도 역차별 정서가 존재하여 “**남성이 역차별 받는다는 정서**”에 대해 특히 남성(3.79점)이 여성(2.87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모든 영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성별 격차를 더 느끼고 있음(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 2016년부터 문단과 영화계를 비롯한 예술계는 물론 학계, 종교계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성폭력 피해의 폭로가 계속됨. 안태근 검사 성추행 사건의 폭로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미투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불을 지핌. 아시아나 항공사와 미래에셋 증권사 대표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 공론화, 고은 시인, 이윤택 감독, 조민기 교수로 이어지는 문화·예술계의 성폭행 폭로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됨
- 미투운동이 전사회적으로 퍼져나가며, 언론에서도 연일 미투운동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언론이 보여주는 보도들은 미투운동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을 쏟아낸다는 지적이 많음
- 성폭력사건을 보도할 때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고민 없는 언론 보도는 피해자에게 2차, 3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실정

- 한국 사회는 제도적 민주화를 넘어, 실질적 민주화, 일상의 민주화, 관계의 민주화라는 또 다른 과제를 앞두고 있음. 국가와 민족 등 거대 서사가 지운 개인적 차원의 정의로움, 관계 안에서의 정의로움에 대한 추구가 핵심
-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The personal is political)라는 여성주의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는 여성과 남성의 대립적 관계를 지양하고, 성평등을 기반으로 일상과 관계에서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자 함

2) 지표에 대한 설명

- SDGs 목표 4.7에서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됨
- SDGs 상위 목표 5는 성평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 목표 5.1 “모든 곳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5.4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촉진을 통하여 무급 돌봄 노동 및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 5.5 “정치, 경제, 공공부문 등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세부 목표가 명시됨.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양성평등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양성평등의식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인 5.9%(41명) 만이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했으며, “그렇다”라는 응답은 142명(20.3%), “보통이다”가 342명(48.9%)로 나타남
- 이에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판단됨. 정책목표인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해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비율”과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만족도” 두 가지 지표를 설정하고자 함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비율

정책지표 \ 연도	2018	2019	2020	2023	2025	2030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비율(%)	-	5	7	15	25	30

측정방법 :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의 비율

○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비율 2020-2030년 목표

②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만족도

정책지표 \ 연도		2018	2019	2020	2023	2025	2030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만족도	남성	3.1	3.2	3.5	3.7	3.8	4.0
	여성	3.1	3.2	3.5	3.7	3.8	4.0

측정방법 : 시민들이 지각하는 순천시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만족도 현황 및 2020-2030년 목표

5.4. 인권보호 의식 향상

1) 환경분석

- 유엔 총회가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제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법 앞의 평등을 강조
- 국가 인권위원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비전으로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의 실현을 사명으로 정함
 - 2018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침해신고는 2013년 1,472건에서 2017년 2,533건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구제율은 2013년 5.4%에서 2017년 2.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조사 등도 중요
 - 전주시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전주시민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시스템을 구축. 인권 증진 전담팀은 인권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분야별 인권업무 조정 등 실효성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추진되는 동력을 확보
 - 일본의 오사카 시는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지표에서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가 있는 사람 등과 관련된 각종 과제들에 대한 시책 및 사업 등을 지표 항목으로 내세움. 이를 보면, 어린이들이 웃는 얼굴과 개성이 빛나는 도시, 노인의 삶에 보람을 가지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가 없는 사람이 함께 살고 활동하는 도시, 다문화 공생의 도시, 차별 없는 도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도시 등을 포함하고 있음

2) 지표에 대한 설명

- UN SDGs 목표 4.7에서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됨
- 또한 4.a에서는 “모두를 위해 아동, 장애, 성별을 배려한 교육시설을 건축하고 개선하며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는 세부목표를 포함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순천시를 인권 도시로 자리 매김을 위한 첫 걸음으로서 시민 대상 인권교육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구체적인 지표는 인권 교육 프로그램 수와 참여자 수, 다양성 이해 교육 프로그램 수와 참여자 수로 선정함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인권교육 프로그램수

정책지표 \ 연도	2018	2019	2020	2023	2025	2030
인권교육 프로그램 수(차시)	-	5	10	15	25	30

측정방법 : 순천시에서 실시된 인권 교육 프로그램수

- 인권교육 프로그램 수 2020-2030년 목표

② 다양성 이해 교육 프로그램수

정책지표 \ 년도	2018	2019	2020	2023	2025	2030
다양성 이해 교육 프로그램수(차시)	-	5	10	15	25	30

측정방법 : 순천시에서 실시된 다양성 이해 교육 프로그램 수

○ 다양성 이해 교육프로그램 수 2020-2030년 목표

③ 인권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정책지표 \ 년도	2018	2019	2020	2023	2025	2030
인권교육 프로그램 수(명)	-	50	75	300	500	1,000

측정방법 : 인권 교육 참여한 시민수

○ 인권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2020-2030년 목표

④ 다양성 이해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정책지표 \ 년도	2018	2019	2020	2023	2025	2030
다양성 이해 교육 참여자수(명)	-	50	75	300	500	1,000

측정방법 : 다양성 이해 교육 참여한 시민 수

○ 다양성 이해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2020-2030년 목표

5.5. 장애인 평생학습 환경조성

1) 환경분석

- WHO(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6억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불편하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증가, 의학발전, 전쟁 그리고 고령화, 각종 산업재해 등으로 장애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
 - 장애인들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불이익이 가장 심한 소수자 집단이므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일치단결하여 모든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공평과 차별을 종식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로써 협약이 제정
 - 협약은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개인의 재할이나 시혜적인 복지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권리에 기초한 접근패러다임에 입각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정책적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정당한 소유자이자 주체자로 본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적극 도모
- 장애인의 인권이 강조되고 장애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에서 장애인차별 문제는 사회문제로 부각. 장애인의 총체적인 삶을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통합의 정책이 설정되어야 함
 - 현실적으로 장애인차별이 심해질수록 장애인들의 저항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장애인운동으로 진전됨으로써 장애인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인권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임. 우리나라의 장애인인구는 5%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그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군산시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은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가 13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이와 함께 군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협의체를 통해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14개 민간기관에 지니팜(원예), 목공예, 제과제빵 등 장애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평생교육 30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강사파견 및 재료비를 지원해 351명의 성인장애인이 프로그램을 수강

2) 지표에 대한 설명

- UN SDGs 목표 4.7에서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고 명시됨
- 또한 4.a에서는 “모두를 위해 아동, 장애, 성별을 배려한 교육시설을 건축하고 개선하며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는 세부목표를 포함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순천시를 장애인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장애인 대상 교육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구체적인 지표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 수와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로** 선정함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수

정책지표 \ 연도	2018	2019	2020	2025	2030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수(명)	15	—	500	1,000	1,500

측정방법 : 순천시에서 실시된 장애인 평생 학습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②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

정책지표 \ 연도	2018	2019	2020	2025	2030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 사람의 비율(%)	—	—	75	80	85

측정방법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 사람의 비율

6. 지역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교육 보장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지표		UN SDGs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6.1.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 운영	6.1.1. 교육민회(정담회) 참여자 수	10. 불평등 해소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6.1.2. 마을교육공동체 개수	
	6.1.3. 지역화 교육과정 개발 논의 횟수	
6.2. 주민이 주인이 되는 평생학습	6.2.1. 지역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수	
6.3. 지역대학과 상생하는 도시	6.3.1. 지역대학 협력 연계 사업수	

6.1.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교육거버넌스 운영

1) 환경분석

- 현대의 교육 시스템은 분권화에 따른 다층적 거버넌스와 다수의 이해관계자로 인해 복잡성이 점차 증가. 지난 수십년간 다수의 OECD 국가는 시민의 요구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방 교육당국에 보다 큰 자율성 부여
 - 교육정책 의사결정에 교사, 학부모, 학생,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증가
 - 이해관계자와 의사결정자 간 관계는 점점 더 역동적이고 협력 관계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학교 공동체 내 다양성도 증가
- 교육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지역적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균형잡힌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화두로 대두
- 벨기에(플랑드르): 고도로 분권화된 교육 시스템 하에서 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설정한 최소 수준 교육 성취도 목표의 역할을 분석

-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성취도 목표수준 설정과정에 초점을 둔 핵심 교육 과정 개혁사례를 분석하고, 교육과정 개혁의 성공적 실행 정도와 함께 다층적 교육 거버넌스의 맥락을 규명
- (교훈) 범시스템적 접근법은 다층적 시스템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aligning) 최선의 방법일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모든 주체의 능동적 참여 및 책임 공유를 통한 공동의 이해와 비전 개발이 필요
- 독일: 연방정부가 지방의 교육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 단위의 학습(Learning Locally)" 프로그램 분석
 - 지방 단위에서의 교육 모니터링 활용과,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의 활용이 교육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분석
 - (교훈) 자발적인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은 지방 수준에서의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역량 구축과 정치, 문화,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춘 전략적 계획이 필요
- 폴란드: 지속가능한 평가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학교 감사 시스템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학교 감사 시스템을 변화시킨 교육개혁의 전략, 절차 및 결과 분석
 - 극복해야 할 실행상 도전과제에는 정책전달 및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뢰 부족도 포함되며, 신뢰 구축은 개선에 초점을 맞춘 평가 문화를 육성하는데 있어 특히 중요
 - (교훈) 개혁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실행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평가 문화 개발은 시간, 역량과 함께 감사가 처벌보다는 학교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는 신뢰가 필요
- 스웨덴: 의무교육에 대한 거의 모든 책임을 중앙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교육 지방분권 개혁결과 분석
 - 갑작스런 지방분권 조치 및 내부 대화 부족으로 지방의 역량구축과 체계적 비전이 부족하여 실행상 어려움이 초기에 발생

- (교훈) 지방분권은 교육주체들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비전과 계획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과정. 전략적 비전이 부족할 경우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발생 가능
- 네덜란드: 오랜 학교자치 전통을 가진 시스템에서 실적이 저조한 초등학교의 수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위험 기반(risk-based)” 감사 시스템의 효과를 검토
 - 개혁의 영향뿐만 아니라 실행과정에서의 역학도 조사하였으며, 특히 언론, 학부모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역할에 관심을 두고 분석
 - (교훈) 복잡한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단순 인과관계를 통해 파악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책개입은 예상 밖의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동적 악순환(또는 선순환) 사이클을 형성. 이는 왜 일부의 개혁조치들이 시스템에 조속히 확산되는 반면에 다른 일부는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설명

2) 지표에 대한 설명

- SDGs 목표에서 지역 단위 교육공동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타나지 않음. 전남혁신 교육지구는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과 학교와 마을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건강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과 22개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과 예산이 있어 1:1 대응투자를 통해 지역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말함
 -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삶 중심 교육’으로 미래핵심역량을 기르고, 소멸의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학교와 마을, 지역교육생태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공동체 역할이 중요
 - 이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학교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자치 및 학생중심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적 경제공동체가 나타나기도 함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교육민회(정담회) 참여자수

정책지표 \ 연도	2018	2019	2020	2025	2030
교육민회(정담회) 참여자 수(명)	-	-	150	170	200

측정방법 : 순천시에서 실시된 교육민회(정담회) 참여자수

②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정책지표 \ 연도	2018	2019	2020	2025	2030
마을교육공동체 개수(개소)	-	18	30	35	40

측정방법 : 순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개소수

③ 지역화 교육과정 개발 논의 과정

정책지표 \ 연도	2018	2019	2020	2025	2030
지역화 교육과정 개발 논의 횟수(차시)	-	-	20	30	40

측정방법 : 순천시 지역화 교육과정 개발 논의 횟수

6.2. 주민이 주인이 되는 평생 학습

1) 환경분석

- 주민자치를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 주민에 의한 자치, 즉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원리이자 지방자치의 본질. 지방자치란 ‘지방 주민이 구성한 지방 자치단체가 국가와의 협력아래, 그 지역의 공동문제, 자기 부담에 의해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지방자치법 11조)으로 정의 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지역주민의 민주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민주성을 지닌 주민의 직접 참여로 가능하기 때문임
- 평생학습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일상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주권자로서 시민의 능력을 기르는 교육. 그 중에서도 주민자치 교육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교육과 학습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역사회 발전의 실천력으로 작동이 되어야 할 것임
- 주권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목적으로 볼 때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문제를 마을계획 등을 세워 해결하는 주체로 만들어내는 실천학습이 되어야 함. 개인의 역량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것 뿐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강화시켜내는 것이 평생학습의 고유의 목적이라면 평생학습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교육과 학습이어야 함

2) 지표에 대한 설명

- SDGs 목표에서 주민자치를 위한 평생학습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음
- 많은 지자체에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특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로 지역사회 상생 발전
- 교육부에서는 지난 2001년 첫 지정을 시작으로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평생학습도시 및 특성화 지원을 해 오고 있음.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유형 중 하나가 평생학습도시의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유형을 신설하여 지자체와의 다층적인 협력 유도. 이에 지역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표로 선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정책지표 \ 연도	2018	2019	2020	2025	2030
지역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수(개)	-	-	4	5	6

측정방법 :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지역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수

6.3. 지역대학과 상생하는 도시

1) 환경분석

- 2018년 8월 교육부는 7대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안을 포함시킴. 교육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부처별·분야별 분절적 사업 운영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역 중심 혁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자체와 지역대학 기반의 지역 단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여건과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지원하겠다고 밝힘
- 지자체와 대학이 컨소시엄을 통해 플랫폼을 구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이 대안에 포함. 또 지역대학 간 특성화 및 기능조정을 통해 신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
- 지역 혁신산업 클러스터 중심 된 해외 대학들: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구성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열악한 지역 상황 극복을 위해 대학을 통한 산학 연계형 연구, 인력양성 등을 추진했고 여기에 대학은 초기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옴
- 한국의 경우, 인하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하대-인천시 간 상생발전 협력모델을 구상. 인천시는 인하대가 있는 미추홀구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적

으로 추진 중이다. 원도심 개발과 관련해 전공 교수들을 중심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한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지원사업 수행

- 전주대는 살기 좋은 사회적 환경과 커뮤니티 구축,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친환경 에너지 보급방식 혁신 및 기후변화 대응, 리빙랩 기반의 혁신적인 경험학습 체계 구축,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등 ‘지역혁신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한 5가지 과제 수행 중임

2) 지표에 대한 설명

- 지역 청년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서 대학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짐. 대학이 지역혁신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산-관-학 협동이 핵심고리로서 강조됨. 지역의 기업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대학은 지역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인 집단임. 지역대학을 잘 활용해야 대학도 지역도 인재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음
- 산-관-학의 연계에는 중앙이 아닌 지역의 대학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 필요. 정책이 세밀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해 각각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함. 이에 마지막 지표로 지역대학 협력 연계사업을 선정함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정책지표 \ 연도	2018	2019	2020	2025	2030
지역대학 협력 연계사업 개수(개)	-	-	11	15	20

측정방법 : 순천 소재 대학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사업 개수

제3절. 복지분야

7. 차별 없는 복지 더 행복한 순천

7. 차별 없는 복지 더 행복한 순천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지표		UN SDGs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7.1. 사회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수급자 자녀의 수급 대물림 차단	7.1.1. 수급 대물림 차단 비율	1. 빈곤 종식
7.2.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	7.2.1.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1. 빈곤 종식 3. 건강과 웰빙
	7.2.2.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7.3. 저출산 극복 및 고령화 대비 아이와 노인이 함께 살기 좋은 행복한 복지 프로그램 확대	7.3.1. 순천시 합계출산율	3. 건강과 웰빙
	7.3.2. 노인의 치매유병률	
	7.3.3. 영유아 및 노인 복지 체감도	
7.4. 순천시민의 성평등 의식 확립으로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실현	7.4.1. 여성친화도시 시민만족 체감도	5. 성 평등
7.5.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보장과 복지향상	7.5.1.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율	5. 성 평등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7.1. 사회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와 수급자 자녀의 수급 대물림 차단

1) 환경분석

○ 지역별 보호조치 아동 발생원인 및 현황

- 17개 시·도 중 전남의 경우도 서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였으며, 시설입소(206건)와 가정보호(106건)로 보호조치가 이루어짐

○ 대상 : 17개 시도																															(단위 : 명)		
구 시·도	보호대상아동 발생수	귀가 및 고지 인도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												장애여부			보호조치 현황															
			계	남	여	유기	미혼 부모 혼인자	미아	비행· 가출· 부랑	학대	부모 반신 곤란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사망	계	비장애	장애	시설입소							가정보호								
																		계	소계	남	여	양육 시설 등	임시 보호 시설	장애 아동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소계	남	여	소년 소녀 가정	입양	가정 위탁	입양 전 위탁	
합계	4,846	725	4,121	2,077	2,044	261	850	12	229	1,437	216	276	86	754	4,121	3,994	127	4,121	2,421	1,218	1,203	1,467	310	19	625	1,700	859	841	2	285	990	423	
서울	1,293	193	1,100	575	525	150	577	0	139	113	31	28	4	58	1,100	1,079	21	1,100	478	252	226	349	76	10	43	622	323	299	0	145	72	405	
부산	175	16	159	71	88	2	15	0	3	69	7	21	3	39	159	153	6	159	95	42	53	54	6	0	35	64	29	35	0	6	58	0	
대구	223	79	144	51	93	5	11	0	23	67	14	7	4	13	144	137	7	144	121	44	77	90	21	0	10	23	7	16	0	6	17	0	
인천	270	100	170	86	84	5	25	2	10	61	13	7	7	40	170	169	1	170	104	53	51	61	34	0	9	66	33	33	2	11	53	0	
광주	119	8	111	42	69	2	20	0	4	31	7	3	9	35	111	109	2	111	63	29	34	31	2	0	30	48	13	35	0	9	26	13	
대전	105	5	100	55	45	3	12	0	2	55	2	4	9	13	100	96	4	100	64	37	27	46	5	0	13	36	18	18	0	4	30	2	
울산	101	13	88	37	51	2	3	0	2	47	4	4	2	24	88	86	2	88	51	26	25	30	0	0	21	37	11	26	0	4	33	0	
세종	6	0	6	2	4	0	0	0	0	4	2	0	0	0	6	6	0	6	6	2	4	5	0	0	1	0	0	0	0	0	0	0	
경기	799	135	664	347	317	64	32	1	14	327	40	50	17	119	664	645	19	664	463	243	220	147	106	3	207	201	104	97	0	43	158	0	
강원	241	64	177	101	76	4	12	0	3	68	10	10	5	65	177	171	6	177	95	53	42	40	30	2	23	82	48	34	0	13	69	0	
충북	161	21	140	77	63	9	28	0	0	51	13	6	3	30	140	129	11	140	104	60	44	53	0	0	51	36	17	19	0	6	30	0	
충남	213	0	213	97	116	1	10	0	1	102	15	8	10	66	213	201	12	213	154	69	85	121	9	1	23	59	28	31	0	2	57	0	
전북	287	54	233	105	128	0	14	4	2	136	3	25	2	47	233	227	6	233	148	66	82	76	0	0	72	85	39	46	0	18	67	0	
전남	316	4	312	164	148	0	56	4	11	119	25	30	2	65	312	303	9	312	206	109	97	157	21	0	28	106	55	51	0	4	99	3	
경북	239	20	219	112	107	5	12	1	6	76	8	35	5	71	219	204	15	219	97	46	51	73	0	3	21	122	66	56	0	9	113	0	
경남	210	11	199	105	94	7	9	0	9	76	15	33	3	47	199	195	4	199	114	57	57	95	0	0	19	85	48	37	0	4	81	0	
제주	88	2	86	50	36	2	14	0	0	35	7	5	1	22	86	84	2	86	58	30	28	39	0	0	19	28	20	8	0	1	27	0	

○ 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 매뉴얼 및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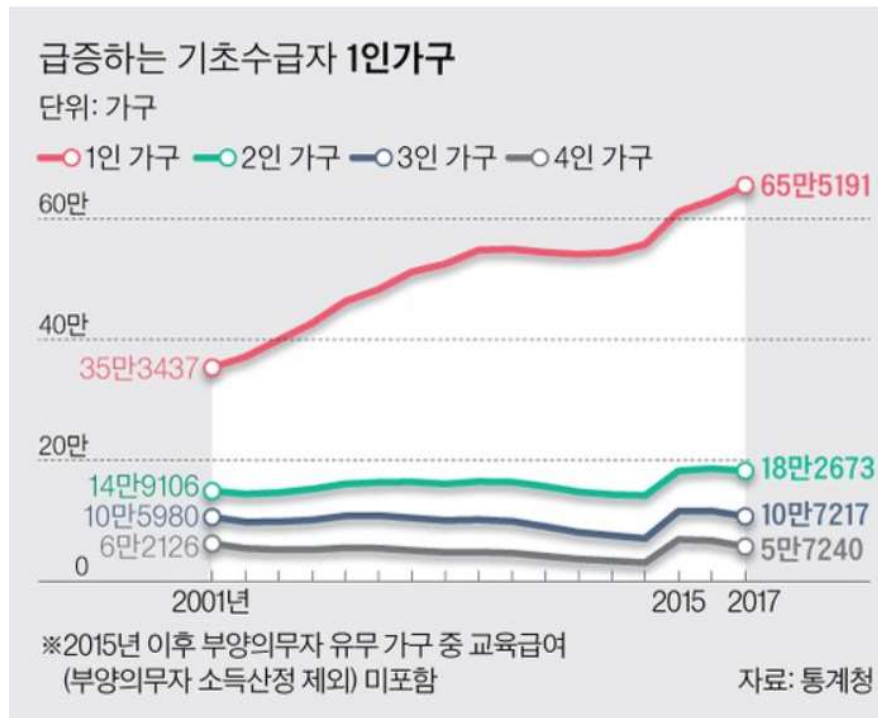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은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가정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림 7-1] 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 흐름도

- 주로 수급자의 자녀 또는 학대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은 체계적인 자립지원 매뉴얼에 의해 탈수급 자립을 지원함. 그 결과 시설 아동들이 자립하면서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79%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기초수급 1인 가구 현황



[그림 7-2] 기초수급자 1인 가구수

- 빈곤계층은 자녀의 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 지출이 일반계층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국민기초수급자의 자녀나 조손가정의 아동, 다문화가정의 아동 등은 체계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급 대물림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지표에 대한 설명

○ 수급 대물림 차단 비율

- 빈곤계층의 탈수급과 자녀의 수급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자립지원 체계를 갖추고 자립에 필요한 자립준비 매뉴얼에 따라 자립준비체계를 갖추고, 빈곤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기초자격증 또는 면허증 취득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는 과정의 성과
- 수급 대물림 차단 비율: 자립지원센터 설치와 빈곤자녀의 자립 지원을 통해 수급자 가족의 자녀가 수급자에서 벗어난 비율 분석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정책지표 \ 연도	2019	2020	2025	2030
수급대물림 차단비율(%)	기준점 선정	-0.1	-0.3	0.5

측정방법 : 수급 대물림 차단 비율=순천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지원센터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지원을 통해 수급대상에서 벗어난 비율

- 자립지원센터 설치와 지원을 통해 자녀의 수급 대물림을 차단하고 빈곤층의 지속적인 자립이 가능한지를 연도별로 평가함

7.2.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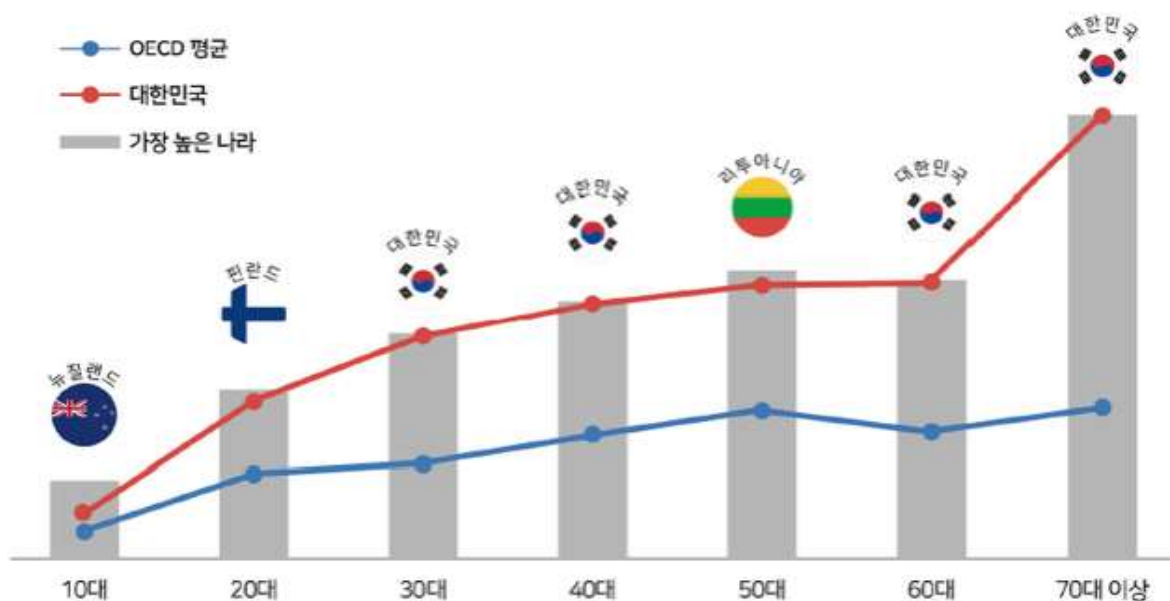
1) 환경분석

○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 세계보건기구(WHO)가 매년 발표하는 통계로, 10만명당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을 자살률이라고 명명함
- 2018년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2018년 26.6명으로 2017년보다 2.3명 많아짐. 남성의 자살률은 38.5명으로 여성 14.8명보다 2.6배 높으며, 전체 자살 사망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2.1%, 여성은 27.9%이었으나 응급실에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 비율은 여성이 55.7%로 남성 44.3%보다 1.3배 많음. 자살률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 80세 이상이 69.8명으로 가장 높았고, 70대 48.9명, 50대 33.4명, 60대 32.9명, 40대 31.5명, 30대 27.5명, 20대 17.6명, 10대 5.8명 등의 순으로 고령자 자살에 대한 예방대책이 중요해지고 있음. 또한 자살률이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 10대 자살률은 22.1%가 늘어 증가함. 최근 5년간 노인(65세 이상) 자살률은 연평균 3.3% 감소했고, 청소년(9~24세) 자살률은 연평균 5.2% 증가. 자살 동기는 10~30세는 정신적 어려움, 31~60세는 경제적 어려움, 61세 이상 육체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많음. 자살자의 교육 수준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36.5%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 24.1%, 초등학교 졸업 14.3% 순. 최근 5년간 무학,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 자살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대학교 및 대학원 이상 졸업 자살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월 별 자살자 수는 매년 봄철(3~5월)에 증가하고 겨울철(11~2월)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지역별 자살자 수는 경기(3천111명), 서울(2천172명), 경남(971명) 순.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충남(29.8명), 제주(27.3명), 충북(26.7명) 순으로 나타남

- 2021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9년 자살자수는 1만 3,799명으로 전년대비 129명(0.9%)증가하였고, 자살률은 26.9명으로 0.2명(0.9%) 증가함
-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7년 기준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23.0명으로 OECD 회원 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 11.2명 보다 2.1배 높음. 특히 30~40대, 60대 이상의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출처: WHO의 2021 Mortality data base를 활용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산출]

- 2011년에는 자살률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당시 자살사망자는 1만 5,906명, 자살률은 31.7명에 달함. 2020년 자살사망자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으로 2019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전반의 우울감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2~3년 이후 자살 증가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음

○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2018년)에서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전체 위험군 현황은 19.1%로 전년(18.6%) 대비 0.5%p 증가하여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전 연령 중 유아동 과의존 위험군이 2015년 최초조사 이후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8.3%p) 저연령층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18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은 19.1%로 조사되어 7년 연속 상승세

- ▶ 전년 대비 0.5%p 증가
- ▶ '15년 이후 연도별 증가폭 둔화('15년 2.0%p, '16년 1.6%p, '17년 0.8%p)



[그림 7-3] 연도별,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전 연령 중 유아동 과의존위험군이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 과의존위험군 증가폭은 유아동(+1.6%p) > 60대(+1.3%p) > 성인(+0.7%p) 순
- ▶ 청소년은 과의존위험군 감소(-1.0%p)



[그림 7-4] 연도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 정신건강복지 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기능)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으로 유발되는 중독예방교육 실시, 중독선별 검사 보급을 통한 조기발견 활성화, 지역사회 알코올 중독 고위험군 상담서비스 제공
- 설치현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총 50개소이며, 전남지역은 목포와 여수에 소재

2) 지표에 대한 설명

○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 세계보건기구(WHO)가 매년 발표하는 통계치로, 인구 10만명당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을 자살률 이라고 명명함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3년간 OECD회원국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함

○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황임
- 스마트폰 게임 중독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함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정책지표 \ 연도	2019	2020	2025	2030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15.3	15.2	15.1	15.0

측정방법 :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인구 10만명당 고의적 자해에 의해 사망한 사망자 수로 측정
- 지역별 자살률과 지역별 연령 표준화 자살률을 통해 전라남도의 자살률의 추이 연계 분석

②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정책지표 \ 년도	2019	2020	2025	2030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18 이하	16 이하	14 이하	14 이하 유지

측정방법 :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 순천시 자체적으로 1년 마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및 분석
- 순천시와 보건소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계획과 수행 및 평가 실시

7.3. 저출산 극복 및 고령화 대비 아이와 노인이 함께 살기 좋은 행복한 복지 프로그램 확대

1) 환경분석

- 지역별 합계 출산율 추이
 - 전국 합계 출산율을 2018년 현재 0.98명으로 1명 이하로 기록됨. 전남의 경우 1.24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편임
 - 순천시의 경우 2017년의 경우 1.180, 2018년 1.247, 2019년 1.340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어 보건복지 정책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는 좋은 사례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

<표 7-1> 지역별 합계 출산율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합계 출산율 (2018년P)	0.76	0.90	0.99	1.01	0.97	0.95	1.13	1.57	1.0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1.07	1.17	1.19	1.04	1.24	1.17	1.13	1.22	0.98

출처: 통계청 「2018년 출생·사망통계(잠정)」

*P = 잠정치

○ 고령화 현황

- 대한민국의 노령화지수는 1995년 추계 24.46 %로 세계 평균치인 19.1%를 상회하여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이후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음. 전라남도
도의 경우 2017년 144.5%, 2018년 175.4%, 2019년 181.0%로 나타남



* 출처: 통계청

[그림 7-5] 노령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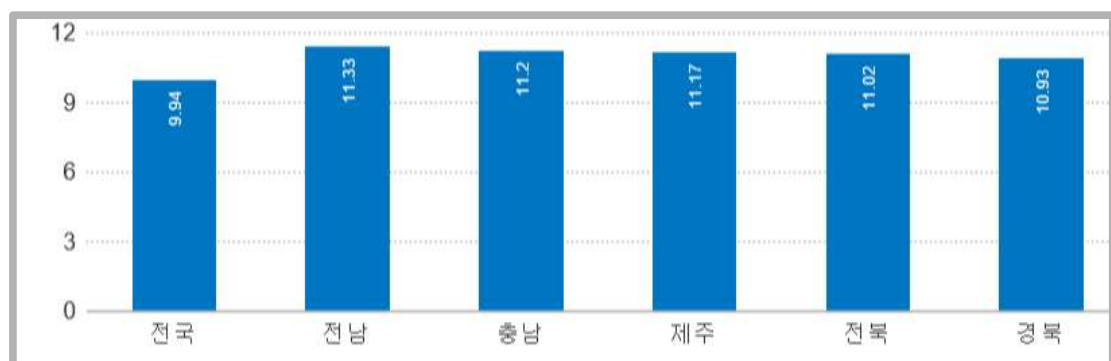
○ 노인 건강과 치매

-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18%로 환자 수는 54만 1000명(남성 15만6000명, 여성 38만 5000명)으로 추정됨(보건복지부, 2013).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하여 환자 수도 2012년 약 54만 명에서 2030년에는 약 127만 명,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으로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그림 7-6] 65세이상 치매환자수와 치매 유병률

- 2017년의 경우 지역별 치매 유병률은 전국이 9.94%이며, 전남의 경우 11.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노령화와 더불어 복지차원의 치매관리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됨



* 출처: 중앙치매센터, 2017조사결과

[그림 7-7] 치매 전국 유병률 및 지역별 TOP5

2) 지표에 대한 설명

○ 합계출산율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임. 합계출산율이 높을수록 한 여성이 출생하는 자녀수가 많다는 의미임

○ 치매유병률

- 65세이상 노인 인구 100명당 치매 환자 수

○ 복지 프로그램 체감률

- 순천시민 중 복지프로그램이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수를 나타낸 지표. 5점만점을 기준으로 체감한 정도를 측정하며 연령별, 성별, 지역별, 직업별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구분하여 체감률을 분석하는 보건복지분야 통합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합계출산율

정책지표 \ 연도	2019	2020	2025	2030
순천시 합계출산율(%)	1.34	1.35	1.36	1.37

측정방법 : 순천시 합계출산율

○ 순천시 합계출산율 분석

- 순천시와 보건소에서 정신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계획과 수행 및 평가 실시

② 치매유병률

정책지표 \ 년도	2019	2020	2025	2030
순천시 치매유병률(%)	11 이하	10.9	10.8	10.7

측정방법 : 순천시 치매유병률

- 순천시 자체적으로 1년 마다 치매유병률 조사 및 분석
- 순천시와 광역치매센터에서 노인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 사전조사와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과 수행 및 평가 실시

③ 복지프로그램 체감률

정책지표 \ 년도	2019	2020	2025	2030
영유아 및 노인복지 체감도(%)	—	0.2% 증가	0.3% 증가	0.5% 증가

측정방법 : 영유아 및 노인복지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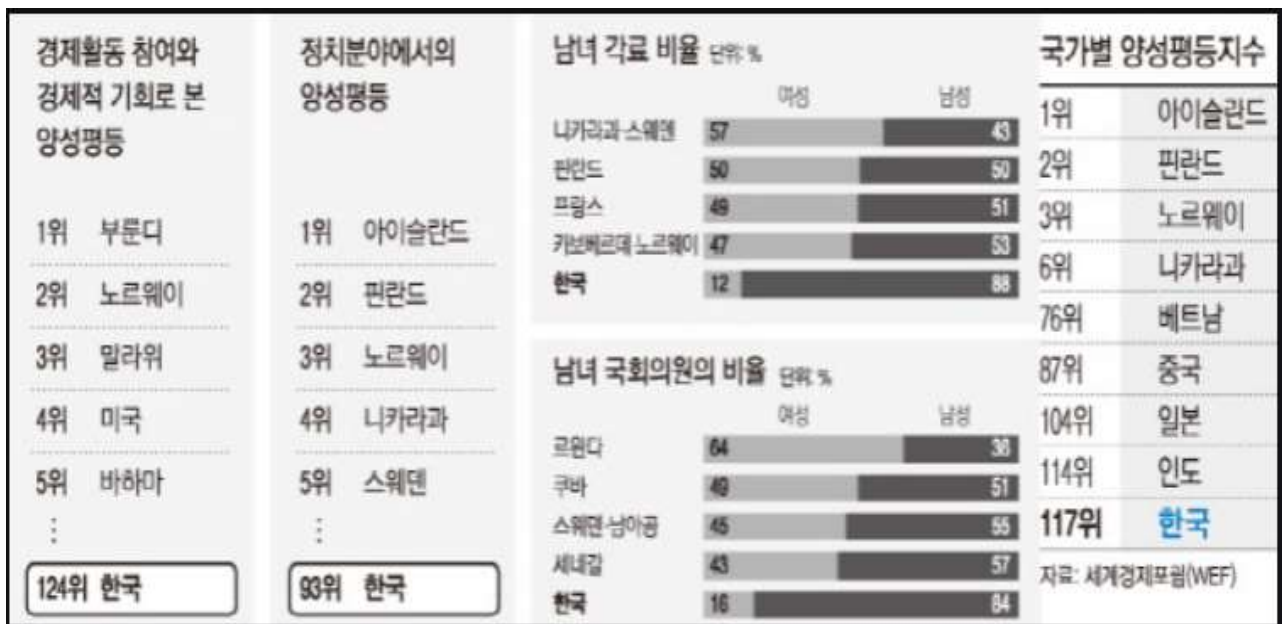
- 순천시 자체적으로 1년 마다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복지프로그램 체감률 조사 및 분석
-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보건복지 프로그램 계획과 수행 및 평가와 환류

7.4. 순천시민의 성평등 인식 확립으로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실현

1) 환경분석

○ 전세계 양성평등 실태

- 1995년 세계여성대회 이후 성주류화는 세계여성발전의 화두가 되었으며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모든 정책을 수립, 집행, 평가하는데 있어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삶의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양성이 동등하게 혜택 받게 하는 성주류화 정책이 필수 불가결한 시대가 되었음



○ 양성평등 기본계획

- 여성 가족부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태 조사, 계획수립, 양성평등 관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구 분		제1차 기본계획(중전)	제2차 기본계획(추가)
비 전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목 표		성별격차해소 일과 가정의 조화 차이와 인권 존중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분야별 추진방향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학교교육, 미디어, 생활 속 양성평등 확산	▶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 언론·미디어 종사자 등 전문인력 대상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보장	▶ 청년, 재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확대 등 고용기회 확대 ▶ 성평등임금 공시제 도입 등 성차별 개선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공공부문 중심 대표성 향상	▶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 여성임원 비율 공개 등 민간부문 대표성 향상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자녀 돌봄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일·가정 양립 지원	▶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지원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 오프라인에서의 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등 신종 여성폭력 근절 ▶ 성인지적 건강 증진 정책 기반 마련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양성평등위원회(분과위원회 신설) ▶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제도 연계, 성인지 교육 의무화	▶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체계 마련

-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한 순천시는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성평등 운동을 이제 단순 여성의 문제가 아닌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까지 이르기 까지 일상화·관례화 되었던 일들에 대한 차별적 내용의 개선과 올바른 의식개선을 위한 전문적 기구를 마련하여 성인지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평등협력지원센터 설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2) 지표에 대한 설명

○ 여성친화도시 시민만족 체감도

- 유엔개발계획(UNDP)이 2010년부터 각국의 성불평등성을 측정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지수임. 생식건강(모성사망률, 청소년 출산율) 여성권한(여성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받은 인구), 노동참여(경제활동 참가율)의 3개 부문 5개 지표를 통해 성불평등을 측정함. GII의 지수값은 0~1의 범주를 가지며, 점수가 0이면 완전평등한 상태, 1이면 완전 불평등 상태를 의미함

3) 지표의 연도별 달성목표

정책지표 \ 연도	2019	2020	2025	2030
여성친화도시 시민만족 체감도(점)	0.065	0.063	0.060	0.055

측정방법 : 여성친화도시 시민만족 체감도

- 순천시 자체적으로 1년 마다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시민만족 체감도 측정
-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보건복지 프로그램 계획과 수행 및 평가와 환류

7.5.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보장과 복지향상

1) 환경분석

○ 전국 체육시설 현황

- 전국 체육시설은 6,874개이나 장애인 체육시설은 22개에 그치며, 전라남도의 경우 장애인 체육시설은 1개소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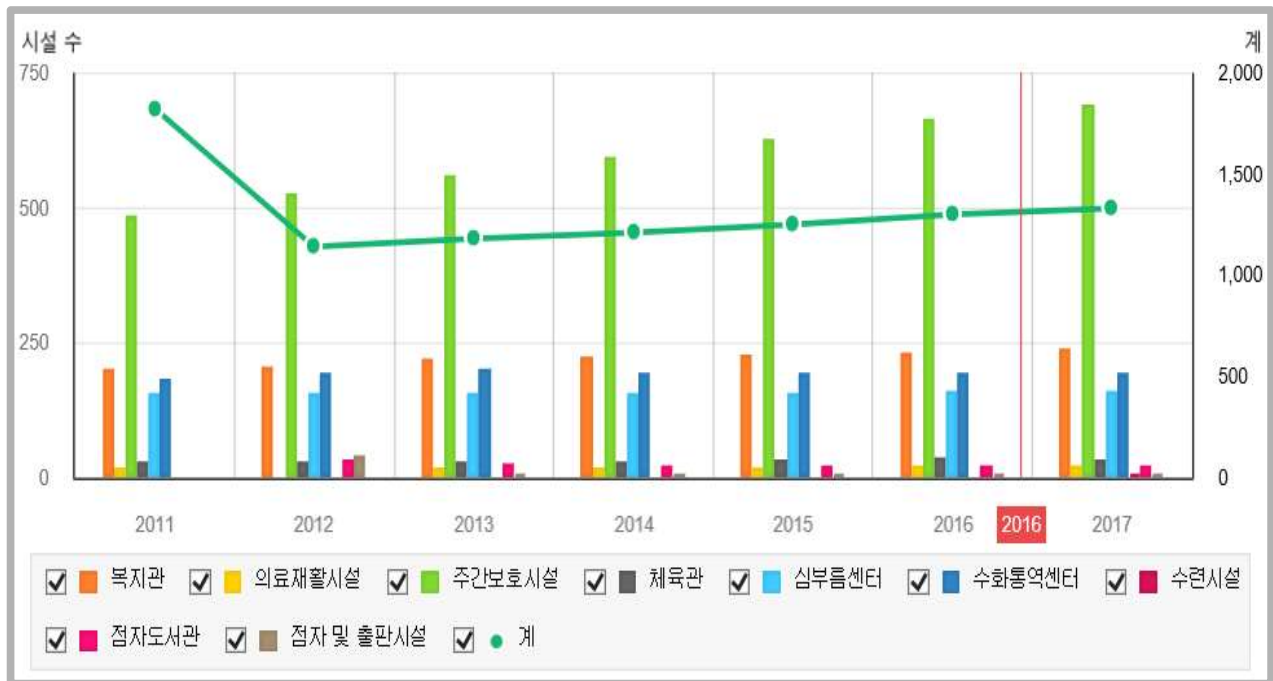
<표 7-2> 전국 장애인 및 비장애인 체육시설 현황

광역 자치단체	장애인				비장애인					
	등록 장애인 1(명)	체육시설		인구 4(명)	체육시설					
		수 2(개)	면적 3(㎡)		공공		등록·신고		합계 (개소)	합계면적(㎡)
					수 5(개)	면적 5(㎡)	수 6(개)	면적 6(㎡)		
계	1,532,421	22	72,681	45,985,289	6,874	52,145,683	42,320	198,155,497	49,194	250,301,180
서울특별시	254,035	7	29,599	9,853,972	1,281	8,238,072	9,114	2,851,713	10,395	11,089,785
부산광역시	107,464	1	3,679	3,655,437	298	1,527,361	2,653	4,515,683	2,951	6,043,044
대구광역시	74,720	2	3,041	2,473,990	188	1,649,038	1,812	1,580,086	2,000	3,229,124
인천광역시	81,484	0	0	2,466,338	298	2,406,064	2,395	1,984,998	2,693	4,391,062
광주광역시	41,365	1	3,296	1,350,948	111	875,378	1,188	339,087	1,299	1,214,465
대전광역시	42,984	3	8,336	1,365,961	158	862,714	1,112	1,798,734	1,270	2,661,448
울산광역시	28,793	0	0	1,012,110	82	1,489,148	856	1,728,899	938	3,218,017
경기도	289,318	2	5,834	8,937,752	1,183	9,703,039	9,272	99,467,298	10,455	109,170,337
강원도	64,009	0	0	1,484,536	393	3,097,513	1,650	21,164,143	2,043	24,261,656
충청북도	57,061	1	2,440	1,462,621	274	2,419,289	1,269	8,332,223	1,543	10,751,512
충청남도	79,320	1	4,836	1,840,410	325	2,661,235	1,590	6,630,370	1,915	9,291,605
전라북도	88,414	1	2,417	1,887,239	394	3,297,874	1,967	6,962,096	2,361	10,259,970
전라남도	93,884	1	1,289	1,994,287	509	3,161,429	1,771	7,362,370	2,280	10,523,799
경상북도	102,778	1	1,997	2,716,218	502	3,324,357	2,403	8,825,232	2,905	12,149,649
경상남도	107,991	1	5,917	2,970,929	760	5,885,921	2,588	13,139,686	3,348	19,025,607
제주도	18,801	0	0	512,541	118	1,547,250	680	11,472,849	798	13,020,099

* 출처: 장명재, 최현희, 2004, 장애인 체육시설 현황에 관한 연구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현황

- 장애인 지역사회 시설 중 체육관은 매우 부족하며, 인근 여수시나 광양시에
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있는데 순천은 없어 장애인 체육 발전이 뒤 떨어
지며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장애인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체육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
한 시설이나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필요



[그림 7-8]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현황

2) 지표에 대한 설명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 문화체육부와 대한장애인 체육회가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활용
- 장애인 체육시설을 유치하고, 장애인들이 1인 1개 체육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성과 분석을 위한 지표
- 순천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자폐, 기타의 6개 유형으로 구분 후 할당 모집하여 설문조사 또는 면접조사를 통해 최근 1년간 주2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1개 이상의 활동에 참여한 장애인의 비율 측정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정책지표 \ 연도	2019	2020	2025	2030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율(%)	7.0	8	10	15

측정방법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 순천시 거주하는 장애인 중 최근 1년간 1인 1개 이상의 체육활동을 주2회 이상, 1회 30분 이상 참여했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비율

제4절. 자치 분야

- 8. 주민 주권이 구현되는 도시
- 9.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는 도시

8. 주민 주권이 구현되는 도시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지표		UN SDGs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8.1.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도시	8.1.1.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10. 불평등 해소
	8.1.2. 숙의기반 주민참여 플랫폼(광장 토론, 공론 조사, 합의 회의, 시민 회의, 주민 배심 등) 참여자수	
8.2. 주민 자치가 실현되는 도시	8.2.1.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건수)	11. 지속가능한 도시
	8.2.2. 마을계획 수립 현황	
	8.2.3. 주민자치 사업예산	
8.3. 주민 결정권이 강화되는 도시	8.3.1. 주민참여 예산 제안 참여자수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8.3.2. 24개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	
	8.3.3. 년 도별 주민참여 예산	

8.1.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도시

1) 환경 분석

-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2018년 9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2019년 2월에는 136개 세부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각 부처 간 검토 중임
-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고 정부는 국가전략으로 자치분권 체제를 확립하고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를 위한 주민 주권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임
- 정부는 주민주권 구현 전략을 위해 주민참여권 보장, 숙의 민주주의 일상화,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을 과제로 삼고 있음

- 순천시는 그동안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따순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읍·면·동으로 확대 하였고 광장토론, 공론화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있음
- 정책은 확대되고 있으나 평가 지표가 없어 매년 조사되고 있는 사회조사 보고서의 시정에 대한 만족도와 시정 주민참여 방법 선호도 조사에 그치고 있음
 - **시정 만족도** 조사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정운영 전반, 행정의 투명성, 시민 여론 정책 반영, 예산 편성의 적절성, 공무원의 청렴도, 시정 핵심 목표에 대한 만족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시정주민참여형태**는 시정주민참여방법으로 주민자치사업운영(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원봉사, 평생학습프로그램, 시민제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있으나 참여하지 않는다가 90%이상 차지함
 -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 정책 중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과 활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따순 마을 만들기 사업, 희망순천아이디어 페스티벌, 주민제안 사업 등이 시정주민참여 조사로 반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 부족과 관(官) 중심의 주민자치로 지방자치에서 주민이 소외 되고 있는 실정에서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속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론조사, 합의회의, 주민회의, 시민배심, 광장토론 등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필요함

2) 지표에 대한 설명

- UN SDGs의 Goal 10. 불평등 해소 목표에서는 2030년까지 나이, 성, 인종, 종교, 기타 사회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참여 권한을 확대하고 촉진하고자 하며 UN SDGs 이외의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으로 주민참여를 측정하는 지표는 대표적으로 투표율로 측정하거나 만족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표 7-1>은 각국의 대표적인 참여에 관한 지표임

<표 8-1> 국·내외 참여 분야 측정 목표와 관련지표

구 분	영역 및 지표 제안	
	측정 목표	관련 지표
부탄의 GNH	좋은 지배체계 (Good governance)	▶ 정부의 리더십 ▶ 서비스 제공도 ▶ 불평등 및 부패한 관리 ▶ 정부의 사법과 정책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	민주적 참여	▶ 연방선거에서의 투표율 ▶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비율 ▶ 민주적 업무 방식에 대해 만족하는지의 비율 ▶ 연방정부의 정책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비율 ▶ 해당 유권자의 등록 비율 ▶ 의회 내 여성 비율 ▶ 국민총소득 비율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 연방선거의 투표하기 위한 시민의 의무에 강력하게 동의하는지의 여부
OECD Better Life Initiative(BLI)	시민참여	▶ 투표율(최근선거에서의 투표율(투표인수/등록인수)) ▶ 법률 제정에서의 협의(법률 제정에서의 협의 투표율)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 - 행복지수의 지표 구성	정부와 사회참여	▶ 사회단체참여율* ▶ 자원봉사자비율* ▶ 사회이동의 가능성* ▶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주민 참여 부문	▶ 투표율 (국회의원, 지방선거, 대통령) ▶ 청렴도 ▶ 정보공개율

- 2017년 순천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41.6%. 2017년 44.4%로 약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에는 만족의 비율이 ‘행정의 투명성’에서는 32.6%, ‘시민의 여론 정책 반영’에서는 34.0%, ‘예산편성의 적절성’은 30.4%, ‘공무원의 청렴도’는 33.7%, ‘시정핵심 비전(생태수도 순천)’은 65.4%로 나타났다
- 2017년 시정 만족도 44.4%에 비해 ‘시민의 여론 정책 반영’에 대한 만족도는 34.4%로 10%나 저조함

- 순천시정에 주민 참여 방법을 개선하고 측정 가능한 지표 관리가 필요함

- 신고리 원전5·6호기 건설 공론조사,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캐나다 시민의회, 수원시 ‘시민배심원’등 정부 또는 지방정부 정책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에 따라 다양한 숙의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표 8-2> '숙의'제도 유형(2018. 자치분권종합계획)

구분	주요 내용
공론조사	▶ 대표성 있는 시민선발, 정보제공토론 후 참여자들의 변화된 의견을 공공정책 결정에 반영
합의회의	▶ 시민들이 전문가에게 질의하고 의견청취 후 의견교환과 심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
시민회의	▶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시민회의의 결정을 의회 동의를 얻어 입법화
주민배심	▶ 대표 시민들이 정책질의, 심의과정 후 정책 권고안 제시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정책지표 \ 연도	2017	2019	2020	2025	2030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44.4	50	55	60	65

측정방법 : 매년 실시되는 <순천시 사회조사>에서 시민 만족도 조사 활용

-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및 2020-2030년 목표

② 시정 주민참여 방법 선호도

정책지표 \ 년도	2016	2017	2019	2020	2025	2030
시정 주민참여 선호도(%)	90.6	87.3	87	85	80	75

측정방법 : 매년 실시되는 <순천시 사회조사>에서 조사 실시

○ 시정 주민참여 방법 선호도 및 2020-2030년 목표

③ 숙의기반 주민 참여 방법에 참여한 주민의 수

정책지표 \ 년도	2018	2019	2020	2025	2030
숙의기반 주민참여자 수(명)	600명 ¹⁾	1,000	3,000	5,000	10,000

측정방법 : 숙의 기반(광장토론, 공론조사, 합의회의, 시민회의, 주민배심 등) 주민참여 방법에 참여한 참여자 수

○ 숙의기반 주민참여 방법에 참여한 참여자 수 및 2020-2030년 목표

- 마을계획 및 마을 총회 참여자
- 순천시 참여예산 워크숍 참여자
-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워크숍 참여자
- 공론화 위원회 참여자 수
- 마을 계획 수립 워크숍 참여자 및 마을 총회 참여자 수
- 그 외 다양한 주민 의사를 묻는 숙의 방식의 워크숍 및 원탁토론 참여자 수

1) 2018년 참여예산 지역회의 참여자수 24개 읍면동*25명=600명

8.2. 주민 자치가 실현되는 도시

1) 환경 분석

-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미래사회에는 다양성이 에너지의 원천이고 기대감이 높지만 지역의 미래는 저출생, 고령사회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이 고려되며 미래가 밝지 않음
-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 현안과 지역 문제를 해결 또는 발굴하려는 요구는 확산되지만 제도적 디자인은 미흡함
 - 1999년 처음 시작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라는 개념으로 처음 시도된 정부의 제도였으나 읍·면·동 현장의 변화가 없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됨
- 주민 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 참여와 자치 원리가 작동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 심의, 마을 계획 수립, 마을 총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 조직의 대표성을 갖추고 주민이 지역 재생을 위한 속의 토론과 의제를 결정하는 역할로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동력임
- 2018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기능, 재정지원 근거 등을 담겨 있고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종합계획에도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주요한 목표임
- 순천시 2004년부터 시작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참여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24개 읍·면·동에 새롭게 주민자치회 구성하고, 마을 계획을 주민들이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이 수립한 마을 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구현되는 도시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지표를 수립하여야 함

2) 지표에 대한 설명

- UN SDGs의 Goal 11. 지속가능한 도시에서는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참여, 통합 및 지속가능한 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 순천시는 2012년 중앙동이 주민자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경험이 있고, 2018년 덕연동을 시작으로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별량면, 서면, 황전면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출발하여 운영되고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름만 바뀌어 전환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한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의 실질적 협치의 주체로써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결정 권한과 책임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로 교육과 학습을 통해 주민스스로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총회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임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

정책지표 \ 연도	2018	2019	2020	2023	2025	2030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개)	1	1	8	14	24	30 (마을, 아파트 자치 포함)

측정방법 :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

② 마을계획 수립 현황

정책지표 \ 연도	2018	2019	2020	2025	2030
마을계획 및 마을총회 개최 횟수(회)	3	8	14	24	24

측정방법 : 주민자치회 구성에 따른 마을 계획 수립과 마을 총회 개최 횟수

- 주민자치회 구성에 따른 마을 계획 수립과 마을 총회 개최 및 2020-2030년 목표

③ 주민자치 사업 예산

정책지표 \ 년도	2018	2019	2020	2025	2030
순천시 주민자치예산(천원)	540,957	931,584	1,005,000	1,205,000	1,400,000

측정방법 : 순천시에서 주민자치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예산의 총 합

- 순천시 주민자치예산 및 2020-2030년 목표

8.3. 주민 결정권이 강화되는 도시

1) 환경 분석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써 주민참여와 주민 결정권을 부여한 성공적인 모델로서 평가 받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2005년도 「지방 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이어 2004년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 지방 공공재의 공급에 대한 판단을 주민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므로 주민 주권의 실현이라 볼 수 있으며, 시민 참여 운동인 동시에 지방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민적 통제 장치임

-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우선순위 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이나 행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참여 기회의 보장을 통해 지방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의 활성화와 주민 결정권을 강화하는 제도임
-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하게 하고 마을 계획 수립과 마을 총회를 통해 실질적 마을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로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의 생각이 반영되고 주민 결정권이 부여된 제도임

2) 지표에 대한 설명

- UN SDGs의 Goal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중에서는 16.6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16.7 포괄적이고, 반응적이고,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 보장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 및 정책 이행 및 강화라는 세부 목표와 주민 결정이 강화되는 순천시의 정책 목표와 연관성 있음
- 순천시는 2018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전체 120억 예산 중에 읍·면·동 지역 특화 사업 예산에 100억을 편성하였음
- 2018년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9년에는 135억으로 예산을 확대하였음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 운영과 주민자치회의 마을계획과 마을 총회가 함께 이루어져 마을 문제를 직접 주민이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험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자 수의 증가, 주민참여 예산 제안 건수의 증가, 주민참여 예산 편성액의 증가가 주민결정권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현재 합당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음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회 참여자수

정책지표 \ 연도	2018	2019	2020	2025	2030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및 참여자 (개소/명)	24/500	24/850	30 ²⁾ /1,000	35/2,000	40/10,000

측정방법 : 24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 구성 현황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자 수 2020-2030년 목표

② 주민참여예산 사업결정 및 마을 의제결정을 위한 마을 총회 횟수

정책지표 \ 연도	2018	2019	2020	2025	2030
마을 계획, 마을 총회와 주민 참여 예산 연계 횟수(회)	1	8	14	24	24

* 읍면동 마을 총회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결합

측정방법 : 주민자치회 마을계획, 마을 총회와 연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 마을과 계획과 주민총회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연계 건수 및 2020-2030년 목표

③ 주민참여 예산 편성액

정책지표 \ 연도	2018	2019	2020	2025	2030
주민 참여 예산 편성액 (억 원)	120	135	150	200	250

측정방법 : 매년 편성하는 지방 예산 중에서 주민참여 예산 편성액 추이

○ 주민참여예산 편성액 2020-2030년 목표

2) 24개 읍면동 이외 청소년, 여성, 어린이, 노인 등 계층별 주민참여예산 참여자

9.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는 도시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지표		UN SDGs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9.1.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교류 협력	9.1.1. 남북교류촉진을 위한 시민운동, 참여자수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17. 지구촌 협력
	9.1.2. 남북교류촉진 민·관 협력 예산	

9.1.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교류 협력

1) 환경 분석

- 2018년 4월 27일 3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민간교류 활발하게 진행됨
- 순천시는 북측 민화협과 발효 콩 빵공장 지원 사업 참여를 계획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방식으로 참여함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넘어서서 직접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교류의 폭을 넓히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임
- 2018년 순천시장은 남북 교류 사업을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했고 같은 해 두바이에서 열리는 람사르 총회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나 향후 순천만 보존 사례와 생태환경에 대한 교류를 약속했고 이는 국제기구를 통한 생태환경도시 교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음
-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국제기구를 통하여 흑두루미를 통한 순천시와 북한과의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순천지역 사회 내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이 향후 전라남도 순천과 평안남도 순천의 민간 교류를 촉진할 수 있음

- 2018년 12월 순천시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해 ‘남북협력 지표 개발을 위한 순천시민의식조사(별첨 첨부)’³⁾를 실시하였음
- 조사 결과 우리나라 통일 및 북한에 대해 전체 331명의 응답자 중 적극적 관심이 46%, 소극적 관심이 44%를 차지함
- 남성의 경우 40~50대가 관심도가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관심도가 가장 높고, 특히 40대 이상의 응답자 188명 중 185명 98%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응답함
- 조사 참여자 68%가 평안남도 순천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우선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한반도 평화협정체결(33%),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교류 협력(29%), 통일이후 사회적 통합을 대비한 기금마련(17%),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증진 활동(15%) 순서로 나타남

2) 지표에 대한 설명

- UN SDGs의 Goal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와 Goal 17. 지구촌 협력 중에서 17.6. 과학, 기술, 혁신으로의 접근에 대한 북-남, 남-남, 지역 및 국제 삼각협력 강화(기존 메커니즘, 특히 UN차원의 메커니즘, 간의 조정과 세계적인 기술촉진 메커니즘 등을 통해 상호 합의된 사항에 대한 지식공유강화)라는 세부 목표와 연관이 있고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는 도시라는 순천시의 정책 목표와 연관성 있음
- 순천시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연계한 남북생태교류로 단순 교류를 넘어 차별성이 있고 지속가능함
-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순천시에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활동을 지원하여 평안남도 순천시민과 도시 교류를 준비가 필요함
- 현재 순천시에서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는 도시를 위한 대체 지표는 지원 예산과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 참여 수 정도임

3) 남북협력 지표개발을 위한 순천시민 의식조사를 2018년 12월 순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3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민과 관의 협치를 원칙으로 하고 남북교류를 위한 민관 협의체에 단체와 개인의 참여가 확대되는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는 도시의 단기적 지표로 활용 가능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운동 참여자수

정책지표 \ 연도	2018	2019	2020	2025	2030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운동, 참여자수(개/명)	4/500	5/700	10/2,000	10/2,000	10/2,000

* 강연, 토론회, 기념행사, 워크숍, 축제 등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 체계적 관리

측정방법 :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체계적 관리

-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 참여자 수 2020-2030년 목표

②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

정책지표 \ 연도	2018	2019	2020	2025	2030
남북교류협력예산(백만원)	70	300	500	500	500

측정방법 :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예산 편성액 추이

- 남북교류 협력 사업 예산 및 2020-2030년 목표

제5절. 경제·산업 분야

10. 에너지 자립 도시 구축

11.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체감 행복도시 구현

10.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지표		UN SDGs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10.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10.1.1. 도시가스 보급률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10.2.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 확대	10.2.1.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10.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1) 환경분석

- 도시가스는 1980년대 후반 도입된 이후 보급이 급속히 확대됨.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1990년 대 중반 40%이었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0년에 55.6%로 상승하였고 2005년에는 65.6%를 기록.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0년대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수요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급이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하였기 때문임
- 순천시 도시가스보급률은 '19년 81.8%로 전라남도 시군 중 높은 수준에 해당되고 있으나, 농촌지역 및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분석과 보편적 에너지 보급확대 정책 필요함

<표 10-1> 순천시 도시가스 보급률(%) : 도시가스 수요가구수/공급권역 총가구수

연도	전남	순천	여수	목포	광양
2019	51.2	81.8	72.0	92.4	79.9
2018	49.2	81.1	69.0	90.4	79.3
2017	51.4	79.0	73.6	84.3	79.7

* 출처 : 전라남도, 전라남도기본통계

- 전남은 도시가스보급률이 51.2%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해당함. 도시지역을 제외한 군단위 지역은 보급률이 3~30%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 상당수는 가격이 비싼 LPG(도시가스 1.7배)나 등유(도시가스 1.09배) 등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음. 순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면적이 넓고 도시와 농촌이 구분된 도시임. 도시가스는 청정하고 저렴한 연료이기는 하나 가구가 넓게 분산되어 있는 농촌지역에 설치하기에는 경제성 부분에서 맞지 않음. 따라서 정부에서도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 등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정부나 지자체 소관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고, 원도심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 순천시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면단위 등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을 추진하여 보편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지표에 대한 설명

-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보장을 위해서 에너지소외계층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주택지역과 농촌지역의 도시 가스 보급률 확대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순천시는 2015년을 ‘에너지 자립 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친환경 청정연료인 LNG 공급을 확대해 에너지효율화와 에너지 복지실현을 추구하고 있음. 2016년 주택도시가스 보급률은 40.9%였으며, 당초 2020년까지 원도심 주택도시가스 보급률 70%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가스공급관 공사비 부담 및 공사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실적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정책지표 \ 연도	2017	2018	2020	2025	2030
도시가스 보급률(%)	79	80	82	85	90

*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통계청)

측정방법 : 도시가스 수요가구수/공급권역 전체 가구수 × 100

10.2.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 확대

1) 환경분석

-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대기환경 개선 및 지구 온난화 요인 해소를 위해 2030년 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확충을 제시하고 있음. 추가적으로 RPS(신재생에너지발전의무비율) 목표를 기존 2023년 10%에서 2030년 28%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음. 순천시는 2020년 10%, 2025년 20%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2019년 말 5.8%의 에너지 자립율을 달성하여 당초 목표치에는 못미치고 있으나, 연간 2억1천8백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음

<표 10-2> 순천시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전체 전력판매량

신재생에너지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자립률	2.74	2.85	3.24	3.39	3.12
순천시 자립률	5.02	5.22	5.3	5.45	5.8

*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순천시, 2021 성과계획서

- 전라남도의 일조량이 전국평균에 비해 10%가 높아 자연환경과 지역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공공청사 스마트에너지시티 인프라 구축, 대규모 발전사업장 조성 유치, 신재생에너지 생산 메카 조성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체험관 건립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절감과 에너지 사용량·발전량 통계 값 공유로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에너지 복지도시 실현에 기여할 예정임

2) 지표에 대한 설명

-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은 UN SDG세부 목표인 7.2 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와 7.3 에너지 효율성 개선목표를 동시에 측정하는 지표임. 측정지표의 분자에 포함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7.2 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 노력을 반영하고, 분모의 연간 전체전력소비량은 7.3 에너지 효율성 개선목표를 측정함.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비중을 높이면서도 에너지효율성을 개선해야만 측정지표의 값이 증가하게 됨.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됨

$$\text{에너지자립률(\%)} = \frac{\text{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h)}}{\text{전체 전력판매량(MWh)}} \times 100$$

- 여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결합된 용어이며,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이 많을수록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지구온난 화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음
 - － 신에너지 :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3개
 - － 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 8개
- 전력소비량 감소는 에너지 사용억제를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지만 패시브하 우스 보급 확대 등의 정책추진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음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정책지표 \ 연도	2019	2020	2021	2025	2030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	5.8	6.4	10	13	25

측정방법 : 연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전체 전력판매량 × 100

○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 － 신재생에너지보급 단독주택 지원,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지원, 공공청사 스마트 에너지 시티 구축, 대규모 풍력단지 유치, 지방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에너지 효율성 개선

-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패시브하우스 지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11.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체감 행복도시 구현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지표		UN SDGs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11.1. 신산업, 순천다움을 위한 산업육성	11.1.1. 벤처기업인증 기업수	9. 산업, 혁신과 인프라
	11.1.2. 순천시 지역총생산액 증가율	
11.2. 사회적경제 조직, 전통 시장 육성을 통한 포용적 경제성장	11.2.1.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
	11.2.2. 사회적경제 조직 공공구매율	
	11.2.3. 온누리·순천사랑 상품권 회수액	
11.3. 순천형 좋은 일자리 창출	11.3.1. 고용률	
	11.3.2. 청년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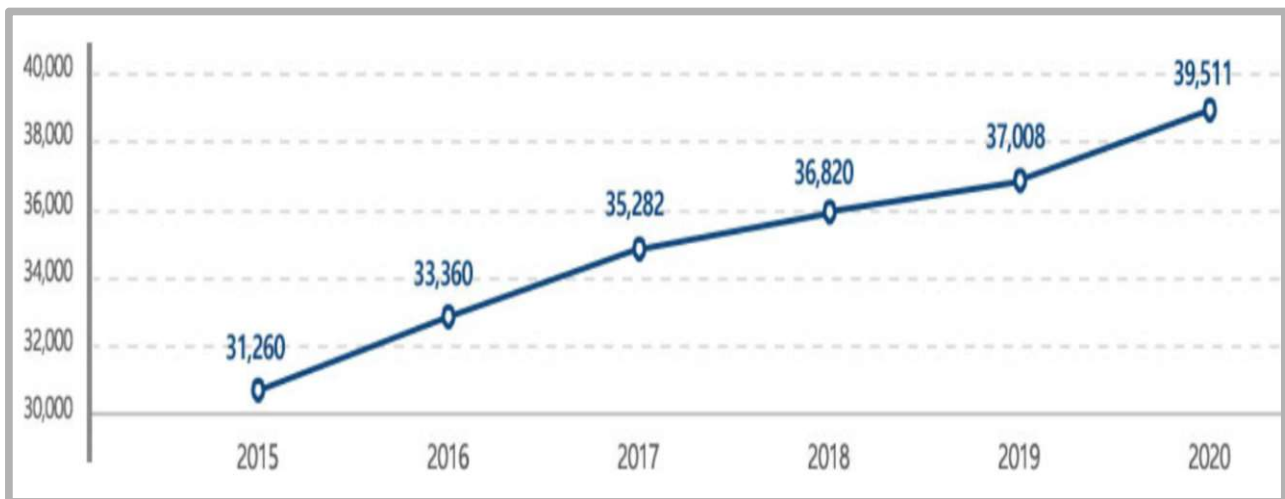
11.1. 신산업, 순천다움을 위한 산업육성

1) 환경분석

-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성장에만 집중하고 사회문제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괴리된 성장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또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주력산업의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기술혁신 기반의 생산성 제고와 성장 동력의 확충에 한계를 맞고 있음. 새로운 형태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의 공급에 집중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면서 포용적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남동부권은 포스코나 여천산업단지 내 대기업의 생산활동의 의존도가 높아서 대기업들의 경영성과가 좋은 시기에는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러한 대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도 위축되는 현상을 목격하였고, 그에 따라 지역내 산업다변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순천시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 신산업(반려, 웹툰)의 육성 및 중·소상공인의 상권경쟁력 제고, 지역혁신을 주도할 청년층의 인재양성과 일자리 마련 등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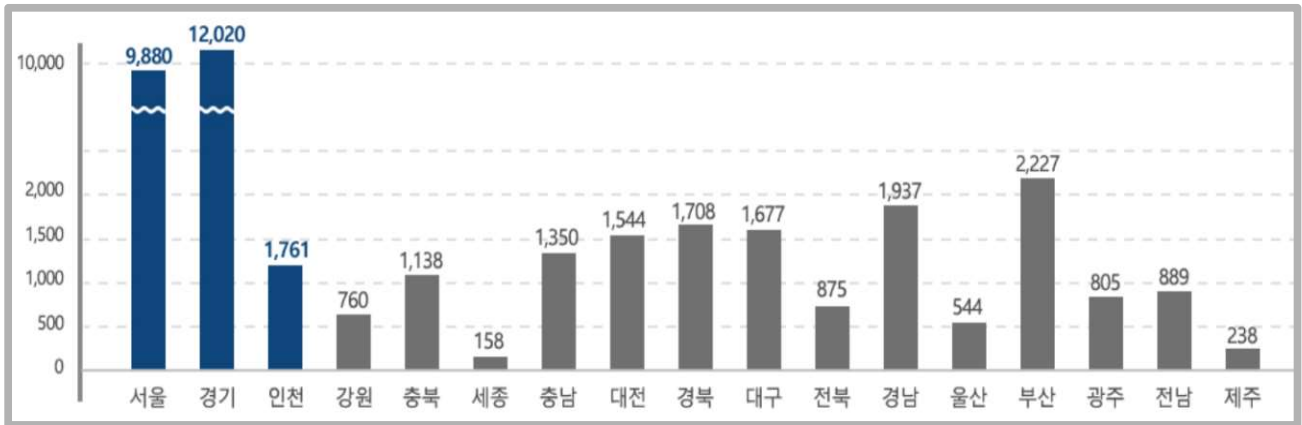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한 바 있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2월에 벤처인증 유형과 절차, 방식 등에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그동안 기술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진행하던 벤처 확인 업무를 민간에서 담당하면서 인증과정이 까다로워졌다. 대신 벤처기업인증을 받게 되면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으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감면, 사업용부동산의 재산세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나 기술보증재단 보증 한도가 확대되는 등 금융지원도 이루어져 벤처기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고 있음. 순천시는 벤처기업의 인증지원을 통해 지역의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우리나라 전체 벤처기업인증 수는 2015년 31,260개에서 2020년 39,511개로 5년 동안에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표 11-1> 우리나라 벤처기업인증 기업수(개)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업체수	31,260	33,360	35,282	36,820	37,008	39,511

- 그러나 전남지역은 889개로 수도권 지역이나, 영남지역에 비해 벤처기업인증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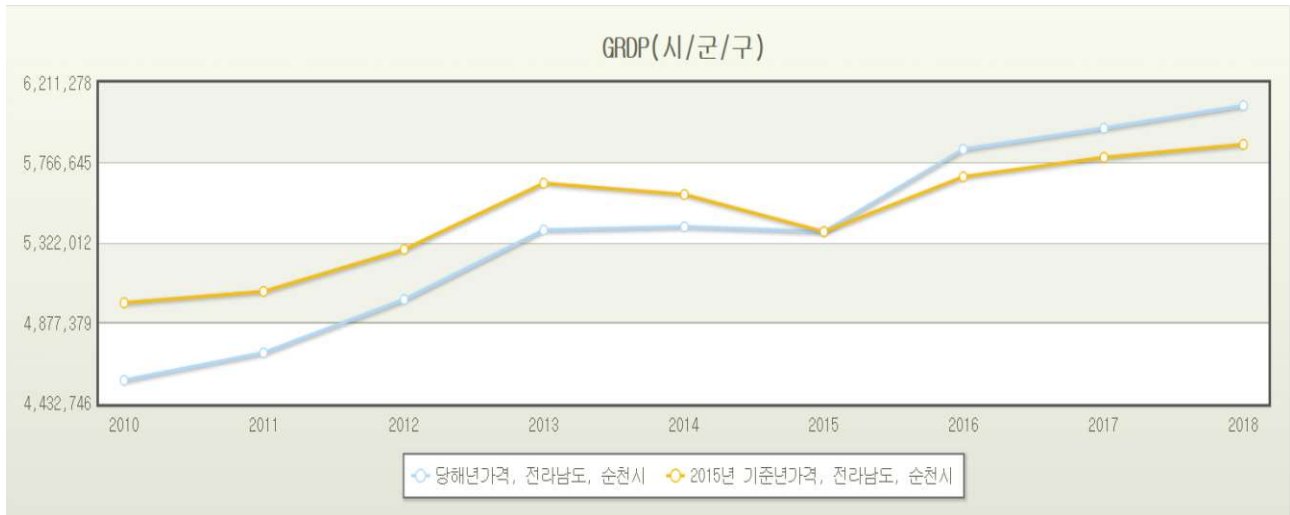
[그림 11-1] 지역별 벤처기업인증 기업 수(2020,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전라남도의 지역총생산액은 2019년 기준으로 77조원(전국 1,927조원의 4.0%)이며, 순천시의 지역내총생산액은 6.1조원(전남의 7.9%)이며, 2010년 이후 2013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하다가 2013년을 정점으로 매년 총생산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16년 이후에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표 11-2> 순천시 지역내총생산액(십억원)

연도	전남	순천	여수	목포	광양
2019	76,948	6,125	25,870	4,530	10,06
2018	75,424	6,084	26,408	4,222	9,688
2017	73,732	5,963	26,114	4,100	9,440
2016	71,615	5,841	24,923	3,909	9,112
2015	68,878	5,391	23,847	3,797	9,431

* 출처 : 전라남도, 전라남도 지역내총생산



[그림 11-2] 순천시 지역내총생산액 변동(2015년 기준)

2) 지표에 대한 설명

- 지표로 설정한 순천시 벤처기업인증 기업 수는 UN SDG세부 목표인 8.1 성장률 유지 목표를 측정함. 순천시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 신산업(반려, 웹툰)의 육성 및 중·소상공인의 상권경쟁력 제고, 지역혁신을 주도할 청년층의 인재양성과 일자리 마련, 지역내 산업다변화 요구 등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인증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 있음. 2021년 현재 순천시의 벤처기업인증 기업 수는 110개로 전라남도 타 시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나 전국적인 단위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에 해당함

<표 11-3> 순천시 벤처기업인증 수

연도	전남	순천	여수	목포	광양
2021	827	110	64	48	65

* 출처 :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지표로 설정한 순천시 지역내총생산액 증가율은 UN SDG세부 목표인 8.1 성장을 유지 목표를 측정함. 지역내총생산액은 순천시의 모든 경제활동을 집계한 결과이며, 시민들의 삶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음. 지역내총생산액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지역내 대기업의 생산활동 위축이 있는 시기에도 중소기업인 및 관광분야, 농업분야 등에서 생산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함을 보여줄 수 있음. 특히 지역내총생산액에서 1차 금속분야의 생산액을 제외하면, 시민들의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측정할 수 있음. 지역내총생산액 증가율 목표를 2%로 설정한 근거는 2016년~2019년 기간 동안의 평균성장을 2.1%로 설정하였으며,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을 목표치 2.6%에는 못 미치는 수치임

<표 11-4> 순천시 지역총생산액 증가율(%) : 연도별 GDRP증가액(2015기준)/2015년 GRDP

연도	2015	2016	2017	2018
실적	-	5.5	1.7	1.4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순천시 벤처기업인증 기업수

정책지표 \ 연도	2019	2020	2021	2025	2030
순천시 벤처기업인증 기업수(개)	-	100	110	130	150

측정방법 : 연도별 벤처기업명단에 포함된 순천시 소재 기업 수

② 순천시 지역총생산액 증가율

정책지표 \ 연도	2019	2020	2021	2025	2030
순천시 지역총생산액 증가율(%)	-0.2	2	2	2	2

측정방법 : 연도별 순천시 지역총생산(GRDP) 증가액(2010기준)
/ 2010년 GRDP × 100

11.2. 사회적경제 조직,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포용적 경제성장

1) 환경분석

-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고용불안, 고령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사회적경제 조직은 실업, 빈곤 등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임
- 순천시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2012년 5개에서 2019년 10월 현재 181개까지 증가하여 전라남도 여타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표 11-5> 순천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수(2019.10월 기준)

유형	전남	순천	여수	목포	광양	나주
인증사회적기업	98	18	18	12	6	8
예비사회적기업	61	20	7	3	2	5
협동조합	580	104	57	61	38	30
마을기업	217	37	15	4	12	12
자활기업	92	2	8	6	6	5
합계	1,048	181	105	86	64	60

* 출처: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순천시는 행정자료에 근거하고, 순천형마을기업포함)

- 사회적경제조직은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고용취약계층 등의 취업유발효과가 높으며, 구성원 내 소득격차가 비교적 적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및 노사관계를 이룰 수 있음. 2018.12월 현재 순천시 161개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2,325명(사회적기업 176명, 마을기업 1,066명, 협동조합 1,083명)이 종사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의 고용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대효과가 있다는 판단으로 인건비 등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조직의 3년 생존율은 90.2%로 일반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 30%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편임. 그러나 영업이익을 기록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비율이 55.2%에 불과한 실정을 고려한다면, 정부보조금 지원연한 5년 이후의 생존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들은 2013년부터 공공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연간 공공구매목표 설정 및 실적을 공시, 기관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공공구매확대가 업체들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의 효과적인 정책임에도 전라남도의 2018년도 공공구매실적은 3.57%로 전국 지자체 평균 5.83%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19년도 공공구매 5% 달성목표도 전국 지자체 평균 6.44% 보다 낮음. 순천시는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을 개설('19.10)하였고, 행안부의 “전남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공모사업에 선정('10.5)되어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2020년도에 유통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전라남도는 사회적경제 유통법인인 “전남상사”의 설립을 추진하여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촉진활동을 수행할 계획임

<표 11-6> 사회적경제 조직 공공구매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

	2018년 실적			2019년 계획		
	총 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 (B/A)	총 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 (B/A)
국가전체	46,755,468	1,059,549	2.27	46,401,161	1,163,085	2.51
자치단체	6,148,119	358,398	5.83	6,135,112	395,144	6.44
전라남도	68,930	2,459	3.57	78,570	3,928	5.00

* 출처: 전라남도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공고(2019.3.6.),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보도자료(2019.4.30.)

- 순천시는 옷장, 아랫장, 중앙시장, 역전시장 등 8개의 전통시장이 있고, 대부분 원도심지역에 위치하면서 오랜 전통을 간직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프랜차이즈 확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구도심 쇠퇴 등 전통시장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음. 전통시장은 유통의 고유역할 외에도 고용 및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갖고 있음. 장기적으로 이러한 전통시장을 비롯하여 자영업, 지역금융기관을 아우르는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소규모 협동조합들의 연대를 통해 기술발전, 고용안정, 고른 소득분배, 안정적 성장이 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음

<표 11-7> 순천시 전통시장 현황

유형	5일장						상설시장	
시장명	옷장	아랫장	승주	주암	별량	괴목	역전장	중앙시장
점포수	162	206	31	13	18	63	74	30

*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2) 지표에 대한 설명

- 지표로 설정한 순천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수 및 공공구매비율, 온누리·순천사랑상품권 회수액은 UN SDG세부 목표인 8.2 경제발전 지향정책 증진 8.9 지속가능한 관광 진흥 등의 목표를 측정함. 경제발전 지향정책은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포함하여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지향 정책을 말함
-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 정책과 전통시장·소규모 자영업을 활성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정책이 수립되어 있지만 그 정책을 활용하고 촉진시키는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몫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정책의 활용성과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수와 공공구매비율, 개별기업의 평균존속기간, 매출액 규모 등으로 측정될 수 있음. 전통시장 및 자영업자의 지원정책은 시설개선 등 지자체의 역할이 크고, 활성화 정도는 시민들의 이용수준에 의해 측정될 수 있음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

정책지표 \ 연도	2019	2020	2025	2030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개)	181	235	250	300

측정방법 : 사회적경제조직의 수(측정일 기준)

○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기업(예비, 인증),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② 사회적경제 조직 공공구매율(%)

정책지표 \ 연도	2019	2020	2025	2030
사회적경제 조직 공공구매율*(%)	5	5	5.5	6

* 사회적경제조직 공공구매율 : 2019년 전라남도 목표 5%(2018년 실적 3.57%)

측정방법 : 공공구매액 / 총구매액

○ 공공구매액 :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판매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구매액

○ 총구매액 : 구매가능 예산과목 중 물품, 용역, 공사 구매액

- 구매가능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③ 온누리·순천사랑상품권 회수액

정책지표 \ 년도	2019	2020	2025	2030
온누리·순천사랑상품권 회수액(백만원)*	11,491	15,000	18,000	20,000

* 온누리상품권 : 2018년 전라남도 회수액 10,666백만원(판매액 7,070백만원)

순천사랑상품권 : 2018년 회수액 825백만원(판매액 1,016백만원)

측정방법 : 연간 온누리·순천사랑 상품권 회수금액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 전통시장
- 순천사랑 상품권 사용처 : 순천시 관내의 모든 업소 해당, 편의점, 치킨, 제과, 커피 등 프랜차이즈형 자영업(체인점)과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전통시장 노점상 가능

11.3. 순천형 좋은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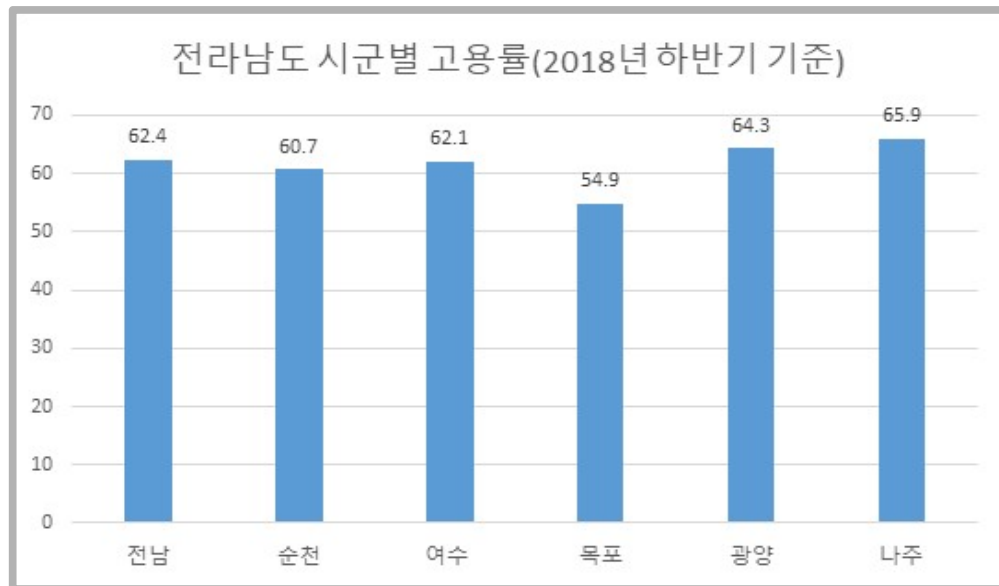
1) 환경분석

- 순천시의 2018년도 하반기 고용율은 60.7%를 보이고 있음. 이는 2017년도와 유사한 수치이며, 우리나라 전체(60.7), 전남(62.4), 광주(59.4), 나주(65.9), 광양(64.3), 여수(62.1) 보다는 낮고 목포(54.9) 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취업자는 여수시(13만 7천명), 순천시(13만 2천명), 목포시(10만 9천명)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음. 한편, 실업률은 광양시(3.2%), 순천시(2.8%), 나주시(2.1%)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실업자는 순천시(4천명), 여수시(3천명) 등에서 많게 나타났음. 순천시 청년 고용률('15)은 30.6%로 여수시의 37.7%에 비해서는 낮고 목포시, 광양시, 나주시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한편 2018년 하반기 전국 청년고용률은 42.9%이며, 전라남도 도시들의 청년고용률('15)은 이에 못 미치고 있음

<표 11-8> 2018 하반기 전라남도 도시별 고용률 및 실업률(%)

	전남	순천	여수	목포	광양	나주
고용률	62.4	60.7	62.1	54.9	64.3	65.9
청년고용률('15)	—	30.6	37.7	30.6	27.7	28.5
실업률	2.8	2.8	2.0	1.9	3.2	2.1

* 출처 : 국가통계포털, 지역별 고용조사, 호남지방통계청 전라남도 시군별 취업자현황(2015)



2) 지표에 대한 설명

- 고용률은 UN SDG세부 목표인 8.5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8.6 청년실업의 감소 등의 목표를 측정함.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중 취업자수의 비중으로 한 국가의 노동력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고용지표이며, 실망실업자에 따른 실업률 통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표임. 즉, 경기악화 등에 따라 취업자가 감소하고 실망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경우 실업률의 변화가 거의 없을 경우에도 고용률은 취업자의 감소를 반영하여 하락하게 됨. 고용률은 취업자수를 15세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며, 15-64세 이상 고용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고용률임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고용률

정책지표 \ 연도	2018	2019	2020	2025	2030
고용률(%)	60.7	62.0	65.0	67.0	70.0

측정방법 : 취업자수 / 15세 이상인구 × 100

② 청년고용률

정책지표 \ 연도	2018	2019	2020	2025	2030
청년고용률(%)	35.0*	37.0	40.0	42.0	45.0

* '15년 고용률을 기준으로 추정된 수치임

측정방법 : 청년취업자수 / 청년인구 × 100

○ 청년인구 : 15세에서 29세 인구

제6절. 문화·관광 분야

12. 머물고 싶은 생태·문화·관광도시

12. 머물고 싶은 생태·문화·관광도시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지표		UN SDGs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12.1. 10년 뒤에도 아름다운 생태 관광 도시	12.1.1. 관광만족도	11. 지속 가능한 도시
12.2. 순천의 역사와 문화, 예술이 축적 되고 향유되는 인프라 구축	12.2.1. 역사, 문화, 예술 분야 기관(또는 공간) 수(인구 천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12.2.2. 기준연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비율	
12.3. 생태 예술, 문화 산업의 아이디어들이 실험되고 개발 구현되는 도시	12.3.1. 자체 기획 문화예술(공연, 전시 등) 건수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12.3.2. 인근 지자체와 화합해서 하는 공연문화예술 건수	

1) 환경분석

- 최근 전세계 관광시장은 전반적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10~2016년 기간 중 전세계 해외 여행객 수가 연평균 4.8% 증가하였고, 전세계 관광수입도 2010~2015년 중 연평균 5.7% 상승
- 2015년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내국인 관광객이 증가로 전환하고 관광산업 매출액 및 고용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광주전남지역의 관광객 방문분포를 시군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50%가 여수시, 순천시에 집중되어 있고, 여수가 31.2%, 순천이 18.5%로 전남 동부권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전남지역은 힐링, 휴식면에서 가장 추천하는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식도락 맛집과 축제가 전국에서 2위, 전남은 자연자원이 풍부하지만 문화 및 인프라 면에서 미진함(광주전남연구원, 2017년)

- 순천시는 낙안읍성, 순천도호부읍성, 순천향교, 팔마비, 기독교 역사박물관, 옥천서원, 선암사, 송광사 등의 다양한 역사적 가치의 토대위에 순천만 습지, 순천만 국가정원, 조례호수공원 등의 생태적 가치를 더해 가며 최근에는 문화의 거리, 청춘창고, 옥리단길, 드라마촬영장 등의 새로운 트렌드도 가미된 역사와 생태, 문화, 관광자원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음
- 순천시 방문관광객은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순천시의 대외적 인지도 상승으로 안정적인 관광객 증가추세, 순천시 관광객 수는 2012년 4,767천명에서 2016년 7,918천명으로 증가.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의 관광객은 증가한 반면 지역 내 타 관광지의 관광객은 감소 또는 정체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공간적 불균형 현상이 대두됨
-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방문목적은 ‘유명 관광지 관광(35.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힐링 및 휴식(25.8%)’이 그 다음 순이었음. 연령대별로 보면 20세 미만에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24.8%)’가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유명 관광지 관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순천시, 2017년)
-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과 문화나눔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식과 창의성이 기반되는 문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소득 수준의 향상과 주5일제 근무제 정착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국민의 문화욕구가 지속적으로 상승함
- 순천시민은 높은 여가문화 욕구에 비해 낮은 여가문화 만족도를 보이며 향후 늘려야할 공공시설로 문화생활공간으로 나타남(순천시, 2018년). 순천시민이 직접 향유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의 부족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순천시에 존재하는 공연예술분야 동아리들을 지원하는 방안과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들의 문화예술공간으로 확대 요구
- 지역과 직종, 연령, 소득별로 문화생활 격차가 나타남. 순천시의 문화 취약집단이 존재하며, 지역내 문화격차 해소 필요(순천시, 2018년)
- 2030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순천시, 2018년)

2) 지표에 대한 설명

① 10년 뒤에도 아름다운 생태 관광 도시

- 일반적으로 만족이란 고객이 지각하는 일정한 수준 이상 또는 기대-충족과 관계가 있고 고객의 충족 반응내지 성취반응으로 나타남. 고객의 만족 정도는 관광지에서의 다양한 활동에서 얻는 경험과 시설, 서비스, 그 지역에서의 소비행위와 관련된 제반 여건에 의해 작용받게 됨. 어떤 행태든 관광객의 전반적인 관광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면 재방문 의사 및 타인에 대한 추천의지도 높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관광목적지의 입장에서는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함
-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와 마케팅 조사 및 컨설팅업체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한 '국내 여름휴가 여행지 종합만족도' 평가에서 순천시가 1위를 차지(2018년 11월 21일자 연합뉴스 언론보도). 종합만족도는 여름 휴가를 보낸 지역에 '여행지로서 얼마나 만족했는지'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를 합산한 것으로 순천시는 758점을 받아 1위에 올랐음
- 순천관광객이나 내일러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국민여행실태조사(2015)의 전국 평균 관광만족도 및 전라남도 관광만족도에 비해 높은 편이나 제주도 보다는 낮고 2위지역인 강원도(4.12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아래 표; 순천시, 2017년)

<표 12-1> 관광 전반적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전국평균	전라남도	순천시	
			관광객	내일러
전반적 만족도	4.05	4.10	4.19	4.17

구분	만족도	구분	만족도
전체	4.05	경기	3.99
서울	3.97	강원	4.12
부산	4.03	충북	4.04
대구	3.89	충남	3.93
인천	4.00	전북	4.11
광주	4.04	전남	4.10
대전	3.87	경북	4.04
울산	3.97	경남	4.03
세종	3.90	제주	4.37

* 자료출처 : 순천시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순천시, 2017년)

- 순천 관광객의 재방문 의사 및 추천의향의 경우 : 재방문 의사에 대한 점수는 개별여행 4.02점, 단체여행 4.12점, 당일여행 4.10점, 숙박여행 4.04점으로 전체 재방문 점수는 4.07점. 추천 의향에 대한 점수는 개별여행 4.16점, 단체여행 4.17점, 당일여행 4.19점, 숙박여행 4.15점으로 전체 추천의향 점수는 4.17점임

<표 12-2> 순천 관광객의 재방문 의사와 추천의향

(단위 : %, 점)

구분		재방문 의사					만족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관광유형	개별여행	1.2	2.3	18.5	45.2	32.7	4.02
	단체여행	1.1	1.7	15.8	43.9	37.6	4.12
체류기간	당일여행	0.9	2.2	16.8	43.0	37.1	4.10
	숙박여행	1.3	1.9	17.7	46.1	33.0	4.04
합계		1.1	2.1	17.3	44.6	34.9	4.07

구분		추천의향					만족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관광유형	개별여행	0.9	1.2	14.0	45.8	38.3	4.16
	단체여행	0.6	1.3	13.1	45.5	39.3	4.17
체류기간	당일여행	0.7	0.7	11.9	47.4	39.1	4.19
	숙박여행	0.8	1.6	14.7	44.6	38.5	4.15
합계		0.7	1.2	13.6	45.7	38.8	4.17

- 내일로의 재방문 의사 및 추천의향의 경우 : 재방문 의사에 대한 점수는 당일여행 4.17점, 숙박여행 4.00점으로 당일여행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재방문의사는 4.02점으로 나타났고, 추천 의향에 대한 점수는 당일여행 4.22점, 숙박여행 4.11점으로 당일여행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추천의향 점수는 4.13점임

<표 12-3> 내일리의 방문 의사 및 추천의향

(단위 : %, 점)

구분	재방문 의사					만족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당일여행		2.4	19.5	36.6	41.5	4.17
숙박여행	0.6	2.3	20.9	49.4	26.7	4.00
합계	0.5	2.6	21.1	45.9	29.9	4.02

구분	추천의향					만족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당일여행		2.5	10.0	50.0	37.5	4.22
숙박여행	0.6	0.6	15.0	52.6	31.2	4.11
합계	0.5	1.0	14.4	52.6	31.4	4.13

② 순천의 역사와 문화, 예술이 축적되고 향유되는 인프라 구축

②-1. 역사, 문화, 예술 분야 기관(또는 공간) 수

- 문화예술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순천의 역사와 문화, 예술이 축적되고 향유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 순천지역의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하여 순천 문화예술정책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전달하여야 함
- 순천의 문화예술활동기반 시설은 도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공연 지원시스템이 없어 상설공연과 거리공연 하기가 어려움, 신도심지역과 신대지구 에 도시의 특성에 맞는 복합문화공간 부재, 시립 또는 도립, 국립 미술관이 한곳도 없어 전국적인 미술대전을 유치할 수 없음, 원도심내 위치한 청소년수련관, 한옥글방 등 순천시 소유의 공간을 문화예술인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모해 다용도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함과 업무 협력 필요함, 문화예술회관이나 건강문화센터, 문화의 거리 인근에 예술인협회나 동아리들의 자발적인 시민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예술인들의 공연 및 창작을 위한 다용도 공간 부족

- 지역문화 융성의 핵심동력은 지역문화예술인과 문화활동가들임. 지속가능한 창작활동과 문화예술활동을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응원하는 환경이 필요함. 지역 문화예술인의 현황이나 소득, 복지, 생계, 경제활동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조사가 없었음. 지역문화예술인의 DB구축 필요함
- 순천시 문화기반시설 현황
 - 현재의 상황이 반영된 자료가 없어 가까운 연도의 자료를 인용함
 - 다양한 문화적 자원의 조성여부와 활성화 정도를 살펴보고, 이를 관리 및 보전하기 위한 노력 등을 파악하여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한 잠재적 역량을 측정. 기반시설은 문화기반시설과 생활문화시설로 구분하여 파악(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 2018년도 기준 순천시 소재 문화기반시설은 문화예술회관 1, 박물관 7(국공립4, 사립1, 대학1), 도서관 7, 미술관 1, 문화원 1 등이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 2019년 개관한 풍덕글마루도서관이 추가되어 공공도서관 8개소가 되어 순천시 소재 문화기반시설은 총 18개소임

<표 12-4> 순천시 문화기반시설 현황

구분	설립주체	시설명	비고
문화예술회관(1)	지자체	순천 문화예술회관	
박물관(7)	공립	순천시립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등록
	공립	순천시 기독교 역사 박물관	등록
	공립	낙안읍성자료관	미등록
	공립	순천만 자연생태관	미등록
	사립	송광사 성보 박물관	등록
	사립	선암사 성보 박물관	등록
	대학	순천대학교 박물관	1종
도서관(8)	지자체	순천 기적의 도서관	

구분	설립주체	시설명	비고
	지자체	순천시립 그림책도서관	
	지자체	순천시립 도서관 영향관	
	지자체	순천시립 삼산 도서관	
	지자체	순천시립 조례호수도서관	
	지자체	해룡 농어촌 도서관	
	지자체	순천시립 신대 도서관	
	지자체	풍덕 글마루 도서관	2019년
미술관(1)	사립	모건 미술관	등록
지방문화원(1)		순천 문화원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2018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2017년 기준 조사 결과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8.2개의 문화기반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 단위는 평균 11.6개, 군 단위 평균 5.7개, 구 단위 평균 67.3개의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문화기반시설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로서 30개의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어 경상남도 창원시(28개), 충북 청주시(27개)인 것으로 확인됨. 관 내 20개 이상의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는 총 8개임
- 순천시는 총 18개소의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시단위 평균 11.6개보다는 높았음. 그렇지만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중 관내 20개 이상의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는 총 20개였음. 순천시의 문화기반시설은 미술관(전시공간)과 박물관에서 낮은 보유수를 보였음
-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대비 문화기반시설 수의 조사는 각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수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음. 전국적으로 인구 천명당 평균 0.07개의 문화기반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text{문화기반시설수} \times (1,000\text{명}/\text{기초자치단체인구수})$

- 순천시는 0.06개로 전국평균보다는 낮고, 시단위 평균보다는 높았음. 시군구 단위로 살펴보면, 시 단위에서는 평균 0.05개, 군 단위는 0.13개, 구 단위는 0.03개임

▶ 공연장 현황

- 순천시에는 500석 이상을 보유한 순천청소년수련관과 700석 이상을 보유한 조례호수공원 공연장, 2천 석 이상을 보유한 순천만국가정원내 갯벌공연장과 4천석 이상을 보유한 잔디마당 공연장과 습지센터 야외공연장 등이 있음. 이 밖에도 공연 가능한 공간으로는 원도심 공연장, 한옥글방 공연장, 초록광장 공연장 등 2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순천청소년수련관 야외공연장, 한옥글방 공연장, 초록광장 공연장, 대학로 고고장, 대학로 버스킹, 용당엽동호수공원, 용당엽동공원소무대, 풍덕한신아파트앞 공연장, 죽도봉 소공연장, 와온해변공원 공연장, 상사댐 공연장, 조례호수공원 공연장, 조례호수공원 광장, 버드네공원 공연장, 순천만국가정원 갯벌공연장, 순천만국가정원 잔디마당 공연장, 습지센터 야외공연장, 아랫장 야시장 등
- 실내 공연장은 순천문화예술회관(대극장 914석, 소극장 152석)과 순천건강문화센터 다목적홀(426석), 연향도서관 공연장(190석), 조례동 호아트홀(160석) 등이 있음

▶ 기타 문화기반시설

- 도심권을 중심으로 재래시장 2곳, 매일시장 2곳, 새벽시장 1곳, 임시 벵룩시장, 테마형태의 시설(거리, 구역)은 순천 문화의 거리, 남도삼백리길의 도심권 구간, 드라마세트장, 순천시 팔마경기장, 순천문학관, 왜교성, 검단산성 등

▶ 문화예술단체현황

- 예술문화단체 분류는 ‘예술문화진흥법 제2조’의 “예술문화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으로 분류한 것에 따라 분류하였으나, 이 11개 항목 중 영화와 연예는 영화, 연예로 분류하고 생태, 공예, 전통문화를 새로이 지표에 포함하였으며 건축, 어문, 출판은 현황조사에서 제외하였음. 이는 지역 예술문화단체들의 설립 취지와 해당 단체들의 프로그램 컨셉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순천시에는 총 200여 예술문화단체(재단, 사단, 임의단체, 동호회 등)에 약 5,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단체 분류별로는 문학(20%), 음악(20%), 국악(14%), 미술(13%), 영화연예(12%), 공예(6%), 전통문화(5%), 무용·연극·생태(3%), 사진(2%) 분야 등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아고라 순천 참여 현황

-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3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때부터 지금까지 순천의 문화수준을 타도시보다 높이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음

<표 12-5> 아고라 순천 연도별 참여 현황

년 도	아고라순천 참가 단체나 모임, 개인		예 산 (단위: 억원)	비 고
	팀 수	인 원		
2019년	187	652	6.6	전문공연팀(100)과 생활공연팀(87)으로 구분
2018년	287	1,324	7.6	
2017년	251	1,286	4.3	
2016년	—	—	3.2	

▶ 문화콘텐츠 공방

- 순천시 원도심 문화의 거리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방 43개소와 문화예술기획이나 문예창작, 사진, 책방, 전시, 문화공유, 도서관, 전통문화 등 문화예술분야의 기획자나 예술가가 입주한 다양한 문화공간이 17개소가 있음
- 문화의 거리 지정 후 10여년이 지난 2019년 현재까지 문화예술 활동과 입주 운영자, 행사, 공연, 관련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10여년의 변화나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표 12-6> 순천시 원도심 지역 공예공방과 문화공간 현황

구분	명칭 또는 상호	개소
공예공방	아기자기, 순천천아트, 나래공방, 옛살비, 수공예디자인연구소, 지영공방, 바늘쟁이(사회적기업), 세자매, 찰리흙공작소, 풀꽃향기, 다담, 포센트, 김혜순한복, 공예사랑, 하유글씨, 두드림, 소꿉놀이, 꿈꾸는 사람들, 빛날연, 암튼 예쁘다, 예화, 빈티지 엔틱(가), 디자인 리셋(가), 쉬어가다, 이야기유, 옥봉이네, 가유공방, 뮤제이움, 엄마사랑, 심여옥공예, 만디자인, SNO퍼퓸, 온어데이, 소프트 토이, 열매공방, 큐브207, 메이듀, 아름다운수공예, 올리브그린, 마루, 짜투리 공간, 오색공방, 공예 창작소	43
문화공간	돈키호테, 나의오늘, 인문학연구소, 장안창작마당, 골목책방서성이다, 풍선껌, 작업실의 오후, 사월미 칠월의술, 영동1번지, 청년센터, 조강훈 아트스튜디오, 한옥글방, 서문안내소, 금꽃갤러리, 향기 나는 도서관, 사화빈, 선비문화 체험 학습관	17

* 출처 : 순천시 문화도시 사업추진단 내부 조사자료 제공(2019년)

○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현황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는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생활문화시설’로 규정함. 민간 부문은 제외하며, 공공 투자 및 지원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시설만을 대상으로 함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는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문화의집, 생활영상시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을 포함함. 「지역문화진흥시행령」 제2조의1호, 4호(생활문화시설의 범위) 및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에 의거함
 - 따라서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문화의집, 생활영상시설, 작은도서관 수의 합계를 생활문화시설 수로 활용함
 - 순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은 총 65개소이며, 작은도서관이 53개소로 전체 생활문화시설 중 약 81.5%를 차지함
- 2017년도 기준으로 생활문화시설은 조사대상 자치단체 전체(229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30.5개 보유. 시 단위가 평균 44.3개, 군 단위 10.4개, 구 단위 38.7개로, 시와 구 등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시설이 공급되고 있음. 작은도서관이 전체 생활문화시설 중 약 93.0%를 차지
- 각 기초자치단체별 인구 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 현황 분석 : 기초자치단체의 인구대비 생활문화시설 수 분석은 각 지역의 시설 이용자인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시설 수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음
- 인구 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 생활문화시설수 × (10,000명/기초자치단체인구수)
- 분석 결과, 인구 만 명당 평균 1.6개의 생활문화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시·군·구 단위로 살펴보면, 시 단위 평균 1.5개, 군 단위 평균 2.0개, 구 단위 평균 1.3개임
- 순천시는 총 65개소의 생활문화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구 만명당 2.32개임. 전국 시군구 단위 평균보다 높았음

<표 12-7> 순천시 지역 생활문화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개 소
생활문화센터	선비문화체험관, 한옥글방, 순천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순천창작예술촌(장안창작마당), 청춘웃장, 청춘창고,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순천글로벌웹툰센터	8
평생학습관	순천시 평생학습관, 여성문화회관,	2
문화의집	순천시청소년문화의집	1
생활영상시설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	1
작은 도서관	가곡옹달샘도서관, 골드작은도서관, 그루터기도서관, 남제자치도서관, 대광작은도서관, 대대순천만도서관, 대주2차푸른솔도서관, 대주생각나무도서관, 대주피오레도서관, 동신별빛도서관, 두산위브행복도서관, 라송센터컬카운티도서관, 롯데캐슬나눔도서관, 리채작은도서관, 매곡자치도서관, 별량첨산도서관, 봉화호룡불도서관, 삼산푸르미도서관, 상사용암도서관, 생목벽산도서관서, 면꿈나래도서관, 서면자치도서관, 송촌글마루도서관, 승주꿈꾸는도서관, 신대1차글마루도서관, 신대2차신이나도서관, 신대3차생태회랑도서관, 신대5차도담도서관, 신대6차 메가드림도서관, 신성풀꽃도서관, 신원푸른숲도서관, 연동대주도서관, 왕조2자치도서관, 우성반딧불도서관, 장천작은나무도서관, 저전자치도서관, 조곡자치도서관, 조례금호도서관, 조례열린도서관, 주암광천도서관, 주암용오름도서관, 책이랑빛마루도서관, 풍덕금호도서관, 하날다래도서관, 해룡성산도서관, 해룡소안도서관, 해룡호두도서관, 향기나는작은도서관, 호반1차파랑새도서관, 호반2차꿈꾸는도서관, 황전지역작은도서관, 흑두루미도서관, 히어리꽃작은도서관	53

▶ 순천시 평생학습관 ▶ 여성문화회관

▶ 문화의 거리 : 선비문화체험관, 한옥글방

▶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 : 사)전남영상위원회 수탁기관

▶ 순천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 작은도서관 : 순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작은도서관은 총 65개소가 설립되어 있으나 운영횟수와 같은 이용실적이 있는 작은도서관 53개소였음

- ▶ 순천시청소년문화의집 ▶ 순천창작예술촌 : 장안창작마당 / 도시재생과
- ▶ 청춘웃장 ▶ 청춘창고 ▶ 전남콘텐츠코리아랩 ▶ 순천글로벌웹툰센터

②-2. 기준연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비율

○ 기준연도 총예산대비 문화관련 예산

- 기초자치단체의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의 비율이 기초자치단체 내 문화 정책의 위상을 의미한다면, 문화관련 예산 규모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문화관련 예산’은 본예산 기능별 세출총괄표의 문화 및 관광(060)의 세목인 문화예술(061), 관광(062), 체육(063), 문화재(064) 가운데 문화예술, 문화재의 합으로 함(관광, 체육 제외)

- 2017년 기준으로 순천시는 예산대비 문화 관련 예산 비율이 2.72%으로 전국과 시 평균(2.59%) 보다는 높았음. 예산대비 문화예술관련 예산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3년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었던 해로 3.45%였음

- 인구 1명당 문화관련 예산액의 전국 평균은 102.08천원으로 나타남. 시군구 별로 살펴보면, 시 평균 91.97천원, 군 평균 181.93천원, 구 평균 18.54천원으로 인구 대비 문화관련 예산액은 군 단위가 가장 높았음

- 2017년 기준으로 순천시는 96.86천원으로 시 평균 보다는 높았지만, 전국 평균 보다는 낮았음. 참고로 제주의 ‘인구 1명당 문화관련 예산액’은 48만 9,800원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음

<표 12-8> 순천시 전체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비율

(본예산 기능별 세출총괄표 기준, 단위: 천원)

구분 (년도)	총예산(A)	문화예술 (①)	문화재 (②)	문화관련 예산 (B=①+②)	문화관련 예산비율 (C=B/A×100)	예산 증감률 (전년도대비)	순천시 인구현황 (단위:명)	인구1명당 문화관련 예산규모
2019	1,159,153,701	20,970,824	7,564,604	28,535,428	2.46	0.18	282,740	100.92
2018	1,127,010,634	16,154,693	9,611,684	25,766,377	2.29	△ 0.43	281,402	91.56
2017	1,002,189,040	27,236,801	—	27,236,801	2.72	△ 0.22	281,189	96.86
2016	911,888,719	26,779,926	—	26,779,926	2.94	0.13	280,397	95.51
2015	841,602,352	23,611,916	—	23,611,916	2.81	△ 0.20	280,594	84.15
2014	788,309,988	23,706,200	—	23,706,200	3.01	△ 0.45	278,899	85.00
2013	862,995,251	29,797,131	—	29,797,131	3.45	1.29	277,345	107.44
2012	844,461,342	18,235,814	—	18,235,814	2.16	△ 0.16	275,451	66.20
2011	743,752,796	17,281,751	—	17,281,751	2.32	0.47	273,805	63.12
2010	790,798,790	14,673,536	—	14,673,536	1.86	—	274,195	53.51

③ 생태예술, 문화산업의 아이디어들이 실험되고 개발되는 도시

-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문화, 예술분야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이 필요함. 순천의 문화중심도시가 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순천 지역에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의 공통된 의견은 생태문화와 예술문화에서 순천시의 미래 가치가 있다는 인식을 보임. 또한 순천이 문화예술중심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 인프라구축, 문화전문가 조직과 인력양성, 순천시 문화정책에 대한 연속성, 문화예술인 인적네트워크와 교육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순천시 문화예술중심도시 용역보고서, 2017년)

- 원도심 문화거리는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사업과 공연, 전시, 행사 등이 연중 운영되는 순천의 문화예술 메카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음. 특히, 순천시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과)과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2008년 1월 20일 제정, 2017년 12월 29일 개정) 개정 후 시행되어온 문화의 거리 지원사업(문화예술과)이 시행중임. 원도심 중심의 문화의 거리가 성장하고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예술의 실험적 공간들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결과를 판단하지 말고, 창의적이고 실험적이며 선도적인 문화예술의 활동 진행과정을 서로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회적 공감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지역에 흠어져 있는 역사와 문화, 예술 관련 단체와 전문인, 예술가들의 유치, 시민의 자생적 문화예술활동에 몰두하고 향유할 수 있는 주변 환경조성이 필요함. 입주 문화예술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문화예술인이 영세함으로 도시재생의 과정에서 확보된 건물이나 공간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지원책이나 일반 상가 이용시 임대료와 보증금 등의 급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즉,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등의 확산노력 등이 전제되어야 함
- 영상문화 사업의 대중화와 발전의 허브(Hub) 역할을 담당하는 사)전남영상위원회는 지역의 홍보와 고용창출,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전남영상위원회는 전라남도에서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 촬영과 로케이션을 지원하며, 영화학교, 미디어교육 등 영상문화 대중화와 영상관광산업의 기반 구축이 기여하고 있음. 지난 15년간 로케이션 지원은 912편, 지원일수는 1만293일에 이르며, 촬영은 285편을 지원했음. 순천 드라마촬영장과 낙안읍성을 비롯해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고흥 소록도병원, 광양 이순신대교, 여수 돌산 향일암, 금오도 등이 영상물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화면에 노출된 도내 촬영지는 관광 상품이 돼 영화촬영 등으로 2018년도에는 지역에서 32억5,00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2003년 이후 434억5,000만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음. 또한, 전남연기캠프(2011~현재)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영화, 연기 등 예체능 분야의 재능을 발견하고 영화감독, 배우 등 미래의 영상인력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함

○ 생태예술, 문화산업의 아이디어들이 실험되고 개발되는 도시를 위한 기반

- 문화예술과 : 향문에 즐기는 아고라팀 육성 및 공연 확대,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랩 청년 창업지원 사업
- 평생학습과 : 생활문화시설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인 양성교육 및 문화예술 함양 교육, 강좌 개설
- 순천시와 순천대학교, 청암대학교, 제일대학교의 지역문화산업 관련학과 대학원과 연계해 전문인력 양성 개발
- 지역에서 기획되고 실행되는 공연과 페스티벌,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들이 문화예술관련 기본 인프라 구축과 연계, 인재육성과 고용창출, 지역문화콘텐츠 재생산의 선순환으로 연결되어 지역에 경제적, 문화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산업 분야별 허브(Hub)의 설립이나 관련 기관유치가 필요

○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공연이나 전시, 예술경연 등 문화예술인 양성이나 지역주민 문화향유, 문화예술의 산업화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문화예술 공연, 전시 건수를 파악함으로써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음

3) 지표의 연도별 달성목표

① 10년 뒤에도 아름다운 생태 관광 도시

정책지표 \ 연도	2017	2020	2025	2030
전반적 관광만족도	4.19	3.3	4.0	4.2

측정방법 : 관광만족도

○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해 순천시에는 정기적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관광객의 만족도는 순천시의 여러 관광지를 방문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활동 경험의 결과로 경관이나 시설, 서비스, 소비 등 관련된 제반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트렌드를 고려한 다양한 관광상품과 표적시장별 맞춤 프로그램, 관광가이드 양성, 홍보 등 관광전략은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바꿔갈 수 있지만 관광목적지의 입장에서는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 하는게 중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최근인 2017년도 조사결과를 참조하여 순천시의 전반적 관광만족도를 지표로 설정함

② 순천의 역사와 문화, 예술이 축적되고 향유되는 인프라 구축

②-1. 역사, 문화, 예술 분야 기관(또는 공간) 수

정책지표 \ 년도	2017	2020	2025	2030
인구 천명당 문화기반시설 수(시설수)	0.06 (18)	0.43 (122)	0.54 (152)	0.87 (190)

* 인구수 28만명 기준

측정방법 : 인구 천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

- 지표의 의미 : 문화기반시설 수 현황 및 지역 간 문화격차 수준 파악에 용이한 지표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하여 문화시설의 확충·정비에 필요한 자원과 시책을 파악 함
- 지표의 정의 : 문화기반시설의 범위는 순수민간의 영역은 제외하며, 공적 투자 및 지원이 전제되는 시설 및 사업만을 대상으로 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하는 연간 『문화기반시설총람』을 기준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보급·전수시설을 포함함
 -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시설의 상세분류(제2조 제2항)에 준하여, 해당시설의 설립 및 운영의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만을 포함함

②-2. 기준연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비율

정책지표 \ 년도	2017	2020	2025	2030
기준연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비율(%)	2.72	2.80	3.00	3.50

측정방법 : 기준연도 총예산 대비 문화 관련 예산 규모

- 지표의 의미 : 기초자치단체의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의 비율이 기초자치단체 내 문화정책의 위상을 의미한다면, 문화관련 예산 규모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지표의 정의 : ‘문화관련 예산’은 본예산 기능별 세출총괄표의 문화 및 관광(060)의 세목인 문화예술(061), 관광(062), 체육(063), 문화재(064) 가운데 문화예술, 문화재의 합으로 함(관광, 체육 제외)

③ 생태예술, 문화산업의 아이디어들이 실험되고 개발되는 도시

③-1. 자체 기획 문화예술(공연, 전시 등) 건 수

정책지표 \ 년도	2017	2020	2025	2030
자체 기획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건 수(개)		9	30	45

측정방법 : 문화예술인 양성 프로그램 및 관련 사업개발 수

- 자체 기획 문화예술(공연, 전시 등)은 지역주민 문화향유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직접 기획·진행되는 공연의 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한 콘텐츠의 공연을 반복 공연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집계함. 민간기업의 후원 또는 재능기부 등을 통해 진행되는 무료공연의 경우도 포함하며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야 함. 지자체 내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기획 문화공연의 경우도 포함

③-2. 인근 지자체와 화합해서 하는 공연문화예술 건 수

정책지표 \ 년도	2017	2020	2025	2030
인근 지자체와 화합해서 하는 공연문화예술 건수		9	30	45

- 인근 지자체(여수, 광양 등)와 화합하여 실시하는 공연문화예술의 경우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획 진행하는 공연의 건수를 기준으로 반영

<참고문헌>

광주전남연구원. 2017년. 최근 트렌드 변화에 따른 광주전남 관광정책 방향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2018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 현황통계분석

순천시. 2017년. 순천시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순천시. 2017년. 순천시 문화예술중심도시 용역보고서

순천시. 2018년. 2030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

제7절. 농업 분야

- 13. 지역 순환형 공동체 농업
- 14. 지역민과 공생하는 공동체
- 15.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13. 지역 순환형 공동체 농업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지표		UN SDGs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13.1.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전문 후계 농업인 육성	13.1.1. 청년후계농 선발 육성	2. 기아종식 및 지속 가능한 농업 4. 양질의 교육
13.2. 유기농·무농약 기법을 활용한 안전한 농산물 공급 확대	13.2.1.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	2. 기아종식 및 지속 가능한 농업
13.3. 도농 교류 확대를 통한 도농상생 기반 구축	13.3.1. 도시농업 텃밭 분양 구좌	11. 지속가능한 도시
	13.3.2. 농촌지역 행사에 참여한 도시 지역 인원수	

13.1.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전문 후계 농업인 육성

1) 환경분석

- 2017년 순천시 사회조사 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2016년 순천시민의 노령화 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100)는 93.5%로 2015년도 88.0%에 비해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와 청년 실업 증가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음
- 통계청 농가연보에 의하면 2016년 농가 수는 12,086가구, 농업인구는 25,373명으로 2010년 대비 각각 농가 수는 1,108가구, 농업인구는 4,554명이 감소하였음
- 연령별 농가인구의 경우 2015년 현재 전체 농가인구 24,987명 중 65세 이상이 42.4%로 2010년(34.1%)에 비해 크게 고령화가 진전되었음
- 고령화에 따른 영농포기, 농민의 도시전출로 인한 인구감소,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서비스업의 부족 등으로 침체를 거듭되고 있으며 농촌불균형은 한층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농가인구의 연령분포를 고려할 경우 고령화에 대비한 지역농업 전문후계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농촌 건설이 필요함

<표 13-1> 농가 및 농가인구 추이

구분	농가(호)			농가인구(명)
	계	전업	겸업	
2010	12,086	6,712	5,374	29,927
2011	12,624	6,363	6,262	32,784
2012	12,271	5,668	6,603	32,296
2013	12,889	5,959	6,930	33,811
2014	12,301	6,073	6,229	32,040
2015	11,325	6,427	4,898	24,987
2016	10,978	6,437	4,541	25,373
2017	11,240	5,911	5,329	26,104
2018	10,763	6,162	4,602	24,375
2019	10,614	5,593	5,021	24,211

* 자료 : 통계청(2020), 전겸업별 농가(순천시), 순천시 통계연보(2016)

- 연령별 농가인구는 2020년 농업총조사결과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
이므로 상세한 수치를 구할 수 없음. 그러므로 현재 파악은 한계가 있음

<표 13-2> 연령별 농가인구 추이

연령별	2010년		2015년	
	계(명)	비율(%)	계(명)	비율(%)
합계	29,927	100.0	24,987	100.0
0-14세	2,556	8.5	1,178	4.7
15-19세	1,371	4.6	879	3.5
20-29세	2,002	6.7	1,390	5.6
30-39세	1,907	6.4	1,058	4.2
40-49세	3,460	11.6	2,230	8.9
50-59세	5,300	17.7	4,884	19.6
60-64세	3,113	10.4	2,803	11.2
65-69세	3,046	10.2	3,118	12.5
70세 이상	7,172	24.0	7,487	30.0

* 자료 : 순천시 통계연보. 2016

2) 지표에 대한 설명

- 지역농업에 대한 전망성과 실천성을 갖춘 전문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 속에서 지역농업의 활성화 발전의 방향을 이해하고 개별 주체로서의 농민을 조직화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 중요성과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
- 따라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농업을 주도할 전문후계인력을 지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양성 및 확보 필요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정책지표 \ 연도	2017	2019	2020	2025	2030
청년후계농 선발 육성(명)	30	13	15	15	15

측정방법 :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인력 수

- 청년후계농 : 농업분야 종사를 희망하여 순천 지역에 거주하면서 후계농 사업에 대하여 순천시나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선정된 인력

13.2. 유기농·무기농 기법을 활용한 안전한 농산물 공급확대

1) 환경분석

- 순천시 통계연보에 의하면 도농복합도시인 순천시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가구 수는 2010년에 3,130호가 2013년에는 2,361호, 2016년에는 1,570호, 2019년 1,456호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2010년, 2,631ha, 2013년, 2,528ha, 2016년, 1,967ha, 2019년 1922ha로 친환경농업 농가수 감소와 동일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의 범주에서 2015년이후는 저농약 농산물을 제외함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이 축소되었으나 GAP인증을 포함하면 약간 회복됨

- 친환경 인증 농산물은 무농약농산물 762.3ha, 유기농산물 1215.2ha(계 1977.5ha, 2020년 8월현재)이며, GAP 488.3ha를 포함하면 2465.8ha로 전체 경지면적 중 19.12%에 해당함(순천시 지역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2020, p.24)
- 순천시 지역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보고서(2020)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무농약농산물, 유기농산물), GAP재배까지 합하면 농가수 2153호, 재배면적 2465.8ha, 출하량 13,899.6 ton임. 이는 친환경농산물이 15.3%, GAP농산물이 3.8%, 일반 농산물이 80.9% 재배되는 수준임
- 이러한 결과는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에 큰 영향을 미쳐 지역의 우수 친환경 농산물 확대 공급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과 안전 먹거리 실현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량은 2010년에 33,361톤이 2013년에는 19,800톤, 2016년에는 7,826톤, 2019년 6571톤, 2020년 6429.3톤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GAP 농산물은 7470.3톤으로 합산하면 13,899.6톤으로 증가됨
- 따라서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들 과정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도 이수하여야 함

<표 13-3> 친환경농산물 출하 현황 추이

구분	경지면적	건수(건)	농가수(가구)	면적(ha)	친환경면적비율	출하량(톤)
2010	13,917	329	3,130	2,631	18.90	33,361
2011	13,789	287	2,450	2,211	16.03	12,864
2012	14,146	241	2,330	2,267	16.03	25,155
2013	13,838	368	2,361	2,528	18.27	19,800
2014	13,749	364	1,856	2,113	15.37	12,565
2015	13,644	320	1,594	1,978	14.50	8,060
2016	13,233	330	1,570	1,967	14.86	7,826
2017	13,019	448	1,510	1,940	14.90	7,173
2018	12,896	519	1,466	1,870	14.50	6,914
2019	12,753	512	1,457	1,927	15.11	6,571

* 자료 : 순천시 통계연보. 2016, 2020. 축산물은 면적이 없음.

2) 지표에 대한 설명

- 우리나라는 전세계의 국가들과 FTA협상을 하면서 농산물을 비롯한 상품의 수입에 낮은 수준의 관세이외에는 없으므로 값싼 외국농산물이 수입됨에 따라 생산비의 집중 투입을 통한 증산 관점의 농업 전략 고수는 농업과 농촌의 존립을 위한 방안에 어려움이 있음
- 친환경농업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생산하므로 생태도시 순천의 브랜드를 높이는 방안이 될 것임. 이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임
-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을 포함하며,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된 산물로서, 유기농산물은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 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 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통해 생산한 농산물을 말함. 이는 과거 저농약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도 포함하였으나(2014년 통계까지 있음) 새로운 기준은 저농약 농산물을 제외하고 유기농축산물과 무농약 농축산물, 이를 가공한 유기식품이어야 하므로 이들 기준은 과거보다 강화된 것으로 생산과정과 가공과정에서 허용된 물질이나 유기농업자재로 사용하여 생산하거나, 제조되어야 하며 교육도 받아야 함
- 친환경농축산물은 품종과 생산 환경, 재배 및 사육방법이 허용된 방법으로 재배되거나, 사육되었음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함과 동시에 일반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생산자의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값싼 농산물에 대응한 미래 지역 농업의 중요 대안이고 순천 지역만의 브랜드화가 가능한 실정임

- 과거에는 유기농과 무농약, 저농약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저농약은 제외되었으며, 현재 무농약과 유기농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과거보다는 축소된 실정임
- 채소의 경우 여러번 동일한 농지에서 재배할 수 있으므로 경지면적보다는 경작면적을 파악하여야 하나 실제 1년에 여러번 재배되지 않는 한 재배면적과 경지면적의 차이는 실제로 거의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경지면적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배면적은 유지되더라도 수치는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들 부분의 보정이 필요함
- 축산물도 친환경축산물이 있으나, 이들 분야는 면적이 의미가 없어서 현재는 유기축산물을 없고 무항생제 축산물만 있는 실정임. 이를 보완하거나 측정할 지표가 필요함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정책지표 \ 연도	2017	2019	2020	2025	2030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	14.90	15.11	15.13	15.23	1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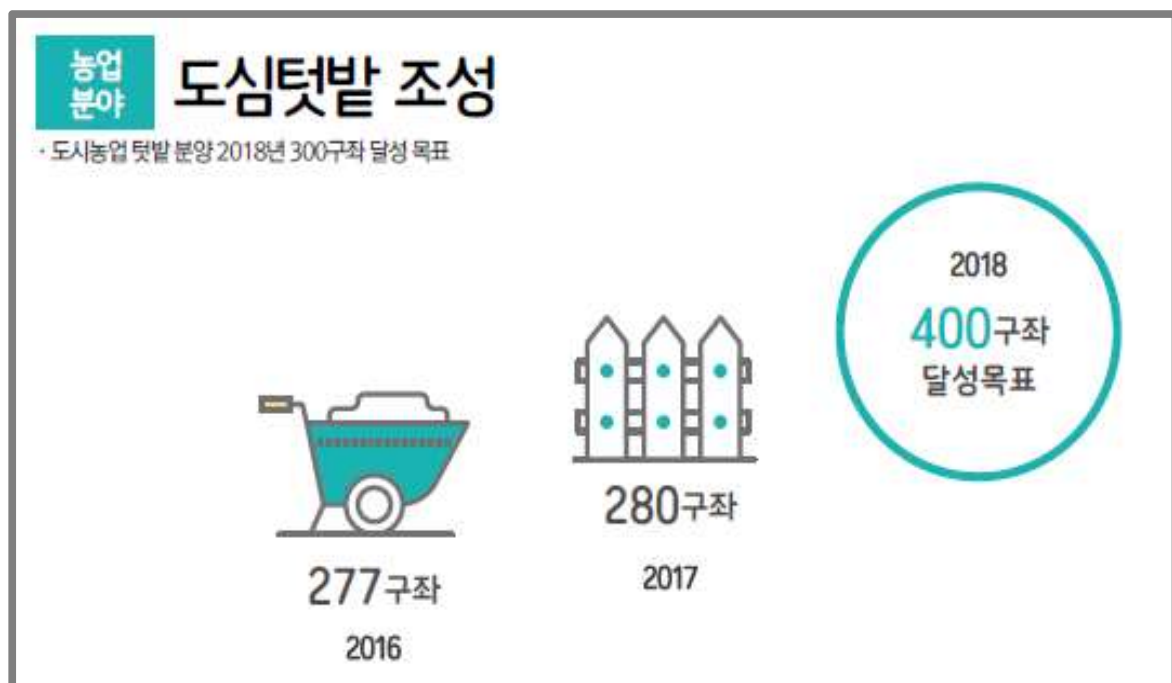
측정방법 : 친환경 인증 재배면적 / 경지면적 × 100

13.3.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도농상생 기반 구축

1) 환경분석

- 1995년 전국 최초 도농통합지역임. 순천시 예산 1조원 시대에 달하였으나, 농어촌지역에 대한 예산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 관광객은 2014년 6,138,650명, 2017년 9,066,764명으로 4년사이 3백만명 증가, COVID-19로 축소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안전한 순천은 여행시즌에 많이 유입되었음

- 2018년 지속가능발전 지표(SDG) 작성을 위한 순천시민 의식조사(별첨 첨부) 결과에 의하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격차 해소 완화, 농촌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 개선 등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도농복합도시인 순천시는 농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없이는 도시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불가능. 이는 도시민들에 대한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며, 상호이해를 높이는 교류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순천시에서는 도시농업 행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 통합관리 및 활동 지원,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의 위탁 운영으로,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 도심텃밭 조성 구좌수가 2016년 277구좌에서 2017년에는 280구좌로 증가하였음
-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에 활력을 부여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농교류활동이 필요함



* 자료 : 통계로 보는 민선6시 순천. 2017

[그림 13-1] 도심텃밭 조성 현황

2) 지표에 대한 설명

- 도시농업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정의
-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로 정의
- 최근 도시는 도농상생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안으로 도시텃밭이 주목을 받고 있음. 도시텃밭은 신선한 농산물 생산을 비롯하여 도시생활 속에서 지역공동체 회복 및 여가활동, 건강증진, 자연체험교육에 중요한 장소이며, 도시환경 보전, 생태계 보전, 도농교류 등의 역할이 높게 평가 받고 있음. 또한 빈곤층에 대한 신선한 채소의 공급과 주민들간의 교류가 가능한 공간임
- 도시농업의 다양한 역할이 이해됨에 따라 도시민은 신선한 채소 생산과 지역의 불우계층에 대한 지원, 도시의 소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농촌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계기로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함
-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급격하여 순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비중이 급격히 줄고,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훨씬 넓은데도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 인식이 낮음
- 집중적인 예산투입과 지표에서 제시한 10개년 도농교류활성화 추진 프로그램의 실시
- 농촌지역 방문객수 : 순천시 농산어촌 지역 연간 방문자수 자료 산출
- 순천시의 각 지역이나 시가 직·간접으로 추진한 도농교류활동과 이들 행사에 참여한 인원수
- 순천시 도시농업 행복 지원센터에서 분양한 도시농업 텃밭 구좌 수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도시농업 텃밭분양 구좌

정책지표 \ 연도	2017	2019	2020	2025	2030
도시농업 텃밭분양 구좌수(구좌)	280	—	400	450	500

측정방법 : 도시농업 텃밭 분양 구좌수

② 농촌지역 행사에 참여한 도시지역 인원

정책지표 \ 연도	2017	2019 (기준년도)	2020	2025	2030
농촌지역행사에 참여한 도시지역 인원수(함께 개최한 행사수)	74,479	100,527 (8)	48,394 (4)	110,580 (10% 증가)	120,632 (20% 증가)

측정방법 : 농촌지역행사에 참여한 도시지역 인원 수

14. 지역민과 공생하는 공동체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지표		UN SDGs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14.1. 농·산·어촌 지역주민에 의한 마을개발 활성화	14.1.1. 마을개발 활성화 사업수	2. 기아종식 및 지속 가능한 농업
	14.1.2. 권역 지역주민 참여수	
14.2. 농어촌 주민의 교육·복지·의료 확대	14.2.1. 농어촌 주민의 복지 수혜 인원수	3. 건강과 복지 4. 양질의 교육
	14.2.2. 농어촌 지역 의료인수	
	14.2.3.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수혜 인원 증가율	
14.3. 로컬푸드를 통한 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	14.3.1. 로컬푸드 참여 농가당 연간 판매액	2. 기아종식 및 지속 가능한 농업
	14.3.2. 로컬푸드 참여 농가수	
	14.3.3. 지역 농산물 가공 품목수	

14.1. 농·산·어촌 지역주민에 의한 마을개발 활성화

1) 환경분석

- 순천시는 2019~2023년 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2019)에 따르면, 순천의 농촌지역개발 비전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순천 농촌실현임. 그에 따라 제시된 부분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 만들기,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환경 및 경관개선을 세부 과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농촌지역의 생활기반정비와 자연환경의 관광자원화, 균형 있는 지역개발 추진, 도시민의 농업·농촌유입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그에 따라 이들 사업은 주민주도로 지속성을 제고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기반 정비, 특색있는 창조적 마을(마을, 권역)만들기,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이 포함되어 있음

-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이 필요함. 이는 마을 별로 자신의 마을을 돌아보고 개발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 구성원의 공감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함
- 일차적으로 마을 단위이나, 농촌지역의 인구가 면적에 비하여 적으므로 마을 단위나 권역별 단위가 될 것임. 권역은 읍면 단위일 것이나, 이보다 적은 경우도 있으므로 자연부락단위가 기본이나 인구의 부족으로 의사소통과 협의가 가능한 리 단위, 면 단위까지 가능한 수준임. 순천시에는 11개 읍면과 13개동으로 구성되었음. 이중 농촌지역인 11개 읍면은 법정리가 163개로서 행정리는 390개이고, 반은 571개, 자연부락은 462개임

<표 14-1> 순천시 농촌지역의 마을 구성

구분	법정리	인구수	행정리	반	자연마을
승주읍	14	2923	32	46	54
주암면	20	3321	36	51	64
송광면	15	1600	24	30	27
외서면	8	924	14	25	16
낙안면	19	3264	36	50	36
별량면	18	5904	—	—	62
상사면	11	2886	25	30	31
해룡면	18	55030	97	224	—
서면	14	12103	63	63	92
황전면	16	3155	40	52	52
월등면	10	1885	23	0	28
계	163	92,995	390	571	462

*자료 : 인구수 - 순천시청 홈페이지 / 순천시 읍면동 소개 - 2018년 통계기준

2) 지표에 대한 설명

- 기존의 농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시키고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마을개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의 자생력을 배양해야 함. 세부 실천항목으로써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수를 증가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 마을개발 활성화 사업 수 : 신규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개발 활성화를 추진한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
- 참여 주민수 : 대상 주민수 중 실제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수를 반영
- 순천시가 직·간접으로 추진한 사업 수 및 사업관련 참여인원수로서 계획에 따르면 순천시 관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실적이 2019년 2개소, 2021년 이후 3개소로 증가할 예정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실적은 2019년 1개소로 2023년 2개소를 목표로 설정되어 있음(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2019, p.452)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마을개발 활성화 사업수

정책지표 \ 연도	2017	2019	2020	2025	2030
마을개발 활성화 사업수(건)	—	3	5	7	15

측정방법 : 마을 개발 활성화 사업 수

② 권역 지역주민 참여수

정책지표 \ 연도	2017	2019 (기준년도)	2020	2025	2030
권역 지역주민 참여수(명)	—	189	198 (5% 증가)	212 (12% 증가)	227 (20% 증가)

측정방법 : 권역지역 주민 참여 수

14.2. 농어촌 주민의 교육·복지·의료 확대

1) 환경분석

- 2020 농어업인 등의 복지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생활의 부문별 중요도는 보건의료, 안전, 복지서비스,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여건이 평균보다 중시되었으며, 만족도는 평균보다 낮은 영역은 복지서비스, 교육여건, 문화·여가여건, 경제활동여건, 보건의료, 기초생활기반 등의 항목이 만족도 평균보다 낮음. 전반적으로 요구가 시급한 부분은 <표 14-2>와 같이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경제활동여건, 기초생활기반, 문화·여가 여건 개선부분이 개선되어야 함을 말함
- 농어촌의 이주 의사층이 9.5%이나, 이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이 주택관련사유, 직업 관련사유, 자녀교육의 순이었음. 읍은 주택관련사유, 직업관련사유, 자녀교육순서이고, 면은 직업 관련 사유, 주택관련사유, 가족관련사유, 자녀교육 순임. 특히 삶의 질에서 복지와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중요한 부분임
- 농어촌서비스의 하나로서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으로 구분하여, 보건의료복지영역은 진료, 응급의료, 영유아 보육 교육, 노인복지 등이 포함되고, 교육문화영역은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지표로 사용됨(농촌경제연구원, 2020, 2020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평가, pp.22-24). 이들 지표는 진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의 진료가 가능한 시간(30분~1시간), 응급환자의 기본적인 응급장비와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의 도착으로 응급처치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간(30분), 영유아 보육 교육은 어린이집 도착시간(20분), 노인복지는 독립적 일상생활 제한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80%)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음
- 교육문화영역은 지역여건에 맞는 초중학교를 육성하고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10분), 읍면내 평생교육 거점시설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70%),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이상 전문공연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어야 하며(40분), 국공립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을 이용할 수 있으며(10분), 생활체육수요충족을 위한 체육관, 수영장, 간이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30분)

<표 14-2> 농어업인의 농어촌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 평균

(단위 : 점)

구분		평균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교육 여건	문화여가 여건	기초생활 기반	안 전	환경 ·경관	이웃과의 관계	경제활동 여건	정보화 여건
중요도		73.67	79.2	78.2	68.2	65.8	77.9	78.7	74.4	72.0	76.1	66.2
중 요 도	지역	읍	78.0	76.6	70.7	68.6	78.4	78.7	73.0	69.2	77.2	69.4
		면	80.3	79.7	65.9	63.2	77.4	78.8	75.7	74.6	75.1	63.3
	영농 여부	농어가	82.0	81.4	66.1	63.8	77.3	81.7	77.4	77.2	78.8	64.1
		비농어가	78.2	77.1	68.9	66.5	77.4	77.7	73.4	70.2	75.2	67.0
만족도		54.6	50.4	49.4	46.0	45.0	52.3	65.4	67.5	62.7	49.8	57.3
중요도-만족도 차이		19.07	+28.8	+28.8	+22.2	+20.8	+25.6	+13.3	+6.9	+9.3	+26.3	+8.9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2021), 2020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보고서, pp.12-13

<표 14-3> 농어업인의 현 거주지에서 5년 이내 이주 의사층(9.5%)의 사유

(단위 : %)

구 분		직업관련 사유	주택관련 사유	가족관련 사유	생활환경 관련사유	이웃과의 관계 관련사유	자녀교육 때문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	건강상의 이유로
계		32.3	40.5	4.8	4.7	0.2	13.5	3.7	0.3
읍/ 면	읍	24.5	48.6	2.6	6.1	—	15.9	2.5	—
	면	49.9	22.3	10.2	1.6	0.7	8.1	6.4	0.8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2021), 2020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보고서, pp.12-13

2) 지표에 대한 설명

- 도농 통합도시인 순천시가 통합 당시의 정신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육·복지·의료분야에 일정 비율의 예산투입이 필요함. 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함
- 지속적인 예산투입으로 교육·의료·복지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복지는 노인, 청소년, 여성, 아동대상의 서비스가 있으나, 특히 농촌의 경우 노인층이 많으므로 노인층의 서비스 숫자를 합함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농어촌 주민의 복지수혜인원

정책지표 \ 연도	2018	2020 (기준연도)	2025	2030
농어촌 주민의 복지수혜인원수(명)	—	16,891	18,918 (12% 증가)	20,269 (20% 증가)

측정방법 : 농어촌 주민의 복지수혜인원수

- 농촌지역 복지수혜인원 : 농촌지역거주자 중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수 + 장애인 돌봄수 +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자수

② 농어촌 지역 의료인

정책지표 \ 연도	2018	2020 (기준연도)	2025	2030
농어촌 지역 의료인수(명)	—	116	128 (10% 증가)	133 (15% 증가)

측정방법 : 농어촌 지역 의료인 수

- 농어촌 지역 의료인수: 농촌지역에서 의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직 종사자수. 현재는 순천시의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보건직 + 의료기술직 + 간호직 + 보건진료직원의 합계임

③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수혜 인원 증가율

정책지표 \ 년도	2018	2020 (기준연도)	2025	2030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수혜 인원 증가율(%)	-	40%	44% (10% 증가)	48% (20% 증가)

측정방법 :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수혜 인원 증가 비율

- 농어촌주민이 참여한 평생교육, 직업교육, 농업교육 등에 참여한 인원수의 기준년도에 대비한 증가율.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은 2020년은 2,822명, 2021년은 9,067명임. 그러므로 2021년은 321%임

14.3. 로컬푸드를 통한 농산물의 지역소비 활성화

1) 환경분석

- 전국 기준 농가 평균소득은 38,239,000원으로 도시근로자의 64%수준(2017년 통계청 자료)
- 이 중에서 농외소득,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농업소득은 연간 10,047,000원, 농업소득은 선택 작목의 특성에 따라 수확 판매가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수입이 고르지 않음. 특히 순천은 농가의 66.6%가 0.5ha미만으로 영세농규모임. 이들은 시장경쟁력이 불리하여 판매경로가 불완전하고 가격의 결정도 외부 상인들에 의해 지배되므로 안정적 소득을 위해서는 직거래가 비교적 적합한 경로임

- 순천시의 연간 식품 수요량은 2020년 기준으로 152,072ton으로, 농산물 93,329ton(61.4%), 축산물 39,640ton(26.1%), 수산물 19,103ton(12.6%)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0.95%로 추정하고 있으며(순천시 지역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 2020, p.47), 먹거리 자급 가능 품목은 쌀, 보리 등 10개 품목이고, 채소류는 부족하며, 장의 규모는 4,000억원 이상이나, 그 중에서 지역산 확인이 분명한 로컬푸드직매장의 경우 지역농식품의 유통은 약40억원(1%) 정도임. 로컬푸드는 순천농협과 순천원예의 하나로마트 매장과 로컬푸드매장이 있음
-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지역단위 푸드플랜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신뢰 기반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 수입농식품을 대체해 나간다면 농업인의 소득 보전 뿐만 아니라 먹거리문제의 질적 개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식량주권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고 공공성을 가진 운영 주체로 하여금 지역의 소농과 영세농을 중심으로 생산자를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임
- 로컬푸드를 통한 농산물 지역소비 시스템은 친환경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농업공동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표로서 바람직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순천시가 참여한 로컬푸드매장은 2018년 9월 기준매장 2개소, 2018년 연매출 80억, 매출대비 수익률 1%를 달성목표로 하였음. 2017년 59억 매출, 총이용객 217,757명, 품목별 판매율 농산물 49%, 가공품 26%, 축·수산물 23%, 기타 2%임

2) 지표에 대한 설명

- 현재 순천시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현을 위하여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 농산물 거래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바, 2018년 현재 2개의 직매장에서 월 평균 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 이를 통해 매월 1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농가 300가구를 목표로 생산자 관리를 하고 있으나 아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직매장 3개소 운영으로 일반 가정 외 외식업, 공공급식 분야에서도 출체가 불분명한 외부 식자재 대신 지역 농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공감을 얻게 된다면, 소득안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목표 농가 502가구는 2017년 기준 농가 수 약 11,000가구의 5%에 해당하며 실제로 그 이상의 농가들이 로컬푸드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음
- 현재 지표의 한 요소로써 월 100만원 수준의 농업소득을, 2030년에는 월 140만원 수준으로 변동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도시근로자의 임금상승분이나 물가상승률을 참고하여 농업소득액도 상응하게 수정, 목표관리를 해야 함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로컬푸드 참여 농가당 판매액

정책지표 \ 연도	2017	2018	2020	2025	2030
로컬푸드 참여 농가당 판매액(천원/월)	—	—	1,000	1,200	1,400

측정방법 :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당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판매액

② 로컬푸드 참여 농가

정책지표 \ 연도	2017	2018 (기준연도)	2020	2025	2030
로컬푸드 참여 농가수(호)	300	419	440 (5% 증가)	472 (12% 증가)	503 (20% 증가)

측정방법 : 로컬푸드에 참여한 농가 수

③ 지역 농수산물 가공품목

정책지표 \ 년도	2017	2018 (기준연도)	2020	2025	2030
지역 농수산물 가공 품목수(개)	—	617	648 (5% 증가)	679 (10% 증가)	710 (15% 증가)

측정방법 :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가공품목 수

- 순천시가 직·간접적으로 추진한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의 판매액과 참여농가 수,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품목수를 종합하여 평가

15.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지표		UN SDGs
세부목표	지표	목표(Goal)
15.1.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	15.1.1. 소농직불금 수혜 농가수	1. 빈곤퇴치 2. 기아종식 및 지속 가능한 농업
	15.1.2. 도시근로자 가구당 농가평균 소득액 비율	
15.2.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15.2.1. 농촌관광종사자별 평균 매출액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5.2.2. 농촌관광지별 지출대비 수익률	
15.3. 농·산촌 자연경관 보전	15.3.1. 자연경관 관리비 지출액	6. 깨끗한 물과 위생 15. 육상생태계 보호
	15.3.2. 자연경관보전 투자비용	
15.4. 전통종묘 유지와 보급	15.4.1. 전통종자 유지수	2. 기아종식 및 지속 가능한 농업
	15.4.2. 매년 채종되는 종자 품목수	

15.1.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

1) 환경분석

- 순천은 농업인 가구의 비중이 낮은 도농복합형 지역으로, 도시지역인구가 68.7%이고 읍면지역에 거주 인구는 31.3%로서, 88,267명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2017년 통계로 순천시 11만 1600호중 농가가구는 10%인 11,200호, 농가인구는 26,100명으로 전체 인구 277,600명의 9.4%임. 이는 농가가구당 평균인구수는 2.33인으로 가구당 인구가 적음
- 농가인구는 전국 평균에 비하면 두배 정도 높고, 전남 평균에 비하면, 낮은 수준임
- 2018년 순천시 통계연보에 의하면, 농촌지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자가 4,639가구, 4,059명이 있고, 이는 순천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

상위계층자 수의 51.68%, 32.20%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농촌지역에 일정 규모의 빈곤가구가 존재함을 말함. 다만 농가인구 중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음. 2015년 농축산물판매액수를 기준으로 농가인구의 분포를 보면 전국평균은 읍면지역(78.7%), 동지역(21.3%), 전남은 읍면지역(92.99%), 동지역(6.91%)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순천시의 농가인구를 이들 근거에 기초하여 추정하면, 농가인구는 20,541명~24,270명 정도가 농촌에 있고, 5,559명~1,804명이 동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순천지역 농촌거주인구의 4.5%가 빈곤가구임을 고려할 때, 농가의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적은 집단이 빈곤층을 이룰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농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천지역 농가의 농축산물 판매금액과 경지 규모를 동시에 고려하면, 연간 500만원 이하로서, 0.3ha이하의 경작면적을 가진 농가들은 29%정도에 해당함. 물론 판매금액이 전체 소득은 아니고, 각 가구원 수나 연령에 따라 생활비는 다를 것이므로 이들 비중은 달라질 것이나, 1년 가구별 소득을 고려할 때 농업소득과 농업외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가계비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이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인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 <표 15-1>의 결과와 같이, 개별 농가의 농업의존도와 농업소득율, 가계비 충족정도를 파악하여 기준보다 낮은 경우의 존립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농업 소득에서 가계비를 어느 항목까지 포함하는가에 따라 충족 정도는 차이가 있으나, 소비지출과 투자적 성격의 지출을 구분하되 소비 지출보다는 커야할 것임

<표 15-1> 순천시의 2015년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구분	농가	판매 없음	120만원 미만	120~300 만원	300~500 만원	500~1천 만원	1천~2천 만원	2천~3천 만원	3천~5천 만원	5천 ~1억원	1억 ~2억원	2억~5억	5억원 이상
경지 규모별	11,325	1,468	2,085	2,138	1,712	1,524	941	481	427	378	130	36	5
경지없음	52	4	1	6	2	6	13	4	4	5	4	2	1
0.1ha 미만	403	131	127	107	23	7	6	1	—	1	—	—	—
0.1~0.2	1,954	601	675	370	167	69	47	10	6	6	—	2	1
0.2~0.3	1,256	260	362	314	148	100	35	14	9	12	2	—	—
0.3~0.5	2,284	281	528	614	407	247	99	42	32	27	4	3	—
0.5~0.7	1,439	93	213	331	330	235	117	53	34	27	6	—	—
0.7~1.0	1,294	59	105	208	304	284	158	69	51	40	12	3	1
1.0~1.5	1,074	26	59	105	186	277	171	98	76	48	23	3	2
1.5~2.0	533	8	13	38	60	118	115	57	66	43	12	3	—
2.0~2.5	269	—	1	22	34	65	51	31	31	21	11	2	—
2.5~3.0	205	—	—	5	16	43	46	28	20	28	15	4	—
3.0~4.0	221	2	1	11	23	35	32	38	37	31	7	4	—
4.0~5.0	114	2	—	2	6	17	18	12	25	26	4	2	—
5.0~6.0	62	—	—	4	2	6	11	9	11	17	2	—	—
6.0~7.0	54	1	—	1	2	5	10	8	7	13	6	1	—
7.0~10.0	63	—	—	—	1	8	6	5	14	17	10	2	—
10.0ha 이상	48	—	—	—	1	2	6	2	4	16	12	5	—

* 자료 : 통계청(2015), 농림어업총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AG15117 & conn_path=I3

- 결과적으로 농업소득이 가계비의 1/3만 충족된다면, 겸업소득을 고려할 때, 농업인의 특성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함

<표 15-2> 2017년 농업인의 경제규모별 농업의존도, 가계비충족도, 농업소득율

구분	농업의존도 (%)	농업소득의 가계비충족(%)	농업소득률 (%)
경지규모-0.5ha 미만	3.98	4.64	20.1
경지규모-0.5-1.0ha 미만	19.25	23.23	28.2
경지규모-1.0-1.5ha 미만	32.87	37.30	34.2
경지규모-1.5-2.0ha 미만	31.70	36.47	31.0
경지규모-2.0-3.0ha 미만	40.20	55.05	34.3
경지규모-3.0-5.0ha 미만	51.07	70.99	35.6
경지규모-5.0-7.0ha 미만	50.05	83.17	43.9
경지규모-7.0-10.0ha 미만	64.72	112.65	37.1
경지규모-10.0ha 이상	48.29	83.18	34.1

* 자료 : 통계청(2017), 농가경제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A1201 & conn_path=I3

- 경지면적은 161.7km²으로 임야 618.2km²을 합하면, 780km²로 전체면적 910.9km²의 85.6%이고, 경지면적만으로는 17.8%임. 논은 104.5km² (11.5%), 밭은 54.9km²(6.03%), 과수원 2.3km²(2.5%)로서, 가구당 평균 0.014km²(1.43ha)로, 순천지역의 농업인구나 가구, 면적의 한계가 있음
- 산지는 62,645ha(순천시 면적의 67.9%)로서 보전산지 45,527ha, 준 보전산지는 17,118ha로서 27.3%가 준 보전산지임. 이는 순천이 생태와 지속적 발전을 선택하려면, 자연환경의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의 적절한 개발과 유지가 필요하므로 보전산지와 준 보전산지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함. 농업생산기반인 논이나 밭의 활용은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활용하되, 지속적 존립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수익이 제공되어야함. 밭에 비하여 논은 친환경농업인증가구가 1,464농가 1,884ha로서, 농지면적중 11.65%, 가구수로는 13.07%임

- 대상 동식물이나 작물, 지역에 따른 자연과 생태환경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환경과 생태를 보전하면서 생산과 자원 활용을 통한 적절한 수익을 유지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나 산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그런 점에서 농촌관광은 생태계 유지와 자연 환경 보전을 양립하면서 수익을 일정부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임. 현재 농촌관광의 주요장소는 농촌민박, 농촌체험마을, 농촌교육농장, 관광농원, 자연휴양림이 될 것임
- 농촌민박은 238개소의 객실 623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0개마을의 608가구 1,262명, 농촌교육농장 5개(5개가구), 관광농원 8개(17개 농가)로서 참여농가는 현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 참여한 농가와 관광농원 참여농가, 농촌민박 참여농가, 농촌교육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868가구이나, 이들의 농촌관광수익 추정 자료는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37,030명과 낙안민속자연휴양림방문객 7,791명임. 그러나 이중 민속자연휴양림 방문객은 농촌관광 방문에 해당하나, 수익이 입장료 수입이므로, 모든 농가들이 혜택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숙박이 중심 수익이 되는 농촌민박이나, 체험 활동을 주 수익으로 하는 농촌교육농장은 방문자수 기록이 없으므로 정확한 수익 추정이 어려움. 자연경관의 관리를 개별 농가에 맡기는 경우는 제한적이나, 마을 단위의 관리는 가능하고, 체험 휴양마을이나 관광농원 같은 단체가 자연경관의 활용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다만 개별 농가의 소득제고는 농촌민박이나 휴양마을의 기여가 높을 수 있으나, 개별 농가의 책임이 아닌 법인화를 통하여 소득을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함

2) 지표에 대한 설명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은 농업과 농촌의 적절한 개발과 자연환경의 유지를 통한 지속적인 농업농촌의 성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를 위하여 자연 경관을 유지하면서 농촌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 살지 않도록 보호하고, 자연 경관을 보호하면서 농업을 영위함으로써 불리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임. 농업소득이 가계소득의 70%이상인 경우는 농업소득이 가계지출에 대한 충족도 70%이상이어야 함

- 장기적으론 농업소득으로 가계비충족이 되고 적절한 이익도 가능한 수준이어야 함. 이는 소득의 문제와 지속적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환경조건의 개선과 지원, 지속적 농업을 위한 전통적인 종자와 경관의 보호지표가 필요함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소농직불금 수혜 농가

정책지표 \ 연도	2017	2020 (기준연도)	2021	2025	2030
소농직불금 수혜 농가수(호)	-	5,405	5,446	5,297 (2% 감소)	5,134 (5% 감소)

측정방법 : 소농직불금 수혜 농가수

- 영세농가의 정의가 필요함. 농업소득이 가계비 지출액의 일정 이하 비율의 농가를 영세농가로 정의하되, 기준점은 농가의 지속적 존립이 가능한 분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가계비도 지출액이 생활에 필요한 소비적 지출과 비소비적 지출이 있으므로 엄격하게는 소비적 지출에 대한 충족이 우선되어야 하나, 영세농가에서의 탈출이 가능하려면 비소비적 지출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필요비용의 30% 이하 농가는 영세농가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7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경지면적 1.0ha미만이 이 수준에 해당함. 농가소득은 농업소득이외에 이전소득이나 농외소득, 비경상소득도 존재하므로 가계비에 대한 농업소득의존율이 높은 가구는 가계비지출에 대한 농업소득 충족률을 50%이상까지 높여 영세농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여기서는 소농직불금을 받는 농가 수의 규모가 전체 농가 수에 비하여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파악되어야 함. 소득의존율이 평균이상인 경우 가계비에 대한 충족률을 함께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함. 특히 농업소득비율이 30% 이하인 소규모 경영 농가들은 농외소득이나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이 지출을 보전하므로, 이전소득이나 비경상소득을 제외하고, 일하여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음. 도시가구 평균소득에서는 이전소득이나 비경상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비교할 때도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고 비교할 수도 있음

- 이는 개별농가의 가계지출에 대한 농업의존도와 농업소득의존도를 고려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소농직불금을 받는 농가가 빈곤층으로 가정할 때 이들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개선되는 상황일 것임. 전체농가의 숫자 감소로 나타나는 경우는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② 도시근로자 가구당 농가 평균소득액 비율

정책지표 \ 년도	2017	2018	2020	2025	2030
도시근로자 가구당 농가 평균소득액 비율(%)	—	—	60.38	65	70

측정방법 : (농가평균소득 / 도시근로자가구(2인이상 가구)평균소득) × 100

-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의 평균소득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 부분은 매년 변동하는 경향임. 도시가구는 업종이나 직업, 지역에 따라 소득 차이가 있으므로, 농가소득과 비교하려면 농업인과 유사한 계층의 집단과 비교함이 타당함. 농업인은 경영인이므로 자본 경영 수준의 농업인은 2인 이상의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과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농업인은 자영수준으로 자신이나 가족단위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기술자수준의 소규모 독립경영 수준으로 도시근로자 집단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2인 이상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함이 한계는 있으나 적절함

15.2.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1) 환경분석

- 농촌관광은 대부분의 관광이 단순한 보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농촌관광은 이들 외에 체험과 활동을 포함한 경우가 많고 이는 교육농장을 운영하는 농촌 지역의 참여자들에게 적합한 형태임. 문제는 이들 농촌관광을 원하는 계층이 비용지불희망은 낮은금액으로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농촌관광이 외국여행보다 값이 저렴할 수 있으나, 질적제고를 통하여 투자된 비용에 합당한 수익을 조건으로 바뀌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관광객의 비용 지불을 고려한 관광형태별 비용을 추정할 필요가 있음. 비용+적정수익을 포함하여야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이 유지될 것임. 즉 농촌관광이 지속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함
- 그러므로 농촌관광요소별 비용을 추정할 필요가 있음. 비용은 기술개선이나 경비절감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으나, 특정시점으로 한정되는 농가민박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농한기와 농번기에 따른 인건비 차이 등의 계절별 경비 차이가 있으므로 계절과 서비스 항목별 차이를 계산할 필요가 있음
- 경영비를 기준으로 비용별 150%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할 것임. 이는 지속적 성장을 고려하여야 함. 그러므로 업체별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숙박만 제공하는 경우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수영장이나 편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 따라 가격은 달라져야 하며, 농산물 수확이나 재배활동에 대한 체험이 있는 경우는 체험비를 포함하여야 할 것임
- 개별농가의 관점에서는 적정한 경쟁력이 필요하므로 가격을 낮추도록 노력함이 필요함. 경영비를 낮추고, 원가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함.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이 되려면 방문객 전부가 적정가격을 지불한 100%가 되어야 함을 희망함

2) 지표에 대한 설명

① 농촌관광종사자별 평균 매출액

- 현재 이 부분의 통계수치는 없음. 다만 1인당 농촌관광 지불의사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체험프로그램은 10,000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종류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1일당 비용으로 판단한다면, 식사비와 숙박비와 시설 이용료나 체험프로그램 이용료를 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숙박비는 대개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비용보다 서비스 수준이 높거나 지원 내용을 고급화 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건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 평균숙박 시설 기준으로 50,000원/1박으로 한다면, 이용료는 10,000원~20,000원, 상품 판매액은 1/2로 5,000~10,000원, 식비는 20,000~30,000원의 수준일 것이므로 이들 기준으로 1박당 100,000원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일 것임. 그러나 농촌 지역방문의 경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는 적으므로 종사자별로 매출액으로 본다면, 이들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순천방문객은 2017년의 경우 9,066,764명이며, 농촌관광은 농촌체험휴양마을 9개소(녹색농촌체험마을 6개소, 전통테마마을 1개, 어촌마을 1개, 체험마을 1개)의 545가구, 인구 1113명, 농촌교육농장 5개소, 관광농원 8개소 참여농가 17개, 농어촌 민박 238개소로 구성되므로 이들 종사자는 가구 수나 참여농가 수, 개소수를 합하면 각 장소마다 1명이라고 해도 805명이 됨. 순천방문지는 대부분 순천 만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촌관광은 이들 지역을 관람한 일부로 판단됨
- 해외여행이나 관광지 방문과 비교할 때 이들 보다 불리한 농촌관광은 비전문 관광종사자가 부업으로 가지는 수준일 것이므로 낮을 것으로 판단됨.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의 농촌체험과 숙박,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함. 물론 품질고급화도 필요하고 이들은 등급에 따라 가격의 차별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순천시민 중 농촌거주민 30%를 제외하면 196,000명이고 이들의 50%는 98,000명임. 이들이 100,000원을 1일당 지불한다면, 9.8억원임. 이는 농업인과 농촌주민이 포함되므로 80,000명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1인당 118,072원 정도임. 그러므로 종사자 1인당 120,000원정도의 매출액이 필요함

- 현재는 각 농가나 농어촌 체험마을, 관광농원의 참여자수가 불분명하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37,030명의 방문객이 있는 것으로 통계는 있으나 신뢰성 문제가 있으므로 재방문자와 입장자나 시설상설이용자를 계산함이 필요함. 그러므로 이들이 지불한 숙박비나 식비, 체험비 등의 합계를 종사자수로 나눔이 필요함
- 농촌관광시설 이용객수는 자연휴양림 방문객을 포함할 것인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농촌관광시설은 현재 농가민박,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농촌교육농장 이용객, 관광농원 이용객수이나, 이들 외에 민속자연휴양림 방문객 역시 농촌관광지임. 다만 시설만으로 본다면, 토지와 경관의 속성이므로 농촌관광의 핵심인 체험분야가 제외될 수 있음
- 포함하는 경우는 휴양마을과 휴양림 방문객만 2017년 기준 44,821명이었음. 그 외에도 민박이나 농촌교육농장방문과 체험객을 합하면 이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농촌관광은 여름 휴가시즌에 많이 이루어지나, 전국적인 경쟁이 있는 시기이므로 각 마을별 특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도록 순천시민 28만 명의 50%가 방문하는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현재 주민의 16% 수준이므로, 2030년까지 50% 규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농촌관광은 경제여건에 영향을 받으므로 프로그램 참여나 마을 단위의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여 방문객수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함

② 농촌관광지별 지출대비 수익률

- 농촌관광지는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교육농장,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의 부분임. 그 외에도 순천의 관광지가 대부분 시내 지역이 아닌 외부 농촌지역이므로, 이들 지역을 포함한다면 수입이나 지출 변동이 높음. 초기 지출이 많으나 수익은 서서히 나타나므로 수익률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농촌관광지별 수익이 있어야 농업인이나 농촌마을의 존립이 가능할 것임. 특히 순천은 상사호 지역과 같이 상수원보호지역의 환경보전지가 관광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농촌관광소득에 대한 자료는 없음

- 그러나 사업이 지속할 수 있으려면 적절한 이익이 필요함. 더구나 농촌관광은 시기적으로 편중되어, 연간 시설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고정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이익을 재편하는 방향이 필요함. 평균적으로 2~3배 정도의 사업소득이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면,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소득원의 하나로써 농촌관광소득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3배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30년은 적어도 농촌관광업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구들이 있어야 할 것임. 이는 상품화율과 프로그램별 표준비용을 분석하여 추정하여야 할 것임
- 일차적으로 적절한 농촌관광프로그램의 기준안이 제정되어야 함. 이는 각 지역이나 마을별 특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고, 농촌민박은 민박에 적절한 내용을 갖추고, 시설도 갖추도록 인증할 필요가 있음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농촌관광종사자별 평균 매출액

정책지표 \ 연도	2017	2019 (기준연도)	2020	2025	2030
농촌관광종사자별 평균 매출액(원/년)	60,000	79,000	61,000	82,950 (5% 증가)	86,900 (10% 증가)

측정방법 : (농촌관광상품 판매액 + 숙박비용 + 체험프로그램 이용료
+ 시설 이용료) / 종사자 수

② 농촌관광지별 지출대비 수익률

정책지표 \ 연도	2017	2019	2020	2025	2030
농촌관광지별 지출대비 수익률(%)	—	2	3	5	10

측정방법 : (농촌관광지별 매출액 - 지출비용) / 지출비용 × 100

15.3. 농·산촌 자연경관 보전

1) 환경분석

- 농·산촌의 경관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할 때 중요한 부분임. 농업은 식량공급만이 아닌 경관의 조성과 유지, 문화의 형성에 영향하므로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WTO협상과정에서 각국의 농업을 지키기 위한 논리가 되기도 하였음. 농촌의 아름다움은 농업의 영위를 통해서 형성되는 부분이고, 이는 농촌에서 자란 학생들의 중요한 정서적 자원이 됨.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농촌을 유지함은 도시와 다른 농촌의 역할이며 기능이 될 것임
- 농촌경관은 지켜야 할 자연자원인 동시에 순천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귀한 요인임. 이는 농촌의 지속성과 관련이 있고, 농업의 영위를 통하여 형성된 자연경관은 농촌관광의 소재와 환경이 되기도 함

2) 지표에 대한 설명

① 자연경관 관리비 지출액

- 우리나라의 아열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귀농 귀촌자의 증가는 자연경관이 좋은 교외지역에 별장이나 집을 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이 자연경관의 유지와 변화에 영향할 요소가 있음. 더 나아가 태양광 시설을 산지 지역이나 농지 지역에 설치하면서 무분별한 자연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 부분은 생태계 유지뿐만이 아닌 자연재해 발생에 영향할 수 있으므로 이들 조성은 자연재해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분임
- 그러므로 일정 규모의 숲을 유지하는 경우와, 경관 지역이나 재해예상지역의 방어수단으로 재배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지출비용과 경관 유지를 위한 수변 공간이나 절개지의 식수나 피복식물 식재와 관리에 필요한 환경유지비용, 숲 지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호수나 숲 지대를 구입비용이나, 그 지역에 사는 가구들에 대한 직접 지불제 등의 비용 지출액을 추정할 필요가 있음

- 순천만과 정원 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음. 이 경우 시민 1인당 비용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음. 이 부분은 현재 수치가 추정되어야 하나 정확한 지표는 순천시의 재정지출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는 실정임. 이를 기초로 지표를 설정하여야 함

② 자연경관 보전 투자비용

- 자연경관의 조성은 비교적 장기간에 대한 투자비용이나 자연경관이 훼손되었을 때 피해는 순간적이고 대규모임
- 고지대에서 수목을 심어 운영하거나, 농사를 짓는 경우 그들이 농사를 지음으로서 손해되는 부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한계지역에서 농사를 영위하거나 수목을 심어 환경을 보전하는 경우, 채석장 환경을 복원하는 경우 이들 지역의 업체들을 이주시키는 비용이 필요함. 또한 재해예방사업비나 수변공간 생태 유지를 위한 적절한 수목 식재와 주기적인 보완이 필요함
- 그러므로 1인당 투자비용으로 계산되어야 하나, 현재 얼마나 투자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자연경관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을 수집하여 재분석할 필요가 있음. 또한 1인당 비용이 보다 적합하지 않을지 생각됨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자연경관 관리비 지출액

정책지표 \ 연도	2017	2019	2020 (기준연도)	2025	2030
자연경관 관리비 지출액(천원)	—	—	5,451,446	5,560,475 (2% 증가)	5,669,504 (4% 증가)

측정방법 : (홍수예방이나 자연재해 대비 비용 지출액) / 시민 1인당

② 자연경관 보전 투자비용

정책지표 \ 년도	2017	2019	2020 (기준연도)	2025	2030
자연경관 보전 투자비용(천원)	—	—	5,003,068	5,103,129 (2% 증가)	5,203,191 (4% 증가)

측정방법 :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경사지 주민들에 대한 이주비 + 직접 지불비
+ 재해예방 사업비 + 기타 수변공원 청소비용 + 식수비 등

15.4. 전통종묘 유지와 보급

1) 환경분석

- 유전자원의 문제는 현재의 종자전쟁에서 중요한 요인임. 특히 장기간 자연상태에서 유지되어왔던 종자들은 그들이 요즘의 종자들에 비하여 생산성은 떨어지나 불리한 환경에 대한 생존능력은 뛰어나므로 기후변동이 심한 현재와 미래세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 유전자원의 확보는 국가적으로 중시되는 부분이고, 세계적으로도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로 북극해의 얼음바다 밑에 세계의 종자를 모아서 보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수원에 이들 종자를 보관하는 곳이 서둔동 농촌영양개선 연수원 자리 인근에 보관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이들 유전자원은 자연환경의 급변에 대처할 수 있는 종자들로서 지역에서 재배되었던 원형종자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동시에 이들의 유전력을 분석하고, 새로운 유전자원을 모우는 일에 투자할 필요가 있음
- 순천지역은 과거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햅쌀을 수확하는 곳이었음. 또한 매실이나 기타 전국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브랜드화 과정을 이루지 못한 상태임. 이는 순천의 농지에 적합한 생산물이나 이들을 적절히 보전하고 개발하지 못한 결과임

- 육종은 작물의 유전자원에 내재된 유전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부분을 극대화한 것임. 결과적으로 최대의 결과는 유전력에 기초함. 그러므로 전통종자의 유지와 유전자원의 확보와 유지는 중요함
- 전통종자의 보전은 장기적으로 유전자원의 확보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데 중요하므로 상당수의 국가들이 중시하는 부분임. 우리나라는 육종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상당수 농가들은 민간 품종을 구입하여 재배하는 실정임
-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전자원의 확보와,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이 있음
- 순천시의 전통종자보전은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는 한계는 있으나 개별 농가단위 보다는 종자의 유지가 훨씬 유리한 상황임. 개별 농가단위에서는 종자가 계속 심어지지 않는 한 유지가 어려우므로 수익성이나 생산량이 불리한 전통종자의 유지가 어려운 상태임. 그런 종자를 시 차원에서 보급이나 유지를 지원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민간육종자 사업도 국가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더 늦기 전에 개별 농가들의 유전자원을 조사하고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함

2) 지표에 대한 설명

① 전통종자 유지수

- 2030년까지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순천시 자료는 300개의 종자가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음. 그러나 재배되지 않는 종자는 상온 상태에서는 발아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유전자원의 확보와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는 유지에 대한 지원 방안과 추가적인 유전자원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 종자수라고 종자만을 한정할 필요는 없고, 유전자원의 고정과 관련 없이 묘목을 포함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음. 순천 매실은 유전자원확보가 가능한 품종일 것임

- 순천지역의 주요작목별 1종이상의 전통종자의 복원이 필요할 것이므로 주요 작물이나 사육동물별로 필요함. 10종 내외가 실현가능한 목표로 판단됨. 유전자원의 등록지나 소재지를 중심으로 순천지역의 유전자원등록수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
- 유전자원은 품종과 묘목을 포함하는 종묘로서, 유용유전자원으로서의 조직이나 세포도 포함함.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전형성능이 존재하는 세포나 조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전자원의 범위는 종묘만이 아닌 세포까지 포함하며, 미생물농약이나 균주는 종자로서의 성격을 가진 경우로 포함할 수 있으나, 유용성이 인정된 유용 유전자원이어야 할 것임
- 유용성의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나, 현재 순천지역의 유전공학기술수준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진단은 어려우나, 2030년까지 1개 이상의 국제특허나 지역보급이 가능한 종묘 개발이 필요함. 이는 농촌진흥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같이 국가연구기관과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함. 특히 순천향매실이나 순천단감 등의 품종이 다른지 분석하여 품종을 고정화하는 연구에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② 매년 채종되는 종자 품목수

- 신규종묘 보급수를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으므로 신규종묘의 보급정도를 주수나 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다만 농가단위에서 일부 면적만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면적과 개체수를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새로운 종묘가 꼭 우수한 품종일 수는 없으므로, 권장 종묘와 기존 유전자원을 개량한 새로운 종묘를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음. 이는 매실과 같이 순천의 전략산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일차적으론 농가에 보급되는 것이 필요하나, 보급종이 될 때까지는 많은 단계의 검증단계가 필요하므로 초기단계의 번식부터 진행되어야 하므로 2030년까지 1종을 보급목표로 하되 농가수는 20농가 이내를 목표로 함

3) 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① 전통종자 유지수

정책지표 \ 연도	2017	2019	2020	2025	2030
전통종자 유지수(개)	200	300	300	300	300

측정방법 : 전통종자로 등록된 종자나 품종의 연 간 재배 종수

② 매년 채종되는 종자 품목수

정책지표 \ 연도	2017	2019	2020	2025	2030
매년 채종되는 종자 품목수(개)	—	130	130	130	130

측정방법 : 재배되는 전통 종자수 + 새로운 종묘수

참 고 자 료

1. 순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목록
2. K-SDGs 목표별 세부목표 및 지표목록
3. UN SDGs 글로벌 지표 리스트
4.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을 위한 순천시민 의식조사
5. 남북협력지표 개발을 위한 순천시민 통일의식 설문조사

[첨부자료1]

순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S-SDGs) 2030 세부목표 및 지표목록

○ 도시·환경 분야

정책목표	세부목표	지표	구분	단위	지표 연도별 달성 목표					담당부서
					2017	2019	2020	2025	2030	
1.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순천만	1.1. 세계 수준의 공원·녹지 조성 면적의 확보	1.1.1. 1인당 공원녹지 조성 면적	면적	m ²	11.7	—	13	16	18	공원녹지과
	1.2. 시민의 참여로 가꾸어가는 숲의 도시	1.2.1. 생활 속 생태문화 시민운동 천만그루 나무심기 달성률	수량	만주	—	—	120	650	1,000	공원녹지과
			달성률	%	—	—	12	65	100	공원녹지과
	1.3. 순천만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	1.3.1. 순천만 보전·관리 예산	예산 (건수)	천원 (건)	—	50,000 (2)	150,000 (3)	250,000 (5)	500,000 (10)	순천만보전과
		1.3.2. 두루미 개체수	개체수	마리	1,328	—	2,500	3,000	3,500	순천만보전과
	1.4. 적정수준의 수산자원 관리로 지속가능한 어업실현	1.4.1. 흑부리오리 개체수 비율	개체수	마리	1,920	—	7,079	4,800	6,000	순천만보전과
			비율	%	16	—	59	40	50	순천만보전과
	1.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1.5.1. 녹색건축물 건수와 면적	녹색건축물 신축	m ² (건)	1,818.8 (10)	4,883.96 (40)	1,419.2 (11)	10,000 (60)	15,000 (100)	건축과
			그린 리모델링	m ² (건)	—	—	2,293.94 (6)	12,000 (35)	15,000 (40)	건축과
			건축물 외파녹화	m ² (건수)	—	—	188.7 (2)	1,500 (15)	2,000 (20)	건축과

정책목표	세부목표	지표	구분	단위	지표 연도별 달성 목표					담당부서
					2017	2019	2020	2025	2030	
2. 깨끗한 공기와 물의 순환도시	2.1. 시민 모두가 누리는 깨끗한 하천과 물 순환 도시 조성	2.1.1. 동천과 이사천의 BOD 농도	동천 BOD	mg/L	2.6	—	2.6	2.4	2.0	생태환경과
			이사천BOD	mg/L	0.7	—	0.7	0.6	0.5	생태환경과
		2.1.2.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BOD	mg/L	5.0	—	5.0	5.0	5.0	하수도과
			COD	mg/L	10.0	—	10.0	10.0	10.0	하수도과
			SS	mg/L	5.0	—	5.0	5.0	5.0	하수도과
			T-N	mg/L	11.982	—	11,000	10,000	10,000	하수도과
			T-P	mg/L	0.423	—	0.500	0.500	0.500	하수도과
		2.1.3. 수돗물 수질 만족도	만족도	%	94.2	—	95.0	95.0	96.0	상수도과
	2.2. 공기가 깨끗한 도시 실현	2.1.4.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재이용률	%	2.5	—	3.0	5.0	7.0	하수도과 도시과
		2.2.1. 연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	농도	μg/m ³	20	—	19	17	15	생태환경과
3. 안전하고 모두가 편리한 저탄소 녹색교통	3.1.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자를 줄여 최상의 교통문화지수로 선진교통문화 확립	2.2.2. 8시간 평균 오존 농도	상위1% 농도값	%	0.094	—	0.08	0.07	0.06	생태환경과
		3.1.1. 교통사고 사망자	사망자	명	27	—	22	17	12	교통과
		3.1.2. 교통사고 상해자	상해자	명	2,094	—	1,800	1,600	1,400	교통과
		3.1.3. 교통문화지수	순위	위	3	—	2	2	1	교통과

정책목표	세부목표	지표	구분	단위	지표 연도별 달성 목표					담당부서
					2017	2019	2020	2025	2030	
	3.2.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	3.2.1. 대중교통 만족도	7점 만점	점	4.5	—	5.0	5.5	6.0	교통과
	3.3. 녹색교통 수송 부담률의 증가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3.3.2. 친환경자동차 보급 대수	보급 대수	대	227	—	400	1,000	2,000	생태환경과
4. 시민이 함께 만드는 자원순환 도시	4.1. 폐기물 원천예방과 발생 감소	4.1.1.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발생량	g/일/인	305.0	—	295.9	280.6	265.4	청소자원과
		4.1.2. 1인당 폐기물 발생량	발생량	g/일/인	740	—	720	680	600	청소자원과

○ 교육 분야

정책목표	세부목표	지표	구분	단위	지표 연도별 달성 목표					담당부서
					2017	2019	2020	2025	2030	
5.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5.1. 시민 환경교육의 활성화	5.1.1. 시민환경교육 실시 횟수	횟수	차시	164	—	180	200	300	생태환경과 평생교육과
		5.1.2. 시민환경교육 참여자수	참여자수	명	5,992	—	6,500	8,000	14,000	생태환경과 평생교육과
	5.2. 직업훈련 기회 증진	5.2.1. 직업교육 참여자수	참여자수	명	—	2,500	3,000	7,500	9,500	평생교육과 이동청소년과 투자일자리과
		5.2.2. 직업교육에 대한 만족도	남성	점	—	2.9	3.2	3.7	4.0	평생교육과 이동청소년과 투자일자리과
			여성	점	—	3.1	3.3	3.8	4.0	
	5.3. 양성평등 의식 향상	5.3.1.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비율	비율	%	—	5	7	25	30	여성가족과
		5.3.2.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만족도	남성	점	—	3.2	3.5	3.8	4.0	여성가족과
			여성	점	—	3.2	3.5	3.8	4.0	
	5.4. 인권보호 의식 향상	5.4.1. 인권 및 다양성 이해 교육 프로그램수	인권	차시	—	5	10	25	30	평생교육과 이동청소년과
			다양성	차시	—	5	10	25	30	
		5.4.2. 인권 및 다양성 이해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인권	명	—	50	75	500	1,000	평생교육과 이동청소년과
			다양성	명	—	50	75	500	1,000	

정책목표	세부목표	지표	구분	단위	지표 연도별 달성 목표					담당부서
					2017	2019	2020	2025	2030	
	5.5. 장애인 평생학습 환경조성	5.5.1.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수	참여자	명	15	—	500	1,000	1,500	평생교육과
		5.5.2.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	비율	%	—	—	75	80	85	평생교육과
6. 지역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교육 보장	6.1.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교육거버넌스 운영	6.1.1. 교육민회(정담회) 참여자수	참여자수	명	—	—	150	170	200	평생교육과
		6.1.2. 마을교육공동체 개수	개수	개소	—	18	30	35	40	평생교육과
		6.1.3. 지역화 교육과정 개발 논의 횟수	횟수	차시	—	—	20	30	40	평생교육과
	6.2. 주민이 주인이 되는 평생학습	6.2.1. 지역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수	개수	개	—	—	4	5	6	평생교육과
	6.3. 지역대학과 상생하는 도시	6.3.1. 지역대학 협력 연계사업 개수	개수	개	—	—	11	15	20	평생교육과

○ 복지 분야

정책목표	세부목표	지표	구분	단위	지표 연도별 달성 목표					담당부서
					2017	2019	2020	2025	2030	
7. 차별 없는 복지 더 행복한 순천	7.1. 사회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와 수급자 자녀의 수급 대물림 차단	7.1.1. 수급 대물림 차단비율	비율	%	—	—	-0.1	-0.3	0.5	사회복지과 이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7.2.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	7.2.1.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자살률	%	—	15.3	15.2	15.1	15.0	보건사업과
		7.2.2.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비율	%	—	18 이하	16 이하	14 이하	14 이하 유지	보건사업과 이동청소년과
	7.3. 저출산 극복 및 고령화 대비 아이와 노인이 함께 살기 좋은 행복한 복지 프로그램 확대	7.3.1. 순천시 합계출산율	출산율	%	—	1.34	1.35	1.36	1.37	기획예산실 보건사업과
		7.3.2. 순천시 치매유병률	유병률	%	—	11 이하	10.9	10.8	10.7	보건사업과
		7.3.3. 영유아 및 노인 복지 체감도	체감도	%			0.2% 증가	0.3% 증가	0.5% 증가	이동청소년과 가족보육과 노인장애인과
	7.4. 순천시민의 성평등 의식 확립으로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실현	7.4.1. 여성친화도시 시민만족 체감도	지수	점수 (0~1)		0.065	0.063	0.060	0.055	여성가족과
	7.5. 장애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보장과 복지향상	7.5.1.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율	참여율	%		7	8	10	15	노인장애인과 체육진흥과

○ 자치 분야

정책목표	세부목표	지표	구분	단위	지표 연도별 달성 목표					담당부서
					2017	2019	2020	2025	2030	
8. 주민 주권이 구현되는 도시	8.1.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도시	8.1.1.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시민만족도	%	44.4	50	55	60	65	기획예산실
			주민참여 선호도	%	87.3	87	85	80	75	
		8.1.2. 숙의기반 주민참여 플랫폼 참여자수 (광장토론, 공론조사, 합의회의, 시민회의, 주민배심 등)	참여자수	명	—	1,000	3,000	5,000	10,000	시민주권 담당관
	8.2. 주민 자치가 실현되는 도시	8.2.1.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자치회 구성	개	—	8	14	24	30	자치혁신과
		8.2.2. 마을계획 수립 현황	개최횟수	회	—	8	14	24	24	
		8.2.3. 주민자치 사업예산	주민자치 예산	천원	—	931,584	1,005,000	1,205,000	1,400,000	자치혁신과 총무과
	8.3. 주민 결정권이 강화되는 도시	8.3.1. 주민참여 예산 제안 참여자수	참여자수	개소/명	—	24 /850	30 /1,000	35 /2,000	40 /10,000	자치혁신과
		8.3.2. 24개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	횟수	회		8	14	24	24	자치혁신과
		8.3.3. 년 도별 주민참여 예산	예산	억 원	—	135	150	200	250	자치혁신과 총무과
	9.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는 도시	9.1.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교류 협력	9.1.1. 남북교류촉진을 위한 시민운동, 참여자수	활동참여자 수	개/명	—	5 /700	10 /2,000	10 /2,000	총무과
			9.1.2. 남북교류촉진 민·관 협력 예산	예산금액	백만원	—	300	500	500	총무과

○ 경제·산업 분야

정책목표	세부목표	지표	구분	단위	지표 연도별 달성 목표					담당부서
					2017	2019	2020	2025	2030	
10.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10.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10.1.1. 도시가스 보급률	보급률	%	79	—	82	85	90	지역경제과
	10.2.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 확대	10.2.1.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자립률	%	—	5.8	6.4	13	25	지역경제과
11.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체감 행복도시 구현	11.1. 신산업, 순천다움을 위한 산업육성	11.1.1. 벤처기업인증 기업수	기업수	개	—	—	100	130	150	미래산업과
		11.1.2. 순천시 지역총생산액 증가율	증가율	%	—	-0.2	2	2	2	미래산업과
	11.2. 사회적 경제조직, 전통 시장 육성을 통한 포용적 경제성장	11.2.1.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	조직	수	—	181	235	250	300	지역경제과
		11.2.2 사회적경제 조직 공공구매율	공공 구매율	%	—	5	5	5.5	6	지역경제과
		11.2.3 온누리·순천사랑 상품권 회수액	회수액	백만 원	—	11,491	15,000	18,000	20,000	지역경제과
	11.3. 순천형 좋은 일자리 창출	11.3.1. 고용률	고용률	%	—	62.0	65.0	67.0	70.0	투자일자리과
		11.3.2. 청년고용률	청년 고용률	%		37.0	40.0	42.0	45.0	투자일자리과

○ 문화·관광 분야

정책목표	세부목표	지표	구분	단위	지표 연도별 달성 목표					담당부서
					2017	2019	2020	2025	2030	
12. 머물고 싶은 생태·문화·관광 도시	12.1. 10년 뒤에도 아름다운 생태 관광 도시	12.1.1. 관광만족도	만족도	%	4.19	—	3.3	4.0	4.2	기획예산실 관광과
	12.2. 순천의 역사와 문화, 예술이 축적되고 향유되는 인프라 구축	12.2.1. 역사, 문화, 예술 분야 기관 (또는 공간) 수(인구 천명당 문화기관 시설수)	천명당 시설수 비율 (시설수)	% (개)	0.06 (18)	—	0.43 (122)	0.54 (152)	0.87 (190)	문화예술과
		12.2.2. 기준연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비율	예산 비율	%	2.72	—	2.80	3.00	3.50	기획예산실 문화예술과
	12.3. 생태예술, 문화산업의 아이디어들이 실험되고 개발 구현되는 도시	12.3.1. 자체 기획 문화예술(공연, 전시 등) 건수	문화예술 건수	건	—	—	9	30	45	문화예술회관
		12.3.2. 인근 지자체와 화합해서 하는 공연문화예술 건수	문화예술 건수	건	—	—	9	30	45	문화 예술과

○ 농업 분야

정책목표	세부목표	지표	구분	단위	지표 연도별 달성 목표					담당부서
					2017	2019	2020	2025	2030	
13. 지역 순환형 공동체 농업	13.1.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전문 후계 농업인 육성	13.1.1. 청년후계농 선발 육성	선발인원/년	명	30	13	15	15	15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13.2. 유기농 무농약 농법을 활용한 안전한 농산물 공급 확대	13.2.1.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	비율	%	14.90	15.11	15.13	15.23	15.33	친환경농업과
	13.3. 도·농 교류 확대를 통한 도농상생 기반 구축	13.3.1. 도시농업 텃밭분양 구좌	구좌수	구좌	280	—	400	450	500	기술보급과
		13.3.2. 농촌지역 행사에 참여한 도시지역 인원수(함께 개최한 행사수)	인원 (행사수)	명 (개)	74,479	100,527 (8)	48,394 (4)	110,580 (9)	120,632 (10)	농업정책과
14. 지역민과 공생하는 공동체	14.1. 농·산·어촌 지역주민에 의한 마을개발 활성화	14.1.1. 마을개발 활성화 사업수	사업수	건	—	3	5	7	15	농업정책과 자치혁신과
		14.1.2. 권역 지역주민 참여수	참여인원	명	—	189	198	212	227	농업정책과 (농촌자원팀)
	14.2. 농·어촌 주민의 교육·복지·의료 확대	14.2.1. 농·어촌 주민의 복지 수혜 인원수	인원수	명	—	—	16,891	18,918	20,269	사회복지과
		14.2.2. 농·어촌 지역 의료인수	인원수	명	—	—	116	128	133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14.2.3.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수혜 인원 증가율	비율	%	—	—	40%	44%	48%	평생교육과 순천만보전과

정책목표	세부목표	지표	구분	단위	지표 연도별 달성 목표					담당부서
					2017	2019	2020	2025	2030	
	14.3 로컬푸드를 통한 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	14.3.1. 로컬푸드 참여 농가당 연간 판매액	판매액	천원/월	—	—	1,000	1,200	1,400	농식품유통과 순천만보전과
		14.3.2. 로컬푸드 참여 농가수	농가수	호	2018 기준 419		440	472	503	농식품유통과 순천만보전과
		14.3.3. 지역 농수산물 가공 품목수	품목수	개	2018 기준 617		648	679	710	농식품유통과 순천만보전과
15.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15.1.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	15.1.1. 소농직불금 수혜 농가수	수혜농가	호	—	—	5,405	5,297	5,134	농업정책과 (농업행정)
		15.1.2. 도시근로자 가구당 농가평균 소득액 비율	비율	%	—	—	60.38	65	70	농업정책과
	15.2.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15.2.1. 농촌관광종사자별 평균 매출액	매출액	원/년	60,000	79,000	61,000	82,950	86,900	농업정책과 관광과
		15.2.2. 농촌관광지별 지출대비 수익률	수익률	%	—	2	3	5	10	농업정책과
	15.3. 농·산촌 자연경관 보전	15.3.1. 자연경관 관리비 지출액	지출액	천원	—	—	5,451,446	5,560,475	5,669,504	기획예산실
		15.3.2. 자연경관보전 투자비용	투자비용	천원	—	—	5,003,068	5,103,129	5,203,191	기획예산실
	15.4. 전통종묘 유지와 보급	15.4.1. 전통종자 유지수	유지수	개	200	300	300	300	300	친환경농업과
		15.4.2. 매년 채종되는 종자 품목수	품목수	개	—	130	130	130	130	친환경농업과 기술보급과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

1

K-SDGs 비전 및 전략

비전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국가 실현			
전략	사람	번영	환경	평화·협력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
K-SDGs 17개 목표	[목표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목표2] 식량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목표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목표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목표5] 성평등 보장 [목표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목표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목표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 기반시설 구축 [목표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목표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목표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목표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목표13] 기후변화와 대응 [목표14] 해양생태계 보전 [목표15] 육상생태계 보전	[목표16] 평화·정의·포용 [목표17] 지구촌 협력 강화

K-SDGs 목표별 세부목표 및 지표 목록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세부목표별 지표 목록

번호	세부목표	지표	비고
1-1	남녀노소, 장애여부 등과 관계 없이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1)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성별, 연령집단별, 장애집단여부별)	일부 수정
		(2) 복지 급여(소득보장) 예산 및 GDP 대비 비율	변경
1-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1) 의료비 가계직접 본인부담률	변경
		(2) 고용보험 가입률	변경
		(3)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	일부 수정
1-3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1) GDP 대비 공적사회 지출 비중	유지
		(2)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신설
1-4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1)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 ※ 긴급복지 예산 = 긴급복지지원금+일자리사업	신설
		(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사망률의 비중	신설

목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세부목표별 지표 목록

번호	세부목표	지표	비고
2-1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1)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유지
2-2	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1) 농가소득	유지
		(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유지
2-3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1) 유기농업 인증면적 비율	일부 수정
		(2) 농경지 토양유기물 함량	일부 수정
		(3) 발토양 산도	유지
2-4 (변경)	종자, 작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신품종을 개발한다.	(1)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물유전자원 점수	유지
		(2)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동물유전자원 점수	신설
		(3)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개발된 품종 수	신설
2-5 (변경)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량 접근성을 보장한다.	(1) 정부비축미 평균재고량	일부 수정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세부목표별 지표 목록

번호	세부목표	지표	비고
3-1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대한다.	(1) 심혈관질환, 암, 당뇨,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30~70세)	일부 수정
		(2) 당뇨병 조절률	유지
		(3) 성인 흡연율	일부 수정
		(4) 장애인 만성질환유병률	유지 (번호 변경)
3-2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한다.	(1)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유지
		(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	유지
3-3	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손상을 예방한다.	(1) 인구 1천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유지
3-4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1) 인구 십만 명당 결핵신고 신환자율	일부 수정
		(2) 인구 십만 명당 말라리아 발생률	일부 수정
3-5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1) 모성사망비	일부 수정
3-6 (변경)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1) 출생아 1천 명당 신생아 사망률	일부 수정
		(2)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신설
		(3)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유지 (번호 변경)
3-7 (변경)	기후·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1) 인구가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	변경
		(2) 인체 내 환경유해물질 농도 수준	신설
3-8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1) 영아사망률	신설
		(2)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유지
		(3)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변경
		(4) 기능제한 없는 노인인구 비율	신설
3-9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1) 인구 1천 명당 공공병상수	일부 수정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세부목표별 지표 목록

번호	세부목표	지표	비고
4-1 (변경)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1) 취학률	신설
		(2)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2~6수준 학생 비율)	수정
		(3) 국가수준 학습성과지표 산출	유지(단순 지표명 수정)
4-2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1)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 (well-being)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유지
		(2)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유지
		(3)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유지
		(4)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유지
4-3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1) 고등교육 이수율	유지
		(2)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	신설
		(3)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유지(번호 변경)
4-4 (변경)	디지털화, 기술변화에 따라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1) 평생학습 참여율	유지
		(2)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유지
		(3) 청소년 및 성인의 ICT 역량 수준	신설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계층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1)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유지
4-6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1)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	유지
		(2) 성인 문해율	일부 수정

번호	세부목표	지표	비고
4-7 (변경)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1)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류화 정도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신설
		(2)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교육정책 사업 비율	변경
		(3) 교육과정 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요소 반영 비율	수정
		(4) 교원 중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경험자 비율	수정
4-8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1)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유지
		(2) 학교 내진보강률	유지
		(3) Wee 클래스 설치 비율	유지
4-9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1)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수정
4-10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1) 교사 1인당 학생 수	신설
		(2)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유지(번호 변경)
		(3) 특수교사 1인당 특수학생 수	유지(번호 변경)
		(4)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유지

목표 5 「성평등 보장」 세부목표별 지표 목록

번 호	세부목표	지표	비고
5-1	여성과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신설
5-2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	(1)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	유지
		(2)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유지
		(3)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미검거율	신설
5-3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1) 맞벌이가구 여성대비 남성의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 비율	변경
5-4	정치·경제·공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1)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유지
		(2)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	유지
		(3) 민간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신설
5-5 (변경)	성·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1) 성·재생산권과 건강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마련 여부	변경
		(2)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수행한 비율	신설
		(3) 피임 실천율	신설
5-6 (변경)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여성인력을 양성한다.	(1)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	수정
		(2) 대학교 여성과학기술인력 졸업 현황	신설
5-7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	(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의견 수용률	변경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세부목표별 지표 목록

번호	세부목표	지표	비고
6-1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1) 수돗물 만족도	변경
		(2)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	변경
6-2 (변경)	모두에게 편리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유지
		(2)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대책수립 개소수	신설
6-3 (변경)	수질오염 물질의 수계 유입을 최소화하여 수질개선을 담보한다.	(1) 유역별 물순환율	신설
		(2) 수질목표기준 달성도 (TOC 기준)	일부 수정
		(3) 신규 오염물질 관리 항목 수	일부 수정
6-4 (변경)	물공급 안정성 도모를 위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1) 상수도 누수율	유지
		(2) 지방상수도 자급률	변경
		(3)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신설
6-5 (변경)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다양성을 확대한다.	(1) 서식 및 수변환경 평가지수 (HRI)	변경
		(2) 어류건강성 평가지수 (FAI)	신설
		(3) 습지와 습지보호지역 면적 증감	신설
6-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1) 물 관련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실적	변경
		(2) 수질보전활동지원 예산 반영 비율	신설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세부목표별 지표 목록

번호	세부목표	지표	비고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	(1)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수	유지
7-2 (변경)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한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일부 수정
		(2)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일부 수정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1) 국가에너지효율지표	유지
		(2) 건물에너지효율지표	유지
7-4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한다.	(1) 친환경차 확대 수	유지
		(2) 운송부문 에너지 총소비량	변경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세부목표별 지표 목록

번호	세부목표	지표	비고
8-1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	(1) 연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유지
8-2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1) 인구집단별 고용률(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유지
		(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신설
8-3 (신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한다.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업자 수	신설
		(2) 창업기업 수	신설
8-4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1) 남녀 임금격차	유지
8-5 (변경)	이주노동자, 연소근로자 등 취약그룹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확대한다.	(1) 이주노동자 고용 비율	신설
		(2) 연소근로자 고용 비율	신설
8-6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1) 사고사망만인율	유지
		(2) 전체 재해율	신설

목표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세부목표별 지표 목록

번호	세부목표	지표	비고
9-1 (변경)	대다수 국민에게 정보접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도로 보급률	유지
		(2) 일반국민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변경
9-2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1)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유지
		(2)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	신설
		(3) 산업집중도	신설
9-3 (변경)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혁신을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1) WEF 세계경쟁력보고서 혁신역량부문 10개 지표의 점수	신설
		(2) 세계혁신지수(GII)의 종합점수 또는 혁신산출점수	신설
9-4	국가 연구 인력과 자본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1) GDP 대비 연구개발비	유지
		(2) 경제활동 1천 명당 (전일제) 연구자 수	신설
9-5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유지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 비율	신설

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세부목표별 지표 목록

번호	세부목표	지표	비고
10-1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1) 전체 인구의 균등화한 가구소득 대비 소득 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비율	변경
		(2) 소득격차비율	유지
10-2	나이, 성별, 장애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	(1) 소득 5분위 배율	유지
		(2)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유지(번호 변경)
10-3	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1) 인구집단별 고용률	일부 수정
		(2) 장애인의무고용률	변경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1) GDP 대비 노동소득 분배율	변경
10-5 (변경)	내·외국인 권익을 균형적으로 보장하는 이민정책을 통한 상호문화 이해 환경을 조성한다.	(1) 이주민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국내 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적극적 수용	변경
		(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통합조례 제정률	신설
		(3)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표	신설
		(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민/다문화 교육 이수시간	신설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세부목표별 지표 목록

번호	세부목표	지표	비고
11-1 (변경)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신설
		(2)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	유지 (번호 변경)
		(3)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및 재정 집행액	일부 수정
11-2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1)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유지
		(2) 저상버스 보급률	일부 수정
		(3) 자전거 수단분담률	유지
11-3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 시가화구역 내 이용토지면적 비율	유지
		(2)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	유지
11-4	세계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1) 세계유산 등재건수	유지
		(2)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예산	일부 수정
11-5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1)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인구	일부 수정
		(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국가복구 예산액	유지
11-6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1) 미세먼지 나쁨일수	유지
		(2)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신설
		(3)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일부 수정
11-7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1)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유지
		(2)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비중	유지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세부목표별 지표 목록

번호	세부목표	지표	비고
12-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1)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건수	유지
		(2) 국가 지속가능생산·소비기본계획 수립 여부	유지
12-2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1) 국내 1인당 자원소비량	유지 (단순 단위 변경)
		(2) 물질흐름통계(MFA) 구축 대상 자원수	변경
12-3 (변경)	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을 감소시킨다.	(1) 식품 손실 지수	일부 수정
		(2) 1인당 식품폐기물 발생량	변경
12-4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율	일부 수정
		(2)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	유지
		(3)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유지
12-5	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	(1)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유지
		(2)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	유지
12-6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의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수	일부 수정
		(2) 녹색경영 참여 기업수	신설
12-7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1)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녹색제품 구매율	유지
		(2)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	유지
12-8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1)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유지
		(2)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유지
12-9 (변경)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1)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유지
		(2)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	변경
12-10 (변경)	지속가능한 관광의 확대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1) 지속가능관광의 참여자수	신설
12-11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1)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유지

목표 13 『기후변화와 대응』 세부목표별 지표 목록

번호	세부목표	지표	비고
13-1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1) 방재시설 집행 비율	변경
13-2 (변경)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방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1)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비율	신설
		(2) 기후·에너지 전담기관 설치 지자체 비율	신설
		(3) 적응대책 이행 모니터링 파트너십 운영 지자체 비율	신설
13-3 (변경)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역량을 강화한다.	(1)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이행 비율	신설
		(2) 기후변화 교육 의무화 학교 비율	신설
13-4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유지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세부목표별 지표 목록

번호	세부목표	지표	비고
14-1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1) 수질평가 지수값(WQI)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 달성을	유지
		(2) 해양쓰레기 수거량	유지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1) 갯벌복원면적	유지 (번호변경)
		(2)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	유지 (번호변경)
14-3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1) 외해 평균 pH 농도 적정 범위(8.0~8.2) 유지	일부 수정
14-4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1)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비율 확대	변경
14-5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1)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변경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1) 어가 소득/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유지
14-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1)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유지
		(2) 국내 해양수산과학 기술이전 건수	신설
		(3) 정부의 ODA 중 해양수산분야 무상원조 규모	신설
14-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1) 국내 3톤 이상 4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 보험 가입률	신설
14-9 (신설)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법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한다.	(1) 관련 협약 국내적 수용을 위한 국내 입법 진행율	신설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세부목표별 지표 목록

번호	세부목표	지표	비고
15-1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1)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유지
		(2)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유지
15-2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 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1)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	유지
15-3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유지
15-4 (변경)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고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1)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지정 수 및 개정 수	일부 수정
		(2)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	유지
		(3) 산악지역녹색피복지수	신설
		(4) 종보호지수 (Species Protection Index)	신설
		(5) 전국 야생동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스테이션의 수(1000) 대비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스테이션의 비율	신설
15-5 (변경)	야생생물과 인간 사이 접촉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생물 밀거래를 근절한다.	(1)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일부 수정
		(2) 관리제도가 필요한 야생동물·가축·인간 사이 고위험 접촉점 대비 관리제도가 확립된 접촉점 수의 비율	신설
15-6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1) 외래생물 관리 대상종수	유지
		(2) 산림병해충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	일부 수정
15-7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1)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	유지
		(2) 도심/생활권 복원	유지

목표 16 『평화·정의·포용』 세부목표별 지표 목록

번호	세부목표	지표	비고
16-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1) 범죄율(살인, 강도, 폭력, 성범죄)	변경
		(2) 학교폭력피해 경험	신설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1) 아동학대피해아동 발견수	변경
		(2) 실종아동 미발견건수	신설
16-3 (변경)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한다.	(1) 법률구조건수 증감률	신설
16-4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1) 범죄은닉자산 환수보전 평균액	신설
		(2) 마약범죄건수	신설
16-5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	(1) 부패경험지수	변경
16-6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이행한다.	(1) 정부 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변경
16-7 (변경)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1)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수준	변경
16-8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1)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존재 여부	변경
16-9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1)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건수	신설
		(2) 기본적 자유 침해 경험 비율	신설

번호	세부목표	지표	비고
16-10	개도국 내 폭력,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1) ODA 중 개도국 내 폭력 예방 및 테러·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 역량강화 지원 비중	변경
16-11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일부 수정
		(2) 차별 경험 비율	신설
16-12 (변경)	디지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1) 사이버 침해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변경
		(2) 디지털정보격차 감소율	신설
16-13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증진한다.		유지

목표 17 『지구촌 협력 강화』 세부목표별 지표 목록

번호	세부목표	지표	비고
17-1 (변경)	ODA를 확대하고 개발재원을 다양화한다.	(1) GNI 대비 ODA	유지
17-2	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투자증대를 지원한다.	(1) 개도국과의 교역비중	유지
		(2) 개도국에 대한 투자규모	유지
17-3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1)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내용이 포함된 ODA 전략·정책 건수	변경
17-4 (변경)	전략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한다.	(1) 신남방, 신북방 등과 같은 주요 대외 정책과 연계된 ODA 사업 비율	변경
17-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1) PCSD 원칙의 전략적·입법적 명시, SDG 목표와 국가예산의 연계, SDG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기구 등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여부	변경
		(2) 전년 대비 개선된 K-SDGs 지표 비율	변경
17-6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1) 다자간 국제협력협의체 운영 및 다자간 협력대화 건수	변경
17-7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1) SDGs 이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기관 및 정례회의 건수	유지
		(2) ODA 민관협력 재원의 비율	신설

[첨부자료3]



SDGs 글로벌 지표 리스트

○ 제70차 유엔총회('15.9.)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

- SDGs는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를 망라하는 17개 목표(Goal) 및 169개 세부목표(Target)로 구성
- 유엔은 목표의 이행 정도를 지표(Indicator)를 통해 측정, 평가할 예정
(※ 지표 세부 리스트는 불임 수록)

[표] 목표, 세부목표, 지표 수 현황

목표	세부목표 수	지표 수
1. 빈곤종식	7	12
2. 기아해소와 지속가능농업	8	14
3. 건강 및 웰빙	13	26
4. 양질의 교육	10	11
5. 양성평등	9	14
6. 물과 위생	8	11
7. 에너지	5	6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12	17
9. 혁신과 인프라	8	12
10. 불평등완화	10	11
11. 지속가능한 도시	10	15
12.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11	13
13. 기후변화 대응	5	7
14. 해양 생태계	10	10
15. 육상 생태계	12	14
16. 평화와 정의, 제도	12	23
17. 파트너십	19	25
합	169	241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세부목표(7개)	지표 (12)
1.1 2030년까지 현재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 등 모두를 위해 모든 곳에서 극심한 빈곤을 종식	1.1.1 국제 빈곤선 미만으로 살고 있는 (도시/농촌)인구 비율 (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리적 위치별)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차원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의 비율을 최소 절반으로 감소	1.2.1 국가 빈곤선 미만으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별 및 연령별)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의 비율
1.3 모두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국가별로 적절한 사회적 보호체계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	1.3.1 사회적보호 최저선/체계의 적용을 받는 인구비율 (성별, 특수아동, 실업자, 노령자, 장애인, 임산부/신생아, 산업재해피해자, 소외계층별)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기본 공공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유산,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1.4.2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서를 가지고 토지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가지거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실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전체 성인의 비율(성별, 및 보유형태별)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개발하고, 기후와 관련된 극심한 사태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	1.5.1 인구 100,000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5.2 국제 GDP와 비교해서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 1.5.3 국가 그리고 지방수준에서 재난 위험 축소 전략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
1.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게 모든 차원에서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협력 증진을 포함하여 상당한 양의 자원의 동원을 보장	1.a.1 정부에 의해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직접 할당되는 자원의 비율 1.a.2 정부의 총 지출 중 필수 서비스 (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에 소요되는 지출 비율
1.b 빈곤종식 활동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 인지적 개발전략을 기초로 한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성	1.b.1 여성, 빈곤층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문으로 지출되는 정부의 반복적인 자본의 지출 비율

목표 2. 기아종식,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 개선의 달성 및 지속 가능 농업 강화



세부목표(8개)	지표 (14)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 및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일년 내내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2.1.1 영양 부족 현황(POU) 2.1.2 식량 불안 경험 척도(FIES)를 기준으로, 중간 혹은 극심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에 처해있는 인구 현황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부족을 종식시키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 필요에 대응	2.2.1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연령대비 신장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간 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미만인 발육 부진 현황 2.2.2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신장 대비 체중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간 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 또는 <-2 인 영양 불량 현황 (형태별: 저체중, 과체중)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통해 소규모 식량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업자 및 어민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로 증가	2.3.1 노동단위당 생산량 (농업, 축산업, 산림업 사업체 규모별) 2.3.2 소규모 식량 생산업자의 평균 소득 (성별, 토착상태별)
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기상 이변, 가뭄, 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토지와 토양의 질을 점진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보장하며, 회복력 있는 농업 경영 이행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면적 비율
2.5 2020년까지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변화된 종자 및 식물 은행 등을 통해 종자, 재배식물, 가축과 사육동물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에 대한 접근을 개선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종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원의 수 2.5.2 멸종 위기에 있는, 멸종 위기에 있지 않은, 혹은 알려지지 않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류되는 지역품종의 비율
2.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농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 지역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에 대한 투자 확대	2.a.1 정부 지출의 농업 편향 지수 2.a.2 농업 부문에 대한 공식적인 전체 지원금 (공적개발원조와 다른 공식적인 지원금을 합한 금액)
2.b 도하개발라운드 지침에 따라 모든 형태의 농업 수출보조금과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모든 수출조치에 대한 병행적 제거를 통해 전세계 농산물 시장내 무역 제한 및 왜곡을 시정하고 예방	2.b.1 생산자 지원 추정치 2.b.2 농업 수출지원금
2.c 식료품 시장과 시장 파생상품의 적절한 기능을 확보하고 극심한 식량 가격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해 식량비축분을 포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시의적절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선택	2.c.1 식품 가격의 이상치 지표(IPA)

목표 3. 건강 및 웰빙



세부목표(13개)	지표 (26)
3.1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산모사망 비율을 10만 생명 출산 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3.1.1 산모 사망률(MMR)
	3.1.2 숙련된 보건인력이 진료에 참여한 생명출산의 비율
3.2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신생아 사망률을 정상출산 1000명당 최대 12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5세 이하 유아의 사망률을 정상출산 1000명당 최대 25명 이하가 되도록 하는 등, 예방 가능한 신생아와 5세 이하 유아 사망 종식	3.2.1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3.2.2 신생아 사망률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열대 풍토성 소외질환 등 전염병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에이즈 감염자의 수(연령별, 성별 및 주요 인구별)
	3.3.2 연간 1,000명당 TB(결핵) 발병건수
	3.3.3 연간 1,000명당 말라리아 발병건수
	3.3.4 해당 연도 내 인구 10만 명당 신규 B형 간염 감염자수
	3.3.5 소외열대성질환에 대한 치료를 요하는 인구 수
3.4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1/3만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 및 웰빙을 증진	3.4.1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3.4.2 자살로 인한 사망률
3.5 마약 및 알코올의 해로운 사용을 포함한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	3.5.1 약물남용 장애 치료 (의약, 심리사회적, 재활 및 사후관리 서비스) 보장 범위
	3.5.2 국가별 상황에 따라, 주어진 회계연도 안에 (15세 이상의 인구가) 소비하는 1인당 순 알코올 리터 소비량으로 정의되는 알코올의 해로운 이용
3.6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전 세계 사망 및 상해건 수를 절반으로 감소	3.6.1 도로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사망률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목적을 포함한 성 그리고 임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임신보건을 국가전략 프로그램에 통합을 보장	3.7.1 현대화된 방식의 가족계획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임신 가능한 연령대(15~49세) 여성의 비율
	3.7.2 동일 연령대 여성 1,000명당 청소년 (10-14세, 15-19세) 출산율

목표 3. 건강 및 웰빙



세부목표(13개)	지표 (26)
3.8 재정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가 있으며 적당한 가격의 양질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보편적인 보건 서비스 달성	3.8.1 일반 대중과 가장 취약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임신, 모성, 신생아 및 아동 건강, 전염병, 전염되지 않는 질병 그리고 서비스 능력 및 접근성 등을 포함하는 추적개입을 기초로 제공되는 필수 서비스의 보장으로 정의되는 필수 보건 서비스 범위
	3.8.2 인구 1,000명 당 건강 보험이나 공중 보건 시스템으로 보호를 받는 인구 수
3.9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양의 공해와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건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3.9.1 집 그리고 집 주변의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3.9.2 안전하지 않은 물, 하수처리 그리고 부족한 위생시설(안전하지 않은 WASH 서비스)로 인한 사망률
	3.9.3 의도하지 않은 중독에 의한 사망률
3.a 적절한 경우, 모든 국가에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강화	3.a.1 15세 이상 인구 중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인구의 연령대별 현황
3.b 주로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성 혹은 비전염성 질병을 위한 백신과 의약품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유연성에 관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상의 조항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및 공중보건 도하선언에 따라 적당한 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 제공하고 특히 모두를 위해 의약품 제공	3.b.1 적당한 가격으로 의약품 및 백신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총 순 투자
3.c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 도서개도국에서 보건 재정과 보건인력 모집, 양성, 훈련 및 유지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3.c.1 보건근로자 밀도 및 분포
3.d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조기 경보, 위험 감소, 국가적 혹은 국제적 보건위험에 대한 관리 역량 강화	3.d.1 국제 보건 규정에 의한 수용능력 및 응급대처능력

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생 교육 기회 증진



세부목표(10개)	지표 (11)
4.1 2030년까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무상의 공평한 양질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모든 소년, 소녀들에게 보장	4.1.1 (a) 초등학교에서 3/2 이상을 마친 (b) 초등학교 졸업학년 (c) (i) 읽기 및 (ii) 수학에서 최소한의 숙련도를 보이는 중학교 졸업학년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 비율 (성별)
4.2 2030년까지,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소년과 소녀들이 양질의 조기 아동개발, 보육, 그리고 초등학교 사전교육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	4.2.1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행복 측면에서 발달과정에 있는 5세 미만 아동의 비율 (성별) 4.2.2 (공식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되기 전 한 해 동안) 체계적 교육에 대한 참여율 (성별)
4.3 2030년까지 대학교육을 포함하여 적당한 양질의 기술, 직업, 그리고 고등교육에 모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	4.3.1 지난 12개월 동안 공식 및 비공식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성별)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기술적, 혹은 직업적인 능력을 갖춘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4.4.1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가진 청소년/성인의 비율 (능력유형별)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에게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 훈련에 동등한 접근 보장	4.5.1 (여성/남성, 농촌/도시, 부의 하위/상위 20% 및 장애상태, 토착민, 분쟁피해자 등 기타: 데이터가 제공되는 기준에 의한) 동등성 지수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 및 남녀 성인 상당 수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	4.6.1 해당 연령대 중 기능적인 능력 즉, (a) 독해 및 (b) 산술 능력에서 적어도 특정 수준의 숙련도를 갖춘 인구의 비율 (성별)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양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함에 대한 공감을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	4.7.1 (i) 세계시민의식 교육 (ii)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범위
4.a 아동, 장애 및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세우고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인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	4.a.1 (a) 전기; (b) 교육 목적의 인터넷, (c) 교육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들을 위한 개선된 교육기반 시설 및 자원 (e) 기본적인 식수 시설; (f) 성별로 구분되는 기본적인 위생시설 그리고 ;(g)(WASH 지표 정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손 씻기 시설에 접근 가능한 학교의 비율
4.b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 개도국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 기술, 공학, 과학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고등 교육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장학금 수를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	4.b.1 장학금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의 규모 (분야 및 연구 형태별);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 개도국의 교사연수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사의 공급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	4.c.1 (a) 유치원교육; (b) 초등교육 (c) 중등교육; (d) 고등교육 교사 중에서 해당 국가에서 해당 수준의 수업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체계적인 교사연수(예: 교육 훈련)를 사전에 혹은 재직 중 받아 본 적이 있는 교사의 비율

목표 5. 양성 평등 달성 그리고 모든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



세부목표(9개)	지표 (14)
5.1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5.1.1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 강제 그리고 모니터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 지 여부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다른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	5.2.1 성경험이 있는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이전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물리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이들의 비율(폭력의 형태와 연령 그룹별) 5.2.2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성적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들의 비율(연령그룹 및 사건 발생 장소별)
5.3 아동 결혼, 조혼, 강제결혼, 그리고 여성할례와 같은 모든 형태의 유해한 관습 제거	5.3.1 15세 이전에 결혼하거나 18세 이전에 동거를 시작한 20-24세 연령의 여성들의 비율 5.3.2 여성할례를 경험한 15-49세 연령의 소녀 및 여성의 비율 (연령별)
5.4 공공서비스, 기반시설 그리고 사회적 보호정책의 제공하고, 국가별로 적절하게 가정내 가족의 책임분담을 유도함으로써 무상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	5.4.1 무상 돌봄과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율 (성별, 연령그룹 및 지역별)
5.5 정치, 경제, 그리고 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리더십에 대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동등한 기회를 보장	5.5.1 국회 및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 5.5.2 관리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비율
5.6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계획과 베이징 행동강령 및 그 검토회의 결과문서에서 합의한 대로 성 및 임신 보건과 임신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임신보건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의 여성 비율 5.6.2 15-49세 여성에게 성관계 및 임신 관련 보건 정보 및 교육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의 수
5.a 국가의 법률에 의거해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주고, 토지나 다른 형태의 자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금융서비스, 유산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개혁에 착수	5.a.1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 (성별) (b)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 (보유기간별) 5.a.2 토지소유나 통제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관습법을 포함한)법률적 기반을 갖춘 국가의 비율
5.b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실용기술 특히, 정보통신 기술 이용을 증진	5.b.1 휴대폰을 소유한 개인의 비율 (성별)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신장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과 집행가능한 법률 채택하고 강화	5.c.1 양성 평등과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공공재원을 할당하고 추적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의 비율

목표 6. 모든 사람에게 물과 위생에 대한 가용성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



세부목표(8개)	지표 (11)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의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6.2 2030년까지, 여성과 소녀 및 취약계층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과 개인청결에 대한 접근을 달성하고 노상배변을 금지	6.2.1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시설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유해 화학물질 투기 근절 및 배출 최소화를 통해 미처리된 하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폐수의 비율
	6.3.2. 양질의 주변 수원을 갖고 있는 수역의 비율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물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인구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담수의 취수와 공급을 보장	6.4.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사용 효율성의 변화 비율
	6.4.2 물 스트레스 수준: 이용 가능한 담수 자원의 부분으로서 담수의 취수
6.5 2030년까지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하여 통합된 물 자원 관리 이행	6.5.1 통합 수자원관리 (IWRM) 이행 정도 (0~100)
	6.5.2 물 협력을 위해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초국경 유역의 비율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	6.6.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범위의 변화
6.a 2030년까지, 집수, 담수화, 물 효율성, 폐수 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하여 물 및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국제협력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 구축지원을 확대	6.a.1 정부 주도의 지출 계획의 일부인 물 및 위생 관련 공적개발원조 금액
6.b 물과 위생 관리 개선에 있어 지역 공동체참여를 지원하고 강화	6.b.1 물과 위생관리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행정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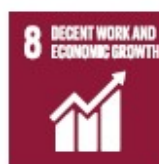
목표 7.
모든 사람에게 적당한 가격의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보장



세부목표(5개)	지표 (6)
7.1 2030년까지 적당한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7.1.1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 7.1.2 주로 청정연료 및 기술에 의존하는 인구비율
7.2 203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7.2.1 에너지 소비의 최종단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을 2배로 증대	7.3.1 1차 에너지와 GDP의 측면에서 측정된 에너지 집약도
7.a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및 향상된 청정 화석연료 기술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	7.a.1 약속한 1천 억달러 투입에 대해 2020년부터 실제 동원되는 연도별 금액
7.b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 개도국 그리고 내륙개도국에 각국의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기술을 개선	7.b.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과 기술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해외 직접투자금액과 에너지 효율성투자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목표 8.

모두를 위해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



세부목표(12개)	지표 (17)
8.1 국가별 상황에 맞게 1인당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특히 최빈국은 최소한 연간 7% GDP 성장률 유지	8.1.1 1인당 실질 GDP의 연 성장률
8.2 고부가가치 및 노동집약적 부문에 초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다변화, 기술 향상 및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을 달성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의 연 성장률
8.3 생산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지향적 정책을 진흥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통해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공식화와 성장을 독려	8.3.1 비농업부문으로의 비공식 취업 비율 (성별)
8.4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0개년 계획에 따라, 선진국들이 주도적으로 소비와 생산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자원 효율성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환경악화로 부터 분리시키도록 노력	8.4.1 재로 발자국(=자원의 범위), 1인당 자원의 범위, GDP당 자원의 범위 8.4.2 국내 자원 소비량, 1인당 국내 자원 소비량, GDP당 국내 자원 소비량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남성과 여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 달성	8.5.1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평균 시간 수당 (직업별, 연령별 및 장애인별) 8.5.2 실업률 (성별, 연령별, 장애인별)
8.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소년(15-24세)의 비율
8.7 강제노동 근절, 현대식 노예 및 인신매매 종식, 소년병 동원 및 징집 등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금지 및 근절.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근절	8.7.1 아동 노동을 하고 있는 5-17세 아동들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별)
8.8 이주 근로자, 특히 여성이주자 및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를 위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증진	8.8.1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 재해 빈도 비율(성별 및 이주자 상태별) 8.8.2 국제노동기구(ILO) 원문과 국가 법 조항에 의거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을 준수하는 국가의 증가 (성별, 이주자 상태별)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제품들을 증진하는 지속 가능 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들의 설계 및 시행	8.9.1 전체 GDP와 성장률 중 관광 직접 GDP 비율 8.9.2 전체 일자리 및 일자리 성장률 중 관광산업 관련 일자리의 수 (성별)
8.10 은행, 보험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독려하고 확대하기 위해 국내 금융 기관의 역량 강화	8.10.1 성인 100,000명 당 상업적인 은행 지점들과 ATM의 개수 8.10.2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지거나 개인적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15세 이상) 성인 비율
8.a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해 강화된 통합체계를 통해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역 원조 지원의 증대	8.a.1. 무역거래 및 대금지급 원조
8.b 2020년까지 청년실업에 대한 글로벌 전략 수립 및 운영; 국제노동기구의 ILO Global Jobs Pact 이행	8.b.1 국가예산 및 GDP 대비 사회보장 및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총 지출액

목표 9. 혁신과 인프라



세부목표(8개)	지표 (12)
9.1 모두를 위해 적당한 가격으로 공평하게 접근하는 것을 초점에 두고, 경제개발과 인간의 복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적, 초국경적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양질의 신뢰할수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개발	9.1.1 사계절 도로 반경 2km내 거주하는 지방 인구의 비율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 (운송수단별)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별 상황에 따라 고용과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산업의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증대하며, 최빈개도국의 경우 그 비율을 2배로 증대	9.2.1 1인당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9.3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소규모 산업과 기타 기업이 적당한 신용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늘리고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을 증진	9.3.1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9.3.2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9.4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역량에 따라 조치를 취해, 자원효율성이 높고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과 산업화 과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산업을 개편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부여	9.4.1 부가가치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5 2030년까지, 인구 백만 명 당 연구 개발 증사자의 수와 공공/민간 연구 개발 지출 대폭 증가 및 혁신 장려 등을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과학 연구 강화,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 향상	9.5.1 GDP 대비 연구 개발 지출
	9.5.2 거주자 백만 명당 (풀타임에 준하는) 연구원 수
9.a 아프리카 국가들, 최빈국들,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강화된 금융, 기술, 전문적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에서 지속 가능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인프라 개발 촉진	9.a.1 기반시설에 지원되는 (공적개발원조와 다른 공식적인 자금을 합한) 공식적인 국제적 지원 총액
9.b 산업 다변화, 상품가치를 더 하는 정책환경을 조성하여 개발도상국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 지원	9.b.1 총 부가가치 중 중·고급 기술 산업 부가가치의 비율
9.c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을 상당히 늘리고,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에서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이고 적당한 가격으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9.c.1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기술별)

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세부목표(10개)	지표 (11)
10.1 2030년까지 소득하위 40% 인구의 소득성장률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달성 및 유지	10.1.1 하위 40% 인구 및 총 인구 중 가구지출 또는 1인당 소득의 성장률
10.2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강화하고 증진	10.2.1 중위소득 50% 이하의 인구 비율(연령, 성, 및 장애인별)
10.3 차별적인 법,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입법, 정책 그리고 조치를 강화하여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성과에 있어서 불평등을 감소	10.3.1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
10.4 재정, 임금, 그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평등확대를 달성	10.4.1 임금 및 사회보장이전으로 구성된 GDP 중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
10.5 세계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이와 같은 규제의 이행을 강화	10.5.1 재정 건전성 지표
10.6 더 효과적이고 신뢰할 만하며 책임있는 합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제경제 및 금융기구 의사결정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대표성과 발언권 강화를 보장	10.6.1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발도상국의 비율
10.7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을 통해 질서있고 안전하며 정기적이고 책임있는 인구의 이주와 이동을 촉진	10.7.1 이주국가에서 얻은 연간소득 대비 이주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비율 10.7.2 잘 관리되는 이주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
10.a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국가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차등대우 원칙 이행	10.a.1 관세가 없는 최빈국/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선 비율
10.b 국가별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도움이 가장 필요한 최빈개도국, 아프리카 국가, 군서도서 및 내륙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와 자금 거래를 독려	10.b.1 개발을 위한 자원투입 총액(예: 공적개발원조, 해외직접투자 및 기타 투입)
10.c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거래비용을 3% 미만으로 줄이고, 송금비용이 5%를 넘는 송금경로를 제거	10.c.1 송금된 금액 대비 송금 비용

목표 11. 지속가능도시



세부목표(10개)	지표 (15)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당한 가격의 주택 및 기초서비스에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를 개선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불충분한 시설을 가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도시인구의 비율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의 수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도로안전성을 개선하고,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접근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대한 접근을 제공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연령별, 성별 및 장애인별)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지속가능 인간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	11.3.1 인구증가를 대비 토지 소비 비율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의 비율
11.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	11.4.1 세계문화유산을 포함하는 국가문화·자연유산의 보전,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국가(또는 지방)예산의 비율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수를 대폭 줄이고 세계 총 GDP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	11.5.1 인구 100,000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을 포함하여,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
11.6 2030년까지 대기의 질과 도시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하면서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1인당 환경영향을 감소	11.6.1 도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고형 폐기물 중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최종처리단계를 거치는 도시 고형 폐기물 비율 11.6.2 도시 미세먼지(PM2.5초미세먼지와 PM10미세먼지)의 연평균수준 (인구수에 따른 가중)
11.7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방된 시가지 지역이 차지하는 평균비율 (연령, 성 및 장애인별)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비율 (성별, 연령별, 장애상태별, 발생 장소별)
11.a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근교도시 그리고 농촌간의 긍정적인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연결고리를 지원	11.a.1 인구 추계와 자원 수요를 통합하는 도시 지역 발전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 (도시 크기별)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재난회복력을 위한 통합된 정책, 계획을 채택, 이행하는 도시와 인간 거주지의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하고, 2015-2030 센다이 재난위험감축체계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전체적인 재난위험 관리를 개발하고 이행	11.b.1 센다이 재난위험감축체계 (2015-2030)에 따라 지역적인 재난위험 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지방 정부의 비율 11.b.2 국가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재난위험 감축전략을 갖춘 국가의 수
11.c 지역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을 가진 건물을 짓는 데 금융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해 최빈개도국을 지원	11.c.1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으며 자원 효율적인 건물을 짓고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재정 지원 비율

목표 12.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세부목표(11개)	지표 (13)
12.1 개발도상국의 개발역량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가 행동에 참여하되 선진국이 주도하면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10년 주기 프로그램 이행	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SCP) 국가 실행계획이나 SCP를 주류화 하는 계획을 국가정책 우선순위 혹은 세부목표로 갖고 있는 국가들의 수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 달성	12.2.1 재료 발자국(=자원의 범위), 1인당 자원의 범위, GDP당 자원의 범위 12.2.2 국내 자원 소비량, 1인당 국내 자원 소비량, GDP당 국내 자원 소비량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식량낭비를 1/2로 줄이고, 수확후 손실을 포함하여 식량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량 손실 감소	12.3.1 세계 식량 손실 지수(GFLI)
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체계에 따라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에 대해 생애주기 동안 친환경적인 관리를 달성하고, 이들이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크게 감소	12.4.1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환경 다자 협약에 참여해, 각 규정에서 요구되는 정보전달의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자의 수 12.4.2 1인당 발생하는 유해폐기물, 유형별로 처리되는 유해 폐기물의 비율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12.5.1 국가 재활용 비율, 재활용되는 다수의 물질
12.6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채택하고, 지속 가능성 정보를 보고주기에 통합하도록 독려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
12.7 국가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	12.7.1 지속 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들과 실행 계획들을 이행하는 국가들의 수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보장	12.8.1 (i) 세계시민의식 교육 (ii) 기후변화 교육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범위
12.a 개발도상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양식을 지향할 수 있게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	12.a.1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지원되는 금액
12.b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화 및 상품을 홍보하는 지속가능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발전의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	12.b.1 합의된 모니터링과 평가수단을 가진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이나 정책 그리고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
12.c 개발도상국의 특정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면서, 빈곤층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 개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세제를 개혁하고 해로운 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을 반영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상황에 따라 시장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적 소비를 조정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	12.c.1 GDP 단위 (생산과 소비)당, 그리고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지출 총액 중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목표 13.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대응



세부목표(5개)	지표 (7)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 강화	13.1.1 국가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재난위험 감축전략이 있는 국가의 수 13.1.2 인구 100,000명 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3.2 기후변화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	13.2.1 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않는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회복력을 기르며,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는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통합된 정책/전략/계획의 수립과 운용을 홍보하는 국가의 수 (국가 적응계획, 국가적으로 결정된 분담, 국가차원의 홍보, 격년별로 갱신되는 보고서 등)
13.3 기후 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 고취, 인구 및 제도 역량 개선	13.3.1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1차, 2차, 3차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국가들의 수 13.3.2 적응, 완화, 그리고 기술 이전 및 개발 이행을 위한 기관, 체계, 그리고 개인적인 역량 강화를 홍보한 국가의 수
13.a 의미있는 완화조치와 이행에 관한 투명성의 맥락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가급적 조속한 자금 출자를 통해 녹색변화기금의 온전한 운용을 위해서, 2020년까지 모든 원천으로부터 매년 1,000억 달러를 공동으로 동원하겠다는 목표하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선진국 당사자의 공약을 이행	13.a.1 약속된 1천 억달러 투입에 대해 2020년부터 실제 동원되는 연도별 금액
13.b 여성, 청년, 그리고 지역 및 소외 공동체를 초점에 두고,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계획 및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메커니즘을 촉진	13.b.1 여성, 청소년, 및 지역 및 소외 공동체에 초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메커니즘 개발을 위해 금융 및 기술 지원 등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최빈 개도국과 군소 도서개도국의 수

목표 14. 해양생태계



세부목표(10개)	지표 (10)
14.1 2025년까지 해양 쓰레기와 영양염류 오염을 포함하여 특히 육지기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14.1.1 해안 부영영화 및 유동 플라스틱 잔해밀도 지수
14.2 2020년까지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 및 보호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대양으로 만들기 위해 복구 조치들을 이행	14.2.1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관리되는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비율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이에 대응	14.3.1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 산도(pH)
14.4 최소한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지속가능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능한 한, 최단 기간에 어족자원을 복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효과적으로 어획을 규제하고, 남획, 불법, e비보고, 비규제 어업 및 파괴적인 어업관행을 종식하며, 과학에 기초한 관리계획을 이행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 이내의 어족자원의 비율
14.5 2020년까지 현재의 과학적 정보를 기초로하고 국가 및 국제법과 부합하는 방식에 따라 최소한 연안 및 해양지역의 10% 보존	14.5.1 해양지역 대비 보호구역의 범위
14.6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형태의 어업 보조금 금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 도입 자제	14.6.1 불법적, 보고되지 않은, 그리고 규제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수단을 이행하는 정도에 있어서의 국가별 진전
14.7 2030년까지 수산업, 양식업 및 관광산업의 지속가능관리를 포함하여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통하여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도국의 경제적 이익 증대	14.7.1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14.a 해양건강을 개선하고 개발도상국, 특히 군소도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개발에 대한 해양 생물 다양성의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간해양학위원회의 기준과 지침을 고려하여 과학적 지식 증대, 연구역량 개발 및 해양기술 이전	14.a.1 해양기술부문 연구에 할당되는 전체 연구 예산의 비율
14.b 소규모 영세어업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성 제공	14.b.1 소규모 영세어업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해 주고 보호할 수 있는 법/규정/정책/제도적인 기반을 실행 단계에서의 국가별 진전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 보고서의 158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대양 및 대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체계를 제시하는 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이행을 통해 대양 및 대양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개선	14.c.1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법을 이행하는 법적,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인 기반 그리고 대양 관련 수단들을 비준, 수용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목표 15. 육상생태계



세부목표(12개)	지표 (14)
15.1 2020년까지, 국제 협약 의무에 따라, 특히 산림, 습지, 산, 건조지 등의 육지 및 내륙 담수 생태계와 그 서비스에 대한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	15.1.1 총 육지면적중 산림 면적의 비율 15.1.2 육상 및 담수 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요 지역의 비율
15.2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시키고, 산림벌채를 중단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림과 재 식림을 대폭 확대	15.2.1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서의 진전
15.3 2030년까지, 사막화 퇴치와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황폐화된 토지 및 토양 복원, 그리고 토지 황폐화 중립 세계 달성을 위해 노력	15.3.1 총 토지 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15.4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을 포함하여 생태계 보호	15.4.1 산 생물 다양성을 위한 중요 장소 보호구역 범위 15.4.2 산 녹색 보호 지수
15.5 자연 서식지의 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중단시키며, 2020년까지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	15.5.1 레드리스트 지수
15.6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증대	15.6.1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인 기반을 채택한 국가의 수
15.7 보호대상 동식물 밀렵과 밀매를 종식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야생동식물 제품의 수요와 공급 모두에 대응	15.7.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15.8 2020년까지 외래 침입종 유입예방과 이들이 육지 및 수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우선순위를 통제하거나 퇴치	15.8.1 외래침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15.9 2020년까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가 및 지역 계획·개발 과정 그리고 빈곤감소 전략에 통합	15.9.1 2011-2020 생물 다양성 전략계획의 Aichi 생물 다양성 목표2에 따라 수립된 국가 목표의 진전도
15.a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모든 원천으로부터 자원 동원하고 증대	15.a.1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b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모든 수준과 모든 원천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자원을 동원하고, 보존 및 재조림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동기를 제공	15.b.1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c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계기회 추구 역량 증대를 통해 보호종의 밀렵과 밀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국제적 지원강화	15.c.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목표 16.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세부목표(12개)	지표 (23)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16.1.1 인구 100,000 명당 의도된 살인범죄의 피해자 수 (연령별 및 성별)
	16.1.2 인구 100,000 명당 분쟁관련 사망 (연령별, 성별 및 사유별)
	16.1.3 지난 12개월 동안 육체적, 심리적, 성적폭력에 노출된 인구의 비율
	16.1.4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홀로 안전하게 걷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의 육체적인 체벌이나 정서적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16.2.2 인구 100,000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중 파악되거나 파악되지 않은 인구 수; (성별, 연령별, 착취형태별)
	16.2.3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18-24세 여성과 남성의 비율
16.3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수준의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16.3.1 지난 12개월간 폭력 피해자 중 피해를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을 통해 신고한 인구 비율
	16.3.2 전체 교도소 수용자 중 판결이 나지 않은 수감자의 비율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거래를 상당한 수준으로 줄이고, 도난자산 회수 및 복구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를 방지	16.4.1 국내 및 해외 불법 반입 자금의 총 가치 (현재 US달러 기준)
	16.4.2 국제 규범 및 법적절차에 따라 기록 및 추적되고 압수된 휴대용 소형 무기의 비율
16.5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16.5.1 지난 12개월 간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16.5.2 지난 12개월간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인의 비율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액의 비율 (부문별 또는 예산코드 및 이와 유사한 기준별)
	16.6.2 공공서비스에 관한 가장 최근 경험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비율
16.7 모든 수준에서 공감할 수 있고, 포용적이며, 참여지향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의사결정을 보장	16.7.1 국가 전체적 분포와 비교했을 때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보직 분포비율(연령, 성별, 장애인 및 인구집단별)
	16.7.2 의사결정이 통합적이고 호응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성별, 연령별, 장애, 및 인구 집단별)
16.8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에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	16.8.1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발도상국 비율
16.9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신원 제공	16.9.1 출생시 시 행정 당국에 등록된 5세 이하 유아비율 (연령별)
16.10 국내법 및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 보호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무역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해, 납치, 강요된 실종, 임의구금 및 고문으로 확인된 사건 수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6.a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폭력 예방 및 테러나 범죄 방지를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역량구축을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관련 법규나 제도를 강화	16.a.1 파리규정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관의 존재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 그리고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	16.b.1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근거해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 (연령별, 성별)

목표 17. 파트너십



세부목표(19개)	지표 (25)
17.1 세금 및 기타 수익 징수를 위한 국내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통한 국내 자원 동원 강화	17.1.1 총 GDP 대비 정부 세수 총액(출처별) 17.1.2 국내세금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국내 예산의 비율
17.2 개발도상국에는 ODA/GNI 0.7%, 그리고 최빈개도국에는 ODA/GNI 0.15-0.2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다수 선진국의 공약을 포함하여, 선진국들은 공적개발원조(ODA) 약속을 완전히 이행; ODA 공여국들이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의 최소 0.20% 제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장	17.2.1 OECD/개발 원조 위원회(DAC)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1) ODA 순액의 비율 2) ODA 총액의 비율 3) LDC(최빈국)에 대한 ODA 비율
17.3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을 위한 추가자원을 동원	17.3.1 총 국내예산 중 해외 직접 투자, 공적개발 원조 및 남남 협력의 비율 17.3.2 총 GDP 중 송금액(미국달러기준)의 비율
17.4 필요할 경우, 채권금융, 채무 탕감 및 채무 재조정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조정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장기 채무건전성 확보를 지원하고, 채무 위기 완화를 위해 고채무빈국의 외채문제에 대응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채무상환
17.5 최빈국을 위한 투자 촉진 체제 도입 및 이행	17.5.1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 체제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7.6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남북, 남남, 삼각형태의 지역적, 국제적 협력 및 접근을 강화하고 특히 UN 수준에서 현재 메커니즘간 조율을 개선하고 글로벌 기술 촉진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지식의 공유를 강화	17.6.1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협정과 프로그램의 수 (협력 형태별) 17.6.2 거주자 100명당 고정 인터넷 광대역 가입률 (속도별)
17.7 상호합의에 따라 양허, 특허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전파 및 확산을 증진	17.7.1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배포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지원액 중 총 승인금액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구축 메커니즘 운영을 전면 가동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위주의 핵심기술 사용을 강화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17.9 남북, 남남, 삼각 협력 등을 통해,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지원할 개발도상국의 효과적, 선별적 역량구축 이행에 국제적인 지원을 강화	17.9.1 개발도상국으로의 (남북, 남남, 그리고 삼각 협력을 포함하는) 재정 및 기술 지원의 달러 가치
17.10 도하개발의제 협상 결론으로 세계무역기구 관리하에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개방적이며 비차별적이고 공평한 다자무역체제를 증진	17.10.1 국제 가중 관세 평균치

목표 17. 파트너십



세부목표(169개)	지표 (241)
17.11 2020년까지 특히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중을 2배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17.11.1 전세계 수출 가운데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수출비중
17.12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가능한 특혜원산지 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접근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서 세계무역기구 결정에 부합하도록 모든 최빈개도국에 대해 영구적인 무관세, 무관세 시장접근을 시의적절하게 이행	17.12.1 개발도상국, 후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
17.13 정책일관성 및 조율을 통하여 글로벌거시경제 안전성 강화	17.13.1 거시경제 대쉬보드
17.14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	17.14.1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증진하기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한 국가의 수
17.15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적 여유와 리더십을 존중	17.15.1 개발협력 제공자가 국가소유의 성과체계 및 계획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중 이해당사자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될 수 있는 지속가능개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6.1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중이해당사자 개발효용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의 진전을 보고하는 국가의 수
17.17 파트너십기관이 가진 자원조달 전략과 경험을 기초로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독려 및 촉진	17.17.1 공공-민간 및 시민단체 파트너십을 위해 약속된 US달러 금액
17.18 2020년까지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 상태, 장애, 지리적 위치, 그리고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되는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 등 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 지원 강화	17.18.1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완전 세분화된 국가적 수준에서 작성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비율
	17.18.2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
	17.18.3 전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이행 중에 있는 국가 통계 계획을 가진 국가의 수 (재정지원 출처별)
17.19 2030년까지 GDP를 보완할 지속가능발전 성과의 측정수단 개발을 위해 기존의 시범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구축을 지원	17.19.1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17.19.2 지난 10년 동안 a)최소한 한 번의 인구주택조사를 진행했고, b)100퍼센트의 출생등록과 80퍼센트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첨부자료4]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을 위한 순천시민 의식조사

○ 개요

- ① 조사기간 : 2018년 7월 2일 ~ 7월 20일(19일)
- ② 조사장소 : 순천시 일원
- ③ 조사대상 : 순천시 행정,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회원, 순천시민
- ④ 조사목적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순천형 지표개발을 위하여 경제·산업, 복지, 도시·환경, 문화·관광, 교육, 자치, 농업 부분에서의 시민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지표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⑤ 조사방법 : 조사원 교육 후 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
- ⑥ 참가인원 : 유효응답 700명

	구분	명	비율(%)
성별	여성	321	45.9
	남성	203	29.0
	응답없음	176	25.1
연령	10~20대	78	11.1
	30대	151	21.6
	40대	201	28.7
	50대	201	28.7
	60대 이상	47	6.7
	응답없음	22	3.1
직업	관리자	15	2.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86	12.3
	사무종사자	202	28.9
	서비스종사자	105	15.0
	판매종사자	22	3.1
	농림어업 종사자	68	9.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8	1.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8	1.1
	단순 노무종사자	13	1.9
	군인	1	0.1
	주부	50	7.1
	학생	20	2.9
	무직	13	1.9
	기타	15	2.1
	응답없음	74	10.6
학력	초졸	16	2.3
	중졸	30	4.3
	고졸	163	23.3
	전문대졸	154	22.0
	대학재학(중퇴)	21	3.0
	대졸	254	36.3
	석사	31	4.4
	박사	9	1.3
	응답없음	22	3.1
거주기간	10년 미만	106	15.1
	20년 미만	122	17.4
	30년 미만	170	24.3
	40년 미만	99	14.1
	50년 미만	74	10.6
	60년 미만	76	10.9
	60년 이상	24	3.4
	무응답	29	4.1
주택형태	아파트	390	55.7
	단독주택	246	35.1
	연립 및 다세대 주택	32	4.6
	기타	12	1.7
	응답없음	20	2.9
주택소유 여부	자가	522	74.6
	임대	144	20.6
	응답없음	34	4.9
세대구성원	세대주	275	39.3
	구성원	352	50.3
	응답없음	73	10.4

1. 순천시민의 행복 수준

1-1. 귀하가 최근에 경험한 감정을 묻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습니까?

○ 전체 응답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응답없음
	1점	2점	3점	4점	5점	
즐거움	39명 (5.6%)	95명 (13.6%)	226명 (32.3%)	219명 (31.3%)	107명 (15.3%)	14명 (2.0%)
편안함	36명 (5.1%)	117명 (16.7%)	238명 (34.0%)	210명 (30.0%)	89명 (12.7%)	10명 (1.4%)
행복감	35명 (5.0%)	71명 (10.1%)	260명 (37.1%)	215명 (30.7%)	106명 (15.1%)	13명 (1.9%)
짜증	120명 (17.1%)	231명 (33.0%)	188명 (26.9%)	111명 (15.9%)	38명 (5.4%)	12명 (1.7%)
무기력	151명 (21.6%)	194명 (27.7%)	189명 (27.0%)	113명 (16.1%)	43명 (6.1%)	10명 (1.4%)

- 즐거움, 편안함, 행복감 긍정적 요소 질문에는 보통(3점)을 기준으로 평균 3점 이상으로 긍정적 답변이 부정적 답변 보다 많음
- 짜증, 무기력 부정적 요소 질문에는 보통(3점)을 기준으로 평균 3점 이하로 긍정적 답변이 부정적 답변 보다 많음

○ 성별 및 연령별 구분 / 평균점수

구분		즐거움 평균 점수	편안함 평균 점수	행복감 평균 점수	짜증정서 평균 점수	무기력 평균 점수
성별	여성	3.4점	3.3점	3.4점	2.6점	2.6점
	남성	3.2점	3.2점	3.3점	2.4점	2.5점
연령	10대~20대	3.3점	3.2점	3.3점	2.8점	3.0점
	30대	3.1점	3.1점	3.3점	3.0점	2.8점
	40대	3.6점	3.4점	3.5점	2.6점	2.5점
	50대	3.1점	3.1점	3.2점	2.2점	2.2점
	60대 이상	3.6점	3.4점	3.4점	1.9점	2.0점

- 성별 응답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요소 질문과 부정적 요소 질문에서 비슷한 응답을 나타냄
- 연령별 응답에서 10~20대에서 부정적 요소의 질문에 부정적 답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응답에서 30대에서 긍정적 요소 질문에 긍정적 답변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부정적 요소 질문에서도 부정적 답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응답에서 50대에서 긍정적 요소 질문에 긍정적 답변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연령별 응답에서 부정적 요소 질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답변이 높게 나타남.

2. 순천의 이미지

2-1. 다음 중 귀하가 생각하는 순천의 현재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구분	1	2	3	기타의견
1순위	환경생태도시 425명(60.7%)	교육도시 103명(14.7%)	관광축제도시 74명(10.6%)	못사는 도시, 노동 착취 도시, 소비도시
2순위	교육도시 173명(24.7%)	환경생태도시 142명(20.3%)	문화도시 125명(17.9%)	반려견을 위한 도시, 공사 도시, 민원 많은 도시, 사회 불안 도시
3순위	문화도시 151명(21.3%)	환경생태도시 144명(20.6%)	관광축제도시 132명(18.9%)	정원이 있는 도시, 시골, 행정 불신 도시, 전라남도 교통 요충지, 해도 너무함 도시

※복수응답자 3명

- 순천의 현재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서 1순위로는 **환경생태도시** 이미지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순천의 현재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서 2순위와 3순위로는 **교육도시**와 **문화도시**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관광축제도시**라는 이미지도 높게 나타남.

2-2. 다음 중 귀하가 생각하는 순천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구분	1	2	3	기타의견
1순위	자연환경 525명(75.0%)	문화자원 106명(15.1%)	공공시설 정주여건 22명(3.1%)	-
2순위	문화자원 355명(50.7%)	축제 85명(12.1%)	자연환경 83명(11.9%)	금전산
3순위	공공시설 202명(28.9%)	정주여건 144명(20.6%)	문화자원 100명(14.3%)	야구의 도시

※복수응답자 1명

- 순천의 자랑거리를 묻는 질문에서 1순위로는 자연환경(75.0%)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순천의 현재 이미지를 묻는 질문과 비슷한 결과를 보임.
- 순천의 자랑거리를 묻는 질문에서 2순위로는 문화자원(50.7%)이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공공시설과 정주여건이 좋다는 응답이 많았음

2-3. 앞으로 추구해야 하는 미래 순천의 도시상을 3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1	2	3	기타의견
1순위	자연환경이 쾌적한 도시 123명(17.6%)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도시 97명(13.9%)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도시 83명(11.9%)	부자도시, 잘사는 도시
2순위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 83명(11.9%)	자연환경이 쾌적한 도시 80명(11.4%)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도시 78명(11.1%)	다툼없는 도시, 행복도시
3순위	관광 자원 및 관광 기반이 우수한 도시 59명(8.4%)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도시 57명(8.1%)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발전하는 도시 56명(8.0%)	행복한 도시

※ 복수응답자 2명

- 미래 순천의 도시상을 묻는 질문에는 자연환경이 쾌적한 도시가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답변은 현재 순천의 이미지를 묻는 질문과 순천의 자랑을 묻는 질문의 결과와 동일함.
- 미래 순천의 도시상을 묻는 질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도시가 1,2,3순위에서 골고루 응답률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 관광자원 및 관광 기반이 우수한 도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도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발전하는 도시가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순천의 미래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도시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도시 응답률이 높은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3.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3-1. 귀하가 느끼는 순천시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전체 응답

구분	매우 불만족 <-----> 매우 만족					응답없음
	1점	2점	3점	4점	5점	
경제적 여건	39명 (5.6%)	139명 (19.9%)	310명 (44.3%)	176명 (25.1%)	30명 ¹⁾ (4.3%)	6명 (0.9%)
산업적 여건	58명 (8.3%)	219명 (31.3%)	299명 (42.7%)	90명 (12.9%)	27명 (3.9%)	7명 (1.0%)
복지 여건	32명 (4.6%)	122명 (17.4%)	316명 (45.1%)	200명 (28.6%)	21명 (3.0%)	9명 (1.3%)
관광 여건	17명 (2.4%)	67명 (9.6%)	214명 (30.6%)	307명 (43.9%)	88명 (12.6%)	7명 (1.0%)
주민자치 여건	21명 (3.0%)	126명 (18.0%)	324명 (46.3%)	190명 (27.1%)	33명 (4.7%)	6명 (0.9%)
농업인이 잘 산다.	59명 (8.4%)	151명 (21.6%)	297명 (42.4%)	159명 (22.7%)	28명 (4.0%)	6명 (0.9%)

- 순천시에 대한 만족도 질문 중 경제적 여건, 복지여건, 주민자치 여건, 관광 여건에서는 보통(3점) 이상의 긍정적 답변이 많음
 - 관광 여건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순천시에 대한 만족도 질문 중 산업적 여건, 농업인이 잘 산다 에서는 보통(3점) 이하의 부정적 답변이 많음
 - 산업적 여건은 미래 순천의 도시상 질문에서 얻은 응답율(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도시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도시)과 연관지어 관련지표 개발 필요
 - 농업인이 잘 산다 질문의 부정적 응답율이 많은 것에 대한 관련지표 개발 필요

○ 성별 및 연령별 구분 / 평균점수

구분		경제적 여건	산업적 여건	복지 여건	관광여건	주민자치 여건	농업인
성별	여성	3.1점	2.8점	3.1점	3.6점	3.2점	3.0점
	남성	3.0점	2.7점	3.0점	3.1점	3.1점	2.9점
연령	10대~20대	3.0점	2.8점	3.1점	3.7점	3.2점	3.0점
	30대	2.7점	2.5점	2.9점	3.2점	3.0점	2.9점
	40대	3.3점	2.8점	3.1점	3.6점	3.2점	3.0점
	50대	2.9점	2.6점	3.1점	3.6점	3.1점	2.8점
	60대 이상	3.1점	2.9점	3.2점	3.4점	3.1점	3.1점

- 성별 질문에 대한 평균 점수는 관광여건(0.5점차이) 외에 다른 질문은 비슷한 점수를 보임
- 연령별 평균 점수에서는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비슷한 점수를 보임.
 - 30대에서 모든 질문 영역에서 낮은 평균 점수를 보임. 관련 분석이 필요함

3-2. 귀하가 느끼는 순천시민으로서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전체 응답

구분		매우 불만족 <-----> 매우 만족					응답없음
		1점	2점	3점	4점	5점	
공공 만족도	경제	26명 (3.7%)	152명 (21.7%)	352명 (50.3%)	137명 (19.6%)	29명 (4.1%)	4명 (0.6%)
	노인복지정책	15명 (2.1%)	111명 (15.9%)	341명 (48.7%)	200명 (28.6%)	29명 (4.1%)	4명 (0.6%)
	청소년복지	32명 (4.6%)	166명 (23.7%)	326명 (46.6%)	146명 (20.9%)	26명 (3.7%)	4명 (0.6%)
	공공서비스 (편의시설)	27명 (3.9%)	108명 (15.4%)	282명 (40.3%)	249명 (35.6%)	28명 (4.0%)	6명 (0.9%)
	도시계획	39명 (5.6%)	137명 (19.6%)	316명 (45.1%)	182명 (26.0%)	21명 (3.0%)	5명 (0.7%)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정책	26명 (3.7%)	129명 (18.4%)	327명 (46.7%)	171명 (24.4%)	43명 (6.1%)	4명 (0.6%)
	생활쓰레기	56명 (8.0%)	161명 (23.0%)	269명 (38.4%)	181명 (25.9%)	24명 (3.4%)	9명 (1.3%)
	관광지	26명 (3.7%)	81명 (11.6%)	237명 (33.9%)	265명 (37.9%)	87명 (12.4%)	4명 (0.6%)
	시민교육	24명 (3.4%)	103명 (14.7%)	290명 (41.4%)	223명 (31.9%)	54명 (7.7%)	6명 (0.9%)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	11명 (1.6%)	50명 (7.1%)	239명 (34.1%)	277명 (39.6%)	118명 (16.9%)	5명 (0.7%)
개인 만족도	건강수준	27명 (3.9%)	78명 (11.1%)	266명 (38.0%)	253명 (36.1%)	70명 (10.0%)	6명 (0.9%)
	학교교육	33명 (4.7%)	121명 (17.3%)	300명 (42.9%)	192명 (27.4%)	42명 (6.0%)	12명 (1.7%)
	순천에서 사는 삶	22명 (3.1%)	56명 (8.0%)	244명 (34.9%)	299명 (42.7%)	74명 (10.6%)	5명 (0.7%)

- 삶에 질에 대한 공공 만족도에 대한 질문 중에서 노인복지정책, 공공서비스, 도시계획,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정책, 관광지, 시민교육, 친환경 농산물 부분에서 보통(3.0) 이상의 응답 점수를 얻음.
- 특히 관광지와 친환경 농산물(로컬푸드)에서 높은 점수를 얻음.
- **농업인이 잘 산다** 라는 질문에서 낮은 점수를 얻은 것과 **로컬푸드**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결과는 생산자는 경제적으로 만족을 못하나 소비자는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 관련된 지표 개발 필요.
- 삶에 질에 대한 공공 만족도에 대한 질문 중에서 **경제, 청소년 복지, 생활쓰레기**에서 보통(3.0) 이하의 응답 점수를 얻음.
- 삶에 질에 대한 개인 만족도에 대한 질문은 모든 질문(건강수준, 학교교육, 순천에서 사는 삶)에서 보통(3.0)이상의 응답 점수를 얻음.
- 특히 **순천에서의 삶** 질문에서 높은 응답 점수를 얻음.

○ 공공만족도 성별 및 연령별 구분 / 평균점수

구분		경제	노인 복지	청소년 복지	공공 서비스	도시 계획	에너지	생활 쓰레기	관광지	시민 교육	로컬 푸드
성 별	여성	3.0점	3.2점	3.0점	3.2점	3.0점	3.1점	2.9점	3.4점	3.3점	3.7점
	남성	3.0점	3.2점	3.0점	3.2점	3.0점	3.2점	3.0점	3.4점	3.3점	3.5점
연 령	10대~20대	3.2점	3.1점	3.1점	3.3점	3.3점	3.5점	3.0점	3.7점	3.4점	3.7점
	30대	2.9점	3.1점	3.0점	3.1점	2.9점	3.1점	2.9점	3.4점	3.1점	3.6점
	40대	3.1점	3.2점	3.0점	3.2점	3.1점	3.1점	2.8점	3.4점	3.3점	3.7점
	50대	2.9점	3.2점	2.9점	3.2점	2.9점	2.9점	2.9점	3.4점	3.2점	3.6점
	60대 이상	2.9점	3.3점	3.0점	3.1점	3.1점	3.1점	3.1점	3.5점	3.2점	3.5점

- 성별 공공만족도에서는 남녀 큰 차이가 없음.
- 연령별 공공만족도에서는 30대와 50대에서 응답점수가 전체 연령대 평균점수 보다 낮게 나옴.

○ 개인만족도 성별 및 연령별 구분 / 평균점수

구분		건강수준	학교 교육	순천에서 사는 삶
성별	여성	3.3점	3.1점	3.6점
	남성	3.4점	3.2점	3.5점
연령	10대~20대	3.5점	3.3점	3.6점
	30대	3.3점	3.0점	3.3점
	40대	3.4점	3.1점	3.6점
	50대	3.4점	2.9점	3.5점
	60대 이상	3.2점	3.1점	3.4점

- 성별 개인 만족도에서는 남녀 큰 차이가 없음
- 연령별 개인 만족도에서는 30대에서 전체 평균 응답 점수 보다 낮게 나왔으며, 50대에
서 학교 교육 만족도(2.9점)가 보통 이하로 가장 낮게 나옴

4. 지속가능발전

4-1. 순천시 문화·관광영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생각을 표시해주십시오.

○ 전체 응답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응답없음
	1점	2점	3점	4점	5점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 지고 있다.	45명 (6.4%)	148명 (21.1%)	251명 (35.9%)	216명 (30.9%)	30명 (4.3%)	10명 (1.4%)
연자루를 남문다리 옛자리로 옮겨야 한다.	57명 (8.1%)	154명 (22.0%)	261명 (37.3%)	170명 (24.3%)	49명 (7.0%)	9명 (1.3%)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13명 (1.9%)	63명 (9.0%)	234명 (33.4%)	307명 (43.9%)	76명 (10.9%)	7명 (1.0%)
문화생활 여건이 충분하다	45명 (6.4%)	153명 (21.9%)	281명 (38.7%)	192명 (27.4%)	30명 (4.3%)	9명 (1.3%)
순천시립예술단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30명 (4.3%)	167명 (23.9%)	339명 (48.4%)	111명 (15.9%)	43명 (6.1%)	10명 (1.4%)
인근지역에 비해 예술인들의 복지여건이 좋다.	29명 (4.1%)	147명 (21.0%)	324명 (46.3%)	155명 (22.1%)	36명 (5.1%)	9명 (1.3%)
순천 전문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	15명 (2.1%)	58명 (8.3%)	280명 (40.0%)	247명 (35.3%)	87명 (12.4%)	13명 (1.9%)

- 순천시 문화·관광영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질문 중 순천시립예술단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라는 질문외에는 모두 보통(3.0) 이상의 응답 점수를 얻음.
- 문화분야에 대한 투자와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 에서 높은 응답 점수를 얻음.
- 순천시립예술단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라는 응답 점수가 보통(3.0) 이하로 순천시립예술단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 고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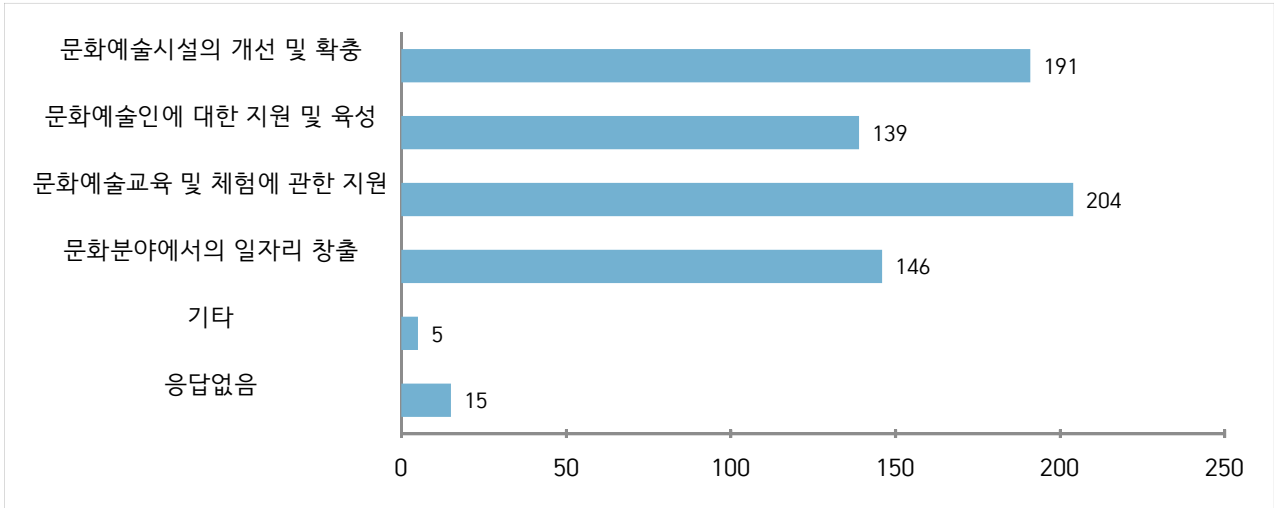
○ 성별 및 연령별 구분 / 평균점수

구분		원도심 활성화	연자루 이동	문화분야 투자	문화생활 여건	순천시립 예술단	예술인 복지여건	예술인 일자리
성별	여성	3.1	2.9	3.7	3.0	3.0	3.0	3.5
	남성	3.0	3.0	3.4	3.0	2.9	3.1	3.4
연령	10대~20대	3.1	2.9	3.6	30	3.2	3.2	3.5
	30대	2.8	2.9	3.4	27	2.6	2.8	3.4
	40대	3.0	3.1	3.6	30	3.0	3.1	3.5
	50대	3.1	2.9	3.5	31	2.9	3.0	3.4
	60대 이상	3.3	3.0	3.4	31	3.0	3.0	3.4

- 성별 응답 점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 연령별 응답 점수는 30대를 제외한 전체영역에서 골고루 나타남.
-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와 같이 30대에서 전체적으로 낮은 응답 점수를 보임, 관련 연구 필요.

4-1-1 문화분야에 투자가 필요하다면,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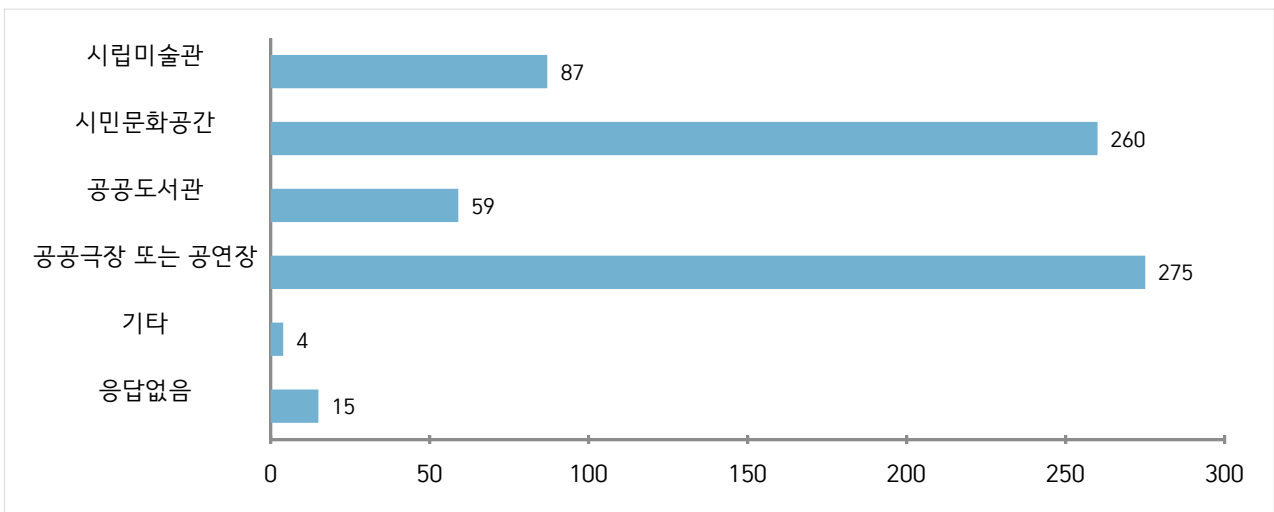
- ① 문화예술시설의 개선 및 확충 - 191명(27.3%)
- ②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및 육성 - 139명(19.9%)
- ③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에 관한 지원 - 204명(29.1%)
- ④ 문화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 146명(20.9%)
- ⑤ 기타 - 5명(0.7%)
- ⑥ 응답없음 - 15명(2.1%)



기타 의견 : 우수 공연 유치(오페라, 오케스트라 공연 등), 예술인들에게만 치중되지 않고, 시민 전체를 위한 정책 우선

4-1-2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면 어떤 시설에 제일 관심이 있나요?

- ① 시립미술관 - 87명(12.4%)
- ② 시민문화공간(제2의 문화의 거리 등) - 260명(37.1%)
- ③ 공공도서관 - 59명(8.4%)
- ④ 공공극장 또는 공연장 - 275명(39.3%)
- ⑤ 기타 - 4명(0.6%)
- ⑥ 응답없음 - 15명(2.1%)



기타 의견 :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을 위한 시설

4-1-3 순천시의 문화관광분야 정책 중 생각하고 계시는 잘된 점이나 잘 못된 점이 있다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잘된점

-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및 지하상가 활성화
- 순천시 관광택시 운영
- 관광 볼거리가 많다
- 시티 투어 정책
(관광 정책 성공을 위해 순천만, 순천만 정원, 선암, 송광, 주암 연계 하여 여수 광양까지 생각해 봄이 좋을 것 같다.)
- 인근 지역에 비해 예술인들의 복지 환경 여건이 좋다.
- 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정책 잘됨
- 문화예술시설 개선 사업
- 아고라
- 공공 도서관
- 도서 50% 할인
- 정원 박람회 공연장
- 순천만 정원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오픈 했으면 한다)

잘못된점

- 어떤 기관에서 무엇을 언제 왜 하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알지 못함
- 문화 축제 ~ 한평 정원 등은 일부 지역에 행사 후 지속적 관리 없이 끝남
- 저소득층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혜택(문화 누리 등)이 적다.
- 정작 문화 공연을 제대로 관람할 수 있는 곳이 없음. (공연장 부족)
- 다양한 공연, 행사, 문화 볼거리가 부족, 문화 시설 부족
- 전시성, 1회성 행사가 많다,
- 일부의 시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소외된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이동 제약이 아쉽다.(교통을 생각하지 않았음, 문화예술회관이 신도심과의 거리가 멀)
- 국가정원 주차장이 부족, 그늘 공간 부족
-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관리
- 정원 박람회를 제외한 특이성 부족, 관광지 간의 거리가 멀다, 숙박시설 부족
- 지역내 산재된 문화(관광지)가 많으나 관광객 분산이 이뤄지지 않고 특정 지역 홍보로 한곳 쏠림 방문 현상 발생
- 문화 관광 장소가 서로 상생하려면 연결성이 시급
(따로따로 떨어진 공간과 공간들이 서로 접목할 수 없는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 문화시설들이 산재해 있어 윈-윈 되는 경제가 될 수 없다.
- 조성되어지는 문화의 거리는 원래 있던 자리에 집중 교육이 필요 (항상 비어있는 가게들 말고)
- 천편일률적인 행사나 사업 등에 대한 예산 낭비
- 실효성 없는 문화 사업
- 보여주기 식 정책, (개량이 체험관이 한번도 운영된것을 본적이 없음. 세금낭비의 표본!)
- 편중된 지원과 사업(순천만에 집중, 원도심에 치우침), 중복된 지원 및 세금 낭비
- 문화의 거리에 대한 과한 투자로 기득권층이 생겨서 공정성 훼손
- 항상 홍보하고 축제를 여는 문화의 거리, 원도심 프로젝트가 도대체 뭐하는 공간인지도 모르겠으며 문화의 거리 공방은 문닫고 있기 일췌에 공간에 대한 가치나 시간을 보낼만한 장소로도 좋지 않다.
-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 되지 않는 것 같다 / 문화의 거리가 카페 위주이다
- 관광지 외 발전투자 미약
- 보존에 대한 노력 필요
-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 주차장 확보 필요
- 너무 많은 시설물을 짓는 것에 대한 불만

기타의견

- 문화 관광을 향유 대상을 관광객이 아닌 시민으로 돌리면 시민도 행복하고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문화 관광의 포인트를 관광객 유치의 관점에 두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산, 서울 벽화마을의 사례,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사례와 같이 주민불만,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오히려 주민 행복(복지)차원으로 문화관광 인프라를 늘려간다면 주민 행복과 관광만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대형 콘도 미니엄을 건립하여 각종 회의유치 및 머물고 가는 관광이 된다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예술인들을 키우는것은 좋지만, 돈만 투자되고 예술분야라는 이유로 평가가 어려워져 지원금을 당연시 하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지 않도록 지원당시 확실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시민 참여를 도모 할 수 있는 정책, 소외 노인들을 위한 문화 정책도 필요
- 효율적인 투자로 실제적 쓸모가 있는 공간 제공 필요
- 부산 투자 보다는 집중 투자 분야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우수 공연 유치에 더욱 힘 써 주세요 (수준 높은 전시, 문화 공연)
- 공연장을 새롭게 시설했으면 합니다. / 공연이나 예술에 중점을 뒀서 공간이나 장소 확보
- 반려 동물이 너무 많다. 공원,놀이터, 산책로 등등 모든 곳이 개똥천지다
- 문화의 거리를 젊음이 위주 활성화(카페거리, 사진찍기 좋은 등)
- 역사+자연=문화+흥미 융집, 상품 개발
- 문화 관광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선 시민들의 삶은 여유가 동반 되어야 한다.
복지 제도 개선, 노동시간 감축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과도한 경쟁구도를 강요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 관광 분야에 대한 질문이 없음.

-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곳(장소)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 체험, 교육, 시설, 공연장, 공공극장 등

[잘못된 정책]

- 지역내 산재된 문화(관광지)가 많으나 관광객 분산이 이뤄지지 않고 특정 지역 홍보로 한 곳 쏠림 방문 현상 발생.

- 문화 관광 장소가 서로 상생하려면 연결성이 시급.

4-2. 순천시 교육영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생각을 표시해주십시오.

○ 전체 응답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응답없음
	1점	2점	3점	4점	5점	
긴급상황 대비 안전교육이 잘 실시되고 있다.	52명 (7.4%)	186명 (26.6%)	307명 (43.9%)	112명 (16.0%)	36명 (5.1%)	7명 (1.0%)
질병예방 보건위생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6명 (3.7%)	143명 (20.4%)	317명 (45.3%)	166명 (23.7%)	40명 (5.7%)	8명 (1.1%)
세대별 맞춤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0명 (2.9%)	104명 (14.9%)	289명 (41.3%)	227명 (32.4%)	52명 (7.4%)	8명 (1.1%)
성폭력 예방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u>않고</u> 있다.	44명 (6.3%)	152명 (21.7%)	323명 (46.1%)	124명 (17.7%)	49명 (7.0%)	8명 (1.1%)
양성평등의식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37명 (5.3%)	130명 (18.6%)	342명 (48.9%)	142명 (20.3%)	41명 (5.9%)	8명 (1.1%)
직업능력개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u>않고</u> 있다.	45명 (6.4%)	169명 (24.1%)	315명 (45.0%)	125명 (17.9%)	39명 (5.6%)	7명 (1.0%)

- 순천시 교육 영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질문 중 **안전교육**에 관한 응답 점수가 보통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응답 점수가 나타남.

- 안전이 중요시 되는 시기에 순천시민은 안전교육이 잘 실시되지 않다고 응답을 함.
- 안전교육에 관한 지표와 정책이 필요함.

○ 성별 및 연령별 구분 / 평균점수

구분		안전교육	보건위생교육	평생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의식교육	(직업능력 개발교육)
성별	여성	2.9점	3.1점	3.3점	3.1점	3.1점	3.0점
	남성	2.9점	3.2점	3.3점	2.8점	3.1점	2.7점
연령	10대~20대	3.1점	3.2점	3.4점	3.0점	3.2점	2.7점
	30대	2.5점	2.8점	3.1점	3.0점	2.8점	2.9점
	40대	2.9점	3.1점	3.2점	3.0점	3.1점	3.0점
	50대	2.9점	3.0점	3.2점	2.8점	2.9점	2.9점
	60대 이상	3.0점	3.4점	3.5점	2.9점	3.1점	2.9점

- 남녀 성별 응답에서는 전체적으로 남녀 차이가 없으나 직업능력 개발교육에 있어서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떨어짐.

- 연령별 응답에서는 30대를 제외한 전체 연령대에서 평균응답 점수에 가깝게 분포함.

- 30대에서 전체 응답 점수가 평균점수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남.

4-3. 순천시 자치영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생각을 표시해주십시오.

○ 전체 응답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응답없음
	1점	2점	3점	4점	5점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38명 (5.4%)	154명 (22.0%)	291명 (41.6%)	174명 (24.9%)	36명 (5.1%)	7명 (1.0%)
주민자치 지원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38명 (5.4%)	109명 (15.6%)	222명 (31.7%)	207명 (29.6%)	118명 (16.9%)	6명 (0.9%)
주민(공동체, 단체 등)과 협업을 잘 하고 있다.	20명 (2.9%)	118명 (16.9%)	352명 (50.3%)	180명 (25.7%)	24명 (3.4%)	6명 (0.9%)
업무 기획~평가 단계까지 주민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42명 (6.0%)	158명 (22.6%)	323명 (46.1%)	150명 (21.4%)	20명 (2.9%)	7명 (1.0%)
주민(공동체)이 계획한 일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25명 (3.6%)	123명 (17.6%)	326명 (46.6%)	184명 (26.3%)	31명 (4.4%)	11명 (1.6%)
주민이 얻고자 하는 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22명 (3.1%)	132명 (18.9%)	332명 (47.4%)	176명 (25.1%)	27명 (3.9%)	11명 (1.6%)
주민자치를 위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8명 (5.4%)	175명 (25.0%)	270명 (38.6%)	154명 (22.0%)	51명 (7.3%)	12명 (1.7%)

- 순천시 자치 영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질문 중 업무 기획~평가 단계까지 주민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에 관한 응답 점수가 보통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응답 점수가 나타남.

· 순천 시민은 시정에 대해 시민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함.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적극적 방법이 필요함.

○ 성별 및 연령별 구분 / 평균점수

구분		민주적 방식운영	(주민자치 지원확대)	주민과의 협업	주민생각 반영	주민 계획 지원제도	시 자료 열람 제도	(주민자치 교육)
성별	여성	3.1점	3.3점	3.1점	2.9점	3.1점	3.0점	3.0점
	남성	3.0점	3.3점	3.1점	3.0점	3.0점	3.1점	2.8점
연령	10대~20대	3.2점	3.4점	3.3점	3.1점	3.3점	3.4점	3.0점
	30대	2.9점	3.2점	3.1점	2.8점	2.9점	2.9점	3.2점
	40대	3.0점	3.5점	3.2점	3.0점	3.3점	3.1점	2.9점
	50대	2.9점	3.2점	2.9점	2.8점	2.9점	3.0점	2.8점
	60대 이상	3.1점	3.7점	3.0점	3.0점	2.8점	2.9점	2.9점

- 남녀 성별 응답에서는 전체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주민자치 교육에서 여성이 남성 보다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응답함.

- 연령별 응답에서는 30대를 제외한 전체 연령대에서 평균응답 점수에 가깝게 분포함.
- 30대에서 전체 응답 점수가 평균 점수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남.

4-4. 순천시 복지영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생각을 표시해주십시오.

○ 전체 응답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응답없음
	1점	2점	3점	4점	5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잘 되어 있다.	41명 (5.9%)	176명 (25.1%)	310명 (44.3%)	144명 (20.6%)	23명 (3.3%)	6명 (0.9%)
장애인 문화체육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다.	37명 (5.3%)	186명 (26.6%)	331명 (47.3%)	111명 (15.9%)	28명 (4.0%)	7명 (1.0%)
성평등 정책비전 및 행동계획이 잘 수립, 추진되고 있다.	39명 (5.6%)	154명 (22.0%)	354명 (50.6%)	123명 (17.6%)	22명 (3.1%)	8명 (1.1%)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참여여건이 부족하다.	37명 (5.3%)	182명 (26.0%)	258명 (36.9%)	166명 (23.7%)	51명 (7.3%)	6명 (0.9%)
출산과 양육환경을 잘 갖추고 있다.	45명 (6.4%)	140명 (20.0%)	319명 (45.6%)	165명 (23.6%)	23명 (3.3%)	8명 (1.1%)
아동의 미래를 잘 반영하는 아동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41명 (5.9%)	127명 (18.1%)	349명 (49.9%)	141명 (20.1%)	34명 (4.9%)	8명 (1.1%)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 이다.	58명 (8.3%)	218명 (31.1%)	293명 (41.9%)	101명 (14.4%)	23명 (3.3%)	7명 (1.0%)
다문화가족의 출산·보육·복지 정책을 갖추고 있다.	39명 (5.6%)	108명 (15.4%)	381명 (54.4%)	145명 (20.7%)	20명 (2.9%)	7명 (1.0%)

- 여성의 참여여건 부족, 출산양육환경, 아동정책,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분위기, 다문화가족 복지정책, 에 관한 질문에 응답에서는 보통(3.0) 이상의 응답 점수가 나타남.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인 문화체육 활동, 성 평등 비전 및 행동계획에 관한 질문에 응답에서는 보통(3.0) 이하의 응답 점수가 나타남.
- 복지 영역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정책 지표 개발과 성 평등 정책 비전과 행동계획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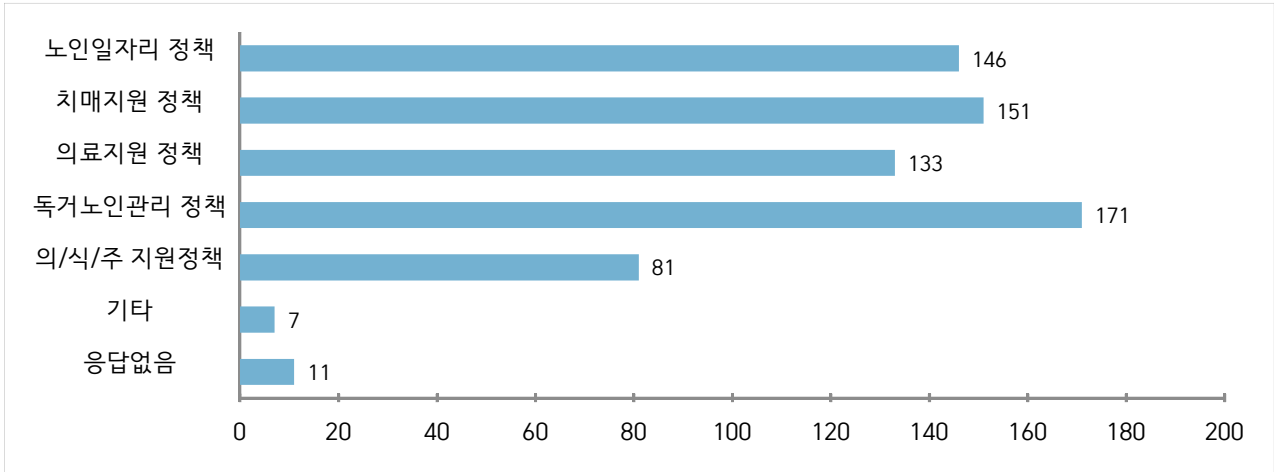
○ 성별 및 연령별 구분 / 평균점수

구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인 문화체육 활동	성 평등 비전 및 행동계획	(여성의 참여여건 부족)	출산 양육환경	아동정책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분위기)	다문화가족 복지정책
성 별	여성	2.9점	2.8점	2.9점	3.1점	3.0점	3.0점	2.7점	3.0점
	남성	3.0점	2.9점	3.0점	2.8점	3.0점	3.1점	2.5점	3.1점
연 령	10대~20대	3.2점	3.1점	3.0점	3.1점	3.1점	3.3점	2.7점	3.2점
	30대	2.7점	2.7점	2.7점	2.9점	2.7점	2.7점	2.8점	2.8점
	40대	2.9점	2.9점	2.9점	3.0점	3.0점	3.0점	2.7점	3.0점
	50대	2.9점	2.8점	2.9점	3.0점	2.9점	2.9점	2.6점	2.9점
	60대 이상	3.0점	2.8점	2.7점	3.3점	3.2점	3.1점	2.9점	3.1점

- 남녀 성별 응답에서는 전체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여성의 참여여건 부족에 대해서 남성은 보통 이상의 응답 점수를 나타냈으나 여성은 보통 이하의 응답점수가 나타남
- 30대에서 전체 응답 점수가 평균 점수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남

4-4-1 순천에서 실시하는 노인 관련 정책 중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노인일자리 정책 - 146명(20.9%)
- ② 치매지원 정책 - 151명(21.6%)
- ③ 의료지원 정책 - 133명(19.0%)
- ④ 독거노인관리 정책 - 171명(24.4%)
- ⑤ 의·식·주 지원정책 - 81명(11.6%)
- ⑥ 기타 - 7명(1.0%)
- ⑦ 응답없음 - 11명(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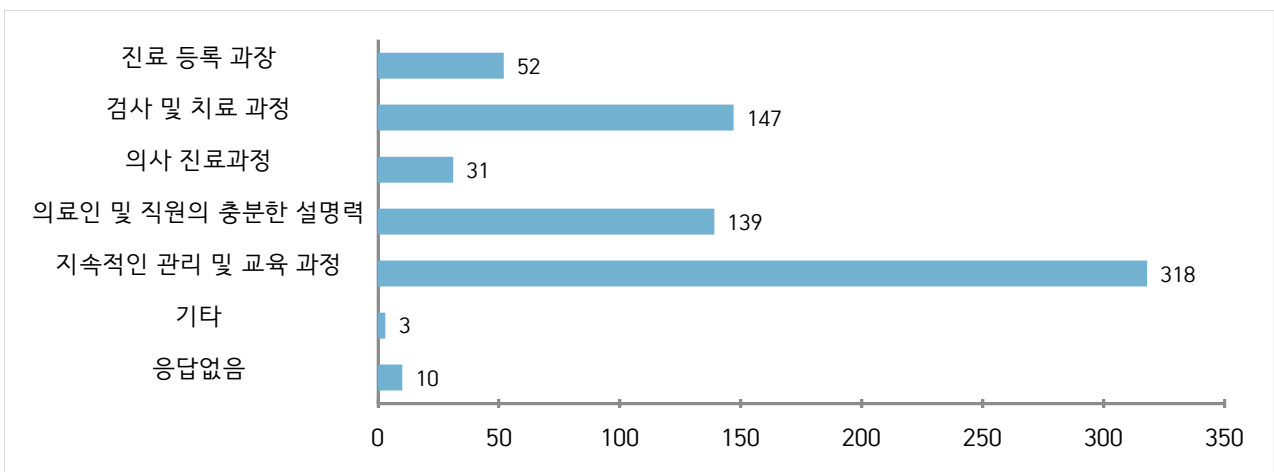


기타 의견 : 9988 씬터, 문화예술, 연금 확대, 필요없다. ①~⑤ 모두 절실하게 필요

- 노인 관련 정책은 독거노인 관리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선택하였으나 다른 선택지도 비중도 높게 선택이 되어 전체적으로 모두 필요하다고 봄

4-4-2 노인과 만성질환이 있는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진료 등록 과정 - 52명(7.4%)
- ② 검사 및 치료 과정 - 147명(21.0%)
- ③ 의사 진료과정 - 31명(4.4%)
- ④ 의료인 및 직원의 충분한 설명력 - 139명(19.9%)
- ⑤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 과정 - 318명(45.4%)
- ⑥ 기타 - 3명(0.4%)
- ⑦ 응답없음 - 10명(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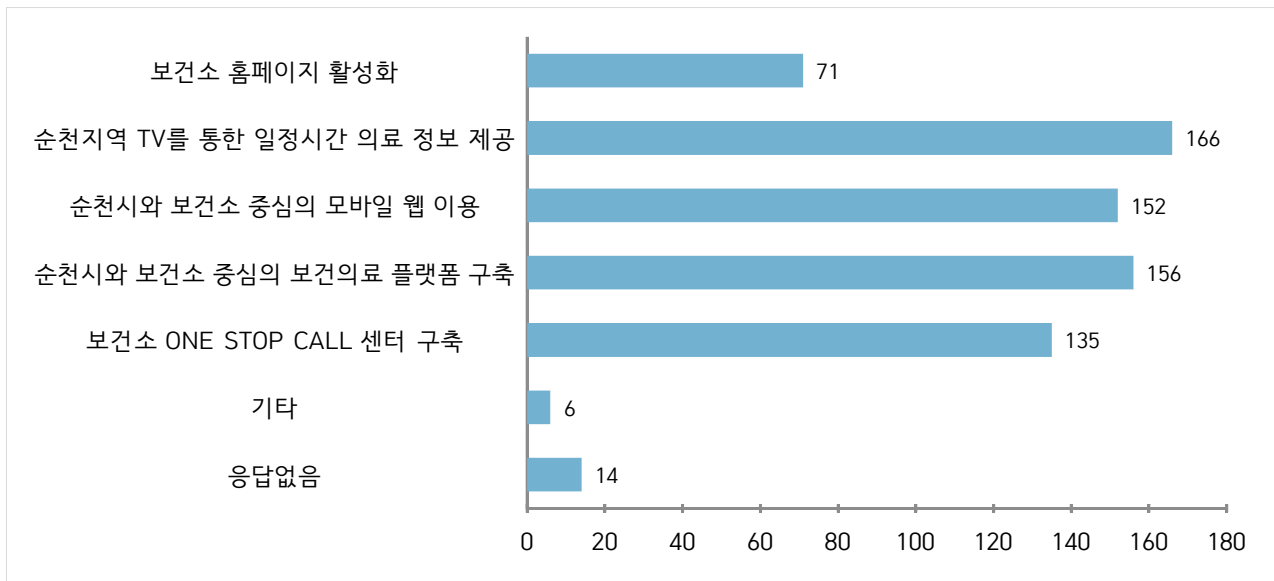


기타 의견 : 순천시에 전문 병원 부족, 의료 쇼핑 제한, ①~⑤ 모두 해당

- 노인과 만성질환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이며 다음으로 검사 및 치료 과정과 의료인의 충분한 설명임.

4-4-3 순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 정보를 파악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건소 홈페이지 활성화 - 71명(10.1%)
- ② 순천지역 TV를 통한 일정한 시간대에 보건의료 관련 정보 제공 - 166명(23.7%)
- ③ 순천시와 보건소 중심의 모바일 웹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정보제공 - 152명(21.7%)
- ④ 순천시와 보건소 중심의 보건의료 플랫폼 구축 - 156명(22.3%)
- ⑤ 보건소 ONE STOP CALL 센터 구축 - 135명(19.3%)
- ⑥ 기타 - 6명(0.9%)
- ⑦ 응답없음 - 14명(2.0%)



기타 의견 : 요즘 어르신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홈페이지, TV, 모바일을 이용하실 줄 모르는 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알아서 파악 후 찾아가서 확인해야 함, 우편 및 방문, 찾아가는 보건 의료 서비스

- 순천시민은 보건의료 정보를 장년층에서는 순천지역 TV 및 보건소 ONE STOP CALL 센터를 선호하며 청년층에서는 순천시와 보건소 중심의 보건의료 플랫폼 및 모바일 웹을 통한 보건의료 정보제공을 원함.

4-5. 순천시 경제·산업영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생각을 표시해주십시오.

○ 전체 응답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응답없음
	1점	2점	3점	4점	5점	
환경적으로 건전한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2명 (4.6%)	112명 (16.0%)	275명 (39.3%)	230명 (32.9%)	41명 (5.9%)	10명 (1.4%)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29명 (4.1%)	115명 (16.4%)	348명 (49.7%)	170명 (24.3%)	23명 (3.3%)	15명 (2.1%)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8명 (4.0%)	140명 (20.0%)	329명 (47.0%)	167명 (23.9%)	23명 (3.3%)	13명 (1.9%)
복원력 있는 산업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4명 (3.4%)	130명 (18.6%)	360명 (51.4%)	153명 (21.9%)	22명 (3.1%)	11명 (1.6%)
지속가능한 녹색소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명 (2.7%)	82명 (11.7%)	324명 (46.3%)	219명 (31.3%)	45명 (6.4%)	11명 (1.6%)
순천은 재활용품의 공공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8명 (6.9%)	119명 (17.0%)	331명 (47.3%)	163명 (23.3%)	25명 (3.6%)	14명 (2.0%)
소득의 양극화 개선을 위한 <u>노력이 필요하다</u> .	8명 (1.1%)	64명 (9.1%)	212명 (30.3%)	254명 (36.3%)	151명 (21.6%)	11명 (1.6%)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2명 (6.0%)	98명 (14.0%)	330명 (47.1%)	180명 (25.7%)	38명 (5.4%)	12명 (1.7%)

- 순천시 경제·산업영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질문 응답에서는 소득의 양극화 개선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산업영역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양극화 문제 해결이 최우선시 됨.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문에 응답점수가 다른 질문에 비해 응답점수가 낮게 나타남.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및 지표 개발 필요함.

○ 성별 및 연령별 구분 / 평균점수

구분		건전한 경제성장	중소기업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산업기반 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녹색소비	재활용품 공고조달	(소득의 양극화 개선 노력 필요)	지속가능한 농업
성 별	여성	3.3점	3.1점	3.0점	3.0점	3.3점	3.0점	3.7점	3.2점
	남성	3.2점	3.0점	3.0점	3.0점	3.2점	3.0점	3.5점	3.1점
연 령	10대~20대	3.2점	3.3점	3.1점	3.2점	3.4점	3.3점	3.5점	3.2점
	30대	3.0점	2.9점	2.9점	2.9점	3.1점	2.9점	3.5점	3.0점
	40대	3.3점	3.0점	3.0점	3.0점	3.2점	2.9점	3.8점	3.0점
	50대	3.0점	2.9점	2.9점	2.9점	3.2점	2.8점	3.7점	3.0점
	60대 이상	3.3점	3.4점	3.1점	3.1점	3.3점	3.0점	3.6점	3.3점

- 성별 응답 점수에서는 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여성이 남정보다 높은 응답 점수를 보이고 다른 질문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연령별 응답 점수에서는 30대와 50대에서 전체 평균 응답점수에 비해 낮게 나타남.

4-6. 순천시 농업영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생각을 표시해주십시오.

○ 전체 응답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응답없음
	1점	2점	3점	4점	5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9명 (5.6%)	132명 (18.9%)	303명 (43.3%)	177명 (25.3%)	41명 (5.9%)	8명 (1.1%)
농업인이 적절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6명 (3.7%)	122명 (17.4%)	304명 (43.4%)	197명 (28.1%)	42명 (6.0%)	9명 (1.3%)
농업인의 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6명 (2.3%)	39명 (5.6%)	207명 (26.9%)	289명 (41.3%)	136명 (19.4%)	13명 (1.9%)
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명 (2.9%)	96명 (13.7%)	326명 (46.6%)	202명 (28.9%)	48명 (6.9%)	8명 (1.1%)
농촌이주민과 기존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3명 (1.9%)	51명 (7.3%)	249명 (35.6%)	248명 (35.4%)	130명 (18.6%)	9명 (1.3%)
농촌지역의 다문화 이주민의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명 (2.9%)	93명 (13.3%)	350명 (50.0%)	197명 (28.1%)	27명 (3.9%)	13명 (1.9%)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8명 (2.6%)	106명 (15.1%)	294명 (42.0%)	242명 (34.6%)	30명 (4.3%)	10명 (1.4%)
농가들의 농업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않다.	36명 (5.1%)	207명 (29.6%)	296명 (42.3%)	101명 (14.4%)	46명 (6.6%)	14명 (2.0%)
농촌인구 노령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0명 (4.3%)	152명 (21.7%)	323명 (46.1%)	163명 (23.3%)	21명 (3.0%)	11명 (1.6%)
농촌사회의 전통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4명 (2.0%)	53명 (7.6%)	273명 (39.0%)	250명 (35.7%)	100명 (14.3%)	10명 (1.4%)

- 순천시 농업영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순천시민은 **농업인의 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에 가장 높은 응답 점수를 보임.
- 농업인의 건강을 위한 정책 및 지표 필요.
- 순천시 농업영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순천시민은 농촌 이주민과 원주민과의 갈등 해소 및 농촌사회 전통유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응답 점수가 평균 응답점수(3.0) 보다 높은 응답 점수를 보임.
- 농촌사회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문제와 지역의 전통유지를 위한 정책과 지표 필요.
- 순천시 농업영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순천시민은 농촌인구 노령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문에 전체 응답점수 평균에 비해 낮은 응답 점수를 보임.
- 농촌의 노령화 방지를 위한 정책 및 지표 필요.

○ 성별 및 연령별 구분 /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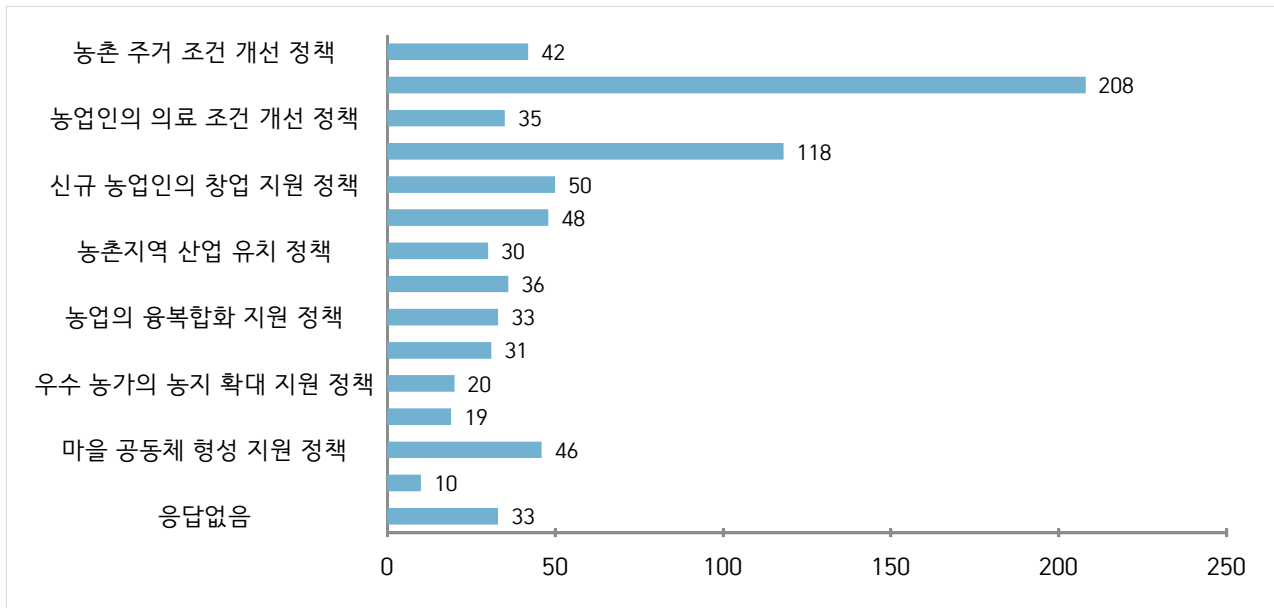
구분		도농 격차해소	농업인 적정 소득	(농업인의 건강)	농촌발전 정책	(이주민 주민과의 갈등해소)	이주민 적응	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	(농가 농업유지)	농촌인구 노령화 방지	(전통유지 를 위한 노력필요)
성 별	여성	3.2점	3.2점	3.8점	3.2점	3.7점	3.1점	3.2점	2.8점	3.0점	3.5점
	남성	2.9점	3.1점	3.5점	3.2점	3.4점	3.1점	3.2점	2.7점	3.0점	3.4점
연 령	10~20대	3.1점	3.3점	3.3점	3.4점	3.4점	3.4점	3.4점	2.7점	3.0점	3.4점
	30대	3.0점	3.1점	3.7점	3.1점	3.5점	3.0점	3.2점	2.9점	2.9점	3.5점
	40대	3.1점	3.2점	3.7점	3.2점	3.7점	3.1점	3.2점	2.8점	3.0점	3.5점
	50대	3.0점	3.0점	3.7점	3.2점	3.6점	3.1점	3.2점	2.7점	2.9점	3.5점
	60대 이상	3.0점	3.1점	3.7점	3.4점	3.8점	3.1점	3.1점	3.1점	3.0점	3.6점

- 남녀 응답에서는 여성이 도농격차해소, 농업인의 건강, 이주민과의 갈등해소 질문에 남성 보다 높은 응답 점수를 보임.

4-6-1 순천시 농업·농촌 부분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촌 주거 조건 개선 정책 - 42명(5.5%)
- ② 농업 소득 개선 정책 - 208명(27.4%)
- ③ 농업인의 의료 조건 개선 정책 - 35명(4.6%)
- ④ 농촌 인구 유입 지원 정책 - 118명(15.5%)
- ⑤ 신규 농업인의 창업 지원 정책 - 50명(6.6%)
- ⑥ 농촌 환경 보호 정책 - 48명(6.3%)
- ⑦ 농촌 지역 산업 유치 정책 - 30명(4.0%)
- ⑧ 농촌 생활권 단위 지역 개발 정책 - 36명(4.7%)
- ⑨ 농업의 융복합화 지원 정책 - 33명(4.3%)
- ⑩ 노령농가의 은퇴 지원 정책 - 31명(4.1%)
- ⑪ 우수 농가의 농지 확대 지원 정책 - 20명(2.6%)
- ⑫ 마을 단위 기업 지원 정책 - 19명(2.5%)
- ⑬ 마을 공동체 형성 지원 정책 - 46명(6.1%)
- ⑭ 기타의견 - 10명(1.3%)
- ⑮ 응답없음 - 33명(4.3%)

※복수응답자 48명



기타 의견 : ①~⑬ 모두해당, 모르겠음

- 순천시 농업·농촌에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경제 산업 영역에서 소득의 양극화 질문에 높은 응답 점수를 보이듯 농촌의 문제에서도 도농간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농업 소득 개선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을 보임.
- 도시 그리고 농촌에 시급한 문제는 소득의 양극화 임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 및 지표가 필요함.
- 귀농, 귀촌과 같은 농촌 인구 유입 지원 정책과 신규 농업인 창업 지원, 농촌 환경 보호, 마을 공동체 형성 지원 정책에도 많은 응답을 보임.
- 고령화 및 사라지는 농촌의 대안으로 먼저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 지원책과 신규 농업인이 잘 적응할 수 있는 창업지원 및 새로운 이주민과 원주민간의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

4-7. 순천시 도시·교통·환경영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생각을 표시해주십시오.

○ 전체 응답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응답없음
	1점	2점	3점	4점	5점	
나는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힘쓰는 편이다.	19명 (2.7%)	60명 (8.6%)	168명 (24.0%)	282명 (40.3%)	160명 (22.9%)	11명 (1.6%)
순천만의 생태환경은 좋아지고 있다.	28명 (4.0%)	66명 (9.4%)	220명 (31.4%)	278명 (39.7%)	98명 (14.0%)	10명 (1.4%)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도시이다.	79명 (11.3%)	188명 (26.9%)	225명 (32.1%)	134명 (19.1%)	66명 (9.4%)	8명 (1.1%)
‘순천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대해 알고 있다.	116명 (16.6%)	167명 (23.9%)	255명 (36.4%)	110명 (15.7%)	42명 (6.0%)	10명 (1.4%)
지역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9명 (4.1%)	91명 (13.0%)	338명 (48.3%)	186명 (26.6%)	45명 (6.4%)	11명 (1.6%)
하천수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4명 (3.4%)	78명 (11.1%)	278명 (39.7%)	234명 (33.4%)	73명 (10.4%)	13명 (1.9%)
공원이 많아지고 있다.	13명 (1.9%)	60명 (8.6%)	187명 (26.7%)	291명 (41.6%)	137명 (19.6%)	12명 (1.7%)

- 순천시민은 도시환경 영역 중 생활쓰레기 줄이기, 지역 에너지 문제 해결,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해 시민 및 정책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함
- 순천시의 공원이 증가하고 있다. 는 질문에 높은 응답점수를 보임
-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보통(3.0) 이하의 응답 점수를 보임
 - 순천시 친환경 조례 및 정책의 홍보가 필요함
- 순천시는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도시이다. 질문 응답에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자전거 대중화를 위해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도로 및 안전한 자전거 시스템이 필요함

○ 성별 및 연령별 구분 / 평균점수

구분		쓰레기 줄이기 실천	순천만 생태환경	(자전거 이용 불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에너지 문제해결	하천수질 관리	공원
성별	여성	3.3점	3.6점	2.8점	2.6점	3.2점	3.4점	3.7점
	남성	3.7점	3.5점	2.7점	2.8점	3.2점	3.5점	3.6점
연령	10대~20대	3.5점	3.3점	2.8점	2.8점	3.3점	3.5점	3.5점
	30대	3.5점	3.5점	2.9점	2.4점	2.9점	3.1점	3.4점
	40대	3.8점	3.5점	3.0점	2.7점	3.2점	3.4점	3.8점
	50대	3.8점	3.4점	2.8점	2.8점	3.1점	3.4점	3.8점
	60대 이상	3.7점	3.5점	2.5점	2.6점	3.1점	3.3점	3.1점

- 남녀 성별 응답에서는 쓰레기 줄이기 실천에서 남성이 여성 보다 적극적으로 쓰레기 줄이기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다른 질문에서는 남녀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음

4-7-1 순천시의 도시·교통·환경 정책 중 생각하고 계시는 잘된 점이나 잘 못된 점이 있다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잘된점

- 초등학교 교통비 지원
- 버스알림 서비스
- 마을버스
- 노선 버스 운영 및 정보제공
- 순천, 광양, 여수 시내버스 통합
- 주도로와, 보조도로의 구분에 따른 차량이동
- 온누리 자전거
- 친환경 녹색 건축물 지원
- 개인 소규모 태양광 지원 사업
- 도로 포장 및 보완정책 / 도로정비 / 도로망
- 순천시내 오페수 처리 시설
- 연향동 패션의 거리, 주택단지 공원 조성
- 가로수 나무 관리가 잘 되어 그늘이 많음
- 자연을 그대로 지켜내(순천만, 호수공원)
- 깔끔하다, 깨끗한 거리
- 문화의 거리 조성
- 횡단보도 그늘막

잘못된점

- 주차문제(시내, 아파트, 주택가), 불법주차, 주차장 협소, 주차공간 부족, 시내 주차장 부족
- 자전거 도로 활성화 정책, 자전거 도로이용이 불편함
- 버스 대기시간이 길
-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
- 외곽의 농촌 교통 문제
-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오래된 고목을 마구 베어버림
- 정책에 의한 도시개발 일방적 추진
- 잦은 도로공사가 많아 불편 / 도로포장 미흡
- 택지 개발 시 도로나 공공용 부지가 적음

- 유동인구가 많은 아랫장 중간에 심은 나무와, 철블럭 때문에 길이 막힘(불법주차, 차막힘 심화)
- 휴일 토, 일요일 중앙병원 사거리에서 중앙시장 신한은행 지점 사이 일시 택시 정류장 (중앙시장 입구) 등 주정차 방치로 교통 방해
- 쓰레기 문제 : 농촌 쓰레기 처리, 거리에 쓰레기통 부족
- 공원 내 애완 출입 안내 부족
- 정원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나 유지가 되지 않음
- 개발이 난무해 태초의 환경이 없어짐
- 정원박람회 부근 새로 짓는 건물이 너무 많아 새들이 쉴 곳이 없음, 환경에 나쁜 영향
- 나무가 인위적으로 너무 많이 심어져 있는 곳이 있어 답답함

기타의견

-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에 대한 고민 필요.
- 대규모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가 많아지면 좋겠다.(순천은 축분과 농작물을 활용하는 에너지를 통해 농촌과 도시가 함께 이익 공유가 가능한 바이오가스 발전 시설이 어울림)
- 황금백화점 활용하기
- 순천만 정원이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다양한 공연 및 축제가 자주 열렸으면)
- 산책로 / 기적의 놀이터가 늘었으면 좋겠다.
- 순천시 내 포트홀로 인한 고속도로 위생상태 보완 개선
- 시내버스 색깔 및 도안 개정, 버스노선의 다양화(겹치지 않게 조정)
- 노선불균형 조절(예 : 연향동 조례동에 (변화가) 치우쳐있는 대중교통 노선을 확대)
- 신도시와 여가 문화, 복지 공간 간의 이동수단을 늘려야 함
- 버스기사 복지를 높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친절도와 근무 태도 개선)
- 소외지역 교통편의에 신경을 더 써야함(외진마을 버스운영, 면단위 버스 추가배정, 마을버스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책 필요)
- 대중교통 활성화 필요
- 자전거 시설 증가 및 자전거 도로 개선, 자전거 도로 교통단속
- 주차시설 확대 필요, 순천역 및 고속터미널 주차장 개선(시설 및 요금)
- 사고 다발구역에 대한 대책마련
- 재활용품의 다양한 활용 정책 필요
- 재활용 센터 유치 및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 새로운 도심형성시 주차장 (공용 주차장 포함) 반드시 확보
- 도로 부분 확장 등 도시 계획 시설 재정비 필요(무분별한 주거 아파트, 상업용 시설 등이 확장되는 경향이 있음)
- 도시계획 추진 시 교통 여건의 고려가 필요(예 : 택지 개발 시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 및 도로 폭 확보)
- 도로 공사 시 전기, 가스, 환경 등 통합한 것이 아니면 예산이 낭비 될 수 있음
- 가로수를 심을 때 상가 앞에는 키 큰 나무 보다 건물 간판을 가리지 않는 정도의 높이를 유지하는 나무를 심어야 함.
- 구도심 치안 강화
- 탁상 행정이 아닌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열정과 사명감 있는 공무원들의 모습이 보고싶음
- 노인 복지시설 확대

- 온누리 자전거 보급을 잘된점으로 평가하지만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이용 불편함에 대한 의견이 많음

·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지표 필요

[첨부자료5]

남북협력지표 개발을 위한 순천시민 통일의식 설문조사

1) 조사목적

2015년 9월 유엔회원국가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해 ‘빈곤의 종식’을 1항으로 하는 총 17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발표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개념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에 더불어 환경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국가들은 함께 어떤 노력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약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시행한 설문 조사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항 '인권/정의/평화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할 수 있는 남북협력'과 관련된 내용이다.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는 선언적 가치를 넘어 지역(Local)에서 민관협력의 실천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위 16항의 지표개발을 위한 지역 시민 통일의식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2) 조사방법

가. 조사명칭: 남북협력 지표개발을 위한 ‘순천시민의식’조사

나. 조사기간: 2018. 12. 10. ~ 12. 14.

다. 조사기관: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라. 조사내용: 통일을 의제로 순천시민의 의식을 알 수 있는 문항 9개(객관식8, 자유의견1)

마. 조사방법: 구글(goo.gl) 설문지를 순천 주요 커뮤니티에 올려 온라인 조사, 오프라인 조사

바. 응답자 수: 331명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조사대상자의 성별

성 별	명(%)
남성	176(53.2%)
여성	155(46.8%)
합계	331(100.0%)

조사 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176명(53.2%), 여성이 155명(46.8%) 총 331명이다.

나. 조사대상자의 연령대

연령대	명(%)
19세 이하	48(14.5%)
20대	54(16.3%)
30대	41(12.4%)
40대	73(22.0%)
50대	88(26.6%)
60대 이상	27(8.2%)
합 계	331(100.0%)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19세 이하가 48명(14.5%), 20대가 54명(16.3%), 30대가 41명(12.4%), 40대가 73명(22.0%), 50대가 88명(26.6%), 60대 이상이 27명(8.2%)으로 총 331명이다. 그룹집단을 넓혀보면 20대 이하가 30.9%, 30~40대가 34.1%, 50대 이상이 34.9%로 대체로 고른 연령대에서 설문 조사에 응답했다.

4. 조사결과 및 분석

가. 객관식 문항별 조사 결과

1) 통일 및 북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② 관심이 있는 편이다. ③ 관심이 없는 편이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단위: 명)

구분	남성					남성계	여성					여성계	계					총 계
	①	②	③	④	기타		①	②	③	④	기타		①	②	③	④	기타	
20세 미만	7	15	4	1	0	27	4	11	5	1	0	21	11	26	9	2	0	48
	26%	56%	15%	4%	%	100%	19%	52%	24%	5%	%	100%	23%	54%	19%	4%	%	100%
20세 ~29세	7	17	4	0	0	28	3	18	5	0	0	26	10	35	9	0	0	54
	25%	61%	14%	%	%	100%	12%	69%	19%	%	%	100%	19%	65%	17%	%	%	100%
30세 ~39세	4	9	4	0	0	17	2	14	7	1	0	24	6	23	11	1	0	41
	24%	53%	24%	%	%	100%	8%	58%	29%	4%	%	100%	15%	56%	27%	2%	%	100%
40세 ~49세	31	9	0	1	0	41	17	15	0	0	0	32	48	24	0	1	0	73
	76%	22%	%	2%	%	100%	53%	47%	%	%	%	100%	66%	33%	%	1%	%	100%
50세 ~59세	37	13	0	0	0	50	20	16	2	0	0	38	57	29	2	0	0	88
	74%	26%	%	%	%	100%	53%	42%	5%	%	%	100%	65%	33%	2%	%	%	100%
60세 이상	9	4	0	0	0	13	11	3	0	0	0	14	20	7	0	0	0	27
	69%	31%	%	%	%	100%	79%	21%	%	%	%	100%	74%	26%	%	%	%	100%
계	95	67	12	2	0	176	57	77	19	2	0	155	152	144	31	4	0	331
	54%	38%	7%	1%	%	100%	37%	50%	12%	1%	%	100%	46%	44%	9%	1%	%	100%

먼저 우리나라 통일 및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질문에 매우 관심이 있다는 시민이 152명으로 전체 46%를 차지하였고 관심이 있는 편이라는 44%를 차지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거나 관심이 있는 시민이 90%로 시민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40~50대가 관심도가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남성의 관심도가 높았고 여성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령대로 보면 40대 이상의 응답자 188명 중 185명 98%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응답을 했다.

2) 통일 및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① TV, 라디오 ② 신문, 잡지 ③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홍보 ④ 인터넷

(단위: 명)

구분	남성					남성계	여성					여성계	계					총 계
	①	②	③	④	기타		①	②	③	④	기타		①	②	③	④	기타	
20세 미만	15	0	0	4	8	27	6	0	0	6	9	21	21	0	0	10	17	48
	56%	%	%	15%	30%	100%	29%	%	%	29%	43%	100%	44%	%	%	21%	35%	100%
20세 ~29세	9	0	1	15	3	28	8	1	0	12	5	26	17	1	1	27	8	54
	32%	%	4%	54%	11%	100%	31%	4%	%	46%	19%	100%	31%	2%	2%	50%	15%	100%
30세 ~39세	6	2	1	8	0	17	17	2	0	4	1	24	23	4	1	12	1	41
	35%	12%	6%	47%	%	100%	71%	8%	%	17%	4%	100%	56%	10%	2%	29%	2%	100%
40세 ~49세	7	4	8	17	5	41	15	1	2	13	1	32	22	5	10	30	6	73
	17%	10%	20%	41%	12%	100%	47%	3%	6%	41%	3%	100%	30%	7%	14%	41%	8%	100%
50세 ~59세	19	4	7	19	1	50	18	1	8	6	5	38	37	5	15	25	6	88
	38%	8%	14%	38%	2%	100%	47%	3%	21%	16%	13%	100%	42%	6%	17%	28%	7%	100%
60세 이상	6	2	2	3	0	13	9	1	0	3	1	14	15	3	2	6	1	27
	46%	15%	15%	23%	%	100%	64%	7%	%	21%	7%	100%	56%	11%	7%	22%	4%	100%
계	62	12	19	66	17	176	73	6	10	44	22	155	135	18	29	110	39	331
	35%	7%	11%	38%	10%	100%	47%	4%	6%	28%	14%	100%	41%	5%	9%	33%	12%	100%

통일 및 북한에 관한 정보를 듣게 될 때 어떤 경로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TV, 라디오 등의 매체라고 응답한 시민이 135명으로 41%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인터넷이 33%를 차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취득이 66명으로 38%를 여성은 TV, 라디오를 통한 정보 취득이 73명 47%로 가장 높았다. 다만, 인터넷의 경우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언론매체 기사를 통해 정보를 얻는지 온라인 커뮤니티나 팟캐스트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지가 세부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홍보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는 29명 9%인데 40대 남성이 8명 20%, 50대 여성이 8명 21%로 가장 높게 차지했다. 비교적 연령대가 낮을수록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취득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3)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대체로 필요하다. ③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단위: 명)

구분	남성					남성계	여성					여성계	계					총 계
	①	②	③	④	기타		①	②	③	④	기타		①	②	③	④	기타	
20세 미만	10	13	0	4	0	27	7	9	3	2	0	21	17	22	3	6	0	48
	37%	48%	%	15%	%	100%	33%	43%	14%	10%	%	100%	35%	46%	6%	13%	%	100%
20세~29세	10	11	4	3	0	28	6	15	5	0	0	26	16	26	9	3	0	54
	36%	39%	14%	11%	%	100%	23%	58%	19%	%	%	100%	30%	48%	17%	6%	%	100%
30세~39세	8	6	2	1	0	17	5	13	6	0	0	24	13	19	8	1	0	41
	47%	35%	12%	6%	%	100%	21%	54%	25%	%	%	100%	32%	46%	20%	2%	%	100%
40세~49세	35	6	0	0	0	41	20	10	2	0	0	32	55	16	2	0	0	73
	85%	15%	%	%	%	100%	63%	31%	6%	%	%	100%	75%	22%	3%	%	%	100%
50세~59세	43	7	0	0	0	50	29	6	3	0	0	38	72	13	3	0	0	88
	86%	14%	%	%	%	100%	76%	16%	8%	%	%	100%	82%	15%	3%	%	%	100%
60세 이상	9	4	0	0	0	13	11	3	0	0	0	14	20	7	0	0	0	27
	69%	31%	%	%	%	100%	79%	21%	%	%	%	100%	74%	26%	%	%	%	100%
계	115	47	6	8	0	176	78	56	19	2	0	155	193	103	25	10	0	331
	65%	27%	3%	5%	%	100%	50%	36%	12%	1%	%	100%	58%	31%	8%	3%	%	100%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냐고 질문한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민이 296명으로 89%를 차지하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시민이 35명으로 11%를 차지하였다.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도 193명 58%로 통일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시민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남성의 92% 여성의 86%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남성이 필요성을 높게 응답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통일의 필요성이 높게 나왔다. 이는 앞선 1번 문항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관심도와 비슷한 결과인데, 다만 매우 관심이 높다가 152명 46%였는데 반해 통일의 필요성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193명 58%로 상대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4) 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통일 비용 등 경제적 부담 ② 주변 국가들의 경계 ③ 핵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④ 남북한 문화적 차이/갈등
(단위: 명)

구분	남성					남성계	여성					여성계	계					총 계
	①	②	③	④	기타		①	②	③	④	기타		①	②	③	④	기타	
20세 미만	2	4	10	8	3	27	1	6	3	4	7	21	3	10	13	12	10	48
	7%	15%	37%	30%	11%	100%	5%	29%	14%	19%	33%	100%	6%	21%	27%	25%	21%	100%
20세~29세	9	2	3	6	8	28	3	5	5	5	8	26	12	7	8	11	16	54
	32%	7%	11%	21%	29%	100%	12%	19%	19%	19%	31%	100%	22%	13%	15%	20%	30%	100%
30세~39세	2	3	4	5	3	17	1	7	6	8	2	24	3	10	10	13	5	41
	12%	18%	24%	29%	18%	100%	4%	29%	25%	33%	8%	100%	7%	24%	24%	32%	12%	100%
40세~49세	3	24	5	3	6	41	4	16	2	6	4	32	7	40	7	9	10	73
	7%	59%	12%	7%	15%	100%	13%	50%	6%	19%	13%	100%	10%	55%	10%	12%	14%	100%
50세~59세	6	27	9	4	4	50	5	19	2	9	3	38	11	46	11	13	7	88
	12%	54%	18%	8%	8%	100%	13%	50%	5%	24%	8%	100%	13%	52%	13%	15%	8%	100%
60세 이상	1	3	5	3	1	13	1	4	3	4	2	14	2	7	8	7	3	27
	8%	23%	38%	23%	8%	100%	7%	29%	21%	29%	14%	100%	7%	26%	30%	26%	11%	100%
계	23	63	36	29	25	176	15	57	21	36	26	155	38	120	57	65	51	331
	13%	36%	20%	16%	14%	100%	10%	37%	14%	23%	17%	100%	11%	36%	17%	20%	15%	100%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주변국가들의 경계라고 응답한 시민이 120명으로 3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남북한 문화적 차이/갈등 이라고 응답한 시민이 65명으로 20%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통일을 위해서는 대외적인 국제정세 안정 속에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줄여가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57명 17%로 3위를 차지했는데 특히 남성층에서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20세 미만 층과 전쟁을 가까이에서 겪은 60세 이상 층에서 높은 응답률이 나왔다.

5) 통일과 남북협력을 위해 지금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경제교류와 협력 ②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증진 활동 ③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④ 통일이후 사회적 통합을 대비한 기금 마련

(단위: 명)

구분	남성					남성계	여성					여성계	계					총 계
	①	②	③	④	기타		①	②	③	④	기타		①	②	③	④	기타	
20세 미만	0	4	6	14	3	27	5	1	10	5	0	21	5	5	16	19	3	48
	%	15%	22%	52%	11%	100%	24%	5%	48%	24%	%	100%	10%	10%	33%	40%	6%	100%
20세~29세	6	3	5	7	7	28	8	4	9	5	0	26	14	7	14	12	7	54
	21%	11%	18%	25%	25%	100%	31%	15%	35%	19%	%	100%	26%	13%	26%	22%	13%	100%
30세~39세	6	1	6	3	1	17	9	5	4	6	0	24	15	6	10	9	1	41
	35%	6%	35%	18%	6%	100%	38%	21%	17%	25%	%	100%	37%	15%	24%	22%	2%	100%
40세~49세	8	2	24	1	6	41	15	6	7	3	1	32	23	8	31	4	7	73
	20%	5%	59%	2%	15%	100%	47%	19%	22%	9%	3%	100%	32%	11%	42%	5%	10%	100%
50세~59세	19	5	22	2	2	50	14	11	10	3	0	38	33	16	32	5	2	88
	38%	10%	44%	4%	4%	100%	37%	29%	26%	8%	%	100%	38%	18%	36%	6%	2%	100%
60세 이상	6	5	0	2	0	13	1	3	6	4	0	14	7	8	6	6	0	27
	46%	38%	%	15%	%	100%	7%	21%	43%	29%	%	100%	26%	30%	22%	22%	%	100%
계	45	20	63	29	19	176	52	30	46	26	1	155	97	50	109	55	20	331
	26%	11%	36%	16%	11%	100%	34%	19%	30%	17%	1%	100%	29%	15%	33%	17%	6%	100%

통일과 남북협력을 위해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109명 33%로 가장 많았고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경제교류와 협력이라고 응답한 시민도 97명으로 29%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시민들은 안정적인 평화체제 기반에서 실익적인 경제교류 협력을 통해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간의 성별 견해차를 볼 수 있었는데 여성은 경제교류와 협력에 52명 34%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남성은 평화협정 체결에 63명 3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로써 여성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남성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항은 20세 미만의 남성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고 통일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은 14명 52%로 가장 높게 나왔다. 20세 미만의 여성층에서도 통일기금 마련에 대해 24%의 비교적 높은 응답을 보였다. 심층적인 추가 조사가 있어야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청소년층에서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이 내재하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북한 평안남도의 순천를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단위: 명)

구분	남성					남성계	여성					여성계	계					총 계
	①	②	③	④	기타		①	②	③	④	기타		①	②	③	④	기타	
20세 미만	15 56%	12 44%				27 100%	13 62%	8 38%				21 100%	28 58%	20 42%				48 100%
20세 ~29세	13 46%	15 54%				28 100%	12 46%	14 54%				26 100%	25 46%	29 54%				54 100%
30세 ~39세	9 53%	8 47%				17 100%	16 67%	8 33%				24 100%	25 61%	16 39%				41 100%
40세 ~49세	36 88%	5 12%				41 100%	19 59%	13 41%				32 100%	55 75%	18 25%				73 100%
50세 ~59세	47 94%	3 6%				50 100%	26 68%	12 32%				38 100%	73 83%	15 17%				88 100%
60세 이상	10 77%	3 23%				13 100%	10 71%	4 29%				14 100%	20 74%	7 26%				27 100%
계	130 74%	46 26%				176 100%	96 62%	59 38%				155 100%	226 68%	105 32%				331 100%

남한 순천시와 동명인 북한 평안남도의 순천시를 아느냐는 질문엔 226명 68%의 시민이 알고 있다, 105명 32%의 시민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남성은 알고 있다가 130명 74%, 여성은 96명 62%로 여성보다 남성이 북한 순천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남성에서는 50대에서 47명 94%, 여성에서는 60대에서 71%로 알고 있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다. 모른다는 의견은 남녀 모두 20대가 같은 54%로 가장 높았다.

7) 통일이 되면 해보고 싶은 것은?

① 기차타고 떠나는 북한, 중국, 러시아 유럽여행 ② 북한의 역사, 문화, 자연 명소탐방 ③ 북한의 맛집 탐방 ④ 한반도 도보 여행
(단위: 명)

구분	남성					남성계	여성					여성계	계					총 계
	①	②	③	④	기타		①	②	③	④	기타		①	②	③	④	기타	
20세 미만	19 70%	2 7%	3 11%	1 4%	2 7%	27 100%	16 76%	3 14%	2 10%	0 %	0 %	21 100%	35 73%	5 10%	5 10%	1 2%	2 4%	48 100%
20세 ~29세	12 43%	13 46%	3 11%	0 %	0 %	28 100%	13 50%	5 19%	5 19%	0 %	1 4%	26 100%	25 46%	18 33%	8 15%	2 4%	1 2%	54 100%
30세 ~39세	9 53%	6 35%	0 %	2 12%	0 %	17 100%	10 42%	10 42%	4 17%	0 %	0 %	24 100%	19 46%	16 39%	4 10%	2 5%	0 %	41 100%
40세 ~49세	15 37%	24 59%	1 2%	1 2%	0 %	41 100%	20 63%	7 22%	2 6%	1 3%	1 3%	32 100%	35 48%	31 42%	3 4%	3 4%	1 1%	73 100%
50세 ~59세	22 44%	24 48%	0 %	2 4%	2 4%	50 100%	22 58%	13 34%	1 3%	1 3%	2 5%	38 100%	44 50%	37 42%	1 1%	2 2%	4 5%	88 100%
60세 이상	5 38%	6 46%	0 %	1 8%	1 8%	13 100%	11 79%	2 14%	0 %	0 %	0 %	14 100%	16 59%	8 30%	0 %	2 7%	1 4%	27 100%
계	82 47%	75 43%	7 4%	7 4%	5 3%	176 100%	92 59%	40 26%	14 9%	2 1%	4 3%	155 100%	174 53%	115 35%	21 6%	12 4%	9 3%	331 100%

통일이 되면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기차 타고 북한, 중국, 러시아,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는 의견이 174명 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5명 35%는 북한의 역사, 문화, 자연 명소 탐방이 뒤를 이었다. 여성에서는 나이에 따른 1, 2위 간 변화가 없었지만 남성에서는 2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층에서 북한의 명소 탐방이 더 높은 결과가 나와 흥미로웠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싶다는 응답에서 남성은 20세 미만이 19명 70%, 여성은 60세 이상이 11명 79%로 가장 높게 나왔다.

8) 통일은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① 5년 이내 ② 10년 이내 ③ 20년 이내 ④ 20년 이상

(단위: 명)

구분	남성					남성계	여성					여성계	계					총 계
	①	②	③	④	기타		①	②	③	④	기타		①	②	③	④	기타	
20세 미만	5	8	6	7	1	27	1	6	8	5	1	21	6	14	14	12	2	48
	19%	30%	22%	26%	4%	100%	5%	29%	38%	24%	5%	100%	13%	29%	29%	25%	4%	100%
20세 ~29세	2	6	6	13	1	28	0	7	15	3	1	26	2	13	21	16	2	54
	7%	21%	21%	46%	4%	100%	%	27%	58%	12%	4%	100%	4%	24%	39%	30%	4%	100%
30세 ~39세	2	2	4	8	1	17	3	8	2	11	0	24	5	10	6	19	1	41
	12%	12%	24%	47%	6%	100%	13%	33%	8%	46%	%	100%	12%	24%	15%	46%	2%	100%
40세 ~49세	10	17	10	2	2	41	6	16	4	6	0	32	16	33	14	8	2	73
	24%	41%	24%	5%	5%	100%	19%	50%	13%	19%	%	100%	22%	45%	19%	11%	3%	100%
50세 ~59세	4	25	14	6	1	50	15	14	5	3	1	38	19	39	19	9	2	88
	8%	50%	28%	12%	2%	100%	39%	37%	13%	8%	3%	100%	22%	44%	22%	10%	2%	100%
60세 이상	3	7	1	1	1	13	5	7	1	1	0	14	8	14	2	2	1	27
	23%	54%	8%	8%	8%	100%	36%	50%	7%	7%	%	100%	30%	52%	7%	7%	4%	100%
계	26	65	41	37	7	176	30	58	35	29	3	155	56	123	76	66	10	331
	15%	37%	23%	21%	4%	100%	19%	37%	23%	19%	2%	100%	17%	37%	23%	20%	3%	100%

통일이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10년 이내라는 의견이 123명 37%로 가장 많았고 20년 이내라고 응답한 시민도 76명으로 23%를 차지했다. 20년 이상 걸린다는 의견은 10명 3%에 불과했는데 이로써 전체 시민 중 97%가 향후 20년 안에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설문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전체 설문에서 가장 작은 차이가 나기도 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가 5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 이란 의견이 22%로 가장 높았고 10년 이내는 60세 이상이 52%, 20년 이내는 20대가 39%, 20년 이상은 20세 미만과 60세 이상이 4%로 가장 높았다. 비교적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른 시기에 통일이 될 것이란 생각이 높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통일이 늦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9) 통일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군사비 등 분단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② 전쟁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③ 역사적으로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④ 우리나라의 국력 강화를 위하여

(단위: 명)

구분	남성					남성계	여성					여성계	계					총 계
	①	②	③	④	기타		①	②	③	④	기타		①	②	③	④	기타	
20세 미만	6	6	5	0	3	27	1	3	4	1	12	21	7	9	9	1	22	48
	22%	22%	19%	%	11%	100%	5%	14%	19%	5%	57%	100%	15%	19%	19%	2%	46%	100%
20세 ~29세	5	4	2	4	1	28	4	4	2	4	12	26	9	8	4	8	25	54
	18%	14%	7%	14%	4%	100%	15%	15%	8%	15%	46%	100%	17%	15%	7%	15%	46%	100%
30세 ~39세	2	2	2	3	1	17	3	4	1	8	8	24	5	6	3	11	16	41
	12%	12%	12%	18%	6%	100%	13%	17%	4%	33%	33%	100%	12%	15%	7%	27%	39%	100%
40세 ~49세	2	12	10	11	3	41	5	5	8	7	7	32	7	17	18	18	13	73
	5%	29%	24%	27%	7%	100%	16%	16%	25%	22%	22%	100%	10%	23%	25%	25%	18%	100%
50세 ~59세	10	13	17	6	2	50	5	8	7	7	11	38	15	21	24	13	15	88
	20%	26%	34%	12%	4%	100%	13%	21%	18%	18%	29%	100%	17%	24%	27%	15%	17%	100%
60세 이상	4	2	4	2	1	13	4	4	1	4	1	14	8	6	5	6	2	27
	31%	15%	31%	15%	8%	100%	29%	29%	7%	29%	7%	100%	30%	22%	19%	22%	7%	100%
계	29	39	40	26	11	176	22	28	23	31	51	155	51	67	63	57	93	331
	16%	22%	23%	15%	6%	100%	14%	18%	15%	20%	33%	100%	15%	20%	19%	17%	28%	100%

이 설문 항목은 위 3번 항목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종속항의 질문이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층을 위주로 한 통일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67명 20%의 시민이 전쟁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뽑았다. 2위는 63명 19%를 차지한 역사적으로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라고 응답했다. 다만 여성층의 1위는 국력 강화라는 의견이 31명 20%를 차지해 남녀 간 약간의 견해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0)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 ②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 ③ 언어, 문화적 차이 등 하나의 민족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 ④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갈등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단위: 명)

구분	남성					남성계	여성					여성계	계					총 계
	①	②	③	④	기타		①	②	③	④	기타		①	②	③	④	기타	
20세 미만	1	2	5	2	17	27	1	2	3	2	13	21	2	4	8	4	30	48
	4%	7%	19%	7%	63%	100%	5%	10%	14%	10%	62%	100%	4%	8%	17%	8%	63%	100%
20세 ~29세	1	4	4	5	14	28	0	0	2	3	21	26	1	4	6	8	35	54
	4%	14%	14%	18%	50%	100%	%	%	8%	12%	81%	100%	2%	7%	11%	15%	65%	100%
30세 ~39세	2	0	1	2	12	17	0	0	3	5	16	24	2	0	4	7	28	41
	12%	%	6%	12%	71%	100%	%	%	13%	21%	67%	100%	5%	%	10%	17%	68%	100%
40세 ~49세	3	1	3	3	31	41	0	0	3	1	28	32	3	1	6	4	59	73
	7%	2%	7%	7%	76%	100%	%	%	9%	3%	88%	100%	4%	1%	8%	5%	81%	100%
50세 ~59세	1	2	2	0	45	50	0	1	1	1	35	38	1	3	3	1	80	88
	2%	4%	4%	%	90%	100%	%	3%	3%	3%	92%	100%	1%	3%	3%	1%	91%	100%
60세 이상	1	0	3	0	9	13	0	1	0	0	13	14	1	1	3	0	22	27
	8%	%	23%	%	69%	100%	%	7%	%	%	93%	100%	4%	4%	11%	%	81%	100%
계	9	9	18	12	128	176	1	4	12	12	126	155	10	13	30	24	254	331
	5%	5%	10%	7%	73%	100%	1%	3%	8%	8%	81%	100%	3%	4%	9%	7%	77%	100%

이 설문 항목 또한 위 3번 항목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종속항의 질문이다. 통일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층 위주로 한 답변이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언어, 문화적 차이 등 하나의 민족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가 30명으로 9%를 차지했다. 2위는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갈등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가 24명 7%였다. 특히 언어, 문화적 차이 등 하나의 민족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남녀 모두 2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나. 주관식 문항 조사 결과

11) 통일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우리시 또는 시민의 활동으로 제안할 것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 ✓ 1. 농업분야의 기술/자원 교류(남북 순천 간) 2. 생태보전 방안 공동 협력(순천-금강산 생물권보전지역 간)을 통해 통일 무드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특히, 통일이후 우려되는 북한의 난개발로부터 기존 생태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준비해 가면 좋겠습니다.
- ✓ 남과 북한의 협력사업 공동개발 및 친선교류 기관 단체 간 교류 친선 방문기회 제공
- ✓ 남북경제, 문화, 생태 등 교류사업 추진 국가정책의 적극적 지원요청
- ✓ 남북교류 및 서로에 대한 인식 증진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남북교류에 대한 시민 인식 교육이 필요 합니다
- ✓ 남북통일인식개선
- ✓ 내용을 은폐하지 말고 오픈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 도 가 되어 좋은 결과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 ✓ 너무 멀어요
- ✓ 농업 활성화를 통한 통일 기반 조성
- ✓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 되 언제 뒷통수 칠치 모르니 항상 경계
- ✓ 마음을 열고 교육을 해야 함
- ✓ 문화교류
- ✓ 문화와 경제교류
- ✓ 문화적 차이 줄이기 위한 홍보?
- ✓ 문화교류
- ✓ 뭐든...발로 뛰어가... 소통, 교류, 공감...
- ✓ 미래를 보고 서두루지 말고 차근차근 하면 좋겠다
- ✓ 민간 교류(구호품 식량 등 지원)사업을 추진
- ✓ 민간 예술 교류
- ✓ 민간 차원의 활발한 교류
- ✓ 민간교류 - 문화답사

- ✓ 민간인 교류지원과 통일정세 바로알기 공간마련
- ✓ 민간인 왕래
- ✓ 보건 의료 분야의 지원 및 문화 교류
- ✓ 북의 순천과의 여러 방면의 교류를 통해 물꼬를 트는 일
- ✓ 북한 대표단(선수단) 순천 초청, 교류활동
- ✓ 북한 말투를 개그로 써먹지 않기. 똑같은 사람 대하듯이, 외국인 같이 차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기.
- ✓ 북한 바로 알기 (독재자 미화 하지 않기)
- ✓ 북한 바로알기 홍보교육 강화
- ✓ 북한 순천시에 트랙터보내기
- ✓ 북한 순천시와 교류
- ✓ 북한 순천시와의 교류
- ✓ 북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확대 필요
- ✓ 북한 제대로 알기
- ✓ 북한과 민간교류가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 여행도 좋습니다.
- ✓ 북한말 알기 .우리말 알리기
- ✓ 북한바로알기
- ✓ 북한에 대한 인식개선
- ✓ 북한에 농기구 보내기
- ✓ 북한여행, 순천초대, 통일과 남북교류협력 글짓기대회 등
- ✓ 북한여행길이 열릴 것으로 기다리고 대비하기 위해 사전모임 구성 실행
- ✓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움시다.
- ✓ 북한을 지나치게 찬양해서도 안되고 북한을 고립시켜도 안된다
- ✓ 북한의 문화.경제.사회.주민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며 문화교류를 직접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하면 좋을듯합니다. 특히 순천은 농업활동에 필요한 장비들과 기술들 지원을 해나가는 것.
- ✓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민간교류활동

- ✓ 북한의 정원 디자이너를 초대하여 국가정원 한편을 디자인한다.
- ✓ 북한이 받기만하는 모습을 바꾸기 위해 양보만 하는 협력은 하지않는 마음가짐 가지기.
- ✓ 생태환경 탐방과 관광
- ✓ 서로 공유
- ✓ 순우리말 이름 갖기 운동, 통일기금 조성 및 북한내 적정한 투자처 발굴과 투자, 통일계좌 갖기 운동(은행과 연계)
- ✓ 스포츠 및 문화 예술 교류
- ✓ 시민 인식개선
- ✓ 시민의식의 변화, 교육 필요
- ✓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남북교류
- ✓ 시민인식증진, 통일의 필요성 교육
- ✓ 시청에 남북교류협력관 혹은 남북교류 자문가를 신설하여 공개 채용 혹은 임명
- ✓ 쌀을 많이 준다
- ✓ 우선적 북한과 경제 협력 후
- ✓ 월북 작가들의 책임기
- ✓ 유라시아 철도망 허브의 중심지가 될 한반도에서 내일로 명소인 순천이 빠지지 않게 노선정비 구축 대응 필요
- ✓ 유사 전문가들의 비판적 언론 플레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통일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홍보를 하되 근거와 논리를 명확하게 제작하여 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 일반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반도정세 및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 기회제공 필요.
- ✓ 자주통일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 ✓ 적극적인 민간교류
- ✓ 적극적인 통일사업 추진과 홍보,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 ✓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는 통일이야기(콘서트) 등의 기회로 공감대 형성을 유선해 나가는게 좋을 듯 합니다

- ✓ 정부에서 잘하고 있으니 순천시에서는 북한 순천시와의 교류 이판 소리로 앞서 가지 말아주세요
- ✓ 정치와 주권의식에 대한 이해 공부를 해야함.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함께 나누는 사회를 존중해야함. 국무총리가 14평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거 배워야함. 의사는 특권층이 아니라 봉사직 임을 확실하게 하는 직업, 세금 특히 영세업자들. 좀 고혈 좀 그만 빨아대시길 바랍니다. 북은 세금이 없어요.
- ✓ 좀 더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립니다.
- ✓ 지속적인 관심과 시민의견수렴 및 전통문화발전을 위한 교류
- ✓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 지역간, 연량대, 동서간 등부터 통일의 준비가 되도록 의식의 변화
- ✓ 차분한 준비·지속적인 교류자세
- ✓ 통일 관련 토론
- ✓ 통일 단체를 만든다
- ✓ 통일 애니메이션 제작
- ✓ 통일 트랙터 품앗이 운동에 함께해 주십시오
- ✓ 통일에 관련된 단체 활동과 지속적인관심
- ✓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부터 바꾸지 않으면 뭘해도 안 될 것
- ✓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
- ✓ 통일에 대한 정확한 현실직시와 북한 사회, 경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 ✓ 통일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의지
- ✓ 통일운동
- ✓ 통일을 위해 모든 사항을 준비하여야한다.
- ✓ 통일의 긍정적 측면을 다양한 방면(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찾아나갔으면 합니다. 통일을 마치 구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일은 우리의 미래적 가치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이며 현실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또한 지대한데 너무 정치적으로만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 ✓ 통일의 필요성을 어린세대들이 이해 할수 있는 캠페인
- ✓ 통일의 바람이 강한 시민이 필요
- ✓ 통일 의식 확산

- ✓ 통일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기 위한 인식 개선 활동
- ✓ 통일트랙터지원사업협조
- ✓ 평남 순천과 자매 결연을 맺어 다방면의 교류
- ✓ 평남 순천시와 교류 증진
- ✓ 평안남도 순천과 교류(사회 문화 체육)
- ✓ 평안남도 순천 알아보기
- ✓ 하나원 교육생들에 대한 관심 및 교류
- ✓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서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한반도 도보여행추진
- ✓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나라를 북한에게 갖다 주는 듯하다. 너무 급하게 통일을 준비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를 북한에게 넘기려는 것 같아 보인다. 이때까지 하던 게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준비하는 것은 통일을 한다 해도 문제가 나올 것이며 부정적인 모습이 분명 나올 것 이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다. 다만 지금은 너무 급하다 라는 것이다.
- ✓ 협력이 아닌 경계
- ✓ 홈스테이, 편지왕래

통일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우리시 또는 시민의 활동으로 제안할 것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라는 주관식 질문에 응답한 시민 100명의 의견이다.

5. 결론

본 설문 조사는 순천시민의 통일에 대한 의식과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여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항 ‘인권/정의/평화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할 수 있는 남북협력’의 지표를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진행하였다.

본 설문 조사를 통해 대다수의 시민이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답한 시민의 77%가 20년 안에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함으로써 순천시민들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민들은 TV, 라디오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통일의 장애물로는 주변 국가들의 경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남북협력을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체결과 경제교류 협력을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다수의 시민들이 북한 함경남도의 순천시를 알고 있었으며 통일이 되면 기차를 타고 북한, 아시아, 유럽을 여행하고 싶어 했다. 통일이 필요한 주요한 이유는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고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했고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분단의 고착화로 언어, 문화적 차이 등 하나의 민족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라고 생각했다.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고 빠른 시기에 통일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젊은 층으로 갈수록 통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에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비슷한 통일의식 설문 조사를 진행한 자료가 없어 시민들의 의식 흐름을 분석할 수는 없었다. 다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2018년 3월 2일 발행한 ‘2017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통해 비교하면 2018년 남북교류 분위기로 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과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비슷한 설문조항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남녀차이나 연령대에 따른 설문 결과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다만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같은 민족이라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쟁 위협 해소가 27%를 차지했는데 반해 순천시민은 20%가 전쟁 위협 해소, 19%가 같은 민족이라는 응답이었다. 역사적, 의식적으로 전쟁이나 폭력에 대한 내재된 공포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좀 더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주관식 문항으로 통일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우리시 또는 시민의 활동 제안 중 가장 많은 것은 남북한 간의 직접교류였고 이 중 9명은 평안남도 순천시와의 직접 교류를 제안했다.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지표 설정에 중요한 항목으로 (성과 달성에 유효한) 필요성, 지역성, (수치화할 수 있는) 구체성 등임을 고려할 때 남북한 순천시간의 인적, 물적 교류 항목은 좋은 지표가 될 것이다. 또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정보 취득 방식이 일방적인 언론매체의 비중이 높은바, 민간이 참가하는 청소년 통일 교육 횟수에 대한 지표를 세워 스스로 고민하는 토론식 통일 교육이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지표(SDG) 작성을 위한

순천시민의식조사(양식)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는 1996년 창립 이후 1997년부터 지속가능한 순천을 만들기 위하여 의제를 작성하고 5년마다 평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에 따라 순천시의 2030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의제 작성 전, 순천시민들의 생각과 고민을 찾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도 살기 좋은 도시 순천이 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순천시민의 행복 수준

1-1. 귀하가 최근에 경험한 감정을 묻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습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진 술 문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즐거웠다.	①-----②-----③-----④-----⑤
2. 편안했다.	①-----②-----③-----④-----⑤
3. 행복했다.	①-----②-----③-----④-----⑤
4. 짜증났다.	①-----②-----③-----④-----⑤
5. 무기력 했다.	①-----②-----③-----④-----⑤

2. 순천의 이미지

2-1. 다음 중 귀하가 생각하는 순천의 현재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
|----------|------------------------------|----------|
| ① 교육도시 | ② 환경생태도시 | ③ 관광축제도시 |
| ④ 시민중심도시 | ⑤ 청소년친화도시 | ⑥ 여성친화도시 |
| ⑦ 문화도시 | ⑧ 기타() | |

2-2. 다음 중 귀하가 생각하는 순천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
| ① 자연환경(순천만, 순천만국가정원 등) | ② 축제(푸드 앤 아트페스티벌, 갈대축제 등) |
| ③ 문화자원(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 순천왜성 등) | ④ 공공시설(기적의도서관, 기적의 놀이터 등) |
| ⑤ 정주여건(주거환경, 생활환경) | ⑥ 교육여건 |
| ⑦ 기타() | |

2-3. 앞으로 추구해야 하는 미래 순천의 도시상을 3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1 : / 2 : / 3 :)

- | | |
|-----------------------------------|------------------------------|
| 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도시 | ②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도시 |
| ③ 대중교통 이용이 쉬운 도시 | ④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 |
| ⑤ 교육환경이 잘 갖추어진 도시 | ⑥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 |
| ⑦ 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 | ⑧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 |
| ⑨ 주거시설이 잘 정비된 도시 | ⑩ 시민의 안전을 위해 치안이 잘 되어있는 도시 |
| ⑪ 자연환경이 쾌적한 도시 | ⑫ 관광 자원 및 관광 기반(인프라)이 우수한 도시 |
| ⑬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 | ⑭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교류가 활발한 도시 |
| ⑮ 도시 경관이 아름답게 구성된 도시 | ⑯ 시민이 친절한 도시 |
| ⑰ 외국인 등 외지인에게 개방적인 도시 | ⑰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발전하는 도시 |
| ⑲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도시 | |
| ⑳ 기타 의견(도시) | |

3.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까지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3-1. 귀하가 느끼는 순천시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진 술 문	매우 불만족 <---> 매우 만족
1. 순천은 다른 도시보다 경제적 여건이 좋다.	①-----②-----③-----④-----⑤
2. 순천은 다른 도시보다 산업적 여건이 좋다.	①-----②-----③-----④-----⑤
3. 순천은 다른 도시보다 복지 여건이 좋다.	①-----②-----③-----④-----⑤
4. 순천은 다른 도시보다 관광 여건이 좋다.	①-----②-----③-----④-----⑤
5. 순천은 다른 도시보다 주민자치 여건이 좋다.	①-----②-----③-----④-----⑤
6. 순천은 다른 도시보다 농업인이 잘 산다.	①-----②-----③-----④-----⑤

3-2. 귀하가 느끼는 순천시민으로서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진 술 문	매우 불만족 <---> 매우 만족
공공 만족도	1. 순천시 경제에 만족한다.	①-----②-----③-----④-----⑤
	2. 순천시 노인복지 정책에 만족한다.	①-----②-----③-----④-----⑤
	3. 순천시 청소년복지 정책에 만족한다.	①-----②-----③-----④-----⑤
	4. 순천시 공공서비스(편의시설)에 만족한다.	①-----②-----③-----④-----⑤
	5. 순천시 도시계획에 만족한다.	①-----②-----③-----④-----⑤
	6. 순천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정책에 만족한다.	①-----②-----③-----④-----⑤
	7. 순천시 생활쓰레기 정책에 만족한다.	①-----②-----③-----④-----⑤
	8. 순천 내 관광지에 만족한다.	①-----②-----③-----④-----⑤
	9. 순천 시민교육에 만족한다.	①-----②-----③-----④-----⑤
	10. 순천의 친환경 농산물(로컬푸드)에 만족한다.	①-----②-----③-----④-----⑤
개인 만족도	11. 나의 건강수준에 만족한다.	①-----②-----③-----④-----⑤
	12. 나는 지금의 학교 교육에 만족한다.	①-----②-----③-----④-----⑤
	13. 나는 순천에서 사는 삶에 만족한다.	①-----②-----③-----④-----⑤

4. 지속가능발전

4-1. 순천시 문화·관광영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생각을 표시해주시요.

진 술 문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순천은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②-----③-----④-----⑤
2. 순천의 역사문화발전을 위해 연자루를 남문다리 옛 자리로 옮겨야 한다.	①-----②-----③-----④-----⑤
3. 순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②-----③-----④-----⑤
4. 순천시민이 문화생활을 누릴 여건이 충분하다.	①-----②-----③-----④-----⑤
5. 순천시립예술단이 지역예술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6. 순천은 인근지역(여수, 광양, 고흥, 구례, 보성)에 비해 예술인들의 복지환경 여건이 좋다.	①-----②-----③-----④-----⑤
7. 순천지역 전문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①-----②-----③-----④-----⑤

4-1-1 문화분야에 투자가 필요하다면,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까요?

- | | |
|----------------------|---------------------|
| ① 문화예술시설의 개선 및 확충 | ②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및 육성 |
| ③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에 관한 지원 | ④ 문화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
| ⑤ 기타() | |

4-1-2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면 어떤 시설에 제일 관심이 있나요?

- | | |
|---------|------------------------|
| ① 시립미술관 | ② 시민문화공간(제2의 문화의 거리 등) |
| ③ 공공도서관 | ④ 공공극장 또는 공연장 |
| ⑤ 기타() | |

4-1-3 순천시의 문화관광분야 정책 중 생각하고 계시는 잘된 점이나 잘 못된 점이 있다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

4-2. 순천시 교육영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생각을 표시해주시요.

진 술 문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순천은 긴급상황 시 대비를 위한 안전교육이 잘 실시되고 있다.	①-----②-----③-----④-----⑤
2. 순천은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위생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②-----③-----④-----⑤
3. 순천은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②-----③-----④-----⑤
4. 순천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①-----②-----③-----④-----⑤
5. 순천은 양성평등의식을 위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②-----③-----④-----⑤
6. 순천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①-----②-----③-----④-----⑤

4-3. 순천시 자치영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생각을 표시해주시요.

진 술 문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순천시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①-----②-----③-----④-----⑤
2. 순천시는 주민자치 지원을 확대 할 필요 가 있다.	①-----②-----③-----④-----⑤
3. 순천시는 주민(공동체, 단체 등)과 협업(협치)을 잘 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4. 순천시는 업무 기획단계 부터 시행단계 그리고 평가단계까지 주민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5. 순천시는 주민(공동체)이 계획한 일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①-----②-----③-----④-----⑤
6. 순천시는 주민이 얻고자 하는 시와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①-----②-----③-----④-----⑤
7. 순천시는 주민자치를 위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①-----②-----③-----④-----⑤

4-4. 순천시 복지영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생각을 표시해주시요.

진 술 문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순천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잘 되어 있다.	①-----②-----③-----④-----⑤
2. 순천은 장애인 문화체육활동이 활성화 되어있다.	①-----②-----③-----④-----⑤
3. 순천은 성 평등 정책비전 및 행동계획이 잘 수립, 추진되고 있다.	①-----②-----③-----④-----⑤
4. 순천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참여여건이 부족 하다.	①-----②-----③-----④-----⑤
5. 순천은 아동의 출산과 양육환경을 잘 갖추고 있다.	①-----②-----③-----④-----⑤
6. 순천의 아동정책은 아동의 미래를 잘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7. 순천은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이다.	①-----②-----③-----④-----⑤
8. 순천은 다문화가족의 출산·보육·복지 정책을 갖추고 있다.	①-----②-----③-----④-----⑤

4-4-1 순천에서 실시하는 노인 관련 정책 중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노인일자리 정책 | ② 치매지원 정책 |
| ③ 의료지원 정책 | ④ 독거노인관리 정책 |
| ⑤ 의·식·주 지원정책 | ⑥ 기타() |

4-4-2 노인과 만성질환이 있는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진료 등록 과정 | ② 검사 및 치료 과정 |
| ③ 의사 진료과정 | ④ 의료인 및 직원의 충분한 설명력 |
| ⑤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 과정 | ⑥ 기타() |

4-4-3 순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 정보를 파악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① 보건소 홈페이지 활성화 |
| ② 순천지역 TV를 통한 일정한 시간대에 보건의료 관련 정보 제공 |
| ③ 순천시와 보건소 중심의 모바일 웹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정보제공 |
| ④ 순천시와 보건소 중심의 보건의료 플랫폼 구축 |
| ⑤ 보건소 ONE STOP CALL 센터 구축 |
| ⑥ 기타() |

4-5. 순천시 경제·산업영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생각을 표시해주십시오.

진 술 문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순천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2. 순천은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3. 순천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4. 순천은 복원력 있는 산업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5. 순천은 지속가능한 녹색소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6. 순천은 재활용품의 공공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7. 순천은 소득의 양극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①-----②-----③-----④-----⑤
8. 순천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4-6. 순천시 농업영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생각을 표시해주십시오.

진 술 문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순천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2. 순천은 농업인이 적절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3. 순천은 농업인의 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①-----②-----③-----④-----⑤
4. 순천은 농촌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5. 순천은 농촌이주민과 기존 주민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①-----②-----③-----④-----⑤
6. 순천은 농촌지역의 다문화 이주민의 적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7. 순천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8. 순천은 농가들의 농업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않다 .	①-----②-----③-----④-----⑤
9. 순천은 농촌인구 노령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10. 순천은 농촌사회의 전통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①-----②-----③-----④-----⑤

4-6-1 순천시 농업·농촌 부분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농촌 주거 조건 개선 정책 | ② 농업 소득 개선 정책 |
| ③ 농업인의 의료 조건 개선 정책 | ④ 농촌 인구 유입 지원 정책 |
| ⑤ 신규 농업인의 창업 지원 정책 | ⑥ 농촌 환경 보호 정책 |
| ⑦ 농촌 지역 산업 유치 정책 | ⑧ 농촌 생활권 단위 지역 개발 정책 |
| ⑨ 농업의 융복합화 지원 정책 | ⑩ 노령농가의 은퇴 지원 정책 |
| ⑪ 우수 농가의 농지 확대 지원 정책 | ⑫ 마을 단위 기업 지원 정책 |
| ⑬ 마을 공동체 형성 지원 정책 | ⑭ 기타의견() |

4-7. 순천시 도시·교통·환경영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생각을 표시해주십시오.

진 술 문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힘쓰는 편이다.	①-----②-----③-----④-----⑤
2. 순천만의 생태환경은 좋아지고 있다.	①-----②-----③-----④-----⑤
3. 순천시는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도시이다.	①-----②-----③-----④-----⑤
4. 순천시의 '순천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대해 알고 있다.	①-----②-----③-----④-----⑤
5. 순천시는 지역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6. 순천시는 하천수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7. 순천은 공원이 많아지고 있다.	①-----②-----③-----④-----⑤

4-7-1 순천시의 도시·교통·환경 정책 중 생각하고 계시는 잘된 점이나 잘 못된 점이 있다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

5. 기본항목

성별	연령	직업
① 여성 ② 남성	① 20세 미만 ② 20세~29세 ③ 30세~39세 ④ 40세~49세 ⑤ 50세~59세 ⑥ 60세 이상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종사자 (□ 농업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 노무종사자 ⑩ 군인 ⑪ 주부 ⑫ 학생 ⑬ 무직 ⑭ 기타()
최종학력	□초졸 □중졸 □대졸이상 □석사	□고졸 □전문대졸 □대학재학(중퇴) □박사
순천시 거주기간	()년	거주지 ()읍·면·동
주택형태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 주택 □기타	
주택소유 여 부	□자가 □임대	세대구성원 □세대주 □구성원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기관 :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설문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주세요.

061)742-5000, e-mail : greensc21@hanmail.net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6년 창립 이후 1997년부터 지속가능한 순천을 만들기 위하여 의제를 작성하고 5년마다 평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에 따라 순천시의 2030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번 목표 '인권·정의·평화'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할 수는 있는 '남북협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의제 작성 전, 순천시민들의 생각과 고민을 찾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항목	성별	연령
해당되는 문항에 ✓ 표시 해주세요	① 여성 ② 남성	① 20세 미만 ② 20세~29세 ③ 30세~39세 ④ 40세~49세 ⑤ 50세~59세 ⑥ 60세 이상

☐ 통일 및 북한관련 관심도(선택형)

번호	설문 문항	
1	통일 및 북한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② 관심이 있는 편이다. ③ 관심이 없는 편이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2	통일 및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① 학교 수업이나 교과서, 참고서적 ② TV/라디오 ③ 인터넷 ④ 신문/잡지 ⑤ 부모/친구 등 주변사람 ⑥ 정부의 홍보물(책자, 포스터 등) ⑦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홍보 ⑧ 소셜미디어(SNS) ⑨ 기타()

번호	설문 문항	
3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문3-1번으로 ② 대체로 필요하다.  문3-1번으로 ③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문3-2번으로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3-2번으로
3-1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3번에서 ①②번 응답자만)	① 군사비 등 분단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② 역사적으로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③ 전쟁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④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⑤ 우리나라의 국력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⑥ 북한의 여러 관광지들을 가볼 수 있어서 ⑦ 일자리가 늘어나 나의 취업 기회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⑧ 북한에 자원이 많아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⑨ 기타()
3-2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3번에서 ③④번 응답자만)	①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커서 ② 언어, 문화적 차이 등 하나의 민족이란 느낌이 들지 않아서 ③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④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갈등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 질 것 같아서 ⑤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⑥ 기타()
4	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핵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②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③ 남북한 문화적 차이/갈등 ④ 주변 국가들의 경계 ⑤ 국민들 사이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식부족 ⑥ 기타()
5	통일과 남북협력을 위해 지금 우선적으로 준비해야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을 대비한 기금 마련 ②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증진 활동 ③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④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⑤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경제교류와 협력 ⑥ 기타()

번호	설문 문항	
6	우리시와 이름이 같은 순천시와 북한 평안남 도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몰랐다
7	통일이 되면 꼭 해 보고 싶은 것은 무 엇입니까?	① 기차타고 떠나는 북한, 중국, 러시아, 유럽여행 ② 북한의 역사·문화·자연 명소탐방 ③ 북한의 맛집 탐방 ④ 본인 또는 부모님의 고향방문 ⑤ 한반도 도보 여행 ⑥ 기타()
8	본인이 생각하기에 통 일은 언제쯤 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① 5년 이내 ② 10년 이내 ③ 20년 이내 ④ 20년 이상 ⑥ 기타()

☐ 통일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우리시 또는 시민의 활동으로 제안할 것이 있으면 적어
주세요(서술형)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기관 :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설문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주세요.
 061)742-5000, E-mail : greensc21@hanmail.net

순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수정보고서

발 행 일	2021. 12.
발 행 처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화번호	061-742-5000
홈페이지	www.greencity.or.kr
주 소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순천시청 4층